

천주교 정체 파악 시리즈 ❶

천주교에도 진리가 있는가?

-천주교의 연옥, 성화상(우상), 성체, 구원의
전말(顛末)-

(부록 마리아와 프리메이슨의 결전 예언)

김진원 지음

거짓된 교황주의의 허황(虛荒)한 교리들

도서출판 경건

천주교 정체 파악 시리즈 ❶

천주교에도 진리가 있는가?

-천주교의 연옥, 성화상(우상), 성체, 구원의
전말(顛末)-

천주교 정체 파악 시리즈 ❶

천주교에도 진리가 있는가?

-천주교의 연옥, 성화상(우상), 성체, 구원의
전말(顛末)-

도서출판 경건

김진원

지은이 소개

칼빈신학교 2학년 수료

한남신학교 졸업

장로회 신학대학교 목회교육원 졸업

대한 예수교 장로회 목사계속교육원 수료

(전) 선거, 학암, 치상, 오류, 성수, 여울,
이백, 융합교회, 전주노회 전도목사 시무.

(현) 전주노회 공로목사

천주교에도 진리가 있는가 ?

지은이/ 김진원

발행일/ 2014년 6월 15일

발행처/ 도서출판 경건

발행인/ 한인수

등록/ 1995년 9월 6일 제22-912호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55-5

서초월드오피스텔 1910호

우편번호/ 137-072

전화팩스/ 02) 3472-3952, 063)236-3020

값 12,000 원

ISBN 978-89-86558-66-1 03230

연락처 77jwg33@hanmail.net

본서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창작물이므로 무단복제와
무단전재를 금합니다.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추천사

오늘날 로마천주교의 실제적인 위협은 대단히 큰 문제다. 그러나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와 사실적인 문제 제기는 너무나 희박하고 무지한 실정이라 안타깝다.

그러나 참된 인간의 올바른 지성과 양심으로 들여다봐도 로마천주교는 인류와 사회에 결코 정당한 유익을 줄 수 없는 종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로마천주교가 이제는 참된 기독교회에 큰 대적이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한국교회가 교회연합운동의 중요한 활동으로 로마천주교와도 깊은 연합활동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천주교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본서는 그런 문제를 다룬 책으로 이제까지 한국에서 출간된 천주교에 대한 다양한 비판 서적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천주교라는 종교의 토대부터 그것으로부터 드러난 다양한 종교적 현상까지 본서는 명확하게 잘 정리해 놓았다.

그러므로 모든 개신교 목회자들과 신학도들과 일반 신도들은 본서를 필독하되 정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진리를 바르게 알고 가르치는 것과 함께 거짓 종교의 실체를 잘 알고 경고하는 것도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사회는 로마천주교가 얼마나 큰 위협을 몰고 오는 종교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 본서가 중요하다.

저자이신 김진원 목사님께서 오랜 수고와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천주교의 뿌리부터 그 사악한 열매까지 다 드러낸 본서는 모든 이들

에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책이다. 이제 이 책으로 주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리라 믿는다. 또한 종교 개혁자들의 교회개혁의 불을 크게 밝히리라 여겨진다.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 요한 계시록 18장 10절 -

선민개혁장로교회,
밴드 오브 퓨리탄스 대표
오인용 목사

목 차

추천사	5
서언	9

제1장 연옥은 과연 실재하는가? 17

1. 연옥의 정의, 제정과 내용 이를 피하는 방법 18 / 2.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한 사람의 폭로 23 / 3. 연옥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세 가지 실화 23 / 4. 한 개종한 신부의 고백 25 / 5. 연옥교리는 거대한 사기극이고 엄청난 공갈이다 26 / 6. 교황과 사제들은 왜 무료로 연옥영혼을 구하지 않는가? 26 / 7. 연옥 영혼을 위한 미사는 엄청난 농간이며 사기극이다 27 / 8. 연옥 교리의 부당성(不當性) 29 / 9. 연옥교리의 모순들 42 / 10. 연옥교리의 해악(害惡)성 79

제2장 성화상(우상)들은 누구를 위하여 만들었는가? 82

1. 천주교가 우상숭배를 하게 된 간략한 경위 83 / 2. 명확한 제2계명에 대한 범죄 89 / 3. 천주교 예배의 세 가지 종류와 예배라는 용어의 차이 96 / 4. 성화상 공경은 명백한 우상숭배행위이다. 102 / 5. 천주교의 상표와 같이 된 우상들 104 / 6.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추상(秋霜)같은 경고의 말씀들 105

제3장 허황(虛荒)한 실체변화를 왜 그렇게 고집하는가? 108

1. 신부님이 독약이 든 성체(捰)에게서 도망치다. 109 / 2. 변화된 성체를 입 안으로 모실 때에... 111 / 3. 개종한 신부들의 미사제사에 대한 고백 114 / 4. 미사제사와 성체에 대한 진실 118 / 5. 성체에 대한 기발(奇拔)한 발상(發想)들 133 / 6. 성체 사상의 신기(神奇)한 발전 140 / 7. 미혹에 대한 경고 156

제4장 천주교의 구원은 신기루가 아닌가? 158

1. 천주교의 성사와 성체 의식과 행위, 선행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159 / 2. 완전히 잘못된 구원의 기초(교리) 163 / 3. 천주교에서 실제로 구원받는다는 인위적인 6과정(단계)의 중대한 과오 177 / 4. 천주교의 인위적인 사제주의 구원론 196 / 5. 천주교의 근본적인 구원관인 세례구원과 성찬구원관의 치명적인 오류 201 / 6. 개독교회의 천주교 구원관 비판 205 / 7. 천주교의 구원받는 길의 혼합성 214 / 8. 천주교 구원의 신기루성(공중누각) 215 / 9. 개종한 신부들의 진지한 고백 217

부록 235

최근에 마리아가 전한 충격적인 메시지들 236
(마리아와 프리메이슨의 결전 예언)
존 밀턴의 애도 시 285

서 언

필자는 원래 천주교에 대하여 많은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일생을 독신으로 온전히 헌신하여 봉사하는 신부들과 수도사들과 수녀들에 대해서는 같은 인간으로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바라보아 왔다. 지금도 그런 마음은 변함이 없다 그들의 정숙하고 단정한 모습과 천주교의 단일체제로서의 일사불란함과 엄숙한 미사광경 등은 인간적인 감동을 주었다.

그런데 우연히 천주교의 역사와 교리를 연구하면서 이러한 천주교에 대한 아름다운 인상과 호감이 불행하게도 깨어지기 시작했고 마침내는 산산 조각이 나고 말았다. 진실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필자는 고의로 천주교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하지 않았다. 우연히 천주교에 대한 책 몇 권을 읽으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 그동안 천주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별 관심 없이 지내 왔지만 이제는 모르는 척 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천주교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면서 연구하기 시작 하였다. 몇 년 동안 느리게 연구하며 글을 쓰게 되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천주교에 대하여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그 비 성경적인 어처구니없는 교리들과 역사적인 탈선들과 비기독교적인 의식과 행태들을 볼 때에 도저히 잠잠할 수가 없다.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눅 19: 40)하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의 돌이 되어 소리치기로 하였다.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던 다윗이 골

리앗 앞에 물맷돌을 던진 심정으로(삼상 17: 41-54) 펜을 들어 보았다.

필자는 감히 이런 글을 쓰면서 통탄(痛歎)과 애석(哀惜)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만약 천주교의 중요한 교리가 성서와 일치하고 지엽적인 문제들만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하면 이런 고생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기쁘게 연합해서 힘을 합하여 복음을 전하고 서로 협력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천주교는 매우 안타깝게도 16세기의 종교개혁 시에라도 신앙 양심이 조금만 살아있었으면 회개하고 돌이켰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종교 개혁의 와중에서 개최한 트렌트 공의회는 정통 기독교와 완전히 담을 쌓고 다시 건널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너고 말았다. 기독교를 완전히 변종시키고 기독교와 결별하고 말았다.

도리어 그들은 끝내 추호도 회개가 없었고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개혁자들과 그들과 합세하는 양심적인 무수한 신앙인들을 온갖 방법으로 탄압하고 무참하게 살육하는 것을 즐겨 자행(恣行)하였다. 그리고 5백여 년이 지난 최근까지도 그들의 그릇된 교리들은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추가 되었고 악화되어 오고 있다. 그러므로 천주교를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는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며 일반 사제들이나 수사나 수녀들과 평신도들은 오히려 피해자요 억울한 희생양들이니 더욱 저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플 따름이다. 그러므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루속히 가련한 희생양들을 교권을 쥔 잘못된 지배자들의 손에서 해방(구원)시켜주시기를 간곡하게 기도드린다.

그러나 천주교가 기독교에서 완전히 전락 하였으면서도 정통 기독교

교 행세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서 천주교만이 참 기독교이고 자기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으로 혹 세무민(惑世誣民)하고 있으니 늦었지만 돌들이라도 소리쳐서 그 거짓을 밝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기독교에서 완전히 변종된 천주교에 대하여 양심 있는 다소의 비판서들이 나왔으나 좀 더 자세한 글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므로 부득이 주님만 의지하여 붓을 들어 보았다. 못다한 복음사명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미력을 기울여 본 것이다.

본서에서는 먼저 천주교의 거짓된 정체를 가능한대로 들춰내어서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하여 보았다. 부디 독자 여러분이 천주교의 허황한 정체를 바르게 분별하여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그 허상에 속지 않고 그 참 정체를 세상에 알려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천주교에 대해 굳이 비판할 필요가 있는가?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본서를 쓰면서 필자에게 말씀하신 몇 분의 충언은 본인이 애당초부터 생각했던 바와 같이 매우 뼈아픈 것이었다. 현재 한국 기독교회만 보더라도 그 타락의 도가 실로 심각한데 어떻게 천주교를 비판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내 코도 석자인데 어떻게 남 간섭을 하겠느냐는 말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은 깊이 동감하면서도 천주교가 역사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정통 기독교에서 완전히 이탈 하였으면 서도 태연하게 자기들만이 정통 기독교이며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기만 때문에 도저히 침묵할 수가 없어서 부득불 필을 들게 되었

다. 무엇보다 통탄할 일은 천주교가 기독교의 이름으로 자행한 해아릴 수 없는 살상행위들과 이단 척결의 미명으로 어느 종교나 어느 집단에서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공산당 다음가는) 살육을 자행했다는 엄연한 기록들을 보면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그러면서도 일치운동이니 에큐메니칼 운동이니 하면서 정통적이고 복음적인 기독교를 통째로 삼켜서 제2의 암흑세계(중세)를 만들려는 저들의 간계(奸計)를 볼 때에 더욱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본서의 기록목적

본서는 천주교의 교리들을 일일이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그릇된 중요 교리들의 근본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점들을 측면에서 폭로하여 알리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밝혀드린다.

천주교의 교리들과 의식들의 정체는 허상(虛像)이다. 신기루와 같은 허상들을 걷어내고 남는 정체는 거짓(기만)과 무(無)뿐이다. 이러한 헛된 사상누각과 공중누각을 믿고 추종하는 교도들의 실망과 불행은 어떻게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천주교의 정체가 거짓(가짜)교회라는 말은 천주교의 대명사와 같이 보인다.

본서는 1장에서 8장까지에서 거짓 교회로서의 천주교의 거짓된 여러 가지 정체의 측면들을 기술하였다.

<시리즈 ❶>에서는 제1장 거짓 연옥, 제2장 거짓 성 화상(우상), 제3장 거짓 성찬(미사), 제4장 거짓 구원 그리고 <부록>으로 마리아의 충격적인 종말 사계시(마리아와 프리메이슨의 최후 결전)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시리즈 ②>에서는 제5장에서 성령을 떠난 천주교의 다른 영의 역사에 대하여 주의 깊게 살피고, 제6장에서도 거짓 마리아에 대하여 좀 더 접근하여 살펴보았다

<시리즈 ③>에서는 제7장에서 거짓교회인 천주교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하게 살펴보았고, 제8장에서 천주교와 기독교의 연합운동 문제를 좀 더 철저하게 추적하여 보았다. 이것도 거짓 연합(야합)운동이다 이상과 같은 천주교의 핵심적인 문제들을 좀 더 직선적이며 간략하게 다루어 보았다. 그리고 거짓교회의 불행한 종말에 대해서도 예측하여 보았다 원래 한권으로 썼는데 예상외로 분량이 많아져서 부득이 세 권으로 출판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기 바란다.

오늘날은 세계적으로 천주교만이 정통 기독교 인양 미화되고 선전되는 경향이 날로 확산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한국만 보아도 사회의 거의 모든 언론 매체들이 정통 기독교 사냥에 총동원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16세기와 같이 21세기에도 천주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기독교의 사활(死活)이 달린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21세기에도 여전히 천주교를 정통 기독교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수십 권의 책으로도 부족할 줄 안다. 그러나 정면으로 천주교의 완곡(婉曲)하고 위장된 교리들을 일일이 들어서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그들의 크게 잘못된 교리들을 측면에서 핵심을 꼬집어 내어서 실제적으로 간략하게 밝히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본서에서는 먼저 천주교의 정체가 정통 기독교가 아니며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양한 측면의 실제적인 문제를 들어가면서

폭로하여 알리려고 하였다. 그리고 일찍이 거의 시도된 적이 없는 천주교의 불행한 최후에 대해서 가능한대로 기술하여 보았다. 이 사실은 성경의 예언과 천주교 내부의 예언들과 현재 천주교내외의 국제정치 상황에 근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다.

기독교 내부의 탈선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많은 분들의 질책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본인은 우선 시급한 이 외부의 공격에 대하여 방어하지 않을 수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필을 들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기도를 삼가 부탁드립니다.

본서가 빛을 보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도움과 격려가 있었다.

먼저 이 적은 글이 나오기까지 제일 부족한 종중의 종을 일평생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아버님의 각별하신 은혜가 없었다면 이 글은 결코 성취될 수 없었다고 진실로 고백 한다.

무엇보다 그동안 곁에서 지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보살펴주신 전주노회와 전북노회의 모든 선후배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항상 감사를 드리며 주사랑 목양회의 목사님 내외분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 특히 많은 지도와 조언과 격려와 도움을 주신 한인수 교수님, 유태주 교수님, 그리고 송화섭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원고의 타이핑과 교정을 위하여 분주한 시간을 쪼개어 많이 수고해 주신 우리교회의 여러 자매들과 형제에게 심심한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더욱이 바쁘신 중에도 본서를 꼼꼼히 정독해 주시고 귀중한 「추천서」를 써주신 도서출판 《밴드 오브 퓨리탄스》대표 오인용 목사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무엇보다 줄고의 출판을 흔쾌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모로 수고하여 주신 도서출판 《경건》의 한인수 목사님과 박정희 전도사님께 더욱 큰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그리고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말없이 일생을 희생해준 아내와 물심으로 협력해 준 사랑하는 딸 아들과 사위 며느리 손자들에게 진정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주후 2014년 5월

김진원 목사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 5:18)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 24:35)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
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
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벧전 1:24-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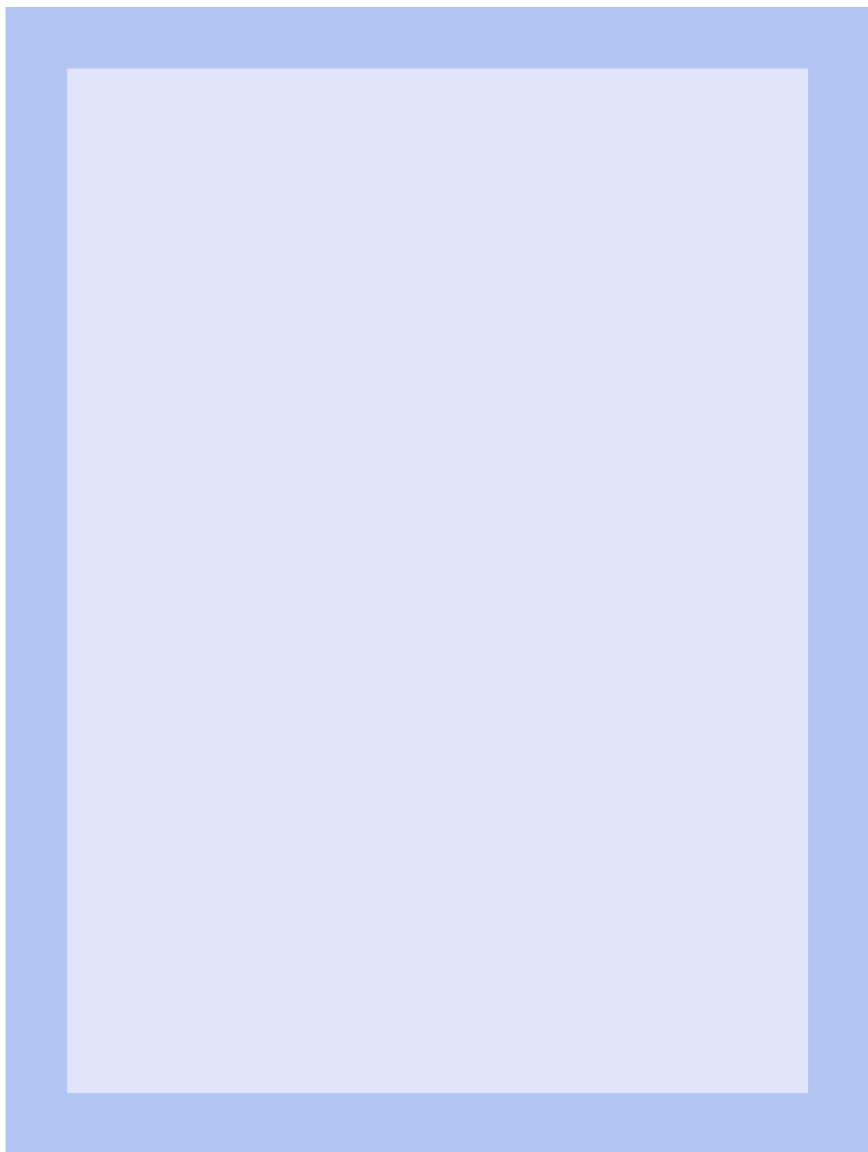


세상은 참으로 위험한 곳이다. 그것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이
아니라 악을 보고도 방관하는 자들 때문에 더욱 위험한 곳이다.

- 아인 슈타인 -

선한 사람들이 침묵을 지킬 때 악은 만연한다

- 매튜 헨리 -



제 1 장

연옥은 과연 실재 하는가?



천주교에서 연옥교리는 13세기에 공식선언 되어 상당히 늦게 제정된 교리이다. 그렇지만 그 이후 천주교에서 이 연옥교리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였다. 이 교리는 실제적으로 교도들의 신앙에 여유를 추가하여 주었고 반면에 천주교의 운영과 발전에 특히 재정적으로 막대한 이득을 안겨다 주었다.

1. 연옥의 정의, 제정과 내용, 이를 피하는 방법

(1) 연옥에 대한 정의

천주교주교회의의 신앙교리위원회에서 편찬한 「죽음·심판·지옥·천국」에서는 연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천주교는 영원한 구원(천국)에 이르기 위해 거쳐야하는 정화(淨化)를 연옥(煉獄)이라고 부른다. 연옥(煉獄)이라는 한자는 '불의 감옥'이란 뜻인데 여기서 불은 정화(淨化)를 의미한다. 본래 '연옥'은 라틴어 '푸르가토리움'(Purgatorium)을 번역한 것으로서, '정화하는 일,' '정화사건,' '정화를 의미한다.¹⁾

이 정의는 먼저 연옥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라틴어로는 정화하는 일, 정화사건, 정화라는 것이며 이는 연옥이란 단순히 죄를 깨끗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한자로는 '불의 감옥'이라는 뜻으로 죄를 깨끗하게 하는 곳이라는 의미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죄를 깨끗하게 하는 연옥이란 천주교인들이 천국에 가기위해서 거쳐야하는 장소라고 정의하고 있다.

1) 주교회의의 신앙교리위원회, 『죽음·심판·지옥·천국』, (서울 : 한국천주교주교협의회, 2013), p. 38.



(2) 연옥교리의 제정과 내용

천주교에서는 연옥에 대한 사상(신앙)이 점차로 발전 되어 오다가 1274년 제2차 리옹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선언되었다. 죄가 완전히 정화되지 못한 천주교인은 죽어서 연옥이라고 하는 정화의 장소를 거쳐서 죄가 다 정화된 다음에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쳐 왔다. 이 공의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선언 하였다.

세례를 받은 후에 죄를 짓는 사람은...참된 통회를 통해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 그러나 자신들이 저지른 죄와 게으름과 같은 잘못들에 대한 보속을 완전히 끝내기 전에 참된 참회의 지향을 지닌 은총의 상태에서 세상을 떠난다면 사후에 속죄의 형벌을 치름으로써 그들의 영혼은 정화될 것이다. 이러한 형벌은 살아있는 신자들의 도움을 통해 경감될 수 있으며, 이러한 조력행위 (대원代願)의 예로서 미사성제 기도 회사 그리고 교회설립에 도움이 되는 그 밖의 자선행위 등을 들 수 있다.2)

이 리옹 공의회가 연옥에 대해 선언한 내용은 이에 대하여 잘 알려주고 있다.

1) 연옥은 누가 들어가는가?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은 후에 죄를 지은 사람이 신부에게 통회(고해성사)하여 일단 죄 용서를 받은 사람, 그러나 신부가 부과한 보속(補贖)(죄의 대가를 치르는 일)을 완전히 끝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간다

2) 이러한 사람은 연옥에 들어가서 속죄의 형벌을 치름으로써 그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정화되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지옥

2) 페르디난트 홀비크, 『연 옥』, 남현옥 옮김, (서울 : 가톨릭 출판사, 2005), p. 18. 재인용.



불과 같은 연옥불의 형벌을 일정한 기간동안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옥불의 형벌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모른다. 주로 엄청난 기간으로 추산하고 있다.)

3) 그런데 참으로 천만 다행인 것은 이 사람의 연옥형벌은 세상에 살아있는 신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경감(輕減)될 수 있다는 것이다.

4) 그리고 세상 신자들이 연옥영혼을 하루라도 속히 그곳에서 나오게 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력행위로서 가능하다고 한다. 예를 들면 미사성제(그 영혼을 위해 신부를 통하여 미사제사를 드리는 것: 위령미사라고 함), 기도, 회사 그리고 교회설립(성당건축)에 도움이 되는 일(헌금), 그 밖의 자선행위 등을 들 수 있다고 하였다.

연옥에 대하여 역사상 최초로 인정하고 선언한 제2차 리옹 공의회
의 공식적인 선언 내용은 연옥과 거기에 수반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잘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런데 이 연옥 교리는 천주교 역사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하여왔다. '천주교하면' 연옥이 먼저 떠오르고, 세례 받은 천주교인은 일단 지옥은 면하게 되지만 대신에 연옥이라고 하는 죄를 정화하는 불이 타는 곳에 거의 들어가서 세상의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 도움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주교인의 한 평생에 가장 중요한 일은 죽은 가족들을 연옥 불에서 구출하여 천국에 보내는 일이 되었다.

죽은 가족이 지옥불과 같은 연옥 불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그 누가 재물을 아끼겠는가? 중세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천주교인들은 죽은 가족들을 연옥에서 건져내어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온 가족이 정성을 다 기울였다 그런데 이 가족을 연옥에서 구출하기 위하여서는 여러 가지 방법(기도들과 성사



참여와 회개와 고행등등)이 있지만 그래도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봉헌금을 드려서 미사(제사)를 드려주는 것이고(자주 많을수록 더 좋다) 또 성당건축 봉헌금과 미사와 자선을 많이 드리는 것이라고 하니 말이다.

(3) 연옥을 피하는 방법

폴 O' 셀리반 신부는 그의 저서 「연옥을 피하는 방법」에서 다음과 같이 연옥의 영혼을 돕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봉헌금은 연옥 영혼을 돕는다

<마음 다짐>

1. 여건이 닿는 대로 많은 봉헌을 하자
2. 가능한 한 많은 미사성제를 봉헌하자
3. 가능한 한 많은 미사성제에 참여하자
4. 우리의 모든 고통과 수고를 연옥 영혼의 구원을 위해 바치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셀 수없이 많은 연옥 영혼들을 구원 할 수 있다. 그렇게 구원된 영혼들은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수천 배나 더 기도를 해 줄 것이다.³⁾

이 신부가 여기에서 연옥영혼을 돕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들 중에 1, 2 두 가지는 직접 돈을 많이 드려야 하는 것이고 3, 4 두 가지는 간접적으로 역시 돈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연옥에 간 가족이나 친지를 석방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천주교 성당에서의 연(煉)미사(위령미사)는 기일 미사 장례 미사,

3) 폴 O' 셀리반, 『연옥을 피하는 방법』, 도회주 옮김, (서울 : 성요셉출판사, 2004), pp. 64-65.



보통 미사 등이 있는데 그때마다 미사예물(봉헌금)과 함께 사제에게 미사 봉헌 신청을 해야 한다.⁴⁾

중세에 있었던 연옥에서 구원받는 한 가지 특별한 예를 들면 갈멜 산에 발현한 마리아가 갈색 스카폴라(소매 없이 수도복 위에 양 어깨에서 앞뒤로 밑으로 내려뜨려 입는 수도자 복)를 입는 자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한 것이다. 첫째는 1251년에 약속한 것으로 “이 스카폴라를 착용한 채 죽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 벌을 면하게 될 것이다.” 둘째는 1322년에 약속한 것으로 “은총의 성모인 나는 그들(스카폴라를 착용한 자들)의 사후 토요일에 내려와서 누구라도 스카폴라를 착용한 이가 연옥에 있다면, 그를 구원 하겠다.”⁵⁾고 하였다, 이 둘째 것은 교황 요한 22세가 칙령으로 선포한 것으로 발현 마리아의 이름으로 현재(1986년)에도 가르멜 산의 은총의 성 마리아의 단체(스카폴라 협회)에 가입을 시키므로 이세상과 지옥과 연옥에서의 구원을 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⁶⁾

이상으로 간략하게 천주교에서 연옥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중한지를 엿보았다. 그리고 연옥 영혼을 도와서 거기에서 피하여 나오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의 실례들을 보았다. 사실 연옥의 존재가 확실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연옥에 간 가족을 구원 할 수만 있다면 그 누가 자기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천주교의 긴 역사에는 연옥의 가족들을 구원하기위해서 엄청난 헌금이 몰려들었고 심지어 자신들은 굶주리고 가난하게 살면서도 거대한 성당들을 짓고 성직자들이 치부하게 하였다고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천주교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이 연옥교

4) 최형락, 『천주교 용어 사전』, (서울 : 도서출판 작은예수, 2006), p. 356.

5) 폴 O' 셀리반, 『연옥을 피하는 방법』, 도희주 옮김, (서울 : 성요셉출판사, 2004), pp. 66-67.

6) 같은 책, pp. 66-71.



리는 우리가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한 사람의 폭로

천주교 사제들은 어떤 영혼이 연옥에서 놓여 천국으로 들어가는 일시를 아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한 개종자는 그것을 연옥교리에 관한 사제들의 직분남용이며, 그것 때문에 자신도 천주교에서 나왔다고 한다. 그는 이런 말을 하였다.

그가 다니던 성당에서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가 죽은 지 46년이 되어도 사제는 계속 그 미망인에게 연옥납편의 구출을 위하여 미사를 드리게 돈을 요구했다. 그리고 후임 사제들도 계속 그렇게 돈을 요구했으나 그들은 결코 그 납편을 연옥에서 구출하지 않았고, 46년이 지난 후에도 그들은 순 거짓주장을 하면서 돈을 짜내고 있었다고 하였다.

3. 연옥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세 가지 실화

랄프 우드로우는 그의 책 「로마카톨릭주의의 정체」에서 연옥에서 영혼을 구원하기위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실화를 들려주고 있다

(1) 대 미사(high mass)는 꽃들과 촛불들과 참여하는 사제들의 수에 따라 매우 값이 비싸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미사에서는 큰 소리로 노래한다

7) 로레인 비트너, 『로마카톨릭사상평가』, 이송훈 역. (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pp. 310-311.



이와는 반면에 소미사(low mass)는 오직 여섯 개 촛불만 사용하고 낮은 목소리로 반복하므로 훨씬 더 싸다 그래서 아일랜드인에게 “거액의 돈 「대 미사」, 적은 돈 「소미사」 돈이 없으면 「미사도 없다」라는 말이 전해오고 있다.

(2) 자기 자신들을 위한 미사에 돈을 내지 않고 죽은 자를 ‘연옥에서도 잊혀진 영혼들’이라 부른다. 단지 11월 2일 ‘모든 영혼들의 날(All Souls Day)’에 올리는 특별기도에서 이들이 기억될 뿐이다 카톨릭 교인이 ‘잊혀진 영혼들 중’의 한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한다면 1856년에 결성된 ‘연옥협회’에 가입하면 된다. 이 협회에 매년 회사금을 내면 죽더라도 자기 영혼을 위하여 기도를 올릴 것이고 보증해 줄 것이다.

(3) 세계 제 2차 대전 때 위니페그(Winnipeg)의 대주교는 1944년 3월 1일자 편지에서 로마 가톨릭 어머니들에게 아들들을 위한 기도와 미사를 위해 40불을 지불하면 연옥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을 보증한다고 역설하였다.⁸⁾

위령미사를 청구하면서 바치는 봉헌금의 액수에 의하여 미사의 이름과 미사의 규모가 바뀐다는 이야기는 미사가 얼마나 상업화되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실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돈이 없으면 미사도 없다’는 말은 참으로 슬프고 마음 아리기 짝이 없다

죽을 때 연옥에서 구원해 달라는 미사를 드려달라고 헌금을 예금하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연옥에서도 잊혀진 영혼들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을 때 가능한 대로 많은 돈을 모아서 성당에 예금조로 바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는 아들들을 기도와 미사로 연옥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40불을 바치면 그들의 구원을 보증한다는 주교의

8) 랄프 우드로우, 『로마카톨릭주의의 정체』, 편집부 역. (서울 : 노아와 방주, 1997. 1판 7쇄.) pp. 128-129.



서신은 전쟁의 참화 중에서도 그들의 야비한 상흔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4. 한 개종한 신부의 고백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태어난 요셉 자켈로 전직 신부는 자신이 직접 신부로 재직하면서 경험한 사실을 토대로 연옥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미사라고 부르는 20분짜리 행사를 위해서 매일 5달러에서 30달러까지 내게 갖다 바쳤다. 그렇게 하면 친족들의 영혼을 연옥의 불에서 구출한다는 약속 때문이었다. 하지만 제단 위에 걸려 있는 커다란 십자가상을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께서 다음과 같은 말로 나를 꾸짖으시는 것 같았다 너는 거짓 약속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로 도둑질을 하고 있구나. 너는 내 가르침을 거스르는 교리들을 가르치고 있구나. 신자들의 영혼들은 고통의 장소로 가지 않는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 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타름이라’(계 14:13)⁹⁾

그는 기독교로 개종하여서 천주교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는데 자신이 신부로서 행했던 부끄러운 과거를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 친족들의 영혼을 연옥 불에서 구출하기 위하여 가난한 신자들이 매일 미사에 자신에게 바치는 돈을 받으면서 주님께

9) 리처드베넷·마틴 버킹엄, 『교황대신 예수를 선택한 49인의 신부들』, 이길상 옮김, (서울 : 아가페출판사, 2002), p. 222.



받은 책망을 고백하고 있다

돈으로 미사를 파는 행위에 양심의 가책을 받은 이 신부의 고백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진정한 신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우리는 조작된 연옥설을 우리에게서 영원히 사라지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5. 연옥교리는 거대한 사기극이고 엄청난 공갈이다

로레인 뵈트너는 그의 저서 「로마가톨릭사상평가」에서 연옥교리에 대하여 '엄청난 사기극이며 심지어 엄청난 공갈이라고 맹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가난한 자들과 부자들이 가진 것의 거의를 빼앗기고 헛되이 엄청난 돈을 강탈당하기도 하고 토지와 재산을 교회에 바쳐서 교회들은 각 나라에서 가장 많은 토지의 소유주가 되었다고 한다. 천주교가 각 나라 땅의 절반과 부자들의 재산의 1/3을 차지한 부자가 되고 거대한 대 성당과 주교관을 지어 그 부를 과시하며 호화롭게 살았다¹⁰⁾고 고발하고 있다 이 짧은 글에서 미루어 우리는 천주교의 부와 재산축적의 원천이 바로 이 연옥교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6. 교황과 사제들은 왜 무료로 연옥영혼을 구하지 않는가?

10) 로레인 뵈트너, 『로마가톨릭사상평가』, 이송훈 역. (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p. 310.



비트너는 계속해서 교황과 사제들을 성토(聲討)하고 있다. 교황과 사제들이 미사를 드려서 연옥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해 낼 수 있는 권능을 가졌다면 어찌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로 그들에게 값을 받지 않고 구해주지 않는다는 말인가? 이는 분명히 기독교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비록 강아지 한 마리라도 불속에 있으면 돈을 받지 않고도 당장에 끄집어 내 줄 터인데 하물며 천하보다 귀한 인간의 영혼을 그런 불구덩이의 고통에서 돈을 받아야만 미사를 드려 준다는 것은 너무 잔인한 행위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비트너는 영혼이 연옥 불에서 풀려나기 전에 꼭 돈을 바쳐서 미사를 드려야 된다고나 심지어는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돈을 내서 미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연옥교리의 사악한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연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다 천국으로 가고 연옥이 텅 비게 되면 성직자들이 돈을 받을 기회가 없어진다¹¹⁾고 하였다. 그러면 천주교의 주 수입원을 상실하게 되지 않겠는가?

7. 연옥 영혼을 위한 미사는 엄청난 농간이며 사기극이다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추적하고 있다.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미사를 드리는 것은 거짓 구실로 돈을 우려내는 엄청난 농간(弄奸)이며 사기극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있지도 않는 연옥에서 사람들을 구출한다고 하기 때문이다.

11) 같은 책. 309



돈을 받기 위해서 법을 교묘히 다루는 판사나 뇌물을 요구하는 경찰관은 신뢰하지 않는 다 하물며 성경에도 없으며 성경의 가르침에도 어긋나는 연옥을 교묘하게 가르치는 사제들을 믿어야하는가? 이러한 사상은 거짓이고 사람들을 사제들의 권세아래에 가둬두며 가능한한 속속들이 그들의 생활과 재산을 통제하기 위한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조작된 것이라¹²⁾고 고발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천주교의 이 엄청난 농간과 사기극에 빠져들지 않도록 사람들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1~7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제기(提起)한다.

(1)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면죄부 판매는 연옥영혼들을 구출하기위한 명분으로 신자들을 갈취한 금전거래의 표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연옥교리는 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제기하게 되는 것이다.

(2) 그리고 이상의 비판들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영혼의 연옥 체류(滯留)기간을 밝힐 수 없다는 점이다. 천국과 지옥의 체류기간은 ‘영원하다’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천주교가 진정한 정경에도 없는데 자체개발한 연옥교리에는 체류(잔여)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평생, 아니 영원히 그 영혼의 구출을 위해서 대를 이어 금전거래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과연 거룩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연옥을 천주교가 위조했다는 강한 비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3) 간혹 어떤 사람의 사적(私的)계시로 잔여기간이 알려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들이 주장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이며 주관적

12) 같은 책. 311

(主觀的)인 것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것이니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비 성경적인 이러한 사적계시는 결코 믿을 수 없다.

(4) 더욱 중요한 사실은 연옥교리가 금전수입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다.

위의 1-7의 내용은 모두 연옥교리가 돈 수입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연옥교리는 결국 돈 수입을 위한 위조교리라고 하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이 교리로 가난한 자들의 주머니까지 짜 내어서 사제들이 치부하고 거대한 성당들을 짓는 등 자기들의 세력 확장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비판에 대하여 변명할 길이 없을 줄 안다. 또한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천주교의 연옥교리가 교황과 사제들의 교권유지와 교세확장을 위한 ‘거대한 사기극이고 엄청난 농간이며 공갈’이라는 비판에 대하여 어떠한 해명도 할 수 없을 것이다

8. 연옥 교리의 부당성(不當性)

천주교의 연옥교리는 부당한 교리이다. 이상으로만 보아도 그렇게 알 수 있지만 좀 더 따져보면 더욱 명백하다고 하겠다. 원래 의도대로 연옥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한다. 여기에서는 연옥교리의 부당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술하기로 한다.

(1) 제일 먼저 이 연옥사상은 성경에서 나온 진리가 아니고 이방 종교나 보편적인 인간의 인정(동정심)에서 나



왔기 때문이다.

세상을 떠난 가족들의 내세가 행복하기를 비는 보편적인 인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것이다.

막심 위상은 「연옥 실화」라는 책에서 모든 민족에게 연옥사상과 연옥에서의 정화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고 하면서 연옥사상과 연옥에서의 정화에 대한 신앙은 세상 시초에 인류에게 계시된 자연적 진리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모든 민족에게 연옥의 사상이 있다. 히브리인은 말 할 것도 없고 인도, 중국, 이집트에도 사람은 완전한 행복을 얻기 전에 정화(淨化)되어야 한다는 신앙이 있었다 이것은 세상 시초에 인류에게 계시된 초자연적 진리에 포함되어 있다.¹³⁾

그러나 그의 이러한 주장은 천주교의 연옥사상이 인류에게 시초에 부터 계시된 초자연적 계시진리에 속한다고 하나 사실무근한 억설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진정한 초자연적 계시는 신구약 성경정경밖에 없으며 그 외의 것들은 일반계시나 자연계시로서 정확성이나 신빙성이 없는 것이다. 자연인이나 일반인의 사상이나 신앙은 특별계시(성경정경)로만 정확한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연옥은 어디에 있는가?

막심 위상은 연옥의 장소(위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하여 천주교(교도권)에서는 정답을 말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

13) 막심 위상, 『연옥 실화』, 한국 순교 복자 수녀원 옮김, (서울 : 가톨릭 출판사, 2006), p. 22.



혹시 천주교가 연옥의 위치를 말해준다고 해도 믿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나마 정답이 없다는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연옥을 억지로 만들었으니 그 위치를 말할 도리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몇몇 교부들의 억측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에 대하여 가톨릭 교회는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 토마스나 다른 교부들의 설에 의하면 연옥은 지옥 옆에 있다고 한다.¹⁴⁾

(2) 연옥 교리는 성경 정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짓 (위조)교리이다

1) 마카베오기는 유대교에서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한 외경일 뿐이다.

천주교에서 연옥교리의 유일한 근거로 내세우는 구약외경 마카베오기 하권 12:38-45절은 도저히 연옥교리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 이유를 들면 다음과 같다.

유대교에서는 주전 400년에 기록된 말라기서까지 만을 영감을 받은 정경으로 인정했고 예수님과 사도들도 말라기까지의 39권만을 구약 정경으로 인정하고 인용하였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구약 헬라어 역본인 70인역에 번역자들이 실수로 부록으로 덧붙인 외경 15권을 그들의 성경 라틴어 별갯역(4세기에 번역한)에도 그대로 덧붙였다. 그러나 이것은 부록(참고서)정도로 덧붙여진 영감되지 않은 인간들의

14) 막심 위상, 『연옥 실화』, 한국 순교 복자 수녀원 옮김, (서울 : 가톨릭 출판사, 2006), pp. 66-67.



오류와 실수가 많고 품격이 월등히 낮아서 도저히 영감된 친구약 66권 정경에 편입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천주교는 속화되고 변질되면서 절대로 정경으로 인정 될 수 없는 외경들을 정경과 같이 취급하고 정경에는 근거가 없는 잘못된 교리들을 만드는 근거로 인용하여 오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그들은 16세기 종교개혁 와중의 트렌트 공의회에서 이 외경 15권 중에서 3권만 빼고(후에 7권으로 조정함) 정경 66권과 동일한 하나님의 영감 받은 성경이라고 결의하여 선언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성경적인 정통 기독교와 완전히 결별하고 이방종교로 탈바꿈한 천주교는 이때부터 완전히 비기독교적인 본색을 거침없이 더욱 뽕뽕이 공개적으로 자행하여 왔다.

그러므로 성령의 영감으로 오류가 없이 온전히 기록되지 않은 외경들은 오류가 많고 신빙성이 없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천주교에서 자신들의 연옥교리와 죽은 자를 위한 기도 등등을 지지하는 구절이 있는 외경들을 정경에 삽입하여서 정경이라고 선언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외경 마카베오 하권 12: 38-45절을 그들의 연옥사상의 유일한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이 책이 구약정경이 아니므로 그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성령의 영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단순한 인간의 문학작품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경의 자격과 가치가 전혀 없는 외경인 마카베오기 하권의 잘못된 내용에 근거하여서 주장하는 연옥교리는 절대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2) 이 외경의 본문내용은 구약과 신약의 진리에서 어긋난 것이다.

그런데 죽은 자들마다 그 옷 속에서 율법으로 유다인들 에게 금지된 얜니

아 우상들의 패가 발견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전사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사실이 모든 이에게 분명히 드러났다 그들은 모두 숨겨진 일들을 드러내시는 의로운 심판관이신 주님의 방식을 찬양하였다. 또 그렇게 저질러진 죄를 완전히 용서해 달라고 탄원하며 간청하였다. 고결한 유다는 백성에게, 전사자들의 죄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눈으로 보았으니 죄를 멀리하라고 권고하였다 그런 다음 각 사람에게서 모금을 하여 속죄의 제물로 바쳐 달라고 은 이천 드라크마를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그는 부활을 생각하며 그토록 훌륭하고 숭고한 일을 하였다. 그가 전사자들이 부활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다면,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쓸모없고 어리석은 일이었을 것이다.(마카베오기 하권 12, 40-44)

위에 인용한 본문은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용감한 유대 독립군들이 점령군들을 대항하여 전과들을 올리던 때의 역사의 일부기록이다. 그리고 이 본문은 당시 용감한 유대독립군의 지휘자였던 유다 마카베오가 행한 일의 일부이다.

그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유다가 전사자들을 장사하려고 가서 그들의 옷 속에 감추어둔 유대인들 에게 금지된 암니아 에게 숭배 하던 작은 우상의 부적(형상)을 지닌 것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전사한 이유가 바로 우상숭배였다는 사실이 모든 이에게 분명히 드러났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숨겨진 일들을 드러내시는 의로운 심판관이신 주님의 방식을 찬양하였다 그런데 유다는 저들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달라고 탄원하며 간청하고 나서, 전사자들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목격했으니 죄를 멀리하라고 권고까지 했다. 그런 다음 각 사람에게서 모금을 하여 속죄의 제물을 바쳐달라고 은 이천 드라크마를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이는 그가 전사자들이 부활하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부활의 때에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서 천국으로 보내



달라고) 그렇게 훌륭하고 숭고한일을 하였다고 칭찬까지 하였다.

이 본문은 천주교가 연옥교리를 주장하는 유일하고 직접적인 근거로 제시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상의 본문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발견된다.

① 먼저, 전사자들은 금지한 우상숭배 죄의 심판을 받아 죽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형벌을 받아 죽었다는 것이다.

②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의 죄를 부활 때에 속죄해서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저들의 속죄의 제사를 드려달라고 돈을 모아 예루살렘에 보냈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비록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죽었을 지라도 독립전쟁에 전사한 애국자들이니 부활 때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보내 달라는 가혹한 인정의 발로라고 칭찬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우상숭배로 죽임을 당한 자들의 속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 달라는 것은 즉석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무시하고 거슬린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구약 어디에도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아 죽은 사람들을 부활의 날에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 달라는 기도나 제사를 드린 일이 없다. 그러므로 이 외경에 기록된 이 내용은 단지 정경을 기록한 성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잘못된 인간의 행위였다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③ 또한 이는 부활교리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성경에는 두 번의 부활이 있고 그것은 첫째부활과 둘째부활이다. 첫째부활은 그리스도 재림 시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두 참여하는 생명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마지막 인류의 대심판시에 구원 받지 못한 만민이 부활하는 심판의 부활이다.(계 20:4-6, 11-15, 요 5:29) 그렇다면 만약 이 우상을 숭배한 전사자들이 부활을 한다고 해도 '죽은 자들이 자기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계 20: 12-13)는 말씀대로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사람이 죽어서 첫째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진실하게 예수를 믿지 못한)은 모두 마지막 심판 때에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여서 각자가 세상에서 잘못행한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 어떤 예외도 없다는 것이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그 어떠한 제사나 속죄의 길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의 일관된 진리이다. 그러니 유다가 범죄한 전사자들을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했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속죄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만에 하나 연옥이 있다고 가정해도(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제사나 자선이나 그 어떤 기도로도 그들의 죄가 속죄되어 천국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다.

④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마카베오 하권 12:38-45절은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마지막 날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바쳤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부활의 날 이전이나 중간에 그것도 연옥에서(?) 언제나 계속하여서 구해달라는 내용은 전혀 없다. 천주교에서는 이 구절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모든 죽은 사람의 사후 그것도 연옥에서의 구원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하나 이는 그들의 모든 아전인수(我田引水)격의 성경왜곡해석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어떻게 이 구절이 연옥 영혼들을 날마다 구하기 위한 속죄의 제사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므로 천주교가 주장하는 연옥에서 구원 받는 길이 있다는 주장은 전혀 비 성경(正經)적인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다.



3) 또 다른 성경구절들(마 12:31-32, 마 5:25-26, 고전 3:10-15, 디모데후서 1:18)을 연옥설의 근거로 제시하지만 모두 전체 성경의 진리에 비추어 보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 구절들을 정직하게 해석하고 왜곡해석하지 않는다면 연옥에 대한 것이 아님을 확인 할 수 있다).

(3) 그리고 그들은 몇 교부들과 몇 사람의 전승(전통)을 예로 들어서 연옥사상을 합리화 하지만 모두 그럴듯한 인간들의 이야기에 불과하다.

(4) 또한 이 교리는 겨우 13세기(1274년 2차 리옹 공의회)에 부터 공의회에서 인정받은 것이므로 역사적으로 그 진리성을 고집할 수가 없는 것이다.¹⁵⁾

즉, 그 전에는 없던 이 교리가 그 때에서야 뒤 늦게 등장했으니 신빙성이 결여된 것이다. 이는 연옥교리가 13세기에서야 제정되었으니 교회사 후반기에 등장한 것이므로 더욱이 위조교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5) 이 교리는 천주교의 무형의 상호(商號)(brand)라고 할 정도로 천주교의 유지 발전에 정신(미신)적으로나 재

15) 페르디난트 홀베크, 『연 옥』, 남현옥 옮김, (서울 : 가톨릭 출판사, 2005), p. 18. 재인용.



정적으로 엄청난 효과를 올린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브랜드(brand)에 관련된 김성제 박사의 저서 「종교브랜드시대」(왜 가톨릭은 세계최강 종교브랜드인가)에서 저자는 기존의 브랜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확대시켜 ‘종교’를 브랜드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브랜드(brand)란 제품, 서비스 기업은 물론 학교, 정당, 병원, 사람, 국가, 장소뿐만 아니라 종교까지도 그들의 경쟁대상들과 차별화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름, 로고, 캐릭터, 컬러 또는 이것들의 결합체를 의미한다.¹⁶⁾

저자는 가톨릭 브랜드 힘의 원천으로 1) 천주교의 4대 특징인 단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적 계승성을 들었다. 그리고 2) 교계제도로 교황, 주교, 사제, 부제, 3) 수도자로 수사, 수녀를 들고, 4) 교황청을 들고, 또한 5) 성사 일곱 가지를 들었다.¹⁷⁾ 저자는 천주교 상호 즉 천주교의 힘의 원천으로 이상의 네 가지를 들었는데 이러한 천주교의 중요한 요소들이 천주교의 힘의 원천인 브랜드라고 하는 것이다.

저자가 주장한 이러한 천주교의 잘못된 이단적인 브랜드가 아니래도 천주교는 기독교 세계에서 독자적으로 연옥이라는 비성경적이고 비 복음적인 연옥교리를 도입해서 추종하는 신도들을 옴아매어 자신들의 이득을 최대한으로 올리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천주교가 연옥교리를 실로 자기들의 상업적인 브랜드와 같이 악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16) 김성제, 『종교브랜드시대』, (서울 : (주) 지필미디어, 2014), p. 7.

17) 같은 책, pp. 272-290.



(6)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연옥교리는 성경의 복음과 속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절대적인 값없는 은혜를 말살하는 가장 큰 죄악이 되기 때문에 결사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이방종교의 공로사상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이다.)

(7) 또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천주교인 성인(成人)중에 죽어서 곧 바로 천국으로 들어갔다는 사람이 오직 세 명밖에 없다는 데 있다.

누가 연옥에 가는가?

성세(세례)의 결백한 상태로 이승을 떠나는 어린이, 최상의 사랑을 드러낸 순교자, 현세에서 죄의 참벌(暫罰)을 다 보속한 이, 극소수의 성인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은 천국 행복을 얻기 전에 그 현관(玄關), 즉 연옥을 거쳐 간다는 것은 단언할 수 있다¹⁸⁾

그러나 천주교에서 최고로 유명한 성녀 테레사는 이와 같이 말했다.

이 많은 성인 중에 연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천국에 들어간 영혼은 단지 셋 밖에 보지 못했다¹⁹⁾

18) 막심 위상, 『연옥 실화』, 한국 순교 복자 수녀원 옮김, (서울 : 가톨릭 출판사, 2006), p. 61.

19) 같은 책, p. 62.

성 테레사는 천주교에서 손꼽는 유명한 성녀요 박사님 이름난 인물이다. 위에서는 세례 받은 후에 죄를 짓기 전에 죽은 어린이들과 극소수의 성인(聖人)들(순교자도 성인에 포함) 외에는 천국에 직접 들어가는 이들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천주교의 위대한 성녀로 추앙받는 테레사 성녀는 무수한 성인(成人)중의 성인(聖人)들 가운데에서도 단지 세 사람 많이 직접 천국에 간 것을 자기가 보았다고 했다. 그렇다면 2천여 년 동안에 모든 천주교인들(교황, 주교, 신부, 수도사, 수녀들 그리고 모든 평신도들)이 단 세 명만 제외하고 다 천국에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연옥으로 들어갔다고 한 것이니 과연 구원 받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 가히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다. 연옥도 없고 만의 하나 연옥이 있다고 가정(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해도 연옥에서 구원받을 가능성은 위에서 살펴 본바와 아래에서 지적한 대로 무기한이고 확인할 길도 없으니 모든 천주교인의 영원한 운명은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8) 또한 더욱 중대한 문제는 이 연옥은 장소(존재)만 없는 것이 아니고 그 기한(期限)도 없다는 것이다.

1) 연옥에서 고통을 받으며 머무는 기간은 있는가?

「연옥」의 저자 페르디난트 홀비크는 연옥에서 고통받으며 머무는 기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연옥의 고통은 모든 죄의 책임과 죄의 벌로부터 그 영혼이 완전히 자유로워질 때까지 지속된다는 것도 확실한 사실이다. 연옥 고통의 기간과 강도는



아직 남아있는 죄과와 그에 대한 형벌의 총량(總量)에 비례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개개인의 영혼이 거치는 피안의 정화기간에 대한 더 이상의 구체적인 사실을 밝혀 줄만한 것은 전혀 없다.²⁰⁾

그는 연옥에 간 영혼들이 고통을 받으며 그 곳에 체류하는 기간에 대하여 두 가지를 밝히고 있다

① 연옥 정화 벌의 고통은 모든 죄의 책임과 그 죄의 벌로부터 그 영혼이 완전히 자유로울 때 까지 지속된다는 것은 기간을 정하기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② 연옥 고통의 기간과 강도도 아직 남아있는 죄과와 그에 대한 형벌의 총량에 비례한다는 것도 같은 말로서 기간을 정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저자는 여기에서 개개 영혼의 연옥 정화 기간에 대한 더 이상의 구체적인 사실을 밝혀 줄 만한 것은 전혀 없다고 솔직히 고백하고 있다. 이러한 저자의 고백은 사실로 연옥에 들어가는 영혼들의 형벌기간과 그 형벌의 강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백은 연옥정화의 형벌기간에 대하여 전혀 무지하다는 정직한 실토이며 따라서 이는 연옥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2) 연옥 벌 기간의 설정

그러나 연옥형벌 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천주교의 설정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이는 「연옥 실화」의 저자 막심 뤼상이

20) 페르디난트 홀베크, 『연 옥』, 남현옥 옮김, (서울 : 가톨릭 출판사, 2005), p. 35.



밝힌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정확한 대답을 하기란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것이 셋이 있다 즉, 첫째, 연옥 벌은 10년을 넘지 않는다는 설은 1666년 3월 18일 교황 알렉산데르 7세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둘째, 성 교회는 무한히 미사를 드리기를 허용한다. (필자 주: 즉 무한히 계속 미사를 드려야 할 정도로 끝이 없다는 말이다.) 셋째, 연옥에서 연옥의 보속은 경중이 있고 또 그들을 도와주는 우리 열성의 정도에 따라서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다. ...성인들의 설에 의하면 어떤 영혼은 10년, 20년, 어떤 영혼은 백년, 천년 혹은 세상 마칠 때까지 연옥에서 고벌(苦罰)을 받는 것이다²¹⁾

연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연옥에서 받는 무서운 정화의 불의 형벌은 얼마동안이나 받게 되는가? 「연옥 실화」의 저자 막심 휘상은 여기에서 먼저 “이 문제에 대하여 정확한 대답을 하기란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솔직하게 전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 문제에 대하여 확실한 것이 셋이 있다고 하였다.

첫째로 1666년 3월 18일 교황 알렉산데르 7세는 연옥형벌이 10년이 넘지 않는다는 당시의 설을 금지시켰다는 것이다. 이 말은 근거 없는 10년 연옥형벌설을 교황이 마음대로 금지시켰다는 것인데 황당한 이야기가 아닌가? 교황은 무슨 근거로 10년 형벌설이 너무 짧다고(?) 금지시키고 무기한으로(?) 버려두었다는 말인가? 왜 연옥형벌 기간이 짧으면 안될 무슨 이유라도 있었는가? 아니면 천주교와 교황의 필요를 위하여 10년에서 무기한으로 연장 시킨것이 아닌가?

둘째로 확실하다는 것은 천주교는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무한히 미사 드리기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먼저 연옥형벌의 기간을 무기

21) 막심 휘상, 『연옥 실화』, 한국 순교 복자 수녀원 옮김, (서울 : 가톨릭 출판사, 2006), p. 71.



한으로 연장해 놓고 다음에 한 일은 연옥영혼들을 구출하기 위한 미사는 무한하게 얼마든지 드려도 된다고 허용한 것이다. 문제는 대단히 관용을 베푼 것 같지만 미사에는 반드시 돈을 바쳐야 한다는 데 있다. 이러한 천주교의 조치는 삼척동자라도 그 속이 뻔히 드러나 보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하겠는가?

끝으로 성인들의 설에 의한다는 연옥형벌의 기간이 등장하고 있는데 10년, 20년, 백년 천년, 혹은 세상 마칠 때까지 연옥불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어떤 성인들이 연옥에 다녀와서 알려준 정보인지 알 수 없으나 이러한 주장은 도저히 신빙성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서 저자가 서두에서 미리 밝힌 대로 '우리가 정확한 답을 하기는 불가능하다.'는 말이 정직한 대답일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은 몇 억년을 거쳐서도 연옥을 벗어나서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확실한 기약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한번 여기에 빠지는 사람은 영원히 구원 받을 희망이 전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천주교는 어찌자고 이렇게 장소(실재)도 없고 빠져나올 기약도 없는 지옥불과 조금도 못하지 않는 연옥불의 무시무시한 고통에 대한 공포 속으로 신도들을 몰아가고 있단 말인가?

9. 연옥교리의 모순들

Dave Hunt는 그의 저서 「짐승위에 탄 여자」에서 연옥교리의 치명적인 모순들을 자세히 지적하고 있다. 이미 언급한 부분과 다소 겹치는 면도 있으나 좀 더 이에 대하여 강조하는 의미에서 간략하게 그 중요 점들을 약술하기로 한다.



(1) 마카베오기하 12:45의 모순점

데이브 헌트는 “‘연옥’이라는 말이나 그에 대한 아이디어조차도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고 예수님이나 사도들도 이에 대한 암시를 비친 적이 없으며 천주교 변증학자 칼 키팅도 이 교리가 ‘성경에 뚜렷하게 제시된 것은 아니다’라고 인정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연옥교리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언제나 인용되는 구절은 외경에 있는 구절로써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속죄제사 드림)은 거룩하고 건전(경건)한 생각이다. 이는 그들의 죄로부터 풀려나게 하려 함이니라.”(마카베오기 하 12:45)²²⁾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구절은 세 가지의 분명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였다.

1) 죽은 자를 위한 기도(속죄제사)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의 예도 발견할 수 없다.

죽음 다음에는 심판만 있으므로(히 9:27) 죽은 다음에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이미 너무 늦은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외경의 구절은 성경에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하였다.

2) 이 구절에서 기도를 받은 이들은 우상숭배의 중죄를 범한 자들이다.

각 전사자들의 옷 속에는 율법으로 금지된 얄니아 우상의 부적이 나왔으며 그래서 그들이 전사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하였다.(마카베오기 하 12:40) 그런데 천주교교리에 의하면 우상숭배는 치명적인 죄로 연옥이 아니라 지옥에 갈 죄인데 지옥에서는 다시 풀려날 길이 없으므로 그들을 위한 기도는 횡방 죄에 해당 될 뿐 아니라

22) Dave Hunt, 「짐승위에 탄 여자」, 정태운 옮김, (서울 : 도서출판 누가, 2007), pp.368-369.



시간 낭비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탈법(脫法)적인 사실이 연옥 교리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하였다.

3) 마카비서에 의하면 당시에는 선지자가 없고 하나님의 영감(계시)은 중단되었다²³⁾고 스스로 기록하고 있다.(마카베오기 상 9:27, 14: 41)

그러므로 마카베오기는 평범한 하나의 당시의 역사를 기록한 것뿐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감 된 특별계시는 없는 고로 자연히 잘못된 교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영감 되지 않고 오류와 모순들이 기록된 단순한 인간적인 기록을 영감 받은 성경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씻을 수 없는 과오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한 글들(외경)을 성경 정경 속에 포함시켜 놓고 정경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천주교의 크게 잘못된 교리의 근거로 내 세우는 것은 진실로 무서운 범죄행위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 죄는 용서받았어도 천국에 가기위해서는 연옥에서 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

테이브 힌트는 또 트렌트 공의회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다 같이 그리스도가 그들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기는 했지만 그들은 "연옥의 불길 속에서(그들의 죄를 위하여)속죄를 이루어야 한다"²⁴⁾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트텐트 공의회 선언을 인용하고 있다.

23) 같은 책, p. 369.

24) 같은 책, p. 365.



만약 누구든지 칭의의 은혜를 받은 후에는 책벌이 다 사해졌고 영원한 처벌이 모든 회개한 죄인들로부터 도말되어서 지상에서 처벌을 더 받을 빛이 없어졌으며 혹은 하늘 문이 열리기 전 연옥에서도 더 이상 처벌당할 빛이 다 없어졌다고 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지어다.(재인용)²⁵⁾

천주교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고귀하신 보혈의 은혜로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완전하고 영원한 값없는 속죄를 모독하며 신도들을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假象)의 비참한 연옥이라는 곳에 꼼짝 달짝 할 수 없도록 가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리는 진실로 천하에 기만적이며 치명적인 교리로 지탄(指彈)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3) 연옥고통을 통한 죄의 정화는 불가능한 교리라는 점

연옥교리의 또 다른 문제점은 연옥불의 고통 벌을 통해서 죄를 정화 한다는 교리가 불가능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데이브 헌트는 세 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 1) 고통이 죄인의 마음을 깨끗케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 2)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처벌을 완전히 다 갚으셨기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벌(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다.

이는 역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죄인(비종생인)이 자신의 죄를 연옥고통을 통하여 정화한다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말도 되는 것이다.

25) 같은 책, p. 365.



3) 절대적인 무죄자만이 속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한분 외에는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으므로 죄인인 인간이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자신과 타인의 죄를 정화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²⁶⁾

이상의 연옥교리가 불가능한 교리라는 세 가지 이유는 사실 연옥교리의 그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것이다. 천주교는 이처럼 도저히 성취 불가능한 연옥교리를 창작하여서 영혼의 구원은 눈 감아 버리고 금전의 수입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진실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하겠다.

(4) 연옥교리의 심각한 문제점들과 치명적인 모순

천주교의 연옥교리는 또한 심각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으며 무엇보다 치명적인 모순을 안고 있다. 이에 대하여 힌트는 이하 몇 가지를 추가하여 말하고 있다.

1)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를 범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들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작은 죄를 범해도 모든 율법을 범한 죄이기 때문에(약 2:10)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가 요구하는 무한한 형벌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죄인인 인간은 자신이나 어떤 타인의 공로로도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이다. 이 말은 죄인이 그 어떠한

26) 같은 책, pp. 366-367.

고통이나 고행이나 선행이나 자선이나 헌금이나 기도로나 심지어는 영성체를 하고 미사제사를 드릴지라도(인위적인 것이므로) 지옥형벌을 결코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중대한 착각을 하여서 지옥도 면할 수 없는데 가상(假象)의 연옥까지 면한다고 헛고생들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 상기한 인간적인 방법들로 연옥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유일한 그리스도의 속죄의 값없는 은혜를 배척하는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있다.

3) 천주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신 완성된 속죄와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은혜위에 자기들의 공력들을 추가하여 쌓으려는 완고한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불필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대한 배은행위이며 거역(拒逆)행위가 되는 것이다.

4) 더욱 치명적인 모순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영원한 재현(再現)인 미사를 계속 반복하여 드림으로 형벌이 점차적으로 감소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속죄제사의 미니 축소판인 미사를 한꺼번에 아주 많이 드린다면 연옥 영혼들을 모두 해방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렇게 되면 연옥은 텅텅 비어버릴 것이니 천주교의 주요 수입원을 상실해 버리고 파산상태가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므로 천주교의 금고를 계속 채워 유지하고 수입원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은 부족하니 날마다의 미사제사를 통하여 속죄가 보충되어야 한다고 가르친다는 것이다. 십자가의 희생이 이루지 못한 것을 날마다 재연하는 미사의 반복을



통하여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지 기막힌 일이라고 개탄하고 있다

5) 치명적인 사실은 “성인들”의 고난이 공로가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당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도 이루지 못한 일을 이룬다는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를 용서할 뿐이지 죄를 정결케 할 수는 없으며 다른 사람들이 지고 가는 십자가들은 죄를 정결케 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룬 일 보다 더 큰일을 이룬다고 개탄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미신적이며 우상숭배적인 "성인숭배"라는 이득을 천주교가 취하게 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 그리고 미사나 성인숭배 이외에 수많은 방법들이 동원되어 연옥영혼 구출작전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다.²⁷⁾

이미 앞에서도 밝혔지만 연옥영혼 구출방법은 가지각색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연옥영혼들을 위하여 성체조배와 고백 성사와 영성체와 미사봉헌(헌금을 드려서 하는)과 미사참례, 목주기도의 성모송과 화살기도, 봉헌(헌금), 일종의 면죄부 역할을 하는 대사(大赦)의 시여와 많은 고통과 수고를 연옥영혼들을 위하여 바치는 것 등등 더 많은 방법들이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연옥영혼을 구출한다는 방법들이 모두 인위적인 잘못된 교리들과 방법들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법들은 연옥의 존재와 같이 허무한 것이므로 치명적인 모순 속으로 그들을 오도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5) 연옥석방(감면)의 대사(大赦)(면죄부)복음

27) 같은 책, pp. 370-372.



종교개혁의 발화점이 된 면죄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술하기로 한다. 이 면죄부는 연옥영혼을 구원하는 특사와 같은 특별한 도구이므로 그 중요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면죄부(대사)란 무엇인가?

문자대로 이는 죄벌을 면제받았다는 표시로 받는 일종의 증명서이다. 천주교는 고해성사로 죄를 고백한 사람의 죄는 용서받지만 그 죄의 벌은 보속(죄 값을 치르는 것)을 해야 된다고 한다 이 보속의 방법은 신부가 정해주는 일정한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교황이 이 죄벌인 보속을 특별히 면제시켜주는 권리로 사면(탕감)해주는 것을 "대사(大赦)"라고 한다. 이 대사는 그리스도의 무한한 공로와 마리아와 성인들의 남은 공로를 보관하고 있는 천주교가 여러 가지 규정을 이행 하는 사람에게 그 남은 공로를 시여(施與)해 주는 것이라고 한다.

유선호 목사는 천주교는 대사를 받는 조건으로 제시한 기도나 고행이나 희생이나 자선이나 미사 등을 돈을 지불하는 것으로 대신하게 허락 하였다. 그래서 돈을 지불한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함으로 죄벌(보속)에서 대사(면죄)를 받았다고 공식적으로 교황이 발급한 표를 속죄표 혹은 <면죄부>라고 하였다고 한다. 천주교 측에서는 면죄부라는 말은 속죄표(헌금수령증서)의 오역이라고 주장하고 속죄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나 연옥에 간 사람들을 위해서도 살 수 있다²⁸⁾고 하였다.

그리하여 면죄부란 현세나 특히 연옥에 있는 영혼들의 남은 벌(보속)을 사면 받아 거기에서 석방되게 하는 증명서에 대한 별명이 되었

28) 유선호 목사, 『천주교도 기독교인가?』, (서울 :하늘기획, 1998. 재판 1쇄, 재인용), p. 210.



다. 면죄부란 천주교의 고해성사와 신부의 사죄권이 타락되어서 11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중세기의 독특한 특허품이 되었다²⁹⁾고 하였다.

2) 면죄부 발전의 역사

천주교의 창작품인 가상(假想)의 무서운 연옥 불구덩이에 빠져 지옥 불속에서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가족친지의 죄벌을 면죄(탕감)받는다는 것은 희소식이 되었다. 이러한 면죄사상은 초대교회에는 없었는데 천주교에서 제정한 고해성사에 관련하여서 생겨난 것이라고 한다.

제임스 C. 기본스는 천주교에서 사죄와 잠벌면죄의 근거로 삼는 성구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태 16:19)는 성구와 1고린5, 4-5절과 2고린 2, 6-10절 말씀이라고 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초대교회로부터 계속 범죄인의 죄와 벌을 사하는 대사권한을 주교들을 통하여서 행사해 왔다고 한다.

314년 안치라 지방교회 회의와 325년 교회회의를 통하여 보속기간의 연장과 감면법이 규정되었는데 이것이 ‘대사’의 은전이라고 하였다. 그 후에 보속행위를 기도, 선공, 고행 성지참배, 교회병원에의 헌금, 성당건축을 위한 헌금 등의 행위로 치르도록 규정되었다. 그 후에 교황 그레고리 1세와 세르지오와 레오 9세, 우르바노 2세, 보니파시오 18세, 클레멘스 6세, 바오로 2세 등이 여러 가지 대사를 시여해 왔다³⁰⁾고 했다.

랄프 우드로우는 면죄부 판매는 천주교의 고정되고 수지맞는 사업

29) 같은 책, p. 212.

30) 제임스 C. 기본스, 『교부들의 신앙』, 장면 옮김, (서울 : 가톨릭출판사, 2006, 개정초판 7쇄), pp. 398-401.



이 되었다고 한다. 또 교황 보니파시오 8세(1294-1304)는 1300년을 희년으로 선포했고 성 베드로 성당까지 순례 여행하는 이들에게 푸짐한 면죄부를 주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해에 2백만이나 되는 사람이 그 성당에 몰려왔고, 두 사제가 베드로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 앞에서 손에 갈퀴를 들고 밤낮으로 분주하게 돈을 긁어모아 재물을 쌓았다³¹⁾는 기록도 있다고 하였다.

데이브 헌트는 또 교황 요한 22세는 1322년 3월 3일에 교황 칙령으로 “갈멜산의 우리 부인(발현한 마리아)의 갈색 망토를 착용하고 두 개의 다른 조건을 실천한 자들은 죽은 후 첫 번째 토요일에 마리아에 의해서 연옥에서 풀려난다(대사로)”는 선포를 하였다. 그 후에 9명의 교황이 이 이단성이 있고 많은 악행을 저지른 교황의 칙령을 따랐다³²⁾고 한다.

그리고 로레인 뵈트너는 교황 클레멘트 6세(1342-1352)는 천주교가 공적의 창고를 조절하여서 어떤 성인의 남아있는 공적을 다른 신자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교리를 공식으로 공포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것이 면죄의 문을 활짝 열어 제친 시발이 되었다. 더 나아가서 1477년에 교황 식스투스 4세는 면죄가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선언하여서 연옥에 있는 영혼들의 면죄의 길을 활짝 열어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교리는 연옥의 불꽃 속에서 고통 받는 유가족들의 석방을 위한 면죄부 판매라는 사악한 관습에서 야기된 부패가 독버섯처럼 천주교 도처에 퍼지게 했다 1250년 영국의 감독 그로세테스테는 면죄부 판매 때문에 성직자들이 저질이 되고 있다고 항의까지 하였다.

31) 랄프 우드로우, 『로마 가톨릭주의의 정체』, 안금영 역, (서울 : 노아와 방주, 1997, 재인용), p. 123.

32) Dave Hunt, 『짐승위에 탄 여자』, 정태운 옮김, (서울 : 도서출판 누가, 1007), p. 376.



또 추기경 위원회는 교황 바울 3세(1534-1549)에게 면죄부와 특사가 온갖 악 소문을 낳는다고 보고하고 그것들을 중지시키도록 간청까지 하였다. 그래도 얼마동안 면죄부는 공공연히 판매되었고 교황 레오 10세(1513-1521)는 로마의 성 베드로 대 성당건축의 완성에 부족한 돈을 면죄부의 판매로 보충하게하고 각국에 특사들을 보내어서 산자와 죽은자의 사면과 연옥 불구덩이에서의 석방을 약속하기도 하였다³³⁾고 하였다

제임스 C. 기본스는 종교개혁시의 “레오 10세의 가장 평범한 대사 즉, 회개와 고백, 기도의 장려는 물론, 성 베드로 대성당의 건축비로 응분의 헌금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잠벌을 면하여 주는 은전을 허락한 것”이 반포된 후에 독일에서 이것이 면죄부 사건으로 확대되었다³⁴⁾고 하고 있다

박도식 신부의 「가톨릭 교리 사전」에는 1515년 교황 레오의 <대사령>에 따른 독일 대 주교가 반포한 대사령에는 대사를 얻는 조건이 다음 세 가지라고 하였다.

- ① 과거에 범한 죄를 참회한 후 고해 성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적어도 지정된 7개 성당을 순례하면서 그리스도의 오상((五傷) : 양손, 양발, 옆구리 상처)을 생각하면서 주의 기도와 성모송을 5번씩이든지 또는 시편 50편을 외어야 한다.
- ③ 성 베드로 대성전 건축비로 응분의 헌금을 한다. 여기에 “없는 빈자들은 헌금 대신 기도와 금식재(재의 수요일(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과 성금요일에 아침은 금식하고, 점심은 충분히 먹고, 저녁은 간단히 하는 것)로 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위의 첫째와 둘째조항을

33) 로레인 비트너, 『로마 카톨릭 사상평가』, 이 송훈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p. 364.

34) 제임스 C. 기본스, 『교부들의 신앙』, 장면 옮김, (서울: 가톨릭출판사, 2006, 개정초판 7쇄), p. 404.



실천하겠다는 조건하에서 먼저 헌금을 하는 이에게는 헌금수령증을 주었는데 이 증서를 가진 자는 특전이 부여된다고 알베르토 대 주교의 교서에는 명시되어있다³⁵⁾고 하였다. 이때의 대사의 조건만 보아도 당시의 상황을 대충 짐작 할 수 있을 줄 안다. 여기에 천주교가 항상 앞세우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추가 사항은 그럴 듯하게 보이나 일 년에 한 번의 사순절에만 혜택을 받게 제한되어 있으므로 큰 혜택이 되지 못하는 극히 제한된 차별대우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하겠다. 무엇보다 <면죄부>로 불리게 된 대성전 건축비 헌금수령증을 가진 자에게는 특전이 약속되기까지 한 것을 눈 여겨 봐야 할 줄 안다

유호선 목사는 중세 후기 유럽에서는 면죄부 판매자들이 “대사를 받으라”고 외치며 다녔는데 초서, 랭랜드, 위클리프 등은 이를 비난하였으나 천주교 당국자들에게는 이 면죄제도가 큰 재정조달의 원천이었고 또 이것은 교회건물 건축과정에 필요한 재정조달의 방법으로 사용 되는 예가 자주 있었다.³⁶⁾고 한다.

이로 인해서 결국 마틴 루터의 면죄부 판매반대로 종교개혁까지 이루어지게 하였다. 그러므로 구원의 복음을 묻어두고 존재하지도 않는 연옥 영혼들을 구출해 준다는 명목으로 대 성당 건축과 엄청난 축재를 도모하다가 결국은 일부의 성당과 무수한 신도들 잃게 되었다. 그리하여 종교개혁이 성공하여서 당당한 초대교회와 같은 개신교가 탄생되어서 암흑의 중세에 종지부를 찍고 세상이 아주 밝아지고 생명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게 되었다.

3) 면죄부는 지금도 변함없는 천주교의 법과 교리이다.

35) 박도식, 『가톨릭 교리 사전』, (서울 : 가톨릭 출판사, 2006, 개정초판 7쇄), p. 90.

36) 유선호 목사, 『천주교도 기독교인가?』, (서울 : 하늘기획, 1998. 재판 1쇄, 재인용), p. 212.



천주교는 오늘날은 면죄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면죄부와 똑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대사(大赦)라는 것이다. 천주교의 교회법전에는 다음과 같은 조문이 있다.

대사는 죄과에 대하여는 이미 용서받은 죄에 따른 잠시적 벌에 대한 하느님 앞에서의 사면이다. 합당한 마음 자세로 규정된 일정한 조건들을 채우는 그리스도교 신자는 구원의 교역자로서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보속 공로의 보고를 권위 있게 분배하며 적용하는 교회의 도움으로 대사를 얻는다.(제992조)³⁷⁾

이 천주교 교회법전에서는 대사의 정의와 대사의 주체와 대사의 방법과 대사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그 악명 높았던 대사제도(면죄부의)가 21세기에도 여전히 살아서 천주교의 법적인 제도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 하여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교리서에도 다음과 같이 명기하고 있다.

교리서 1478항에서 천주교는 그 신자에게 자신들의 잠벌의 사면을 얻도록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보고를 대사로 열어준다 그리고 1479항에서 우리는 연옥의 정화중에 있는 신자들의 잠벌을 사면해 주는 대사로써 그들을 도울 수 있다³⁸⁾고 했다. 그들은 과거와 같이 대사를 받는 조건에서 <헌금>이라는 말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제외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 대사 교리는 언제나 면죄부라는 딱지가 붙어 다니는 것을 어찌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4) 면죄부 교리는 천주교 최고의 축재원이다.(면죄부 복음 :

37) 주교회의의 교회법위원회 번역, 『교회법전 라틴어-한국어대역<수정판>』, (서울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4.), p. 525.

38) 최창무 발행, 『가톨릭교회 교리서』, (서울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4), p. 573.



돈으로 살 수 있는 복음)

데이브 헌트는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 있다.

면죄부를 죽은 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신성모독적인 우매(愚昧)가 거보(巨步)에 달한 것이다. “모범수 감형”이라는 아이디어를 “처방된 공력”을 수행하지 못하여 연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가시킨다는 사상은 다시 한 번 천주교의 사기성을 폭로하고 있다. 돈이면 만사가 해결된다.

면죄부 복음은 중세 때부터 시작된 천주교의 가장 비 성경적이며 비논리적 교리들 가운데 하나이다 ...이방 종교적이었던 면죄부가 세월이 감에 따라 점차적으로 로마 가톨릭교의 일부로 규정되어 갔으며 결국에 가서는 교황의 가장 큰 치부(致富)의 재원이 되었다.³⁹⁾

특사란 인간 세계에서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이 특사(대사: 면죄부)를 죽어 연옥에 간 영혼들에게까지 적용시킨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물론 연옥은 없으니 해당이 안 되지만 왜 이 대사를 지옥영혼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가? 아마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다. 그러나 천주교가 이러한 아이디어를 돈을 버는데 활용한 것은 .비정(非情)한 돈 벌이의 귀재(鬼才)라고 해야 할까?

헌트는 계속해서 모든 영혼을 단 한 번의 미사로 다 석방 할 수 있고 마리아의 무한한 권세로 한 순간에 그렇게 할 수 있으며 무한한 권세를 가진 교황도 단 한 번에 연옥을 다 비울 수 있는 면죄부를 발행하여서 불쌍한 연옥영혼들을 다 석방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만일 연옥을 다 비워버린다는 것은 연옥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들어오게 될 현금이 끊겨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

39) Dave Hunt, 『짐승위에 탄 여자』, 정태운 옮김, (서울 : 도서출판 누가, 1007), p. 374.



는다는 것이다. 그 대신 오히려 연옥을 벗어나게 하는 규정들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서 더 많은 봉사(봉헌)가 필요하게 했다.⁴⁰⁾

뿐만 아니라 천주교에 축적된 성인들의 공로(보화)를 사제들과 교황이 성사들과 대사들을 통하여 조금씩 분배되게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이나 미사나 대사의 면죄부 등등으로 연옥고통의 기한이 얼마나 단축되었는지 또 얼마나 잔여기간이 남았는지 아무도 알 길이 없고 언제 천국으로 들어 갈 수 있을 런지도 알 길이 없다. 오직 더 많은 묵주기도를 드려야하고 더 많은 미사를 드려야 하고 천주교회로부터 더 많은 은혜를 받기위하여 더 많은 헌금을 드려야 할 뿐 이라고 개탄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초대교황이라고 부르는 베드로 사도가 경계한 말 씀을 경청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선생들이 있 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드려 ...탐심을 가지고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利得)을 삼으니 ...”(벡후 2:1, 3). 천주 교는 구원을 “상품화” 하였고 이것은 최고의 수익을 올리는 금광이 되 었다⁴¹⁾고 경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천주교의 위조품인 연옥에 관련된 여러 가지 거짓되며 이권(利權)적인 허탄(虛誕)한 교리들은 실로 중세 암흑세상의 흑세무민 (惑世誣民)하는 행위이었다. 그런데 최첨단 과학의 현세에도 아직 그 러한 교리들이 표현만 조금씩 그럴 사 하게 바꾸어서 그대로 거룩한 하나님과 교회의 이름으로 횡행(橫行)하고 있다. 인류 구원을 위한 거룩한 기독교의 교리로 포장한 이와 같이 허탄한 교리들은 크게 지탄(指彈)을 받고 경고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40) 같은 책, pp. 374-375.

41) 같은 책, p. 375.



5) 면죄부(대사)는 종교개혁 이후에도 계속하여 판매되고 있다.

데이브 힌트는 이어서 지금까지 보아온 바와 같이 구원은 면죄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로 판매되어 왔으며 현재에도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그리고 현대에도 마찬가지로 그 비용을 현금이라는 미명으로 부르지만 면죄와 구원의 대사(大赦)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고 있다고 한다. 또 역사가 윌 듀란트의 흥미있는 발언내용을 인용하였다.

...면죄부의 판매도 사제들에 의해서 죽은 자들의 연옥 기간을 단축해 준다는 미사에 대한 보상으로 금전지불이나 증여 유산 등의 수취나 혹은 기증유도(誘導)행위였다 경건한 사람들이 이러한 목적으로 죽은 그들의 친척이나 친구들이 연옥에서 고통 받는 기간을 단축 받도록 혹은 자신이 죽은 후에 연옥의 형벌을 면제받도록 거액의 금전을 헌납하였다 가난한 자들은 미사를 위해 지불할 돈이 없기 때문에 불평하기를 이 땅의 운유한 자들이 아니라 부유한 자들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콜럼부스는 슬피 탄식하면서 돈을 찬양하기를 “돈을 가진 자가 영혼을 낙원으로 옮겨가는 능력을 가진자다.”고 했다.⁴²⁾

듀란트의 이 주장은 종교개혁 이후에 오늘날까지의 대사(면죄부)의 판매는 죽은 자들의 연옥 기간을 단축해 준다는 명목의 미사에 대한 보상으로 금전 지불, 증여 유산수취, 기증 등을 유도하여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은 그들의 가족이나 친지들이 연옥에서 고통 받는 기간을 단축시키고 자신들도 죽은 다음에 연옥의 형벌을 면제받기 위하여 거액의 금전을 헌납하였다고

42) 같은 책, pp. 377-378. 재인용.



하였다 또한 가난한 자들이 천주교의 대사와 미사라는 미명으로 유도하고 있는 면죄부 판매 행태에 대한 불평은 돈으로 구원을 팔아온 천주교에 대한 직격(直擊)적인 고발이며 뼈아픈 호소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콜럼부스의 슬픈 탄식과 돈에 대한 찬양은 천주교의 거짓된 대사 교리와 구원을 돈으로 파는 만행을 만천하에 고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헛트는 교황이 스페인에서 돈으로 대사(사면)를 판매한 사실을 폭로하고 있다. 교황이 스페인에서 <연간 십자군 교서>(Bull of Crusade)를 7세 이상의 국민들이 1년에 한번은 구매하게 하고 시체를 넣은 관에도 그 교서를 붙이지 않으면 아무도 매장을 못하게 하고 교황은 그 교서를 구매하자마자 즉시 이단 죄와 성결서원 죄 외의 모든 죄에 대한 사면(대사)을 허락했다고 했다. 그래서 18세기의 한 천주교 평론가는 이 교황의 교서가 구원한 영혼의 수보다는 지옥에 보낸 수가 더 많지 않나 의심했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무슨 죄를 지어도 이 교서만 가지고 있으면 모두 다 용서받을 수 있으니 이 교서를 <범죄 허가서>로 삼고 하고 싶은 대로 무슨 죄든지 맘껏 짓게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⁴³⁾

또 그는 유명한 천주교 변증학자 피터 크립트는 “천주교는 루터의 이탈이후에 즉시 행실을 깨끗케 하고 면죄부 판매를 금지시켰다”고 주장했고, 찰스 콜슨도 똑같은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그것은 결코 진실이아니라고 했다. 종교개혁 때까지 이러한 구원의 판매는 수 세기동안 수백만의 사람들을 속여 왔고 그 돈을 환불해준 적도 없으며 돈으로 구원을 샀다가 속아서 영원한 불행의 세계로 빠져 들어간 영혼들에 대한 무슨 구제책도 없다. 그런데도 신자들의 돈을 착취하고

43) 같은 책, p. 378. 재인용.



구원을 박탈한 것처럼 통 큰 사기를 단숨에 청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였다 그 무엇보다 불행하게도 이 사기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하였다.

헌트는 이어서 크립트가 대부분의 천주교 변증가들과 같이 기만적이고 사악한 면죄부교리가 현재 천주교의 절대 필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으며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전히 돈을 지불하고 있는 사실은 숨기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저 유명한 쇠신과 에큐메니칼 공의회라고 자칭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도 “교회는 …대사(면죄부) 사용을 유지할 것을 명하고 있으며…면죄부가 무용하다거나 교회가…구원의 획득을 위해서 그것을 발행할 권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니라.”⁴⁴⁾고 선언하였다고 하였다

헌트는 이어서 천주교가 과거의 가증한 것들을 더 이상 행하지 않는다고 변명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지금도 여전히 행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좀 덜 한 편이나 천주교 국가들에서는 공공연하게 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미국에서도 구원을 위해 천주교에 현금을 내고 구입할 수 있다고 하였다. 헌트의 한 친구의 아버지가 최근에 별세 했는데 2천불(약 240만원)을 드려서 그 아버지의 장례미사 카드를 구입했다고 했다. 이 금액은 여러 번의 미사를 드려서 그의 아버지가 연옥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것이었다고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천주교는 그의 신도들에게 절망의 복음을 주고 있다. 수많은 천주교인들은 혹시 치명적인 죄를 범하지 않았나, 고해성사 때 혹시 빠진 죄는 없는가, 구원을 위해 천주교가 정한 모든 규정들 중에 못 지킨 것은 없는가, 하는 등 끝없는 공포 속에서 살고 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천주교의 포로가 된 상태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44) 같은 책, 378-379. 재인용.



하나님의 부요한 은혜와 그리스도의 갈보리 속죄 은혜를 감격스럽게 받아들이는 대신에 구원을 위하여 천주교만을 바라보고 있다⁴⁵⁾고 개탄하고 있다.

(6)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자들에게는 파면과 저주가 선언되었다.

성경적이며 초대교회적인 기독교의 진정한 복음은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행 16:31, 11:14-17, 엡 1:13-14, 행10:43) 그런데 천주교는 이러한 단순하고 명백한 구원의 도리를 아주 복잡하고 인위적이며 기만적이며 사기(詐欺)적인 성사(聖事)구원과 연옥에서의 보속과 대사를 통한 구원으로 대체하고 말았다. 그것도 오히려 부족하여서 그들은 진정한 성경적인 바른 복음을 믿고 자신들의 거짓되고 헛된 성사복음과 연옥에서의 석방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파문과 저주를 선언하고 있다. 저들은 진실로 적반하장(賊反荷杖)격으로 수치를 모르는 절대 과오를 범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데이브 헛트는 천주교에서는 아무도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사망에서 생명으로”(요 5:24) 곧바로 옮겨가는 사람이 없고 언제나 천주교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구원을 노력해서 벌어가며, 끝내는 연옥에까지 가서 고통의 과정이 끝나기를 바라고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리고 실제로 천주교인은 자신이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완성된 속죄를 믿어서 영생을 받았다고 말하면 파문의 대상이라고 했다. 또한 복음주의자들이 확신하는 복음의 핵심이 천주교에서는 그

45) 같은 책, p. 379.



들의 공식 교리문답 집과 교회법전과 선언문들과 교리들 등에 의해서 부인 되고 있으며, 그 어느 누구든지 감히 성경대로의 복음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anathematized)⁴⁶⁾고 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천주교의 이러한 주객전도(主客顛倒)의 만행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대처해야 할 줄 안다

(7) 이러한 천주교와 연합하겠다는 개신교 지도자들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일까?

힌트는 계속해서 이렇게 묻고 있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이 분명한 거짓 복음을 어떻게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를 설교하는 자들과 함께 세계복음 선교에 동참할 수 있겠는가? 선한 양심을 가진 복음주의 자들 이라면 연옥과 면죄의 대사를 설교하는 천주교에 진리를 찾는 영혼을 소개 할 수 있을까? 자신들이 천국 문을 통제하고 자기들의 손에 운명을 맡기는 사람들에게 그 문을 열어준다고 주장하는 그런 천주교를 참 그리스도교로 취급하여서 전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는 또한 천주교는 스스로를 “구속의 대리 분배자”라고 자랑하고 있다고 꼬집고 있다. 또한 그들이 뻔뻔스럽고 조금도 부끄럼 없이 자기들이 제공하는 구원은 할부(割賦)제로 조금씩 받아야 하는 것이며, 그 구원의 효과는 “그리스도의 공력”이 아니라 성인들이 구원받고 남은 잉여 선행(공로)에서 온다⁴⁷⁾고 하는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

그는 이어서 어떻게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천주교를 동일한

46) 같은 책, pp. 375-376.

47) 같은 책, pp. 373-374.



기독교로 받아들이고 복음의 동역자로서 같이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고 제안하는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개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는 그들이 천주교의 진정한 교리에 무지하고 천주교 변증가들의 수많은 유혹에 기만을 당한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 외에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고 있다. 정말로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복음의 간성(干城)이 되어야 할 그들이 복음주의와 천주교가 복음의 핵심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말 할 수 있다는 말인가⁴⁸⁾ 하고 개탄(慨嘆)하고 있다.

헌트의 이러한 개탄과 호소는 오늘날 천주교와 연합하자고 주장하는 WCC와 에큐메니칼 운동의 밑물 같은 공세에 휩쓸리고 있는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커다란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오늘날 기독교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 중에는 이러한 천주교에 대해서 거의 백지와 같이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조금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을 전부로 알고 오판하고 있지 않나 염려가 된다. 한편 진보 측에 속한 지도자들은 신학교에서와 교단을 통하여 오랫동안 천주교에 대하여 긍정적이며 우호적으로 세뇌되어서 자신도 모르게 그저 좋다고 속고 있는 것이 아닌지 크게 우려가 된다.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의 지도자들이라면 책임의식을 가지고 앵무새 같이 신학 교수나 다른 동료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복창(復唱) 할 것이 아니고 진지하고 신중하게 천주교를 연구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며 의무라고 생각한다. 천주교에 대하여 바르게 가르쳐 주는 국어로 된 교회사와 책들과 비판서들만도 충분히 나와 있다고 생각한다. 양들의 영원한 운명을 바르게 지도하여야 할 목자들이 소경된 인도자들이 되어서 자신과 양들을 한가지로 지옥으로 이끄는 무서운 과오를 범하게 된다면 그 피 값을 어떻

48) 같은 책, p. 374.



게 감당 할 수 있겠는가?

(8) 허망(虛妄)한 대사(면죄부) 교리의 실제문제

대단히 미안하지만 천주교의 이 화려하고 엄청난 특사인 대사교리는 절대로 터무니없는 허망한 것에 불과하다. 이에 대하여 간단하게 몇 가지를 더욱 기술하려고 한다.

1) 성인들의 공적(功績)분배란 교묘한 사기극에 불과하다.

로레인 비트너는 그의 저서 「로마 카톨릭 사상 평가」에서 면죄부가 명백하게 복음적 구원의 계획에 위배된다면 교황은 왜 그것들을 계속해서 파는가? 왜 아직도 그 몹쓸 관습을 계속 지지하는가? 그 대답은 대사(면죄부)가 바티칸의 엄청난 수입원이 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돈을 쉽게 모을 수 있고 이 미신적 습관으로 엄청난 돈을 거둬들였다. 성 베드로 대 성당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계획들도 이런 식으로 모은 돈으로 대부분의 재정을 충당했다. 오늘날에는 교황이 면죄부를 팔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들은 아직도 수여되고 있고 그것들을 구하러 온 신자들은 절대로 빈손으로 와서는 안 되는 것으로 통하고 있다⁴⁹⁾고 하였다.

그리고 비트너는 계속해서 말했다. 개인구원 문제에 대한 천주교의 교리와 관습은 교행과 사면(대사포함)의 전 체계가 전혀 거짓인 것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 또 구원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의뢰하는 자들은 행함이 아니고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들은 교황

49) 로레인 비트너, 「로마 카톨릭 사상평가」, 이 송훈 역, (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p. 365.



이나 사제들로부터 고행이나 사면(대사포함)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행하여 쌓아 놓았다고 추정하는 성인들의 여분의 공적이란 것도 모두 꾸며낸 말이다. 그 어떤 사람도 선행으로는 결코 자기 자신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공적이 어디에 남아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므로 천주교가 주장하는 성인들에게 나누어 받았다고 하는 고행이나 선행이나 공적들은 무가치 할 뿐만 아니라 교묘한 사기극에 불과한 것이고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것⁵⁰⁾이라고 하였다.

그는 계속해서 그러한 천주교의 제도는 하나님을 죄를 용서만 하시고(그것도 사제를 통하여서) 죄값(죄벌)은 천주교의 교황과 사제들만이 감면시켜 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심지어 교황과 사제들이 그리스도와 마리아와 성인들의 공적까지도 독점하여서 자기들을 통하여서만 그것들을 분배하여서 사면을 시키고 대사(면죄)를 시여하여서 연옥에서도 구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분수를 넘는 오만불손(傲慢不遜)한 망발(妄發)이며 무지한 신도들을 교황과 사제의 권세아래에 계속 묶어 가두어 두는 가장 효과적인 방책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⁵¹⁾고 고발하고 있다.

우리는 천주교에 대하여 깊이 연구한 이런 이들의 폭로와 수고를 결코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 노고에 감사하며 우리도 그들과 같이 천주교의 거짓된 해독들에 대하여 폭로하고 경고하기를 힘써야 할 줄 안다. 그리하여 가련한 영혼들이 영혼사냥꾼들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바르게 이끄는 선한 인도자가 되어야 하겠다.

2) 면죄부에 대한 변명과 오늘날의 대사 받는 조건들

50) 같은 책, pp. 365-366.

51) 같은 책, p. 366.



① 면죄부라는 표현은 의미로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천주교 측에서 대사를 받는 조건으로 헌금(?)을 받고 헌금영수증을 발부하여서 대사를 받았다는 증거로 삼은 것을 면죄부를 팔았다고 한 개신교의 표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먼저, 「가톨릭 교리 사전」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면죄부라는 말은 대사(大赦)의 의미인 라틴어 Indulgentia(관대함, 은사 호의)에서 나온 것이며 본래의 뜻은 ‘관용을 베푸는’인데 이 단어에서 천주교의 대사(大赦)를 의미하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따라서 이 말을 정확히 번역하려면 ‘대사부’ 또는 ‘대사령’으로 해야 옳을 것이라고 하며 이 말의 발단 즉 종교개혁 당시의 교황 레오 10세가 일반적인 대사를 받는 조건 두 가지에다 “셋째로 성 베드로 대성전 건축비로 응분의 헌금을 한다.”는 조항을 넣어서 ‘대사령’을 발표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첫째와 둘째 조항을 실천하겠다는 조건하에서 먼저 헌금을 하는 이에게는 ‘헌금수령증’(대사령장)을 주었다. 그런데 이 증서를 가진 자에게 특전을 부여한 독일 대주교의 교서에 따라서 이 ‘대사령장’을 소지한 자는 어느 신부에게든 가서 고해성사를 받고 제한 없이 교회로부터 받은 사죄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돈만 내면 수령증을 주고 수령증만 있으면 죄도 사해진다.”는 낭설이 돌기도 했고 헌금수령증서를 배부한 것이 오해받고 와전되어서 당시 천주교에 반대하는 자들에게 ‘면죄부’라는 낙인을 받게 되었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대사령’사건을 가지고 천주교를 비방할 수는 있어도 그것은 문자 그대로 ‘면죄부’라고 할 수 없다⁵²⁾고 주장하고 있다.

이 교리서의 설명과 주장은 이해가 되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52) 박도식, 『가톨릭 교리 사전』, (서울 : 가톨릭 출판사, 2006, 개정초판 7쇄), pp. 89-91.



그러나 문제는 문자적 표현에 있지 않고 그 내용과 의미에 있는 것이다. ‘대사령장’은 얼마든지 ‘면죄부’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은 사실로 면죄(사면)를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천주교는 ‘대사령’ 사건을 걸고 가톨릭을 비방 할 수는 있다고 했으면 되는 것이지만 면죄부라고 부른다고 시비를 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문제의 핵심은 현세와 연옥에서의 죄벌의 사면이 금전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② 종교개혁 후의 대사(면죄)의 종류와 대사 받는 조건들

트렌트 공의회에서 "대사를 얻기 위한 모든 부정행위는 절대로 폐기되어야 한다."⁵³⁾고 공포하였다고 한다. 그러면 그 후로는 대사(면죄부)를 위한 금전거래는 완전히 사라졌다는 말인가? 얼핏 겉으로 보면 대사에 금전은 개입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속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오직 겉만 페인트를 잘 칠해서 깨끗하게 보일 뿐이고 내용은 변함이 없다고 본다. 이하에 최근의 전대사 수여의 실화를 몇 가지 들어 보겠다.

◀“신앙의 해”의 전대사 수여> (가톨릭 신문 2012. 10. 14. 10면, 2013. 12. 2. 2면)

“신앙의 해”(2012. 10. 11~2013. 11. 24)를 맞이하여 교황은 신자들에게 전대사를 수여하기로 하고 교령을 발표했다

(1) 신앙의 해에 전대사 받는 대상들

53) 제임스 C. 기본스, 『교부들의 신앙』, 장면 옮김, (서울 : 가톨릭 출판사, 2006, 재인용), p. 409.

옛날에도 특정한 성당이나 성지 순례자들 에게 대사를 시여했는데 최근에도 다양하게 대사를 시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신앙의 해의 전대사를 받는 대상은 아래와 같다.

① 각국지역 직권자가 지정한 거룩한 곳을 방문하여 여러 가지 지정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 수여한다.

한국은 전국 12개 교구별로 특정성당과 성지들을 공고하여 알렸다.

② 신앙의 해 동안 자신이 세례받은 장소를 하루 방문해서 세례서약을 갱신하는 자들에게 수여한다.

(2) 전대사 받는 조건들

① 일반 신자들

진심으로 참회하고 고백성사를 보고, 성체성사(미사)에 참여하며 교황성하의 지향에 따라 기도하는 신자들에게 전대사가 부여될 것. 그리고 추가하여서 몇 가지 실천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② 질병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집을 떠날 수 없는 신자들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의 집을 떠날 수 없는 신자들 역시 교황이나 시노드 참석교부들의 발언을 라디오나 TV로 접하여 시청하고 주님의 기도나 어떤 공식적인 신경, 그리고 신앙의 해의 목적에 맞는 다른 기도들을 바치며 희생이나 생활의 불편을 봉헌한다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3) 전대사를 얻어 연옥영혼에 양도한 실화 (가톨릭 신문 2013. 7. 28. 21면)

서울 모 본당의 한 노 부부(70대)는 신앙의 해에 1년이 넘도록 매일 네댓 시간을 꼬박 투자하여서 명동 대성당을 순례하며 미사를 봉헌하고 정해진 기도를 바쳐 300여 번의 대사를 얻어서 고스란히 연옥영혼들에게 전했다고 한다. 이 실화를 쓴 기자는 “기도와 순례 희생과 자선 등으로 얻게 되는 대사는 연옥 영혼들뿐 아니라 세상의 많은 죄인들을 위해 쓸 수 있는 영적 보화입니다.”라 하고 끝을 맺었다

그런데 여기에 밝혀진 대사를 얻는 조건에는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힘든 희생과 자선이 나오고 있다. 헌금이라는 말을 의식적으로 제외한 저들이 희생과 자선이라는 말로 표현을 바꾼 것이라고 보아야할 줄 안다. 희생에는 정신적 희생과 육체적 희생과 물질(금전)적 희생이 포함되므로 여기에는 분명히 헌금이 포함되는 것이다.

<제 28차 세계청년대회 참가자에게 특별 전대사 수여>(가톨릭 신문. 2013. 7. 28. 1면)

교황청은 브라질에서 열리는 이 세계청년대회를 맞이하여 <특별대사수여 교령>을 반포 하였다.(이 대회 기간(2013. 7. 23-28)에만 유효)

(1) 일반 참여자들이 전대사 받을 조건

정해진 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교황의 뜻에 따른 기도)을 이행하고, 대회장에서 열리는 예식(미사)이나 행사들에 경건하게 참여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참회하는 신사들에게 하루에 한번 수여된다.



(2) 합당한 장애로 행사에 참석 못하는 신자들이 전대사 받을 조건

이들도 같은 조건들(고해성사, 영성체, 교황의 뜻에 따른 기도)을 이행하고 지정된 날들에 거행되는 예식과 신심 행사에 TV나 라디오 또는 스마트폰 트위터 팔로를 통해 참여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세계적 대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시간과 여비의 희생 말고도 참석회비라든가 고해성사나 미사와 영성체 등에 받치는 현금 등 많은 금전이 지불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무료로 대사를 받는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위령성월의 전대사 수여>(가톨릭 신문. 2013. 11. 4. 14면)

(1) 신앙의해 기간에 위령성월이 겹쳐 있어 이 기간 중에 지정된 성지를 방문하고 기도를 바치면 전대사를 받는다.

(2) 천주교는 11월 1~8일에 ‘열심한 마음으로 묘지 방문과 죽은 이를 위한 기도를 하면 연옥의 죽은 이들에게 양도되는 전대사를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다.

지정된 성지방문도 맨 주먹으로 될 수 없고 여비 외에도 비용이 들 것이다

<성시간 시행자들에 대한 전대사 수여>⁵⁴⁾

천주교에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미사 밖에서 성체를 공경하는 의식을 성시간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성시간은 미사가 끝난 직후에 그 자리에서 갖기도 하고 다른 시간이나 다른 장소(소성당이나 소규모

54) 마태오 신부, 『성시간』, 최봉희(테레사)옮김, (서울 : 가톨릭 크리스찬, 2006, 2판 1쇄), p. 41.



의 장소)에서 갖기도 한다. 천주교에서는 최근에 이러한 성시간을 통하여 신자들이 성체(憵)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미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장려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성시간에 참여하고 시행하는 신자들에게는 전대사의 특전을 수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근에 나온 「성시간」에는 1829년 교황 비오 8세, 그레고리 16세, 비오 9세(1875. 5. 13), 레오 13세(1886. 3. 30) 등이 이 성시간을 실천하는 신자들에게 전대사 수여를 선포하고 장려 했다고 한다.

이러한 미사 외에 행하는 성체공경 행사들은 규모가 크거나 작거나 그들의 신앙심을 더욱 심화시켜서 천주교에 충성하게 하는 것으로서 금전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것이다.

<교황 요한 23세의 통큰 전대사 수여>

교황 요한 23세는 1958년에 그의 즉위식에 참석하거나 라디오로 듣든지 T.V나 뉴스로 그것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사를 베풀었으며, 그리고 다시 1961년 부활절에 로마 성 베드로 광장에 부활절을 지키려고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대사를 베풀었다고 한다.⁵⁵⁾

그렇다면 모든 신도들이 연옥에 가지 못하게 하고 또 연옥에 가 있는 영혼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매달이나 매주나 아니면 매일이라도 무조건 전 세계 신도들에게 전대사를 수여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적어도 무수한 영혼들을 구원하려는 열망이 있다면 하루 한번이라도 전대사를 베푸는데 얼마나 고생이 되겠는가? 그런데 왜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영혼구원의 대사(大事)를 실천하지 않고 산 너머 불 보듯 구경만 하고 있다는 말일까? 사랑의 실천을 제일로 주장하는 교황이 가장 중

55) 로레인 뵈트너, 『로마 가톨릭 사상 평가』, 이송훈 역,(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p. 363.



요한 이 일을 무엇 때문에 미루고만 있다는 말인가? 그렇게 하면 수입이 크게 감소되기 때문일까?

<성물을 이용하는 자들에게 대사 수여>

「천주교 용어사전」에 의하면 성직자가 축복하여 성물(聖物)이 된 십자가나 묵주나 패(牌), 성상(그리스도, 마리아 성인들, 천사 등의 모습을 조각하거나 주조(鑄造)한 상(像)), 성화(聖畵), 상본(像本)(성문구를 담은 책갈피에 끼울수 있는 성화상 카드), 망토(성의: 스카폴라),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대사(大赦)를 얻게 한다⁵⁶⁾고 한다.

이러한 사제가 축복하여 성물이 된 성물들을 사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대사를 준다는 것은 너무나 솔직한 면죄부 판매라고 하지 않겠는가?

<연옥 영혼의 조력자회 등 회원들에게 수여하는 대사>

맥심 위상은 「연옥실화」에서 좀 의외적인 대사의 조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853년에 프랑스에서 수녀들로 “연옥영혼의 조력자회”를 창립하고 후에 그 “명예회원”을 모집하였다. 명예회원은 연옥영혼을 위하여 기도 고행, 희생을 하였고, 희생(자선)은 죽은 영혼을 위하여 무료로 봉사하고 회의 유지를 위하여 매년 자원하여 돈을 기쁨으로 바친다. 비오 9세는 그들에게 1860년에 명예회원으로 입회한 날과 위령의 날과 몇 가지 축일에 전대사를 주었다. 또 명예회원이 임종시에 통회하고 “자비로우신 내 예수여”라는 화살기도를 바치는 때에 전대사를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1884년 프랑스의 부계 신부가 설립한 “연옥에서 잊혀지고

56) 초형락, 「천주교 용어사전」, (서울 : 작은예수, 2006), pp. 248, 250.



있는 영혼을 위로하는 회”는 세계에 2천만 정도의 회원이 있다고 한다. 이 회원들도 입회일과 17개의 축일과 모든 성인들의 17축일, 기타 7일 중 임의의 하루와 매월 첫 주일과 임종시에 전대사를 받아서 자신과 죽은 영혼들에게 돌려 줄 수 있다⁵⁷⁾ 고 한다.

그들은 심지어 연옥영혼을 구출하기 위하여 조력자하나 “명예회원”과 “연옥에서 잊혀지고 있는 영혼을 위로하는 회”까지 조직하여서 그 회원들이 자원회비나 희생 등으로 헌금을 바치는 자들에게 전대사를 주기까지 하고 있다.

이상으로 천주교에서 종교개혁 이후에 대사를 베푸는 여러 가지의 경우들을 살펴보았다. 그들은 대사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을 정해놓고 일반에는 공개하지 않고(?) 여러가지 경우에 대사를 선언하고 있는 것 같다. 이상에 열거한 것은 극소수의 것이며 이 예들을 보면 교황이 원하면 얼마든지 또 다양한 대사를 시여 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남발되는 대사들이 진실로 산자들의 죄벌을 면죄하는 효력이 있으며 연옥 영혼들의 연옥잠벌을 감면하는 효과가 있겠느냐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신자들이 그러한 대사를 얼마나 신뢰 할 것인가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을 줄 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모든 대사에는 중세와 같이 직접 헌금이 수반되지 않는 것 같으나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금전이 따른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다음의 <대사 받는 조건>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러나 중세에는 대사가 축재의 수단이 되었지만 그 후에는 대사가 선심과 인력동원과 자신들의 인간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편리한 수단이 되고 있는 면도 있어 보인다. 이러한 목적으로 수여되는 갖가지의 대

57) 막심 퀴상, 『연옥 실화』, 한국복자수녀원 옮김, (서울 : 가톨릭 출판사, 2006), pp. 177-179.



사는 중세와 같은 직접 금전수집 보다 어떻게 보면 더욱 기만적이며 무지하고 가련한 영혼들에 대한 더 큰 범죄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줄 안다.

<오늘날의 대사 받는 조건들 중에 현금 문제>

종교개혁 이후에 대사 교리는 그 어디에도 그 대사를 받는 조건들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 보인다. 위에 기록한 가톨릭 신문의 <신앙의 해의 전대사 수여>란에 그 조건으로 “희생”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지만 최근에 나온 「가톨릭 교회의 사말(四末)교리」에 대사를 받는 일정한 조건의 일부로서 “희생”이 명기되어 있다

“교회는 일정한 조건, 이를테면 고해성사, 미사참례 기도, 희생 성지순례 등을 이행한 신자들에게 잠벌(暫罰)을 경감하거나 면해주는 은사(恩赦), 곧 대사를 베풀 수 있다. ‘합당한 마음자세로 규정된 일정한 조건들을 채우는 그리스도교 신자는…그리스도와 성인들의 보속 공로의 보고(寶庫)를 권위있게 분배하며 적용하는 교회의 도움으로 대사를 얻는다.’ 대사는 대사를 받기위한 조건들을 채운 당사자가 받을 수도 있고 연옥의 영혼에게 양도 할 수도 있다.”⁵⁸⁾

중세 종교개혁시(1517)의 대사의 조건은 세 가지 중에 마지막 것에 “성 베드로 대 성당의 건축비로 응분의 현금을 한다.”는 것이 들어 있어서 결국 종교개혁까지 발발하는 도화선이 되었었다. 그런데 그 뒤로 이 문제를 제거하기 위하여 현금을 깨끗이 청산했다는 저들의 주장은 표면뿐이고 내면은 변함없다고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들

58)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 『죽음·심판·지옥·천국 (가톨릭 교회의 사말교리)』, (서울 : 천주교중앙협의회, 2013), p. 48.



의 문서들은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철저히 ‘헌금’이라는 단어를 통제해온 것 같이 보인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등에도 헌금 등에 해당되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런데 필자가 소유한 천주교 서적 가운데에는 전혀 발견되지 않은 이 단어가 2013년에 출판된 이 사말교리서에 ‘희생’이라는 단어로 등장하고 있다. 그것도 보통 성경적 관점으로 얼핏 봐서는 헌금이 포함되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단어이다. 상식적으로 ‘희생’이라고 하면 구약과 신약의 희생 제사를 먼저 생각하게 되나 일반적으로는 정신적 희생과 육체적 희생과 금전적 희생이라고 해석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중환 새로 나온 국어대사전에는 희생을 “일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에 따르는 자기의 목숨 · 재산 · 이익 따위를 돌보지 않고 바치거나 버림”이라고 잘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 「한글-라틴, 라틴-한글 사전」에 이 단어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이나 재산 기타 이익을 포기하는 행위, 이는 사랑의 실천이요 공로가 되므로 그리스도교인 사이에 널리 권장되고 있다”(1508p.) 이 두 사전의 설명을 보면 최근의 천주교의 대사(면죄)의 조건 가운데에도 금전이나 재산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미사 참례나 성지순례에도 직간접적으로 금전이 포함되는 것을 부인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천주교의 대사(세칭 면죄부)교리는 오늘 날도 금전으로 변함없이 거래되고 있다고 확언 할 수 있는 것이다.

3) 면죄부 교리의 치명적인 문제점

중세로부터 발전되어온 대사 즉 면죄부 교리는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치명적인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천주교의 교리들

의 치명적인 문제점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고해자들의 사죄권이 인간 사제에게 있다는 교리는 절대 불가한 것이다.

매고 푸는 권세나 몇 가지 성구로 변명하며 심지어 ‘하느님께서만 죄를 용서하신다.’고 해 놓고 제자들에게 사죄권을 주셨다고 하지만 (가톨릭교회 교리서 1441항) 이는 하나님만의 절대적인 사죄권을 박탈하는 중죄행위라고 할 수 밖에 없다.(시 32:5, 히 10:15-18 참고)

② 고해자들의 죄는 사제의 사죄선언으로 용서받지만 죄의 결과로 생긴 모든 폐해를 갚기 위해서는 보속을 해야 한다는 교리도(가톨릭교회 교리서 1459항) 비성경적인 터무니없고 치명적인 독소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한다는 말은 그 죄에 따른 형벌까지도 다 면제하신다는 것이다. 진실로 회개하고 자복한자는 그 죄벌까지도 깨끗이 제거해 주시는 것이다(시 51:1-4, 히10:14, 17-18 참고). 그런데 죄를 용서했다고 하면서 그 죄 값을 갚는 보속을 추가해서 치러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무수한 약속의 말씀들과 무한한 은혜와 권능을 무시하며 폐하는 무서운 중죄행위가 되는 것이다.(대인대물적인 보상은 성경적이므로 해야 하겠지만) 이는 설사 사제의 사죄권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럴 수 없지만) 용서받은 사람을 보속이라는 명목으로 일평생 천주교의 노예와 같이 만드는 치명적인 죄악이 되는 것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다

③ 그리고 용서받은 자들에게 죄값의 보속을 사제가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기도, 헌금, 자선 행위, 이웃을 위한 봉사 자발적인 절제 희생 십자가를 인내로 받아들이는 일 등으로 부과한다는 교리도(가톨릭교회 교리서 1460항) 비성경적으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치명적인 죄악에 빠지게 하는 대죄가 되는 것이다.

④ 교회의 통공(교제 : 나눔)으로 현세교회 신자가 연옥교회 신자에게 자신들의 공로와 천국교회에 있는 성인들의 공로를 대사(大赦)를 통하여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교리도(교리서 1475, 1478, 1479 항)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므로 결과로 치명적인 것이 된다고 할 것이다.

첫째, 이방종교는 거의 선행공적종교이다. 그런데 천주교도 이방종교들과 동일하게 선행공적으로 구원 받는다고 하니 은혜구원종교인 기독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더군다나 선행공적으로 자신만 구원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생존하는 타인이나 연옥에 가있는 타인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구원 받게 할 수 있다고 하니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을 뿐이다. 성경적으로 볼 때에 어떠한 선행이나 공적으로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간 사람들이 자신들의 선행으로 구원받고 남은 공적을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을 구원해 낼 수 있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결코 선행으로 자기 자신 구원도 불가능한 사람이 자기를 구원하고 남은 선행공적으로 다른 사람까지 구원한다고 하니 도저히 말할 가치도 없는 것이 아닌가?

셋째, 그것도 천주교가 마리아와 모든 성인들의 남은 공적을 천주교에 축적해두었다가 생존자나 연옥인들의 잠벌의 사면을 위하여 대사(大赦)로 배급하여 준다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천주교에 축적된 보고 안에는 마리아와 성인들의 공적과 함께 그리스도의 속죄와 공로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다.(교리서 1476, 1477, 1478, 1479 항) 이렇게 성인들의 남은 공적들에 마리아와 심지어 그리스도의 공로

까지 뒤 섞어 넣어서 쑤아 둔 천주교가 그 공적의 보고를 열어서 죄인들의 잠벌을 사면하는 대사로 나누어 준다는 것이다. 문제는 마리아나 성인들의 공적을 나눠준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공적까지 거기에 끌어들여서 나눠준다는 것은 너무나 비성경적이며 몰염치(沒廉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스도의 공적까지도 대사로 판다는 말인가?

⑤ 더욱이 고해성사를 통하여 “죄의 결과인 잠벌의 적어도 부분적인사면”을 받는다는 교리(교리서 1496항)도 거짓되고 아주 치명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죄의 고백자에게 신부가 부여한 보속의 실천으로도 죄의 결과인 잠벌(현세에서나 연옥에서 잠시 받게되는 벌)의 부분적인 사면만 받는다는 교리도(교리서 1496항) 무서운 독소를 포함하고 있는 치명적인 것이다. 신부가 상대에 따라 무리하지 않게 적당히 보속을 부과했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잠벌의 부분적으로 더 받아야 할 사면이 남아 있을 리가 없다. 신부가 고의적으로 평생 실천할 수 없는 보속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런데 왜 교리에 고해로 잠벌의 부분적인 사면만 받고 나머지 사면 받지 못한 잠벌이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못을 박고 있다는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다. 이는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의도적으로 일평생을 천주교에 예속시키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거룩한 성 교회라고 하는 천주교가 어떻게 양들이라고 하는 신도들에게 영적이며 신앙적인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엄청난 죄악을 저지를 수 있다는 말인가?

⑥ 마지막으로 치명적인 문제는 있을 수 없는 성인들의 잔여공로들을 쑤아놓고 죄인들에게 대사로 나누어 주면서 제시하는 조건 중에는 금전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중세에는 공공연하게 헌금을 요구하여서 종교개혁 당시에는 소위 면죄부라는 헌금수령증서와 대사를 교환하기 까지 하기도 하였다. 그 후로는 공공연한 헌금 등 금전요구는 자취를 감추었지만 그래도 직간접적으로 거의 돈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고 하겠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최근에는 전대사를 받기위한 조건으로 고해성사 성체성사(미사)봉헌, 교황의 뜻에 따른 기도, 지정해 주는 성지순례 희생(물질적인 것 포함), 자선(이것도 물질) 등이 제시되고 있다.⁵⁹⁾(가톨릭 신문 2012. 10. 14. 10면, 2013. 7. 28. 1면, 21면, 2013. 12. 2. 2면,)

이상과 같은 최근의 대사 받는 조건들에는 미사봉헌(성체성사)과 성지순례와 희생이 포함되어 있다. 미사에는 봉헌금이나 일반 헌금이 따르고, 성지순례에도 많은 돈과 헌금이 수반된다. 그리고 희생도 생명이거나 재산이나 이익을 포기하고 바치는 행위가 따른다. 겉으로는 헌금 조건 없이 그냥 대사를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항상 많은 돈이 따르고 있는 게 사실이다. 창조와 섭리 주 하나님의 외아들은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값없이 희생하여 주셨다. 그리고 비성경적이며 절대로 불가능한 성인들의 공로를 대사라는 명목으로 금전을 통해 거래 한다는 것은 아무리 해도 있을 수 없는 대죄라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고해자에게 죄 값을 치르라고 부과하는 보속과 그 보속을 치르고 남았다는 잠벌과 잠벌을 치루는 연옥과 거기에다 또 그 잠벌을 사면해 준다는 대사 등은 실체가 없는 거짓된 것들이다. 그런데 이렇게 실재하지도 않는 신기루 같은 것들을 위하여 많은 신앙의 행위들과 그 위에 금전들을 바치게 하는 일은 영적인 기만으로서 가장 사악한 죄라고 하여야 옳을 것이다.

59)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 『죽음·심판·지옥·천국 (가톨릭 교회의 사말교리)』, (서울 : 천주교중앙협의회, 2013), p. 48.

4) 고해의 사죄와 잠벌(暫罰)과 보속(補贖) 및 대사(면죄)에 대한 성경말씀

① 진정한 죄의 고백은 하나님께 직접해야한다.(시32:5, 눅 15:11-32, 롬 14:12)

②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하고 자백한 죄는 하나님께서 직접 용서하여 주신다 그 죄 값(잠벌)을 다시 치르게 하지 않고 깨끗이 사면해 주신다.(막 2:7, 마 9:2-6, 눅15:11-32, 요일 1:9, 사 1:18, 히 10:17-18, 사 43:25)

③ 그러므로 용서받은 자의 죄벌(잠벌)에 대한 보속(補贖)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요일 1:7, 사10:43)

④ 그리고 보속을 치러도 잠벌이 부분적으로만 치러지고(보속을 다 못할 경우 외에도?) 부분적으로는 남아서(교리서 1496항) 그것 때문에 연옥에 가게 되고 그 남은 잠벌은 대사를 통해서 사면 받아야 한다는 것도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⑤ 따라서 그 잠벌을 대신 갚아 줄 성인들의 공로(공적)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있을 필요도 없는 것이다.

⑥ 따라서 남은 벌이라는 부분적 잠벌을 받는 연옥도 존재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⑦ 그러므로 그 남은 잠벌을 사면 받게 한다는 대사(大赦)도 절대로 불필요한 것이다.

10. 연옥교리의 해악(害惡)성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여서 목사가 되어 본국인 이태리에 가서 많은 교회를 설립하고 거의 평생 이태리에서 복음을 전한 스테반 L. 테스타 목사는 「천주교는 성경에 있는가?」라는 그의 저서에서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연옥은 단순한 천주교 교계제도의 발명품이다. 신약성경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은 추호도 없다. 이러한 교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모순이다. (눅 23: 43, 요 14:3을 보라.) 그것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대한 모욕이다. 그것은 그들이 죽기 전에 그 목적을 위하여 돈을 남겨 두고 가든지 혹은 그들이 죽을 때에 돈을 주는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있어서 그들을 위한 미사를 드리기 위하여 돈을 지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영들만을 연옥에서 더욱 속히 나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의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교리로 말미암아 가난한 천주교인은 죽을 때에 위로를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앞에 불꽃과 고통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기독교인이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행복스럽게 죽는 신교의 견해와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행 7:55-60을 보라).⁶⁰⁾

이상의 스테반 L. 테스타의 주장에 의하면 연옥교리는 아래와 같은 여러가지 해악(害惡)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1) 이 교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값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공로(복음)에 대한 모욕이다.
- 2) 그리고 이 교리는 연옥을 속히 벗어나오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잘못된 방법의 축재(蓄財)를 하게 할 수 있다.
- 3) 또한 이 교리는 구원을 돈으로(미사와 대사(면죄부)등) 살수 있다

60) 스테반 L. 테스타, 『천주교는 성경에있는가?』, 조인숙 옮김,(부산 : 기독교다이제스트사, 1972), p. 39.

는 기만 죄를 범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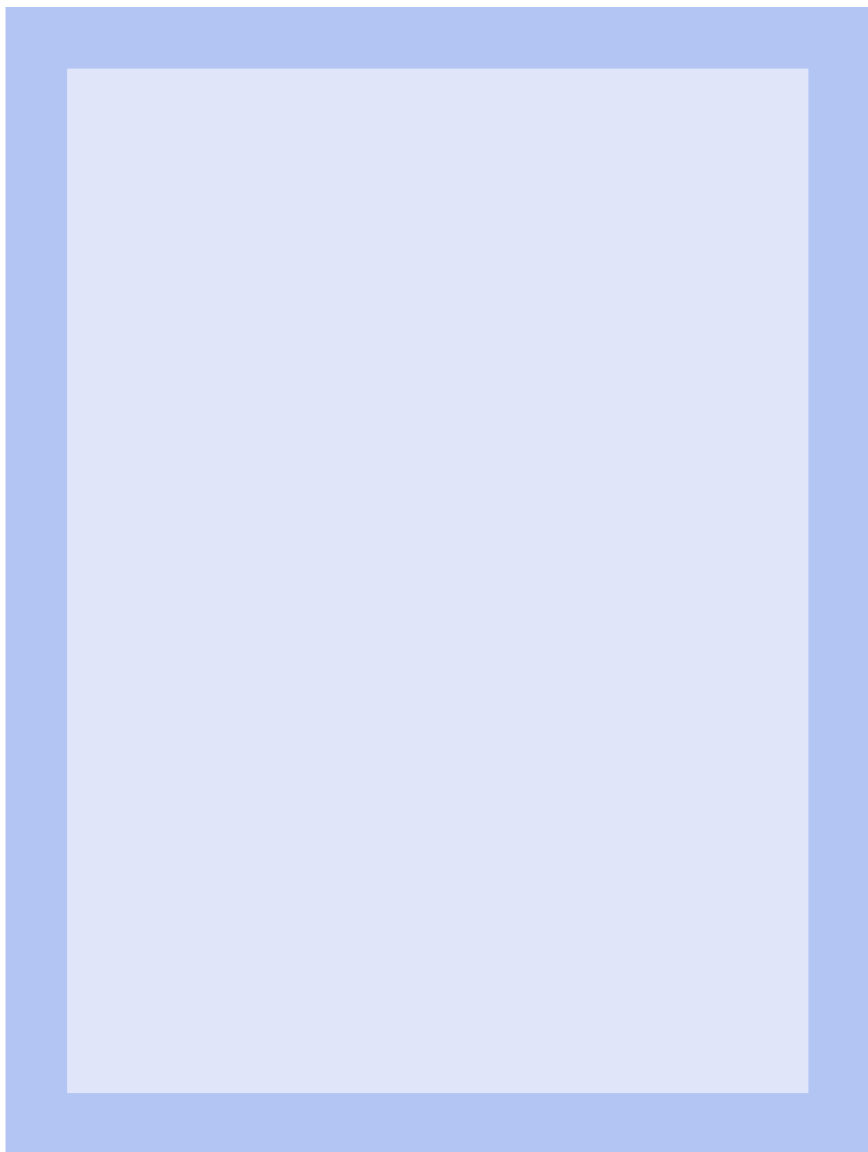
4) 무엇보다 이 교리는 하나님을 불의하게 만드는 대죄(大罪)이다 즉 하나님을 돈을 내야 구원해 주고 돈 없는 가난한 사람은 구해주시 않는 돈 밖에 모르는 불의하고 몰인정한 분으로 만드는 대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5) 그리고 이 교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위로받지 못하고 절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든다.

6) 그리고 최후로는 천주교도들이 죽음을 불행하게 맞이하게 한다. 즉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 연옥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불행한 죽음을 맞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온갖 불신과 기만과 불행을 초래(招來)하는 거짓된 연옥교리는 속히 폐기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연옥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간략하게 마치려고 한다. 필자는 연옥에 대하여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천주교가 알팍한 상흔으로 연옥교리를 창작해서 무지한 못 영혼들을 상대로 하여 영혼장사를 해온 그들의 상호(商號)와 같은 연옥은 언제나 문을 닫을 날이 올 것인지 그저 답답하기만 할 따름이다.



제 2 장

성화상(우상)들은
누구를 위하여 만들었는가?



천주교는 우상을 성화상(聖畵像)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엄금하시는 무수한 우상들을 만들어 세워두고 공경이라는 미명하에 온갖 숭배를 자행(恣行)하고 있다.

1. 천주교가 우상숭배를 하게 된 간략한 경위

천주교에서 성화상(聖畵像)은 그려진 인물상과 조각상을 포함하는 말이다. 간략하게 천주교가 성화상을 숭배하게 된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초대교회는 300년경까지 우상숭배를 엄격히 금지했다

300년경에 열린 엘비라 교회회의 규정에는 교회 안에서 이런 종류의 상을 사용하는 것을 엄하게 금지하고 있다⁶¹⁾

사실 초대교회로부터 300년까지는 대 박해기간 이었고, 교회는 순수한 복음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적이고 거짓된 요소들을 단호히 배격하였다.

(2) 4세기 초부터 우상숭배가 교회 안에 자리 잡아.왔다

그러나 4세기 초에 성당을 장식하기위해 그림을 사용했고 그때부터 회화나 조각 등으로 그리스도나 사도 순교자들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61) H. V. 스트라렌 외, 『제2차바티칸 공의회문헌해설총서 6』 현석호 옮김, (서울 : 성바오로출판사, 1993, 재인용), p. 129.



그들은 예배하기 위함이 아니고 존경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성화상 숭배를 합리화 하여왔다.⁶²⁾

300년간 계속된 로마제국의 무자비한 박해들을 극복한 교회가 갑자기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고 거기다가 로마제국의 국교가 되는 엄청난 특권까지 누리게 되었다. 그러자 교회 지도자들은 제국의 온갖 환대와 높아진 위상에 취하게 되고 평신도들도 마음이 해이해지면서 우상숭배의 습관들과 여러 가지 그럴듯한 불순물들을 끌어들이게 되었다. 성화상 숭배도 그런 종류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3) 한때는 우상숭배에 대해 철저한 반대(성화상 숭배 파괴, 화상숭배 폐지)도 있었다(성 화상들에 대한 전쟁과 콘스탄틴 공의회에 의한 성화상숭배 폐지결의. 726-753)

그런데 726년에 성화상 존경에 대한 공적인 반대가 레오 3세 황제의 성화상 존경 금지칙령 반포 때부터 60년간 계속되었다 그리고 레오 3세의 아들 콘스탄티누스 5세가 753년에 ‘성화상 파괴회의’라 불리는 교회회의를 열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그리스도나 성모나 성인들을 나타내는 화상을 보존하거나 존경하는 일은 우상 숭배 행위라고 선언 했다. ...또 “누구라도 생명이 없고 아무 쓸모도 없는 화상에 의해 성인들을 표현하려는 것은 거짓 생각이고 악마에게서 나온 것이다. 실제 생활로 성인들의 여러 덕을 상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는 파문되어야 할 것이다”고 선언했다.⁶³⁾

62) 같은 책, p. 129

63) 같은 책, p. 131.



이렇게 건전한 성화상 반대가 있었고 반대선언이 있었지만 천주교의 주도세력과 세속 정치세력이 결탁하여서 성화상 반대세력을 제압하고 결국은 성화상 숭배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그러나 성화상 숭배 금지 칙령은 얼마 못가서 강한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다. 그리하여 무려 100여년(724-842)간 이 문제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벌어져서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비잔틴제국의 몰락을 재촉할 정도였다. ...성화상 숭배를 반대하는 이론적 근거는 십계명의 제2계명에 대한 유대인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엄격한 해석이었다. ...그리하여 754년의 교회회의는 화상숭배를 “이교의 우상숭배로 전락한 행위이자 영과 진리로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받으셔야 할 예배의 자리에 마귀가 슬그머니 끼워 넣은 것”이라고 규정하고서 그것을 금지했다.⁶⁴⁾ 이렇게 까지 핵심에 가까이 접근하였으나 사탄의 집요한 간계(奸計)는 그치지 않았다.

(4) 그러나 교황과 섭정여왕과 다수에 의해 결국 우상 숭배는 교리화 되었다. (787년 제2차 니케아 공의회의 성화상숭배 결의)

공교롭게도 강력한 성화상 숭배 반대세력을 꺾고 성화상 숭배교리를 성사시킨 배후에는 이세벨과 같은 간악한 섭정여왕 이레네가 주연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녀는 성화상 숭배를 강력하게 반대한 레오 3세

64) 필립 샤프, 『교회사전집(4)』, 이길상 옮김, (경기도 :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4), pp. 405-408.



와 그의 아들 콘스탄티누스 5세의 뒤를 이은 아들 콘스탄티누스 6세가 어린 틈을 타서 섭정을 하면서 위의 두 왕의 결의를 뒤집어 버리고 말았다

그 후 38년간 두 왕 치하의 반격과 독일 프랑크 교회들의 성경적인 온건한 반대도 매우 컸지만, 결국 교황들의 막강한 영향력, 시대의 감각적 경향, 성직자들의 무지, 그리고 민중의 맹신(盲信)이 결합하여 화상숭배를 끝내 결행하도록 만들었다.⁶⁵⁾

이 악명 높은 성화상 숭배교리를 결의한 것은 787년 10월 13일 니케아 공의회(제7 총회)였다 이공의회에서 섭정왕 이레네가 공의회를 통하여 결의하여 반포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거룩하고 존경해야 할 화상을 받아들이고 경의를 표해 친구(親口)한다 이들 성화상은 사람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평생 동정이신 거룩한 어머니, 의인에게 인간의 모습을 취해 나타난 물질이 아닌 천사들의 성화상이고, 또 동시에 거룩한 사도 예언자, 순교자들의 성화상이다... 이들 성화상은 우리들에게 그 근본이 된 분을 상기시켜 어느 정도 그들의 성성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⁶⁶⁾

또 아래와 같이 성화상의 종류를 열거하고 그것들을 둘 위치를 지정해 주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석자 전원이 이 결정에 서명하고 외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결정된 교리를 반대하고 성화상을 숭배하지 않고 천주교인을 우상숭배자라고 부르는 자들을 파문해야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65) 같은 책, pp. 414-422.

66) H. V. 스트라켄 외, 『제2차바티칸 공의회문헌해설총서 6』 현석호 옮김, (서울 : 성바오로출판사, 1993, 재인용), pp. 135-136.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 7총회(10월 13일)에서 이렇게 선언했다 “...그러진 것이든 조각이든 혹은 어떠한 방법이든 십자가를 표현한 것과 성화상은 성구, 의복, 벽, 가옥, 도로상에 놓아야 한다. 이 성화상은 예수그리스도, 무염시태의 성모, 거룩한 천사 여러 성인의 화상이다.

...그리고 회의에 참석한자 전원이 이 결정에 서명하고 외쳤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고 사도들의 가르침이다 이에 찬동하지 않고 성화상에 경의를 표하지 않고, 이를 우상숭배라고 불러 그 때문에 그리스도교 신자를 우상 숭배자라고 부르는 자는 배척되어야 한다.”⁶⁷⁾

이렇게 해서 그 무수한 우상숭배의 교리가 결정되었고 그 온갖 그림들과 상(像)들은 마치 천주교의 상징물과 같이 되었다. 그리하여 천주교는 완전히 기독교가 아닌 우상종교로 전락되고 말았다. 이와 같이 저들은 성경말씀을 저버리고 이방 우상종교를 모방하여서 결국 우상종교로 변종되고 마는 불운에 빠지고 말았다.

사탄은 결국 이세벨과 같은 섭정여왕 이레네를 내세워서 성화상 숭배를 지지하는 세력들과 결탁하여서 자기의 부왕(父王)과 부왕(夫王)의 주장과 결의를 뒤집어엮는 일을 성사시키고 말았다. 그녀는 아들 왕의 두 눈을 빼어서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마지막에는 섬으로 귀향을 가서 불행하게 생을 마친 불운녀가 되었다.⁶⁸⁾

(5) 성화상 숭배 반대파의 반격, 성화상 숭배파의 최후 승리(842)

67) 같은 책, pp. 136-137. 재인용.

68) 필립 샤프, 『교회사전집(4)』, 이길상 옮김, (경기도 :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4), pp. 414-418.



그리고 이레네의 뒤를 이은 네 황제가 재위한 38년 동안도 화상을 둘러싼 전쟁이 기복을 거치면서 계속 전개 되었다. 레오5세와 테오�필루스 황제(829-842)는 강력하게 화상숭배 반대정책을 폈지만, 테오�필루스가 사망한 후에 황후 테오도라가 아들의 섭정을 하면서 제2의 이레네 같이 전왕의 유언(화상 파괴정책을 변경하지 말라는 신신당부)을 속여 뒤집어서 결국 화상숭배를 재확립하기까지 했다.⁶⁹⁾

이상으로 살펴보면 소위 성화상 숭배라고 하는 천주교의 우상숭배 교리는 4세기부터 시작해서 9세기까지 무려 500여년이나 걸친 기나긴 세월을 통해서 이뤄졌다. 그것은 또한 찬반(贊反)의 심각한 대립과 갈등을 거쳐서 결국은 교황권의 탈선(脫線)된 생각과 잘못된 영향력, 황제들의 권력과 특히 이세벨같은 두 섭정 여왕들의 간교와 지도자들의 맹신(盲信)과 민중들의 무지가 결탁(結託)하여 고안(考案)한 실패작이라고 해야 옳을 줄 안다.

그리고 이들이 상투적(常套的)으로 합리화(合理化)하는 핑계는 성화상의 대상이 되는 분들을 상기(想起)하고, 존경하며 본받으려는 것이지 결코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변명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단지 하나의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탈리아 토리노의 주교(814-839년 재위)를 지낸 클라우디우스는 이 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잘 말하였다.

화상 숭배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은, 자신들이 화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성인들에게 예(존경의)를 바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이교도들도 같은 논리로 자신들의 우상숭배를 변호한다고 답변했다. “우리는 창조주를 경배해야지, 피조물을 경배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구해야 할 구원을 하늘이나 땅에 있는 어떠한 피조물에게서

69) 같은 책. pp. 418-419



구하는 자는 우상 숭배자이다.’ 죽은 성인들은 우리에게 숭배를 받기를 원치 않으며, 우리를 도울 수도 없다. 우리는 땅에 살아 있는 동안 기도으로써 서로를 도울 수 있으나, 죽은 뒤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70)

이상의 주교의 주장도 그들의 변명에 대하여 명확하게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도 천주교는 하나님의 뜻과 성경말씀의 명백한 금령(출 20:4-6)을 어기고, 우상숭배에 길든 민중의 인기에 영합(迎合)하여 무지하고 무분별하게 교권을 남용하고 세속권력과 야합(野合)하여서 끝내는 사탄적인 우상숭배교리를 합법화하고 말았다. 그것도 상당수의 성경적이며 양심적인 목소리들을 왕권(王權)과 교권의 인간적인 계략(計略)으로 묵살하고 세몰이로 몰아붙인 것이었다. 진리에 따른 교리는 다수에 의해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야 한다.

2. 명확한 제2계명에 대한 범죄

(1) 천주교는 십계명을 고의적으로 수정(修整)까지 하여서 우상숭배를 강행(強行)하고 있다.

1) 성경적인 기독교의 명확한 십계명(그 제2계명)

출애굽기 20:1-17, 신5:4-21에서는 동일하게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대로의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다. 기독교는 분명히 제2계명을 순서대로 (두 본문대로: 출 20:4-6, 신 5:8-10)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것으로 따

70) 같은 책. pp. 424-425



르고 있다.

[출 20:4-6]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 5:8-10]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2) 천주교가 고의적으로 고친 십계명

① 제2계명을 제1계명에 포함시켜 버리고 실제적으로는 제2계명의 본문인 출애굽기 20:4-6과 신명기 5:8-10절은 대부분 거의 별로 설명도 하지 않으며 따돌려 버려 푸대접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왜 저들은 이 제2계명의 내용이 되는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고의적으로 소외(?)시키고 있는 것일까? 이는 그들이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두려워해서 고의적으로 은폐시키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② 그리고 마지막 10계명을 억지로 두 개로 쪼개어서 9계명과 10계명으로 만들었다.



원래 정교회와 성공회와 대부분의 개신교는 천주교와 달리 성경 본문대로 자연스럽게 분류하여 왔으나(기독교가 사용하는 대로)⁷¹⁾ 천주교에서만 2계명을 1계명 안에 흡수시켜서 사라져 보이지 않게 은폐하고 마지막 제10계명을 무리하게 억지로 9계명과 10계명으로 쪼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 (루터교는 형식은 천주교와 같이 따르고 있으나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성경본문대로(출 20:4-6) 강력하게 금하고 있다.)

“이웃의 집을 탐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 탐내서는 안 된다.”(탈출 20, 17)

“이웃의 아내를 탐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집이나 밭,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이웃의 재산은 무엇이든지 욕심내서는 안 된다.”(신명 5, 21)

(옛날에는 대부분 아내도 소유로 여겼다.) 이 구절대로라면 이웃의 사람들 가족들, 부동산들을 탐내지 말라는 것이다. 아내만 별도로 취급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천주교의 표준 성경에도 확실하게 이 부분은 단일한 한 절로 되어있다. 문장은 독립되어있으나 문맥으로도 동일하게 이웃의 사람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내용도 이웃의 사람이나 소유 전반에 대한 탐욕을 금하는 계명이므로 순서대로 제10계명 한 가지가 정확한 것이다.

그러나 천주교는 제10계명을 나누어서 제9계명과 10계명으로 만들고 제9계명을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로 고치고 말았다. 그러나 이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다. 그것은 그들의 제6계명 "간음하지 말라"

71) 이순용 · 마르코 위음, 『한글·라틴 · 라틴·한글 사전(辭典)』, (서울 : 가톨릭 출판사, 2009), p. 830.



와 제9계명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가 중복되고 마는 것이다. 즉 "간음하지 말라"의 범주 안에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말이 포함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중대한 십계명을 제정하시면서 이렇게 두 계명을 중복해서 주실 리가 만무하다.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같은 계명을 두 군데로 나누어서 말씀하셨을까? 아니면 실수해서 그렇게 하셨을까?

이상으로 천주교가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확고한 금령인 제2계명을 증발(蒸發)시킨 내력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추상(秋霜)같이 엄위(嚴威)한 제2계명을 고의적으로 수정한 흔적을 뚜렷이 알 수 있다. 저들은 자기들에게 불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사정없이 수정하여서 유리하게 조작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무리하게 (강제로) 나누어서 엄연한 한 계명을 두 조각으로 만드는 것도 서슴지 않고 있다.

만약에 저들의 주장대로 소위 성화상(聖畵像)이라는 성화들이나 조각상 등이 우상이 아니라면, 무엇하려고 이렇게까지 구차하고 무리한 수고를 다 한단 말인가? 이것이 천주교가 우상들을 제조하고 숭배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제2계명을 범하는 무서운 범죄행위를 고의로 자행(恣行)하고 있다는 극명(克明)한 사실을 반증(反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2) 제2계명의 명확한 금령

개신교 신학자들 중에도 이들의 견해를 그대로 존중하여서 성화상 대상에 대해 공경을 표시하는 것이 이 교리의 의도라고 변호해 주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제2계명 본문으로 돌아가 보아야



하겠다

제2계명 본문인 출애굽기 20장 4-6절은 명확하게 네 가지를 금하고 있다.

1) 새긴 우상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즉 만물이다. 거기에는 어떤 신상이나 천사들이나 그리스도나 선지사도들이나 그 어떤 성인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신명기 4장 16-18절 말씀을 보자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만들지 말라.(개정 개역 성경)

남자의 모습이든 여자의 모습이든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어 타락하지 않도록 하여라.(한국천주교회 공용 성경. 신명기 4: 16)

출애굽기 20장 4절과 신명기 5장 8절에는 하늘 위나 땅에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포괄적으로 말 했으나 위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명확했다. 특히 천주교 공용성경은 남자나 여자의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어 타락하지 않도록 하여라하고 더욱 구체적으로 강조하여 명확했다.

천주교가 이 교리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비록 존경만 표시하거나 공경하는 마음만 표시하기 위해서라도 그 누구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화상은 존경과 공경만 표하기 위하여 절대로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아무리 변명할 지라도 하나님은 무조건 무슨 이유로든지(비록 존경을 표시하기 위해서 일지라도) 그 누구(무엇)의 형



상자체도 결코 만들지도 말라고 하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더 말할 필요도 없지 않는가?

2) 그 형상들에게 절하지 말라.

무슨 형상이든지 그 자체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형상들에게 절도 하지말라고 하신 것이다. 아무리 그 형상의 주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일찌라도 그 형상에게 절도 하지 말라고 딱 잘라 말씀하시고 계신다. 4절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땅에 있는 인간들이나 그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어 절하지 말라는 것이다. 절을 하거나 입을 맞추는 행위 자체를 금하신 것이다. 존경이나 그 어떤 이유로든지 절하지 말라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천사도 자신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하라고 단호히 거절하였고 (계 19:10, 22:8-9) 베드로도 로마군인 백부장 고넬료의 절을 거절하였다.(행 10:25-26) 비록 하늘의 천사나 대 사도 일지라도 존경의 표시로도 엎드려 절하는 것을 거절하였다. 그런데 이미 죽은 자들의 성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절한다는 것이 가당하겠는가? 통상적으로 일단 영혼이 떠난 육체에 절하는 것은 물질에 절하는 것이므로 금지되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사망한 가족에게도 절하지 않으며 제사도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교리는 천사나 죽은 사도나 성인들에게 절하는 것을 합법화하였다. 이는 명확한 성경의 계명을 범하는 행위인 것이다.

3) 그 형상들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다.

절한다는 히브리어는 구부리다 절하다 엎드리다는 뜻이며 이 말은 엎드려 절하는 상대방에게 용서를 빌거나 기도한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히브리어사전 스트롱 코드번호 7812)

톰슨은 그의 「톰슨 II 주석 성경」(112p)에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말은 "다만 종교적인 경배나 복을 비는 등의 목적으로는 절대 만들지 말라는 경고이다."고 하였다. 이 앞드려 절하다라는 말은 또 왕이나 주인에게 청원할 때의 행위이다. 야곱은 형 에서 앞에 일곱 번이나 앞드려 절을 하므로 형의 용서와 구원을 구했던 것이다. 불교에서 백배나 천배나 하는 것은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하여 부처에게 백 번이나 천번을 앞드려 절하여 비는 것을 말한다.

천주교는 형상들의 주인공을 단순히 존경하는 표시로 절한다고 하나 그들은 실제로 절하면서 소원을 비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이방종교들도 대부분이 절하는 행위와 함께 숭배하며 소원을 빌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며 섬기지 말라고 금하신 것이다.

4) 그 형상들을 섬기지 말라

섬기다는 말은 일하다, 봉사하다, 섬기다, 시중들다, 예배하다 순종하다, 노예로 삼다는 등의 의미이다. (히브리어사전 스트롱코드번호 5647, 아바드(abad))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절하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에게 예배하고 시중들고 순종하고 포로나 노예처럼 끌려 다니며 받들어 섬기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종교나 천주교에서는 이 하나님의 확고한 금령을 어기고 그들이 조각하여 만든 형상들에게 지극정성을 다 바쳐 왕이나 신들처럼 받들어 모시고 시중들고 예배하고 있다. 천주교에서는 성인들을 수호신으로 삼아 섬기며 기도하고 그들의 기념일과 축일을 만들어 섬기며 축제를 벌여 숭배하며 심지어 성지를 만들어서까지 순례하면서 숭배하고 있다. 그런데도



숭배가 아니고 존경만 표시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보아도 이 제2계명은 아래와 같이 니케아 공의회가 결의하여 반포한 무류의 교리를 금하고 있는 것을 극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명확한 계명을 간교하게 왜곡하고 그럴듯한 공경이라는 이유를 붙여서 우상숭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들의 변명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명대로 저들의 성화상 숭배를 강력히 거부해야 할 것이다.

3. 천주교 예배의 세 가지 종류와 예배라는 용어의 차이

천주교는 이론상으로는 천사나 성인과 마리아에 대한 공경(존경)과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다른 말로 설명한다. 더 나아가서는 천사나 성인에 대한 공경과 마리아에 대한 공경도 구별한다. 그러나 공경이나 예배라는 말은 원어의 의미로는 별 차이가 없으며 실제상으로는 더욱 차이가 없는 동일한 말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이 두 가지 말을 통일시켜서 예배라고 부르기로 한다.

(1) 천주교 예배의 세 가지 종류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엄밀하게 말하면 천주교의 예배는 세 가지이다.

공경은 성모 마리아를 비롯하여 모든 성인들에게 드리는 존경의 예식을 말



한다. 그러나 이는 하느님께 드리는 흠숭(欽崇)과는 전혀 다르다. 따라서 하느님과 마리아 그리고 성인께 드리는 존경의 예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공경지례(恭敬之禮): 일반 성인에 대한 공경예식(dulia)

상경지례(上敬之禮): 성모 마리아께 대해 드리는 공경.(hyperdulia)

흠숭지례(欽崇之禮):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 경배 숭배(Latria)⁷²⁾

천주교인들은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경배(공경)을 드린다고 한다.

(2) 예배라는 용어의 동일성

위의 세 가지 존경(실제는 예배)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천사와 성인들에 대한 예배 (공경지례(恭敬之禮):공경예식)

천사·성인에 대한 숭경, 공경은 라틴어로 *dulia*인데 그리스어 *douleia*에서 온 말이다. 신학에서 일반 성인에 대한 공경 예식을 가리킨다. 이는 동사로 *δουλεύω*(*douleuw*)인데 종노릇하다, 봉사하다, 복종하다, 섬기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단어는 사람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마 6:24, 행 7:7, 롬 7:6) 섬긴다는 말은 예배드린다는 의미도 포함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단어는 70인역 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사용될 때 최고의 발전을 이루며 개별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전체적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지칭하는데 가장 흔히 사용되는 단어라⁷³⁾고 한다 그러므로 사실은 *dulia*가 성인에 대한 공경예

72) 이순용 마르꼬 엮음, 『한글-라틴, 라틴-한글 사전』,(서울 : 한국천주교회 교회사 연구회, 2009), p. 1808.



식이라는 말이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2) 성모 마리아에 대한 예배(상경지례(上敬之禮))

성모 마리아께 대해 드리는 공경은 특별히 구별해서 *dulia*에 접두어 *hyper*(초과, 초월, 극단, 대단히)를 붙여서 상경지례(*hyperdulia*)라고 한다. 마리아께 드리는 존경은 성인들과는 차별을 두어 더욱 높이어 드린다는 것이다. 지극히 높은 공경예식이라고 할런지 모른다. 그러나 *dulia* 즉 종이 되다, 예속되다, 종노릇하다 섬기다는 뜻은 같으며 단지 더 높게 섬긴다는 것만 구별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위의 70인 역 예서와 같이 개인적으로나 전체적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지칭하는 단어이므로 인간적인 상경의 공경예식이라는 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3) 하나님(성체)께 대한 예배 (흠숭지례(欽崇之禮))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 경배 숭배는 흠숭지례 즉 *Latria*라고 구별하여 쓴다⁷⁴⁾ 한글-라틴어 사전의 다른 곳에서도 예배를 *latría* 흠숭 즉 하느님께만 바치는 최고의 예배(존경)라⁷⁵⁾고 한다. 흠숭지례는 흠숭예식을 말한다.

그런데 천주교의 <교회법전>(제898조)은 성체(미사의 떡과 포도주)에게도 하나님께와 동일하게 최고의 예배인 흠숭(*Latria*)으로 경배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극한 정성으로 자주 이 성사를 배령(拜領)하

73) 게르하르트 키틀 외 150여명 편저, 『신약성서신학사전』, 번역위원회 역, (서울 : 요단출판사, 1990, 초판6쇄), p. 206.

74) 이순용 마르꼬, 『한글-라틴 라틴-한글 사전』, (서울 : 한국천주교회 교회사연구회, 2009), p. 1808.

75) 같은 책, p. 2037.



며 최상의 흠숭으로 경배하면서 지성한 성찬(성체)에 최고의 존경을 드려야 한다.”⁷⁶⁾ 그러므로 천주교는 성찬의 떡을 그리스도와 동일시하여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최고의 흠숭(Latria)예배를 법으로 정하여서 드리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도 성 삼위일체 하나님과 제2위인 성자와 동일하게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보면 천주교는 공경과 존경은 실제로 같은 뜻인데 이 존경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서 행하고 있다 공경지례나 상경지례는 원어로 같은 *dulia*인데 상경지례에는 공경지례와 구별되게 *hyper* 즉 초월, 대단히 등을 붙여 더 높은 존경예식으로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드리는 존경예식은 *latría*라는 단어를 써서 위의 두 예배와는 완전히 차별되는 것 같이 보이게 하고 있다.

그러나 「신약성서신학사전」에 의하면 보통 하나님께 대한 봉사를 언급할 때는 *latría*(그리스어: 라트류에인)로 번역되고 인간관계를 문제로 다룰 때는 보통 *doulia*(그리스어:둘류에인)로 번역된다고 한다. 그런데 같은 「신약성서신학사전」의 다른 곳에서는 *doulia*를 "개별적 행위들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전체적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지칭하는데 가장 흔히 사용되는 단어라고 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아바드"로서 주로 "섬기다, 봉사하다, 예배하다"는 의미인데 이 단어를 70인역으로 번역할 때에 *doulia*와 *latría* 두 가지 다른 단어를 사용하여서⁷⁷⁾ 혼란을 야기 시킨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성서신학사전에서도 엇갈리는 의미로 번역된 것 같이 보이고 천주교의 세 가지 예배설 까지도 초래한 것 같이 보인다. 그

76) 『교회법전』(라틴어-한국어 대역),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번역, (서울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4), p. 491.

77) 게르하르트 키틀 외 150여명 편저, 『신약성서신학사전』, 번역위원회 역, (서울 : 요단출판사, 1990, 초판6쇄), pp. 427-428.



러므로 똑 같은 의미의 단어를 가지고 결국 하나님과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에게 예배나 존경예식 등으로 차별되게 적용하는 과오를 유발(誘發) 하였다고 할 수 밖에 없을 줄 안다⁷⁸⁾

(3) 천주교의 예배와 존경이라는 용어의 차별사용에 대한 비판

존 칼빈은 그의 명저 「기독교강요」에서 천주교가 교묘하게 천사나 성인들과 마리아와 그 성화상들에 대하여는 숭배가 아니고 인간차원의 공경(존경)을 바치며 하나님께는 흠숭(欽崇)이라는 특별히 높은 공경을 바친다는 데 대하여 이렇게 비판하였다.⁷⁹⁾

1) 천주교의 둘리아(doulia: 봉사)와 라트리아(latria: 예배)의 구별은 부당하다.

칼빈은 여기에서 천주교가 둘리아와 라트리아를 구별하여 부른 것은 천사나 죽은 성인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드려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구실을 삼기 위하여 교묘하게 고안한 것이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실제로 천주교가 성인들에게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이 너무도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과 성자들을 구별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있으며 이론적으로 수세에 물리게 될 때에는 교묘하게 자기들이 하나님께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라트리아(예배)를 드리고 성인들에게는 둘리아(공경: 봉사)만 드린다고 변명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경에

78) 같은 책, pp. 427~429, 206.

79) 존 칼빈 저, 『기독교강요제1권』, 김문제 역, (서울 : 세종문화사, 1980, 제4판발행), pp. 227-228.



서는 이 두 단어가 종종 아무런 구별 없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2) 두 단어의 의미로는 사실 예배보다 봉사가 더 크다

라트리아는 의식적인 예배행위뿐이고 둘리아는 그 예배보다 더 큰 봉사행위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단어로만 따진다면 하나님께는 봉사보다 더 작은 예배를 드리고 성인들에게는 예배보다 더 큰 봉사를 드리는 셈이 된다.

3) 절하는 것(경배)과 섬기는(예배하는)것은 동일한 것이다.

마태복음 4장 9절에서 사탄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고 했는데 사탄이 내건 조건은 둘리아나 라트리아가 아니고 오직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4:10)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였다. 여기에서 경배는 앞의 9절의 경배와 똑 같은 단어이다. 이는 ‘프로스퀴네오’인데 ‘...에게 경의를 표하다. 엎드려 절하다. 경배하다, 절하다, 예배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엎드려 경배하는 행위와 예배하는 행위(섬기다: 라트리아)는 동일한 의미로 쓰여진 것을 알 수 있다. 천사나 성인이나 마리아를 공경한다는 둘리아(둘류오)도 노예상태로 있다, 복종하다, 종이되다, 예속되다, 섬기다. 예배하다는 등 라트리아와 같은 의미인데 엎드려 경배하는 행위와 똑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천주교가 교묘하게 라트리아와 둘리아를 구별하여서 천사나 성인이나 마리아에게 경배하는 것은 둘리아이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트리아)와는 다르다고 하는 주장은 간교한 속임에 불과한 것임을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다.



4. 성화상 공경은 명백한 우상숭배행위이다.

(존 칼빈의 철저한 성상숭배 반대주장 : 「기독교 강요」 제1권 제11장 1~16항의 줄거리 : 기독교강요 번역판 4권 다 참고)

칼빈의 철저한 성상숭배 반대 주장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은 불신앙적이다. 우상을 세우는 자는 반드시 참되신 하나님을 배반(반역)하는 자이다.

(1) 예배드릴 때 형상을 배격해야 된다는 입장에 대한 성경적 논증(1~4)

1) 하나님은 가시적 형태로 자신을 표현하려는 어떤 노력도 금하신다.(그림부터)

2) 하나님을 조형(조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모순된다.

3) 신적임재의 직접적인 표현도 형상을 만드는 일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4) 형상들과 화상(그림)들은 성경진리에 위배된다.(금했다)

(2) 성경과 교부들의 주장으로 교황 그레고리우스의 오류를 반박함(5~7)



- 5) 성경과 형상, 우상은 모순된다
- 6) 과거 교회 교부들의 교리도 우상에 대해 반대했다
- 7) 교황주의자들의 형상들은 전적으로 합당하지 못하다.

(3) 조각과 회화(예술품)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결과적으로 형상의 오용(誤用)은 예배 부패의 기원이 된다.(8~16)

- 8) 형상들의 기원: 사람들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유형적인 신적 존재를 갈망함
- 9) 형상을 세우면 곧 우상숭배로 타락되고 만다.
- 10) 천주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형상(우상)숭배의 실태
- 11) 교황주의자들의 어리석은 핑계들 (둘리아와 라트리아의 동일한 의미)
- 12) 예술(그림, 조각)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거꾸로 사용 할 수 없다
- 13) 순수하고 강력한 교리를 가진 교회는 형상들을 거절했었다
- 14) 니케아 공의회(787년: 우상숭배교리 제정한 공의회)에서 있었던 유치한 논쟁
- 15) 성경본문을 가소롭게도 곡해(曲解), 오용(誤用)하였다.
- 16) 형상들에 대한 모독적이고도 충격적인 주장들⁸⁰⁾

80)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 고영민 옮김, (서울 : (주) 기독교문사, 2006), pp. 219-245.



이상으로 칼빈이 극명하게 천주교의 성화상 숭배를 공격한 장에서 16개의 항목 이름들만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우선 이상의 우상숭배 반대주장의 제목들만 보아도 소위 천주교의 성화상 공경이 명확하게 하나님께 엄금하신 우상숭배임을 잘 알 수 있을 줄 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주교의 상투적인 변명과 핑계들을 일소(一掃)하고 그들의 뚜렷한 우상숭배를 정죄하고 반대해야 옳을 것이다. 지면상 칼빈의 우상숭배에 대한 분명한 반대 주장내용을 그대로 소개하지 못함을 양해 바란다.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직접 「기독교 강요」 제1권 제11장 1항~16항을 읽어보기 바란다.

5. 천주교의 상표와 같이 된 우상들

우상들은 온 세계에 천주교의 등록상표와 같이 되고 말았다. 천주교 하면 먼저 고색 찬연한 성당들과 그 성당들 안팎에 서있는 마리아나 예수나 사도들이나 무수한 성인들의 조각상들이 떠오른다. 천주교와 이 조각상들은 항상 밀접하게 붙어 다니기 때문에 별도로 떼어 생각 할 수 없이 거의 일체가 되어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천주교에서 이 조각상들은 등록상표와 같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천주교 하면 이러한 온갖 우상들이 보이고 또 이런 현상은 천주교를 기독교와 다른 우상종교로 특징짓고 있다. 그러므로 천주교의 등록상표는 우상이며 이 우상들을 통하여 천주교는 온 세상에 매매되며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천주교는 이러한 우상들이 없으면 존재가치가 없어지게 되며 수입에도 막대한 차질이 일어날 것이다. 진실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



는 것 보다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이 자연적인 인간의 본성에 맞고 편리하고 좋기 때문에 이 상표는 불신 자연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주교는 이 상표로 세상 끝날 때 까지 계속하여 많은 수입을 올리며 호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마치 우리주변의 우상종교와 같이...

6.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추상(秋霜)같은 경고의 말씀들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신 16:22)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레 19:4)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신 4:23)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람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고전 5:11)

너희도 이것을 정녕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 하는 자 되지 말라(엡 5:5-7).

열방의 우상은 은금ियो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시 135:15-18)

짐승 앞에서 받은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계 13:14-15)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계 14: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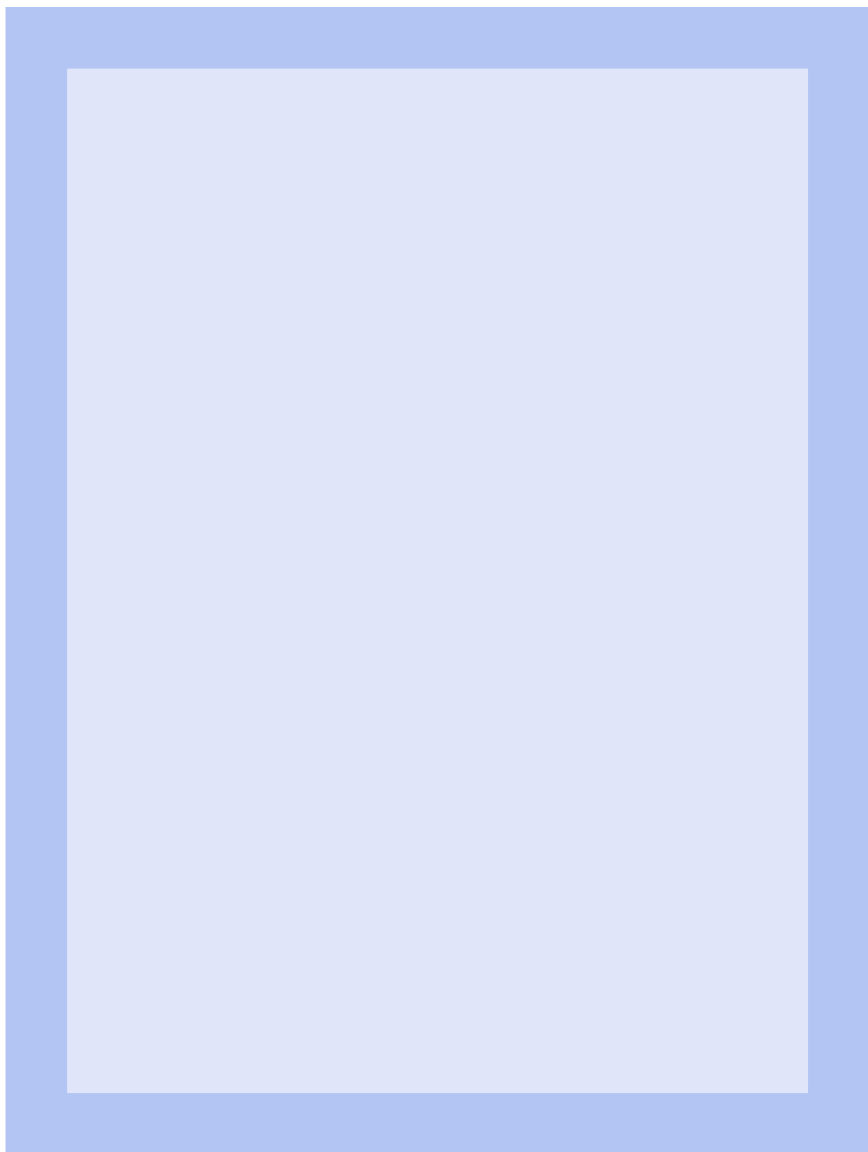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



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계 21:8)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밖에 있으리라 (계 22:15)

우리는 이상과 같은 모든 종류의 우상숭배자들에 대한 한 치도 예누리 없는 하나님의 추상(秋霜)같은 경고의 말씀들을 마음 깊이 되새겨야 할 줄 안다.



제 3 장

허황(虛荒)한 실체변화를
왜 그렇게 고집하는가?

(천주교의 마술의 떡과 포도주 : 상체성사의 결말)



미사제사와 성체성사 교리는 천주교의 핵심 교리 중의 하나가 되어 있다. 마틴 루터는 교황주의자들은 만일 미사가 폐지된다면 그와 더불어 교황 제도도 폐지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하였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이 속죄 제사의 재현인 미사 제사와 그 성체를 생명을 걸고 고수하는 것일까? 본장에서는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도록 하려고 한다.

1. 신부님이 독약이 든 성체(빵)에게서 도망치다

미사의 빵(소위 성체)이 실제로 변화된 그리스도라고?

먼저 성체에 대한 실질적인 흥미있는 이야기 한 토막부터 소개하기로 한다.

천주교의 교리대로 성찬의 빵이 그리스도의 실제로 변화되었다면 비록 그 안에 독약이 들어있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실제로 변화된 후에는 그 독이 효력을 나타내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합리적일 것이다. 여기에 어린이들의 내기문제와 같이 전해 내려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우리도 한번 이 이야기를 음미하여 보도록 하자.

한 예쁜 기독교 아가씨가 천주교 청년과 결혼했는데 성경진리 안에서 자란 그녀여서 남편을 따라 성당에 다니지 않았다 그 남편은 마음이 아파 날마다 아내를 타일렀으나 결코 우상 앞에 절도 하지 않고 미사도 성체도 기적들도 화체설도 모두 속임수라고 불신했다. 그래서 남편은 사제에게 기적을 행해서 아내를 설복시켜 달라고 부탁했다

사제는 장담하고 그 집을 방문해서 식사 후에 믿을 교리를 설명하고 내일



다시 올 터이니 빵과 포도주를 준비해 두라하고(필자 주: 당시에는 신도들이 준비했음) 그러면 성례전의 기적이 당신의 영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했다

다음날 사제는 그 집에 가서 빵과 포도주를 축복하였다.(필자 주: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시키는 기도) 그때 그 부인은 ‘사제님, 이것이 그리스도로 변했나요?’ 라고 묻자 사제는 ‘그렇습니다. 보통의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참 살과 피로 바뀌었습니다. 베고라 부인, 나의 이 권능이 이렇게 그리스도로 변화시킨 것입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리고 이 빵과 포도주를 축사한 후에 먹으려 하는데 그 부인이 사제에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반죽할 때에 반 온스의 비산(독약)을 넣었으니 까요. 그러나 사제께서 그 빵의 본질을 그리스도로 변화시켰으니 별 문제될 것은 없겠지요.’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사제는 안색이 창백해지고 놀라서 말을 못했다. 그리고 그의 손에서 빵과 포도주가 떨어졌고 숨을 헐떡이면서 ‘말을 대령시켜라. 여긴 저주받은 집이야’라고 울부짖자, 부인은 ‘나가지요, 로마의 저주는 당신이나 받으시오’라고 쏘아 붙였다

너무 놀라서 한 마디도 못하고 있던 그녀의 남편은 ‘여보, 사제는 달아났요. 그러나 허튼 일과 허튼 소리를 참읍시다. 나도 확신할 수 없군요. 난 당신과 함께 살 것입니다 우린 로마 카톨릭의 이 우화를 던져버립시다’ 라고 속삭였답니다81)

이 이야기가 실화인지 지어낸 이야기인지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사제가 축성한 빵과 포도주가 그 즉시 그리스도의 참 몸과 피의 실체로 변화되느냐는 것이다.

빵과 포도주의 축성으로써 빵의 실체 전체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몸의 실

81) 랄프 우드로우 지움, 『로마카톨릭주의의 정제』, 편집부 역, (서울 : 노아와 방주, 1997. 1판 7쇄). pp. 232-234. 재인용.



체로, 포도주의 실체 전체가 그리스도의 피의 실체로 변화한다.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변화를 적절하고도 정확하게 실체변화(transsubstantiatio)라고 불러왔다.⁸²⁾ -가톨릭교회교리서 1376항-

정확히 말하면 빵이 그리스도의 실체의 몸으로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록 빵 안에 독약이 들어있을 지라도 어떠한 독에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이시니 (막 16:18) 문제될 것이 없지 않겠는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니 세상의 그 어떤 독이 감히 그 몸안에 남아있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아무리 극약으로 범벽이가 된 빵일지라도 걱정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천주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확답을 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2. 변화된 성체(그리스도의 몸)를 입 안으로 모실 때에...

2003년에 발행된 잡지 엠보이 매거진에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다. 성체를 먹는 데에 따르는 실제적인 실화들을 들어 보려고 한다.

(1) 예수님의 성체(변화된 빵)가 우리 배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 성찬과 함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며 또한 빵처럼 보이는 성 변화된 제병이 우리 배속에 남아 있는 한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 즉, 약 15분 동안 주님은 우리 배속에 있다. 이 기간 동안 성령은 내 주변

82) 최창무 발행, 『가톨릭교회교리서』, (서울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4. 1판3쇄), pp. 538-539.



의 천사들에게 쉼 없이 주님을 숭배하고 사랑하기를 계속하도록 가르치신다. 성 버나드는 글로 남기길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우리 안에 계실 때, 천사들이 사랑의 수호자로서 우리를 둘러싼다”라고 하였다.⁸³⁾

(2)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남겼다

신성한 성체에 대한 공경심 때문에 천사들은 땅에 묻힌 간택된 이들의 육신 주위를 에워싸서 호위한다.⁸⁴⁾

(3) 2013년 7월 23~28일 브라질 세계청년대회에 분배될 성체들

가톨릭신문에는 2013년 7월 23~28일까지 브라질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에 “총 400만개의 성체가 미사 중 분배될 예정”이라고 기록하고 있다.(가톨릭신문. 2013. 7. 28. 20면.)

이 세 개의 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체

1) 그리스도로 실체 변화된 빵을 먹는 순간 천사를 동원해서 뱃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호위하며 경배하도록 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10수억이나 되는 천주교인들이 미사 시간마다 빵을 먹을 때마다 일인당 한 천사가 동원 된다고 해도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까? 또 필요한 일

83) 로저 오클랜드 지음, 『가톨릭 성체비판』, 스테반 황 옮김, (서울 : 기독교 문서선교회. 2010) p. 85. 제 인용

84) 스테파노 M. 마넬리 신부 지음, 『성체성사에서만나는 예수님사랑』, 이분도. 상민 옮김, (서울 : 가톨릭출판사. 2006), p. 113.



일까?

2) 무엇보다 충격이 되는 것은 부활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몸은 부활체로써 결코 변하거나 죽거나 썩지 않는 신령한 몸인데(고전 15:42-58) 어떻게 사람의 몸 안에 들어가서 소화되어 분해되고 또 배설물로 몸 밖으로 나와서 하수구나 사방에 흩어져서 썩어 없어진다는 말인가?

3) 천사들이 무덤에 묻힌 빵을 먹은 시체 주위를 에워싸고 호위한다는 말은 더욱 기가 막힌다. 그러면 그 시체가 썩을 때까지 천사들이 호위한다는 말인가? 그리고 그 시체가 썩으면 작별하고 떠난다는 말인가? 무엇보다 그렇다면 부활하여 신령한 부활체가 되어 썩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이 무덤 속에서 썩는다는 말인가? 도대체 말도 안 되는 말이다.

4) 무엇보다 총 400만개의 성체가 미사 중에 분배될 예정이란 말은 산산 조각난 그리스도의 부활체를 연상하게 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수백만 아니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까지 계산하면 수 조(兆)개도 더 되고 다 셀 수도 없이 많아질 것이다. 부활하신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이 이렇게 동전만한 빵이 되어서 한 개 두 개로 물건취급을 받으며 셀 수 없는 무한한 숫자로 제조되어서 교도들에게 분배하는 분배물이 된다는 사실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실로 이러한 이야기들은 부활 승천하여서 하늘보좌에 앉아 계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며 배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천주교는 어떻게 이러한 무서운 배도행위를 조금도 두려움 없이 계속 자행(恣行)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무도(無道)한 만행(蠻行)을 얼마나 더 참고 계실까??



3. 개종한 신부들의 미사제사에 대한 고백

미사의 실체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기에서는 실제로 미사를 무수하게 집전한 경험이 있는 몇 개종한 신부들의 진솔한 고백을 들어 보기로 하겠다

(1) 미사제사는 수치스러운 장난이며 마귀의 고안이다.

멕시코 출신 신부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시프리아노 발데스 하이메스는 자신의 사제생활을 반성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제단에서 피 없는 그리스도의 제사를 반복하기 위해서, 나는 축성(祝聖)의 말을 통해 빵을 그분의 살로, 포도주를 그분의 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부여받았다. 나는 이 권한을 기쁨과 깊은 존경으로 받아들였다. 내 손에는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신 우주의 창조주이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들려져 있었다. 내가 과연 무슨 정신으로 20년 간 줄기차게 그리스도를 제사 드리는 일을 해올 수 있었던 말인가? 게다가 주일에는 네 번씩이나 이 일을 했다 이것이 로마 가톨릭의 미사에 참여한 나와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두렵고 수치스러운 장난이었던가! 인간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절대로 반복할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마귀의 고안이다.⁸⁵⁾

이 신부는 자신이 20년 동안 무슨 정신으로 이러한 두렵고 수치스

85) 리처드 버닛 · 마틴 버킹엄 편저, 『교황대신 예수를 선택한 49인의 신부들』, 이길상 옮김. (서울 : 아가페출판사. 2002), pp. 97-98.



러운 장난을 주일에만도 네 번씩 해올 수 있었던 말인가? 하고 탄식하고 있다. 십자가상에서 단 1회로 완성하신 인류속죄의 성업은 결코 다시 반복될 수 없는 성역(聖役)인데 그렇게 무한하게 많은 모조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마귀가 짜 만들어낸 즉, 마귀의 작품이라고 했다 그 누가 감히 그렇지 않다고 항변(抗辯)할 수 있겠는가?

(2) 축성된 빵과 포도주에게 절하는 것은 창조된 물질을 숭배하는 우상숭배이다.

하이메스 신부는 계속하여서 미사제사가 신성모독적인 우상숭배라고 고발하고 있다

로마 가톨릭 교의는 축성(祝聖)된 빵과 포도주의 모든 분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충만히 거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얼마나 큰 거짓인가! 그리스도께서는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20)고 말씀하셨다. 로마 교회의 신성 모독적 거짓과 속임은 사제가 이른바 ‘축성’을 한 뒤에 빵과 잔을 들 때, 그리고 그 동안 회중이 절하고 자기들의 가슴을 치고 혹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데서 절정에 달한다. 이것은 창조된 물질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이다. 하나님은 빵 조각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요 4:24) 86)

미사시간에 축성기도 후에 사제가 높이 들고 “...이는 내 몸이니라,” 하고 “...이는 내피니라.”하는 순간에 그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하며, 그때부터 사제와 신자들은 그 빵과 포도주를 향하여 절을 하고 미사 후의 빵은 감실에 넣어두고 언제나 가서 절을 하며 묵상을 하며 기도를 한다. 이 신부가 고발한 것과 같이 이런 행위들은 창조된 물질을 숭배하는 우상숭배가 명백하다.

(3) 미사를 지내다가 “그분의 제사는 완료되었습니다. 우리의 미사는 부질없는 짓입니다”라고 외친 신부

이탈리아 출신 신부로 기독교로 개종한 프랑코 마조토는 자신이 미사시간에 겪었던 극적인 사건을 아래와 같이 고백하고 있다.

어느 주일에 나는 미사 찬송을 인도하고 있었다. 두 사제가 내 곁에 있었고, 성가대가 아름다운 소리로 찬송을 하고 있었다. 청년들 가운데 한 사람이 히브리서 10:10을 낭독했다.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계속해서 11절이 낭독되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히 10:11).

나는 곁에 있는 사제들에게 ‘저 청년이 낭독한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까? 여기를 한번 읽어 보세요’ 하고 말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들은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분의 제사는 완료되었습니다. 우리의 미사는 부질없는 짓입니다.’

나는 큰 성당을 둘러보았다.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그분이 제사를 끝내셨습니다. 그분이 그 일을 하셨으니 우리는 쓸데없는 짓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는 너무나 행복해서 울고 있었다. 마침내 내 마음에 선명하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다. 단번에 영원히, 단번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신 것이다. 주님의 제사는 온 인류를 위해 충분하고 완전하



다.⁸⁷⁾

이 신부의 생생한 고백은 십자가의 완성된 영원한 복음을 깨닫는 순간의 놀라움과 확신과 복받치는 감격을 숨김없이 잘 표현하고 있다. 그곳이 비록 성당의 제단 위이고 소위 거룩한 미사성제(聖祭)를 드리는 현장이었지만, 성령을 통하여 복음진리의 빛이 강렬하게 비칠 때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억제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 그는 많은 사람의 권유를 뿌리치고 크게 평생 보장받고 그리스도처럼 대우받으며 편하게 살 보금자리를 박차고 아무 보장도 없는 미지의 세계에 알몸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리고 마치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처럼 자기가 신봉하던 천주교 교리들의 허위성과 기만성과 사탄성을 용감하게 폭로하고 참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이처럼 복음진리는 언제나 큰 용기와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증거되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줄 안다.

(4) 미사를 더 이상 드릴 수 없어서 사직하고 개종한 신부

미국 출신의 신부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알렉산더 카슨은 자신은 “미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양심에 위배되기 때문에 더 이상 미사를 드릴 수 없어서 사제직을 떠난다”는 편지를 보냈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 날 밤 나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 로마 교회는 분명히 성경에 위배되는 것을 진리로 가르쳐 왔기 때문이다. 그 뒤로 나는 성경

87) 같은 책, p. 277.



을 내 진리의 표준으로 삼았고, 더 이상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도권’(敎導權, Magisterium)을 내 표준으로 삼지 않았다 사도행전 6:7에 나오는 유대인 제사장들처럼, 나는 ‘이 도에 복종’ 했다 나는 주교에게 로마 가톨릭 교회와 그 사역을 사임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쓰면서, 미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양심에 위배되기 때문에 더 이상 미사를 드릴 수 없어서 사제직을 떠난다고 진술했다.⁸⁸⁾

이 신부도 위의 신부와 같이 미사가 큰 걸림돌이었다. 물론 다른 교리들도 다 걸렸겠지만 신부로서 제일 첫 번째로 부딪치는 문제가 미사였을 것이다. 미사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마치 기계처럼 날마다 거행하고 있는 수십만의 신부들 중에 마틴 루터와 같은 이런 용감한 진리의 용사들이 있다는 것은 기독교에 큰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다. 무엇보다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미명 아래에서 이러한 미사제사의 우상을 숭배하는 천주교와 연합하겠다는 것은 정말로 무지몽매하고 어리석기 한없는 노릇이다. 이는 복음진리의 역사를 역류(逆流)하여 15세기 이전의 암흑세계로 되돌아가겠다는 어리석은 자폭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미사제사와 성체에 대한 진실

이제는 종교개혁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미사와 성체에 대한 올바른 비판에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하겠다.

(1) 미사의 성체(떡)는 하나님과 동일하게 예배하라고

88) 같은 책, pp. 71-72.



천주교 <교회법전>에 제정하고 있다. (교회법전 제 898 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지존한 제헌(祭獻) 거행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자주 이 성사를 배령(拜領)하며 최상의 흠숭으로 경배하면서 지성한 성찬(성체)에 최고의 존경을 드려야 한다.⁸⁹⁾

천주교의 이 <교회법전>은 칼빈이 지적한 바와 같이 비성경적이고 우상숭배 적이며 그리스도의 속죄제사를 모독하며 말살한 사탄의 위조품인 미사제사를 이상과 같이 법으로 확실하게 규정하고 있다. 사실이 법은 단순한 성찬 떡을 그리스도의 성체라고 하는 것만으로 부족하여서 그 떡에게 하나님과 동일한 최상의 흠숭(latria)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최고의 존경을 드려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다 이 법은 칼빈이 지적한 대로 우상숭배 적이며 신성모독 적이며 속죄제사를 모독하고 말살한 사탄의 위조품인 성체라고 하는 떡을 하나님과 똑같이 숭배하게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는 세 가지 예배대상 중에 성인들과 마리아에게는 인간으로 공경(dulia)하나 성체(떡)에게는 하나님에게와 똑같이 흠숭의 경배(latria)를 드리라는 것으로 성찬의 떡을 하나님(그리스도)과 동일하게 예배하게 하는 데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실로 이 사실은 천주교의 중대한 과오와 무엄(無嚴)한 죄악을 온 천하에 공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천주교의 이 미사제와 성체숭배로 모든 기독교가 따라간다면 인류구원의 길이 완전히 막히고 세상에는 구원의 소망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한 사도들과 초

89) 『교회법전』 (라틴어-한국어 대역),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번역, (서울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4), p. 491.



대교인들과 종교개혁자들과 함께 이러한 절망적인 세계가 되지 않도록 이 미사제사와 성체숭배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참된 생명의 복음을 전하도록 해야 옳을 것이다.

(2) 미사제사와 성체는 천주교의 생활전체의 원천이며 정점이며 요약이고 집약으로 여긴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속죄와 영생의 산 복음을 완전히 파괴한다는 데 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에 성찬례는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이다.’ ‘성체성사는 우리 신앙의 요약이고 집약이다.’고 했다.(교리서 1324, 1327항) “가톨릭 교인이 되려면 제병이 실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⁹⁰⁾

이는 미사제사에서 성찬례(성체성사)의 성체는 천주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이고 신앙의 요약이고 집약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천주교인이 되려면 제병이 실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는 점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주교는 화체설에 근거한 미사제사가 폐기 되면 무너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 미사제사와 성체성사를 생명처럼 여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천주교의 「알기쉬운 미사 해설서」에서는 미사성제(聖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90) 로저 오클랜드 저, 『가톨릭성체비판』, 스테반 황 역. (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2010) p. 113.



미사성제란? ‘이는 내 몸이요,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니 너희는 나를 기억하기로 이 예를 행하라(루카 22,19)’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신비적으로 제현하셨던 최후 만찬의 재현이며, 십자가상의 제사를 새롭게 하는, 그리스도를 제물로 천주(天主)께 바치는 신약의 제사이다. 그러므로 미사는, 교회가 천주께 바치는 흠숭지례의 극치이며, 완전한 찬미와, 감사의 제사, 속죄, 구원의 제사이다.⁹¹⁾

여기에서 저들은 미사제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신비적으로 제현(祭獻)하셨던 최후 만찬의 재현이라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성경 어디에 단 1회로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대속(代贖)의 제사를 한 없이 매일 새롭게 반복해서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신비적으로 재현한다고 기록된 말씀이 있는가? 히브리서만 보아도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는 단 1회로 영원히 완성하셨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 이하의 말씀들을 진지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잊지 말아야 할 줄 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히 9:25-28)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

91) 이기명 편저, 『알기쉬운미사해설』, (서울 : 가톨릭출판사. 1974, 2판 발행), p. 10.



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히 10:11-14)

무엇보다 천주교의 이 화체설에 근거한 미사제사의 재현 교리는 짐승으로 매일 제사를 드려서 속죄를 받는 구약제사를 모방한 것이다. 또한 절대 불가능한 일을 신비라는 미명하에 감행하는 무리한 행위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 미신적이고 물질숭배적인 미사제사의 최대 과오는 인류 구원의 유일하고 확실한 복음을 말살하는 것이다. 이러한 거짓되고 헛된 의식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모셔 들이며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다는 것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죄인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의 복음을 믿음으로 값없이 받는 구원의 은혜를 가로막는 무서운 죄악이다. 그러므로 천주교의 이 미사제사는 유일한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 길을 차단하며 가로막는 사탄적인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성 어거스틴의 성체변화 반대

개혁신교회와 천주교가 동일하게 크게 인정하는 성 어거스틴은 천주교의 이 성체변화에 대하여 명확하게 반대하고 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어거스틴은 사제의 축성능력(기도문이나 마력을 통한)을 어디에서도 언급하지 않는다
- 2) 성찬식으로 변화되는 것은 빵이 아니라 성체를 받는 충실한 신자들이다.
- 3)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은 동시에 여러 장소에 존재할 수 없다.
- 4)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몸은 이빨로 깨물고 씹고 삼키는 실



체의 몸과 피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니며 외적인 식사가 아니고 내적인 식사이다.

5) 성찬식은 그리스도를 먹어서 우리 몸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6) 성찬식의 변화는 물질적인 몸이 아니고 공동체가 단일체로 합일되는 변화이다.

7) 성찬 떡(면병) 속에는 피를 흘리거나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실제적인 몸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8) 어거스틴은 수백 번의 성찬식 설교에서 그리스도가 빵과 포도주 속에 실제로 현존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9) 어거스틴은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설교(강론)라는 듯이 말할 때가 많았다.⁹²⁾

성 어거스틴의 이상과 같은 주장은 성 변화에 대한 천주교의 교리와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는 천주교의 화체설에 근거한 성체교리를 강하게 부정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천주교는 자신들이 가장 공경하여 경배하며 최고의 신학자로 추앙하는 어거스틴의 이러한 명확한 주장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와는 정 반대로 역행하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무어라 변명할 것인가?

(4) 루터와 칼빈의 미사제사 비판

1) 마틴 루터의 비판

92) 게리 웰스 지음, 『교황의 죄』, 박준영 옮김, (서울 : 도서출판 중심, 2005, 초판 1쇄), pp. 227-231.



용의 꼬리, 미사는 독사의 자식들과 또 다중적인 우상숭배라는 독을 낳는다.(마틴 루터의<슈말칼드 신조> 제2부 조항 2)

① 미사는 가장 최대의 공포스러운 가증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교황권에서 행해지는 미사는 가장 최대의 그리고 가장 공포스러운 가증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것들에 우선하여 미사는 교황 우상 숭배들 가운데 최고로, 그리고 가장 귀하게 여겨져 왔다 그렇게 된 것은 이 희생제사 즉 미사의 행위(그것이 비록 악한에 의하여 드러진다고 할지라도)가 이생에 있어서 그리고 저기 연옥에 있어서 인간들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해방시켜 준다는 것이 주장되었기 때문이다.⁹³⁾

루터는 여기에서 천주교에서 행해지는 미사는 가장 최대의, 가장 공포스러운 가증한 것으로 여겨야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미사를 가장, 최대의 등의 표현을 통하여서 미사의 공포스러움과 가증함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도 천주교에서는 이런 미사를 정 반대로 교황 우상 숭배들 가운데서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하여 최고로, 가장 귀하게 여겨져 왔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이와 같이 미사를 높이게 된 이유가 미사는 어떤 사람이 행해도 이 세상과 심지어는 연옥 불 가운데에 빠진 사람들을 죄들 가운데서 해방시켜 준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루터의 이러한 미사에 대한 과대하게 보이는 비판은 과연 정당할까? 우리는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안다. 루터는

93) 지원용 편저. 『루터 선집(選集) 제8권』, (서울 : 컨콜디아사. 1985), pp. 400-401.



천주교가 인간을 현세와 내세에서의 죄에서 해방하여 준다는 도구로 미사라는 미신적이며 우상 숭배적인 의식을 앞세우고 있는 사실의 가공스럽고 허황되고 무서운 죄악성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② 그들은 어찌 미사에 그토록 고집스럽게 매달리는가?

루터는 여기에서 천주교가 미사에 전폭적으로 매달리는 몰지각(沒知覺)하고 완고함에 대하여 미사의 인위성과 불필요성과 무익성과 폐해성과 공적(功績)성 등을 들어서 강력히 그것을 폐기(廢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만일 분별력 있는 교황주의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상냥한 어투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그들에게 말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대들은 어찌하여 그대들의 미사에 그토록 고집스럽게 매달리는가?

(1) 결국 이러한 미사들은 순전히 인간적인 고안물이다. 이것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명령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인간적 고안물들을 폐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백성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마 15:9)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2) 미사는 불필요하다. 또한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고 위험도 따르지 않는다.

(3) 성만찬 식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데 따라 보다 훌륭하고 보다 축복된 방법으로 -진실로 유일한 축복된 방법으로-집례 될 수 있다. ...그대들은 어찌서 세상을 불필요하고 허구적인 문제 때문에 비참함과 저주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는가?

(4) 미사를 사고파는 것을 통해 해아릴 수 없이 많고 말할 수도 없는 폐해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므로 설사 그것이 실제로 그 자체로 어떤 가치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어떤 이유에서 보다 우선 이런 폐해들을 억제하기 위하여 미사를 없애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5) 미사는 인간행위 심지어 사악한 악당들의 행위요, 그 밖에 다른 어떤 것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미사에 의하여 자기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화해시키고 은총과 죄의 용서를 획득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공로를 쌓고자 하기 때문이다⁹⁴⁾

루터의 예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미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인간적인 고안품에 불과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유전의 일종으로 고안된 것이지 성경말씀에서 그 근거를 결코 찾을 수 없는 것이며 그러므로 이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헛되게 예배하는 행위라는 주님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다.

둘째, 그리고 따라서 미사는 불필요한 것이므로 그것은 제거해도 죄도 되지 않고 위험도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셋째 원래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은 보다 훌륭하고 축복된 방법으로 집례 될 수 있는데 천주교는 불필요하고 허구적인 미사의식으로 사람들을 비참함과 저주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음을 개탄하고 있다.

넷째 고귀한 성만찬 예식을 상업(상품)화 하여서 해아릴 수 없고 말 할 수 없이 많은 폐해들을 일으키는 사실 때문에 이러한 폐해들을 억제하기 위하여서 미사를 없애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다섯째 그는 미사는 인간의 행위, 심지어 사악한 악당들의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이는 그들이 미사를 하나님과의 화해와 은총과 죄의 용서를 얻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는데 필요한 공적을 쌓는 행위로 알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 루터의 이러한 지적들과 주장들은 5백여 년이 지났지만 오늘날도 변함없는 고전과 같이 명심해야 할 사실이다.

94) 같은 책, pp. 401-402.



③ 미사는 과연 기독교인들을 희생 시켜서라도 지켜야 할 천주교의 생명일까?

설사 교황주의자들이 다른 모든 조항들에 있어서 우리에게 양보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이 조항에 대해 양보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캄페지오(교황대사)는 아우구스부르크에서 ‘미사를 포기하기 보다는 차라리 자신이 산산조각으로 찢김을 당하는 편을 택하겠노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나(루터)도 미사의 집전자 그리고 그가 행하는 것을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 하거나 또한 우월한 것으로 여기게 되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화형을 당해 재가 되기를 택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나뉘어 있고 또 반대되며 또한 영원히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다. 교황주의자들은 만일 미사가 폐지된다면 그와 더불어 교황 제도도 폐지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기 전에 우리 모두를 죽음에 처하게 할 것이다. 게다가 이 용의 꼬리, 즉 미사는 독사의 자식들과 또 다중적인 우상숭배라는 독을 낳는다.⁹⁵⁾

위의 인용문에서 두 사람이 미사 때문이라면 생명을 아낌없이 바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먼저 교황 대사인 로렌초 캄페지오가 그랬고 저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그랬다.

첫째 전자는 ‘미사를 포기하기 보다는 차라리 자신이 산산 조각으로 찢김을 당하는 편을 택하겠다’는 결연한 결의를 표명하였고,

둘째 후자인 마틴 루터도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나 그가 행하는 미사를 내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하거나 또는 우월한 것으로 여기게 되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화형을 당해 재가 되

95) 같은 책, pp. 402-403.



기를 택할 것이다.’는 비장한 각오를 나타내었다.

셋째, 루터는 덧붙여서(이 미사 때문에도) 우리는 서로 나뉘어 있고 또 반대되며 또한 영원히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비통한 심정을 토로(吐露)하고 있다. 실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넷째 그 다음에 이어서 교황주의자들은 만일 미사가 폐지된다면 그와 더불어 교황 제도도 폐지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만일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기 전에 우리 모두를 죽음에 처하게 할 것이라는 비참한 예측까지 하고 있다. 이런 일은 천주교의 특성상 오늘날도 기회만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실현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루터의 ‘이 용의 꼬리, 즉 미사는 독사의 자식들과 또 다중적인 우상숭배라는 독을 낳는다’는 말은 오늘날도 변함없이 의미 있게 되새겨야 할 줄 안다.

2) 존 칼빈의 비판

2천년 기독교 역사상에 성경적인 기독교 신학 수립에 일등공신이라고 할 만한 제네바의 개혁자 존 칼빈의 미사에 대한 비판을 다시 들어보자

① 미사제사는 비성경적이고 우상숭배적이며 신성모독(神性冒瀆)적이다. (존 칼빈)

성찬의 떡에 대한 예배를 고안해낸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떠나 제멋대로 상상한다. 성경에서는 이런 예배에 대한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면 성경이 빠뜨렸을리가 없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성



경이 반대하는 것을 무시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신을 만들어 냈다. 이렇게 은사를 주시는 분 대신에 그 은사를 경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면 무엇이 우상 숭배인가? 여기에는 이중의 죄가 있다. 하나님에게서 빼앗은 예배를 피조물에게 옮길 뿐만 아니라(롬 1:25참고), 하나님의 거룩한 떡을 가증한 우상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선물을 더럽힘으로써 하나님 자신을 모욕한다⁹⁶⁾

칼빈은 기독교 사상 최대의 신학자인 이 「기독교 강요」에서 천주교의 미사제사 즉 탈선한 성찬의식에 대해서 명료하게 잘라서 비판하고 있다.

첫째, 성찬의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했다는 그 성찬과 그것을 매일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고, 또 그것에게 예배하는 것은 성경말씀에서 찾아 볼 수 없는데 성경말씀에서 떠나서 제멋대로 상상하여 고안해낸 것이다.

둘째, 이러한 미사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신을 만들어 숭배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만 드릴 예배를 하나님에게서 빼앗아서 피조물에게 드리는 것이다.

셋째, 이러한 행위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떡을 가증한 우상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선물을 더럽힘으로써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천주교가 생명처럼 여기는 소위 이 미사성제(聖祭)가 이처럼 명확히 비 성경적이며 우상숭배 행위이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사실에 대해서 21세기를 사는 기독교인들도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본다.

96) 존 칼빈저. 『기독교강요 하』, 김종흡 외 역. (서울 : 생명의 말씀사. 2005), pp. 504-505.



② 미사제사는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모독하며 말살하는 사탄의 위조품이다.(존 칼빈)

사탄은 이런 여러 가지 간계로 그리스도의 성만찬을 질은 어두움으로 덮어 희미하게 만들고 더럽히려고 애썼다. -적어도 교회 내에 그 순수성이 보존되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다 그러나 마귀가 한 표징을 들어 올려 성만찬을 희미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 뿐 아니라 완전히 말살해서 인류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만들려고 했을 때에 무서운 가증한 일은 그 절정에 달했다. 마귀가 극악한 오류로 거의 전 세계의 눈을 멀게 한 때에 이 일이 있었는데, 곧 미사는 죄의 용서를 얻기 위한 제물과 예물이라는 신념을 그가 퍼뜨린 것이다.⁹⁷⁾

첫째, 칼빈은 여기에서 천주교의 미사제사는 사탄의 간교한 작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둘째, 사탄은 그 간계로 이 성찬을 희미하게 만들고 더럽히고 순수성이 보존되지 못하게 하려 했고 타락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셋째, 사탄은 극악한 거짓으로 전 세계의 눈을 멀게하여 ‘미사는 죄의 용서를 얻기 위한 제물과 예물이라’는 가짜 복음으로 대체하여 퍼뜨린 것이라고 한다.

넷째, 사탄은 이 위조 성찬복음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의 성찬을 말살해서 인류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만들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과 그 성찬을 인류에게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땅 끝까지 전파하고 계신다. 천주교가 신앙의 핵심이며 정점으로 삼는 이 미사제사가 사탄의 간계로 만들어진 위조복음이라는 것은 실로 충격적인데도 우리는 놀랄 줄 모르고 멍청하니 바라보고만 있으니 실로 마귀의 최면에 걸린 것과 같이

97) 같은 책, p. 524.



보여 통탄(痛嘆)스럽기 짝이 없다.

아무리 찬란하게 장식할지라도 미사는 그리스도에게 큰 모욕을 가하고, 그의 십자가를 매장하고 은폐하며, 그의 죽으심을 사람들이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빼앗으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기억을 우리에게 전하는 성찬의 힘을 약화시키며 소멸시킨다⁹⁸⁾

칼빈은 날카롭게 천주교의 미사성찬제사의 파괴성을 고발하고 있다. 즉 그것은 (1) 그리스도께 큰 모욕을 가한 것이고 (2)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은폐하고 매장하는 것이며 (3)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고귀한 십자가의 희생을 망각하게 만들고 (4)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십자에 죽으심이 인류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탈취하는 것이며 (5) 그리스도의 속죄사(贖罪死)를 기념하며 전파하며 항상 감사드리며 찬양 드리게 하는 진정한 성찬의 힘을 소멸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칼빈의 지적은 정확하며 그는 이와 같은 확고부동(確固不動)한 살아 있는 복음의 확신으로 종교개혁을 승리로 이끌었다. 오늘날의 기독교도 저 종교개혁의 영웅들과 같이 복음에 깨어있어서 천주교의 죽은 미사 같은 가짜 복음인 미사를 단호하게 물리쳐야한다. 우리도 목숨을 걸고 용감하게 천주교 천하의 세상에서 참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미사와 같은 위조복음을 단호하게 배격한 신앙의 용사들을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5) 천주교 신자 게리 월스의 성체비판

98) 같은 책, p. 525.



독실한 천주교 신자이며 교수인 게리 월스는 성체변화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엄격하게 비판하고 있다.

1) 천주교가 사제들에게 축성능력(떡과 포도주를 축성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화시키는 능력) 을 부여하고 있다는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

2) 면병(麴餅)의 변화야말로 최후만찬을 그대로 재현하는 신적 사건이라고 하는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

3) 신약성경 자체나 초기 기독교문헌에는 사도들이 것처럼 축성능력을 지니고 있었다는 기록은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4) 예수께서 빵과 포도주를 당신의 몸과 피라고 말하고서 당신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셨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⁹⁹⁾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특히 현존하는 천주교의 성실한 신자이며 양심적인 학자인 게리 월스도 이와 같이 천주교의 화체설에 의한 성체변화에 대하여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안다. 천주교가 이와 같은 축성능력을 사제들에게 부여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과 밀빵이 성체로 변화되는 것이 주님의 최후만찬을 되풀이하는 사건이라는 주장을 명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저자가 천주교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이러한 사도들의 축성능력에 대하여 신약성경이나 초기 기독교 문헌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은 그들의 성체 성사가 사실무근한 허위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예수께

99) 게리 월스 지음, 『교황의 죄』, 박준영 옮김, (서울 : 도서출판 중심, 2005, 초판 1쇄), pp. 223-225.



서 이것은 내 몸이요 내 피라고 선언하고 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스스로 먹고 마셨다는 사실은 생각할 수 없다고 날카롭게 꼬집은 점은 돋보이는 예리한 관찰이요 비판임을 명심해야 할 줄 안다.

5. 성체에 대한 기발(奇拔)한 발상(發想)들

미사제사의 핵심인 성체에 대하여 천주교는 기상천외(奇想天外)한 작품들을 창작해서 잘 활용하고 있다. 참고로 간략히 이런 기발한 작품들이 있다는 정도로 소개하겠다. (이하는 <천주교 용어사전>에서 인용함)¹⁰⁰⁾

빵이 미사제사에서 그리스도의 실체로 변화되었다는 이 성체는 천주교에서 이하와 같이 기발하고 다양하게 모시고 예배를 드린다. 천주교인들은 이 성체에게 실제 살아계시는 그리스도께 드림과 똑같은 찬미와 존경과 축하를 바치고 있다.

(1) 성광(聖光)

이는 신자들에게 성체를 보여 조배를 드리게 하거나 성체 강복 또는 성체 행렬 때 쓰이는 제구(祭具)를 말한다. 형체는 둥글며 금이나 은으로 도금한 것으로 중앙에 성체를 모시도록 되어있다.¹⁰¹⁾

철제로 촛대같이 길게 세워 만들고 위에는 둥글게 만들어서 그 가

100) 최형락 신부 엮음. 『천주교용어사전』, (서울 : 작은예수. 2006) pp. 51, 104-105, 232. 265. 265, 267-268.

101) 같은 책, p. 232.



운데에 둥글납작한 빵을 끼워 넣게 만든 것을 성광이라고 한다 이것은 금이나 은으로 도금을 하고 둥근 원 밖을 톱니바퀴 모양으로 만들어서 빛이 발산되는 것같이 보인다.

이것은 저들이 이 도구에다가 미사에서 그리스도의 실체의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성체를 끼워 넣어서 높이 들거나 세워놓고 신도들이 우러러 바라보고 경배하고 기도를 하게하거나, 사제가 그 성체로 신도들에게 강복하는 의식을 행하거나, 성체행렬(거행: 이 성체를 넣은 큰 성광을 들거나 메거나 차등에 싣고 거리를 행진하면서 신도들에게 경배와 찬미를 드리게 하는 행사)등에 사용하는 도구이다.

이는 실로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닌가? 만민의 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대속(代贖)하시고 부활승천 하셔서 하나님 보좌우편에 좌정하여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모양으로 지상에 내려 오셔서 세계 도처에서 수시로 전시되어 이렇게 숭배를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희극(喜劇)인가?

(2) 성체강복(聖體降福: 聖體顯示)

이는 성체에 대한 신심의 표현으로 성체를 현시(顯示: 성체를 성광에 모셔 나타내 보임, 전시)하여 신자들이 성체 조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제가 성체로써 강복하는 성체 신심의 한 전례이다 제단을 아름답게 꾸미고 성체를 성광에 현시한 다음 분향과 성가, 그리고 묵상이나 장엄 기도 등으로 성체께 특별한 찬미와 흠숭을 드리는 것을 말한다.¹⁰²⁾

「가톨릭 교리사전」에는 “성체를 성광에 모셔 현시하고 분향, 성

102) 같은 책, p. 265.



가, 장엄기도 등으로 성체께 특별한 찬미와 흠숭(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을 드리며, 강복을 청하는 예절이다.”¹⁰³⁾고한다. 그러므로 이 두 곳의 설명을 따르면 이는 사제가 성체로 변화시킨 빵을 신자들이 특별히 하나님과 똑같이 잘 예배하게 하고서 그 빵으로 신자들에게 강복하는 예식이다.

그러므로 이는 그리스도의 실체로 변했다는 그 빵을 신부가 신도들에게 정성껏 숭배하게하고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게 하는 의식으로 참으로 탁월한 모조품이라고 하겠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하늘에서 끌어 내려서 신자들이 복을 받게 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니 진실로 어이없는 노릇 아닌가?

(3) 감실(監室)

이는 성당 안에 들어가 정면을 바라보면 제단의 뒷면 또는 한 쪽에 설치되어 있는 작은 장(藏)을 말한다. 여기에는 성체가 모셔져 있으며, 그 표시로 빨간 등이 켜져 있다. 이를 ‘성체등’이라 한다 따라서 이 감실에는 성체가 모셔져 있기에, 누구나 무릎을 꿇거나 허리를 굽혀 경배를 드려야 한다. 감실의 재료는 금이나 은으로 만들거나 도금을 하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나무가 많다.¹⁰⁴⁾

성체를 이와 같은 상자에 넣어서 안치하여 두는 것이 감실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모셔놓은 감실이 있기 때문에 성당(聖堂)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이는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을 법궤 안에 모셨기 때문에 성전(聖殿)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이유다. 즉 성

103) 박도식 엮음, 『가톨릭 교리 사전』, (서울 : 가톨릭 출판사, 2006, 개정초판 7쇄), p. 177.

104) 최형락 신부 엮음, 『천주교용어사전』, (서울 : 작은예수, 2006) p. 51.



체가 들어 있는 감실이 놓여있는 모든 성당은 그 감실 안에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한 집(聖堂)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그들이 얼마나 이 성체에 매달려 있는가 하는 것을 극명(克明)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으로 성당의 제단 아래 성인들의 유물을 모셔두었기 때문에 성당이라고 부른다고 하기도 한다.)

(4) 성체조배(聖體朝拜)

이는 지극히 거룩한 성체 안에 살아 계신 주님을 찾아 열렬한 존경과 애정을 가지고 시간을 내어 사사로이 주님을 뵈고 존경과 영광을 드리며, 그분과 대화함을 말한다 이는 성체 안에서 가장 존귀한 은총의 샘을 발견할 수 있게 한다

성 알폰소는 ‘성체 조배로 보낸 시간은 일생 중 가장 귀하고 유익한 시간이며, 겨우 15분간의 성체조배로 얻은 것은 하루 동안 다른 여러가지 신심 행위로 거둔 것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하였다. ‘주님이 계신 곳이 곧 천국이요, 주님이 아니 계신 곳이 죽음과 지옥이나이다.’(준주성범 3장, 마태 11, 28).¹⁰⁵⁾

저들은 성체를 모셔두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성체에게 부단히 예배드리게 하는 방안까지도 창안하였다. 그래서 신자들이 언제나 성당안의 감실 앞에 와서 절을 하며 기도를 하며 묵주기도나 묵상을 하는 등 조배를 장려하고 있다. 필자는 서울의 어느 성당에 성체조배실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어서 신도들이 평일에도 따로 와서 소위 조배를 하고 감실을 향하여 앉아서 묵주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105) 같은 책, 267.



천주교의 이와 같은 성체노름은 진실로 안타까운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비성경적이며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아이들의 소꿉장난 같은 성체숭배 연극은 언제나 막을 내리는 날이 오려는지 답답하기 그지없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전 세계의 무수한 성당의 감실안의 빵조각들 속에 갇혀서 끝없는 경배와 기도를 받고 계신다니,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이성을 가진 인간들이 백주에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실로 한심스럽고 유감스럽기 짝이 없는 현실이다

(5) 성체 행렬(聖體行列: 聖體舉動)

이는 성체 거동(聖體舉動)이라 하여 성체를 모시고 하는 행렬로, 초대교회 때부터 행한 대표적인 신심 행사이다. 지침서에 교구장은 성체에 대한 마땅한 존경을 유지하고 현실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거행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특히 성체 행렬을 하기 전에 미사를 거행하고, 그 거동에 모실 성체를 이때 축성하며, 미사 후에 성체 조배를 한 다음, 거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¹⁰⁶⁾

이제는 그리스도를 성당 안에 가두어 두기만은 죄송하였는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큰 거리로 모시고 나와서 나들이를 시켜드리는 모양이다. 큰 성광 안에 큰 빵을 붙여 넣어 가지고 사람들이 들거나 어깨에 메거나 차 같은 것에 태워서 시내의 도로를 한 바퀴 돈다 이 때에는 신도들이 그 성광안의 그리스도에게 절을 하며 여러 가지 경배와 찬미와 기도를 드리고 따라가기도 하는 모양이다.

이런 행사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방법이란 말인가?

106) 같은 책, p. 268.



어느 나라에서는 마리아 상을 들고 데모하는 것을 보았는데 주님의 이 성체를 들고도 데모를 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된다.

(6) 세계 성체 대회(聖體大會)

1. 의의와 목적: 이는 성체께 대한 신심을 양양하기 위한 성직자, 수도자, 평신자들의 성대한 모임을 말한다. 목적은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이를 통하여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데에 있다.

2. 발전: 이는 19세기 말 프랑스 투르에서 타미지에 여사가 성체에 관련된 기적이 일어난 성지를 순례할 것을 권장하면서 시작되었다...그래서 1881년에 프랑스 릴에서 첫 대회가 열렸으며, 1893년에는 예루살렘에서 국제성체 대회가 열렸고 1964년 인도 봄베이에서 열린 성체대회에 교황 바오로 6세도 참석하였다. 1976년 미국 독립 200 주년을 기념하는 필라델피아 대회에서는 한국 교회사 자료가 전시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드디어 1989년 10월 한국 여의도 광장에서 제44차 세계 성체대회가 열렸다...역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참석하였고, 준비 위원장이 김수환 추기경이었으며, 성직자 수도자 신자 약 80여 만 명이 참석하였다.¹⁰⁷⁾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했다는 성체를 거리로 들고 나와서 나들이하는 것만으로는 직성이 안 풀려서, 이제는 세계적인 대 규모의 대회를 열어서 경배를 하므로 성체께 대한 신자들의 신심을 양양하고, 성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 커다랗게 만든 성광안에 커다란 밀빵을 넣어가지고 대 도시의 대 광장에서 구름떼 같이 많은 군중을 모아놓고 성대

107) 같은 책, p. 265.



한 연극을 하는 것같이 보인다. 그리고 천주교의 최고 권위자요 세계 종교의 대표자요 세계정치의 1인자로 자처하는 교황까지 출연하여서 호화찬란한 연출을 펼치는 진정한 목적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거룩하신 성자의 고귀하신 희생과 구속의 영원한 은혜가 이렇게까지 변질되어서 이교적인 미신과 우상숭배 수준으로까지 전락(轉落)하였는지 어안이 병병할 따름이다. 그러나 천주교는 이렇게 가짜 그리스도의 성체를 이용하여서 한편으로는 세계 대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까지 그들의 그릇된 종교를 과시하며 선전하는 쇼를 성대하게 잘 연출(演出)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도대체 어떻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세계의 구경거리로까지 모독할 수 있다는 말인가?

(7) 성체 성혈 대 축일(祝日)(그리스도의 성체성혈 대 축일)

이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이루어진 성체 성사의 제정과 그 신비를 기념하는 축일이다. 원래 이 축일은 삼위 일체 대축일 후 첫 번째 목요일이나 한 국에서는 첫 번째 주일로 정하였다. 성체 성사는 성목요일에 제정 되었지만 성주간 등 다른 예식이 있으므로 수난을 떠나 기쁨의 성체를 축하하기 위해 주일로 정하였다¹⁰⁸⁾ (천주교용어사전 104p)

천주교에서 축일이란 하나님, 그리스도, 마리아, 천사 성인들의 거룩한 신비와 구원사적 사건들을 기념하거나 공경하기 위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 축일은 대축일, 축일 기념일로 구분하며, 대축일은 로마

108) 같은 책. p. 104.



교회력에서 가장 큰 축일이다.

그리스도의 성체성혈 대축일도 천주교 교회력에서 가장 큰 축일중의 하나로 기념하며 공경하는 날이다. 이 축일은 예수 성탄 예수 부활, 성령강림 성모승천 대 축일 등등과 같이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성체로 변화된 것을 기념하며 공경하는 가장 큰 축일로 삼은 것이다. 그런데 다른 축일이나 대 축일은 모두 실재하는 인물들에 대한 것인데 이 성체성혈 대 축일 만은 실제로 실재하지 않는 빵과 포도주에 대한 것이라 특이한 것이다. 이렇게 특이한 빵과 포도주에 대하여 매년 대 축일까지 배당해서 전 세계의 모든 천주교회가 기념하며 공경하며 축하하는 것은 이례적이면서도 대단히 수치스러운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누누이 말하지만 이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代贖)의 위대한 은혜를 미신과 물질적인 우상숭배로 전락(轉落)시킨 더욱 큰 죄악이다.

이상으로 성체에 대한 천주교의 기발한 발상들 중의 몇 가지를 아주 간략하게 열거해 보았다. 천주교가 오랜 역사를 지내오면서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영원한 복음을 이처럼 점차적으로 변질시켜 오면서 물질적이며 미신과 우상숭배로 전락(轉落)시켜온 사실을 보면 개탄(慨嘆)하는 마음 금할 길이 없다. 오직 천주교 신자들과 기독교 신자들은 이렇게 엄청나게 본래의 기독교에서 전혀 다르게 탈선하고 변종(變種)되고 전락(轉落)한 천주교에 대하여 정확한 식견(識見)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으로 대처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할 뿐이다.

6. 성체 사상의 신기(神奇)한 발전



여기에서는 최근에 성체에 대한 천주교의 더욱 더 신기하게 발전된 사상들을 볼 수 있다. 그동안의 성체에 대한 사상들과 거기에 추가(발전)된 사상들을 간략하게 열거만 하겠다.

(1) 성체 그리스도(성경의 그리스도와 전혀 다른 가짜 그리스도)

천주교가 전하는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는 정통 기독교의 그것과 동일하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의 그리스도는 성체라는 빵들에서 재생(再生)되는 그리스도이다. 이것은 진리와 비 진리가 혼합된 천주교의 그릇된 교리의 대표라고 할 것이다. 먼저 천주교의 실질적인 그리스도를 찾아보겠다

「트렌트 공의회 교회법과 교령집」과 「가톨릭교회 교리문답」에는 다음과 같이 공포하고 있다

만일 누구든지 가장 거룩한 성체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과 신성과 함께 참으로, 실제로, 본질적으로 몸과 피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부인한다면 즉 결과적으로 성체에 완전한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며 단지 주님은 성체 안에 상징, 모습 또는 힘으로만 있다고 말한다면, 그는 저주(파면)를 받을지어다. 만일 누구든지 성체 성사에서 받는 그리스도를 실제로 그리고 성사적으로(sacramentally) 받지 아니하고 영적으로만 받는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¹⁰⁹⁾

트렌트 공의회의 이 결의는 종교 개혁자들의 생명을 건 참 성경적인 생명의 그리스도 복음을 끝내 거부하고 거짓 그리스도를 선택한

109) 로저 오클랜드 지음, 『가톨릭성체비판』, 스테반 황 옮김. (서울 : 기독교 문서선교회. 2010), p. 24. 재인용.



불행한 사건이다. 이 결정은 성경적인 진정한 생명의 구주를 실제적으로 부인하고 다른 그리스도를 인정한 것으로서 정통 기독교와 완전한 결별을 선언한 돌이킬 수 없는 최대의 과오이다.

그러나 이 유명한 성체 그리스도는 결코 성경의 그리스도 즉 성경에 계시된 참 구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성경과 전혀 다른 그리스도 즉, 거짓 그리스도이며 가짜 그리스도이다. 쉽게 말하면 천주교 복음의 핵심으로 전하는 성체 그리스도는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가 전혀 아니고 온전히 성경과 다른 그리스도(Another Christ)라는 말이다. 이는 마태복음에서 예언하신 <거짓 그리스도>라고 할 수밖에 없다.(마 24:23-24참고)

나는 화체설이라고 불리는 초자연적인 변화를 통해 나타나는 성체 예수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화체설에 의하면 가톨릭 사제가 성찬용의 빵을 축성하여 실제 그리스도로 변화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한다. 성체 그리스도는 성궤(tabernacle) 또는 성체 안치기(monstrance)라는 곳에 담겨 사람들의 숭배를 받을 수 있도록 전시된다.¹¹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기꾼들을 알아내기 위해 성경적인 병기들로 무장해야 한다. 바울은 우리가 가짜들을 알아낼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을 준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든’ (고후 11:4).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자는 가짜이며 그가 전하는 예수는 가짜 예수다. 즉, 성경에 일치하지 않는 예수는 성경의 예수가 아닌 것이다.¹¹¹⁾

오کل랜드는 천주교가 화체설에 의해 그리스도로 변화시킨 성체 예수는 성궤나 성체 안치기에 담겨서 사람들의 숭배를 받도록 전시된다고 하며 이 예수는 사도들이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라고 한다. 성경

110) 같은 책, p. 25.

111) 같은 책, pp. 23-24.



에서 전하지 않은 예수는 성경의 예수가 아니고 성경에 없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자는 가짜이며 물론 그가 전하는 예수도 가짜라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천주교의 이 전혀 다른 복음인 다른 그리스도요 따라서 거짓 그리스도요 가짜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울 사도를 통하여 주신 다음의 경고의 말씀을 깊이 아로새겨야 할 줄 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라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 1:6-10)

(2) 성체 선교(성체는 천주교의 선교사역의 원천이며 중심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2000년 6월에 열린 제47차 국제 성체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설교하였다.

주의 유월절 성찬인 성체 성사를 거행하는 것은 그 자체가 선교 사건이며 이 세상에 새 생명의 번식을 위해 씨앗을 심는 것이다. ... 성체 성사는 ‘선교적’ 성사인데, 그 이유는 성체 성사로부터 선교의 은혜가 흐를 뿐만 아니라



성체 성사 그 자체 안에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영원한 원천과 원칙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¹¹²⁾

교황은 이 설교에서 성체 선교라는 중요한 개념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 ① 성체성사를 거행하는 것 그 자체가 선교사건이다.
- ② 성체는 이 세상에 새 생명의 번식을 위해 씨앗을 심는 것이다.
- ③ 성체성사는 선교적 성사이다.

그 이유는 성체성사로부터 선교의 은혜가 흐르고, 성체성사 그 자체 안에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영원한 원천과 원칙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천주교는 자기들의 입교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성찬에 참여해서 빵을 받아먹음으로 구원을 얻고 천주교인이 되는 것이므로 성체가 바로 선교라는 것이다. 결신자나 개종자가 성체까지 받음으로 완전히 천주교에 한 몸으로 결합되는 것이므로 성체를 통하여 선교가 성취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교황의 이 자상한 성체선교론은 사람이 사제의 축성으로 완전한 그리스도가 담겨진 성체를 받아먹을 때에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간다는 그러므로 그가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 된다는 이론에 근거하여 그것이 바로 선교라는 그릇된 주장일 뿐이다.

(3) 성체를 통한 회심(천주교로의 개종)

천주교의 성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천주교로 개종하게 되었다는 기독교인들이나 목사들의 사례가 본서(「가톨릭 성체 비

112) 같은 책, p. 28. 재인용.



관」)에 소개 되었다. 유명한 저작자인 모 박사와 평신도 부부, 목사 4인이 성체 체험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간증들이 신비스럽고 중독성이 있는 영적능력을 확인해 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성체 그리스도에게 이끌고 있다.”¹¹³⁾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한다. 진정한 회심과 구원은 어떤 신비한 체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진정한 회개와 그리스도의 대속(代贖)의 복음을 확실히 믿고 받아들임으로 거듭나는 변화로써 얻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성경적인 구원의 도리이고 정통 기독교의 구원관이다. 이러한 구원의 도리에서 어긋난 잘못된 체험에 의한 구원은 거짓 구원이며 사탄에게 속는 가짜이며 위조(偽造)구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것은 미혹의 영의 역사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비 성경적이고 반(反)성경적으로 변화된 성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어서 믿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절대로 올바른 구원일수 없는 것이다.

(4) 그리스도의 성체적 재림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재림은 순간적으로 임하며 지구의 모든 사람이 예수의 재림을 동시에 목격할 수 있도록 오신다고 가르친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계 1:7) 그러나 성체 그리스도와 관련한 가르침은 소위 ‘예수의 성체적 통치’라고 불리는 또 다른 재림의 시나리오를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는 것처럼 보인다¹¹⁴⁾

113) 같은 책, pp. 113-130. 참고.

114) 같은 책, p. 151.



오클랜드는 마이클 브라운(취재기자)이 분명히 재림과 관련한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한 마태복음 24장의 경고를 알고 있지만 그 경고를 심각하게 여기지는 않고 있다. 같은 날 그는 "예언들(저자 주: 발현한 마리아들의 메시지)은 매우 중요한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우리는 재림을 직면하게 되는가 아니면 출현을 직면하게 되는가?"라는 글에서 분명히 성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재림에 대한 흥미로운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출현’이란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예언의 돌풍과 예수님이 곧 출현하시거나 또는 심지어 공식적으로 재림하실 것이라는 최근의 예측으로 인해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다. 우리 마음에 핵심이 되는 질문은, 과연 어떤 일이 더 일어날 확률이 높을까? 하는 것이다. 출현일까 아니면 실제 재림일까?… 주님으로 입증되는 많은 출현이 있지는 않을까? 복된 성체 성사와 관련하여 훨씬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¹¹⁵⁾

아래에 거론이 되겠지만 브라운은 그리스도의 문자적 재림과 천년 통치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는 천주교에 동의하고 있다.¹¹⁶⁾ 그 대신 도처에 출현하는 마리아와 같은 그리스도의 많은 출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 더욱이 성체성사를 통하여 훨씬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표시하고 있다. 브라운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마리아와 같은 출현 형태로 일어나거나, 아니면 아주 강력한 성체 성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재림하는 결과가 되리라는 견해를 암시하고 있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성체적으로 재림한다는 의미이다

115) 같은 책, p. 153.

116) 같은 책, pp. 154-155.



즉 그리스도가 실제로 눈으로 보이게 하늘에서 직접 재림하는 것이 아니고, 성체의 빵안에 내려와서 모든 사람이 그 빵을 먹을 때에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것이라는 허황된 주장이다. 이 문제는 다음 6장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취급될 것이다

(5) 마리아와 일체된 성체

2003년 4월 17일자 「제니트」(Zenit)에 실린 글은 교황 요한 바울 2세가 ‘교회는 성체로 산다’라는 제목의 회람서신(회칙)을 통해 천주교도들에게 성체와 성체 숭배에 초점을 맞추기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같은 날 「제니트」는 똑같이 중요한 다른 뉴스를 내 보냈다. 그 글의 제목은 “마리아가 최근 회람서신에 자리 잡다: 교황 이 그녀를 ‘성체의 여인’으로 묘사하다” 였다.¹¹⁷⁾ 그 글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놀랍게도 복된 성체를 위해 발표된 요한 바울 2세의 ‘교회는 성체로 산다’의 회람 서신의 마지막 장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드려지고 있다.¹¹⁸⁾

교황의 이 14번째 회람 서신에는 이러한 진술이 있다. ‘교회와 성체가 분리될 수 없이 연합되어 있다면 마리아와 성체도 그렇다고 해야 한다.’¹¹⁹⁾ 성경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근거를 천주교회는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제니트」는 교황의 글을 인용한다.

동정녀 마리아와 성체의 관계는 ‘성체적 믿음’이라고 불리는 언급에 의해

117) 같은 책, p. 132.

118) 같은 책, pp. 132-133.

119) 같은 책, p. 133.



설명된다. ‘성체적 믿음’이란 마리아는 이미 ‘성체의 제도가 있기 전에 하나님
의 말씀이 성육신할 수 있도록 그녀의 처녀 자궁을 드렸다는 사실’을 말한다.¹²⁰⁾

그 기사는 교황이 언급한 또 다른 엄중한 내용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마리아는 성체 성사를 거행할 때마다 교회와 교회의 어머니로서 현존하신
다... 다른 그 어떤 사람 안에서 보다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 그분 안에서
성체의 신비는 빛의 신비처럼 그 자체를 더욱 드러낸다¹²¹⁾

이상의 언급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 천주교회의
교황에 의하면 안수 받은 사제가 미사 중에 제병을 축성할 때 예수님
만 현존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어머니도 또한 나타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교황은 명확하게 성체와 마리아는 분리될 수 없이 연합되
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성체안에 마리아도 같이 존재
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하늘에서도 여왕이며 만왕의 왕으
로 그리스도와 함께(「가톨릭교회 교리서」 966항 참고) 우주를 다스리
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성체를 통하여서도 재림주인 그
리스도와 함께 세계를 다스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성모와 성체는 서로 분리될 수 없게 일치되어 계신다!

스테파노 M. 마넬리 신부는 그의 저서 「성체성사에서 만나는 예수
님 사랑」에서 다음과 같이 성체와 마리아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고

120) 같은 책, p. 133.

121) 같은 책, p. 133.



있다. 성체성사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결합되신 그분의 몸과 피 전체가 동정녀의 몸과 피에서 취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체를 모실 때 마다 제병의 형상 안에 계신 예수님과 성모가 불가분으로 또 전적으로 결합되어 계신 신비롭고 감미로운 현존을 알아차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자는 성모의 몸에서 예수님의 몸이 나왔기 때문에 성변화 된 예수님의 몸인 성체도 마리아에게서 나온 것이므로 그 성체 안에는 마리아도 들어 있다는 그야말로 초 비약적인 논리를 펼치고 있다

우리는 또한 성체 성사의 그분의 신성과 결합되신 예수님의 몸과 피 전체가 복되신 동정녀의 몸과 피에서 취해졌음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체를 모실 때마다, 제병의 형상 안에 계신 예수님과 불가분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결합되어 계신 우리의 거룩하신 어머니의 감미롭고 신비로운 현존을 알아차려야 한다.¹²²⁾

그는 이 논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심지어 성 삼위 안에서의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의 결합이 불가분리적으로 밀접하게 결합되심 다음으로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의 일치보다 더 강한 일치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예수님과 마리아도 거룩한 성 삼위일체 하나님의 밀접한 결합 다음가게 밀접하고 강력하게 일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삼위 안에서의 세 위격의 결합 다음으로 예수님과 동정녀 마리아 사이의 일치보다도 더 밀접하고 강한 일치를 상상할 수 있는가?¹²³⁾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체를 모실 때에 실제로 두 분을 같이 모시

122) 스테파노 M. 마넬리 신부 지음, 『성체성사에서 만나는 예수님사랑』, 이분도 상민 옮김. (서울 : 가톨릭출판사. 2006. 초판 5쇄), p. 209.

123) 같은 책, p. 212.



지만 두 분께서는 경이로운 방법, 신적으로 탁월한 방법으로 밀접히 결합되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아무에게도 전혀 짐도 되지 않고 아무 희생도 부담도 없이 모시게 된다고 한다. 빵이 그리스도의 실제의 몸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그 빵 안에는 마리아도 같이 들어있다고 한다. 그럼 마리아도 생명의 빵이 된다는 결론이 성립된다 즉 마리아도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생명을 주는 구주라는 말이다. 사탄은 이렇게 간교하게 가짜 그리스도인 성체 안에 마리아까지 끌어넣고 있다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성모님을 모실 때, 마리아께서는 전혀 짐이 되지 않으시며 희생을 더 요구하지도 않으신다. 왜냐하면 두 분께서는 경이로운 방법, 신적으로 탁월한 방법을 통하여 서로의 내부에 거하시기 때문이다.(요한 6, 57 참조).¹²⁴⁾

성녀 베르나데타 수비루는 ‘영성체를 하는 것과 동굴의 성모님을 뵈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이 당신에게 더 큰 기쁨을 주니까?’ 라는 까다로운 질문을 하는 어떤 이에게 아주 그럴듯한 대답을 하고 있다.

‘참 이상한 질문이군요. 그 두 가지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성모님께서는 항상 함께 다니시기 때문이지요..’ 성모님과 성체는 ‘세상 끝날 까지’ (마태 28,20) 그 본성상 서로 분리될 수 없게 일치되어 계신다. 왜냐하면 마리아께서는 당신의 육신과 영혼으로써 천상적인 하느님의 장막 즉 감실(저자 주: 성당안에 성체가 들어있는 궤)이 되시기 때문이다 거룩하고 티 없으신(에페 5, 27 참조) 마리아께서는 당신 자신으로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말씀 입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¹²⁵⁾

¹²⁴⁾ 같은 책, 216.

¹²⁵⁾ 같은 책, pp. 216-217.



성체와 성모는 분리될 수 없이 항상 함께 다니며 '세상 끝날 까지 그 본성상 분리 될 수 없게 일체가 되어 계시기 때문에 결코 나누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체를 받아 모시는 것(먹는 것)과 마리아 발현처 동굴에 있는 마리아 상을 경배하는 것은 똑같으니 둘 다 동일한 기쁨을 준다는 것이다. 이상의 주장들은 교황 요한 바울2세의 주장과 일치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로 변화된 성체는 바로 마리아와 동일하다는 결론을 분명하게 하여 주고 있다 이러한 교황과 마넬리 신부와 수비루 성녀의 주장은 다 일치하는 것으로서 성체 사상의 더 큰 발전이라고 하겠다. 도대체 마리아를 어디에까지 더 끌어올릴 수 있을까?

(6) 그리스도의 성체적 세계 통치(성체적 재림을 통한)

그리스도께서 세상종말에 재림하셔서 천년동안 세계를 다스리신다는 성경말씀은 기독교 종말론의 중요한 부분이다.(계 1:7, 19:11-20:6 참고)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대부분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계통치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재림하여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한다. 그리고 천주교는 이에 대하여 전혀 엉뚱하며 기발(奇拔)한 발상이 떠돌고 있다.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래의 인용문들에서 드러나고 있다 요셉 야누치는 그의 책 『천년 왕국과 말세에서의 하나님 왕국의 승리』에서 이렇게 주장하였다.



그는 어떤 기간 동안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 왕국의 흥왕이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꼭 일천 년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기간 동안 이 땅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통치가 있을 것인데 신체적 사람의 모습이라 아니라 성체로 다스릴 것이다.¹²⁶⁾

요셉 야누치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천년통치가 직접 재림이 아니고 성체라는 소위 변화되었다는 빵으로 다스린다는 기상천외(奇想天外)한 주장을 하고 있다. 비록 이런 주장이 발현한 마리아들의 사적(私的)계시(소위 예언 메시지)에 의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너무 터무니없고 기가 막히는 상식이하의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천주교 당국도 이런 사계시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허무맹랑(虛無孟浪)하기 그지없는 말이다.

토마스 페트리스코는 『비밀의 어머니: 한때 교회의 가장 큰 비밀이었던 것을 성체 기적들로부터 마리아의 출현까지 하늘이 조명하며 보호하기를 추구하다』라는 긴 제목의 책을 썼다 이 책은 그리스도의 성체적 통치가 무엇인지 설명한다. 페트리스코는 성체의 그리스도의 현존은 항상 가톨릭교회의 성스러운 믿음이었다고 하면서, 그가 믿기는 이제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성체통치를 목격할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이다 페트리스코의 책의 뒷면에 개요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페트리스코는 우리를 위해 우리 믿음의 중요 부분과 관련하여 열광을 불러 일으킬 역사를 추적한다. 그는 한 때 교회의 가장 큰 비밀이었던 것이 어떻게

126) 로저 오클랜드 지음, 『가톨릭성체비판』, 스테반 황 옮김. (기독교 문서관교회, 2010), p. 156. 재인용.



영광스러운 새 시대의 모퉁잇돌이 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이제 곧 임할 그 새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성체 성사를 통해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¹²⁷⁾

페트리스코는 그리스도가 성체 안에 현존한다는 천주교의 믿음을 근거로 해서 다가오는 새 시대에는 그리스도께서 성체성사를 통해서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이 주장은 그리스도께서 성체로 재림한 그리스도를 모신 모든 천주교도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다스린다는 말로 들린다. 그러나 이 말은 전 인류가 다 천주교로 들어와서 믿고 성체성사를 받는 완전한 천주교 신자가 되면 모든 나라와 모든 통치자들도 천주교도가 될 것이며 천주교의 최고 최상의 권위자인 교황에게 순종하지 안 할 수 없게 될 것이니 자연히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된다는 결론이 되는 셈이 아닐까?

마이클 브라운처럼 페트리스코는 세상이 그리스도의 성체적 통치를 받아들이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할 변화 과정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출현하는 여인은 미리 ‘새 시대’를 선포하여 왔으며 그때가 되면 성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페트리스코는 미래에 대한 그의 비전을 마틴 루시아 신부가 잡지 「무원죄」(Immaculate)에 쓴 글을 인용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모든 마리아 출현의 메시지는 과거든 현재든 상관없이 마리아의 성심의 승리는 예수의 거룩한 마음의 성체적 통치로 귀결될 것을 말한다 성체적 통치는 복된 성체 안의 예수에 대한 영속적인 숭배를 통해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체의 어머니와 성체 그리스도가 곧 나타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것이라는

127) 같은 책, p. 157. 제인용.



사상을 지지하는 여러 많은 자료들이 있다.¹²⁸⁾

이러한 출현한 마리아들의 주장은 천주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심지어는 프랑스 튀 뒤 박에 발현한 마리아의 주위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여, 당신께 의탁하는 우리를 위하여 빌으소서.”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그 24년 후에 “동정녀 무원죄 잉태”라는 교리가 선포되었다.¹²⁹⁾ 그러므로 여기에 전달되고 있는 발현 마리아들의 주장은 천주교가 중요하게 받아들일 것으로 알 수 있다. 장차에는 언제든지 교황의 선포로 무류의 교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출현 마리아들의 그리스도의 성체적 세계통치라든지 더욱이 “성체의 어머니와 성체그리스도가 곧 나타나서 세상을 통치할 것이라는 주장들은 주목해 보아야할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돈 스테파노 곱비신부는 ‘사제들의 마리아 운동’의 대표이다. 전 세계적으로 40만 명의 가톨릭 신부 중 10만명 이상이 이 조직의 회원으로 있다. 사제들의 마리아 운동은 ‘마리아’로부터 곱비 신부가 받았다고 알려진 수백 개의 메시지를 담은 책을 출판하였다. 다음은 그 중 한 예이다

성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과 함께 거하신다. 그분의 현존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으며 태양처럼 온 세상 위에 빛을 발하면서 새 시대의 시작을 표시할 것이다. 다가오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통치는 성체의 가장 찬란한 영광과 함께 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의 영광스런 통치를 그의 성체적 통치의 우주적인 승리와 함께 회복할 것이다. 그때 성체적 통치는 그 능력을 다 드러낼 것이며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과

128) 같은 책, pp. 157-159. 재인용.

129) 김수창 발행, 『한국 가톨릭 대사전 제7권』, (서울 : 분도출판사, 1999), p. 4592.



개인들과 가족들과 사회 및 이 세상의 구조 자체를 다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질 것이다.¹³⁰⁾

돈 스테파노 곱비신부가 마리아로부터 받았다는 수백 개의 메시지들 중의 이 내용은 위에 인용한 메시지들과 비슷하면서 좀 더 발전되어 나가고 있는 것 같다. 즉 그리스도가 현존하는 성체가 점점 세상에 더 강력하게 나타나며 결국 그 성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한다는 것이다.

로저 오클랜드는 그의 저서 「가톨릭 성체 비판」에서 또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또 다른 강력한 영향력에 대해 아직 점검하지 않았다. 어떤 여인이 출현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그녀의 아들, 즉 성체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많은 사례들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톨릭교회는 이 여인을 ‘하늘의 여왕’이라 부르며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말한다. 미래에 대중적인 회심이 있을지 없을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세계로부터 영감과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그들에 의하면 성체 그리스도와 그의 어머니의 통치의 시대가 바로 코앞에 있다는 것이다¹³¹⁾

그는 더 나아가 하늘의 여왕이라는 여인이 출현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성체 그리스도께 이끄는 많은 사례들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그는 “성체 그리스도와 그의 어머니의 통치시대가 바로 코앞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히 관심이 가는 것은 사실은

130) 로저 오클랜드 지음, 『가톨릭성체비판』, 스테판 황 옮김. (기독교 문서선교회. 2010), pp. 159-160. 재인용.

131) 같은 책, p. 130.



이러한 도처에 출현하는 마리아나 하늘의 여왕의 공통된 주장들에 성체 그리스도와 성체의 어머니가 같이 출현하여서 함께 세상을 같이 통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망상에 불과한 것이다. 마리아가 무슨 섭정(攝政)이라도 한다는 말인가? 실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시나리오가 아닐까? 아니면 혹시 성체통치란 큰 성광(聖光)을 높이 쳐들고 빛나는 황금왕관을 쓴 커다란 마리아상도 나란히 앞세우고, 그리스도와 하늘여왕 마리아의 이름으로 교황이 드높은 왕좌에 앉아서 세계를 통치한다는 것은 아닐까?

7. 미혹에 대한 경고

출현들과 사사로운 계시들과 표적과 기사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성체적 출현들에 의해 미혹될 것이다.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참조, 시 119:43; 고후 6:7; 엡 1:13; 딤후 2:15; 약 1:18)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체적 출현들을 주의 재림과 같은 사건이라고 말하거나 또는 실제 재림보다 앞서 발생하는 사건으로 믿는다.¹³²⁾

그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므로 하나님께서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살후 2:8-12)

132) 같은 책, p. 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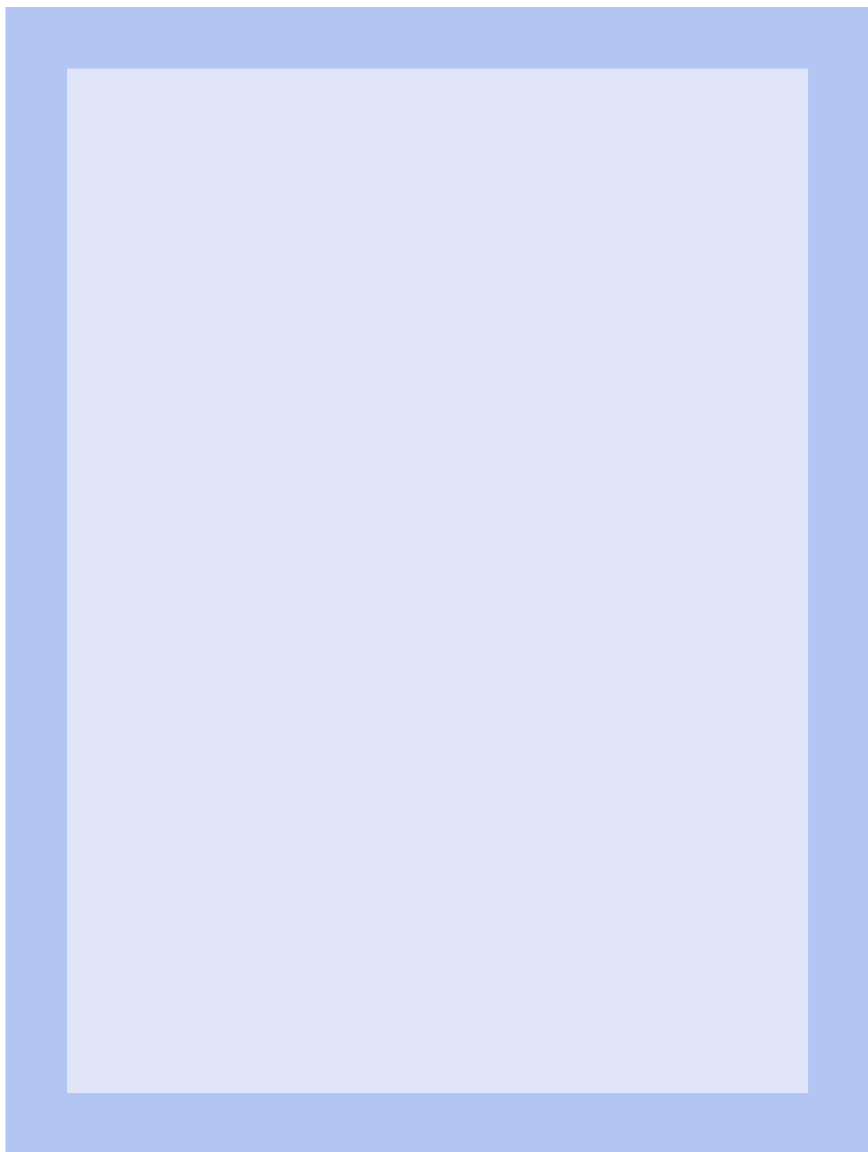


위에서도 말했지만 천주교의 성체통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체라는 큰 밀빵을 넣은 커다란 성광과 마리아 상을 앞세우고 그리스도와 마리아의 이름으로 교황이 전 세계를 통치한다는 의미라고 상상해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된다.

천주교는 지금 사탄의 역사를 따른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유혹의 역사를 따라 거짓 것을 믿는 수렁으로 점점 더욱 더 깊이 계속하여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이 사실은 성경진리를 믿는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과 진정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모든 천주교인들이 깊이 주시하여 바라보아야 할 두려운 상황(狀況)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은 과거에 여러 차례에 있었던 빗나간 재림예언 사건들과 최근의 한국의 시한부 재림 사건과 같은 촌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황과 천주교를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던 전 세계의 무수한 신도들이 받을 충격과 피해는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모든 천주교인들과 천주교에 현혹(眩惑)되어 그들과 연합운동을 추진하는 이들은 더 늦어지기 전에 성경 말씀의 이 경고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천주교는 정통 기독교에서 완전히 우상종교로 전락(轉落)하여 1600여 년 동안의 기나긴 세월을 거쳐서 결국 최후 심판의 막다른 낭떠러지를 향하여 질주하고 있다. 독자들은 모두 이 집단의 불행하고 처참한 최후의 수렁에 함께 빠지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한다. 이 사실은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더욱 자세하게 예고되어 있으니 반드시 이 말씀을 심중(心中)깊이 주의하여 읽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 4 장

천주교의 구원은 신기루가 아닌가?

(천주교의 신기루(공중누각)구원: 의식과
행위에 의하여 구원 받는다는 이야기들)

천주교는 한편으로 세속정치에만 관여하는 정치종교처럼 보이기도 한다. 천주교인들도 이런 점에 대하여 불만이 많다는 보도를 본적이 있다. 그러나 천주교는 개인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도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천주교는 과연 개인영혼들을 확실히 구원 할 수 있는 종교일까? 이는 실로 천주교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천주교의 성사와 성체, 의식과 행위, 선행으로는 구원받지 못 한다. (기독교로 개종한 몇 신부들의 선언)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49인의 신부들은 한 결 같이 천주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그들은 기독교에서 복음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고 있다 먼저 여기에서는 단 세 신부의 고백만을 참고로 밝히기로 한다

(1) 빵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고 죄인이 용서받는다고 믿는가? (성체와 고해의 부당함)

천주교 국가 스페인 출신인 마누엘 가리도 알마다 신부는 자신의 신학교 시절에 한 교수가 강의시간에 한 말을 인용하였다. "나는 우리가 어딘가 잘못된 곳에 와 있지 않나 두렵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신약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가 여성들에게는 호소력이 있어도 남성들은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¹³³⁾

이 신학생은 후에 신부가 되어 신학교 교수로 근무하다가 사제직을 떠나서 기독교의 어느 목사의 도움을 받아 그리스도를 믿어 회개하고 구원을 얻었다. 그 후에 그는 라디오를 통하여 스페인어 권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 그런데 그는 아래와 같이 자신이 신학 교수 시절에 겪었던 일을 말하였다.

“내가 근무하던 학교에는 나 말고도 다른 사제들(교수들)이 있었으며, 자연히 그들과 친하게 되었다. 그들에게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물어보았다. “우리가 빵 한 조각을 들고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혹은 죄인에게 ‘나는 그대를 사하노라’고 말한다고 해서, 정말로 빵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고 죄인이 용서를 받는다고 믿으십니까?” 그 중 한 사제의 대답이 생각한다. ‘왜 귀찮게 그런 것을 물어 보십니까? 우리 직무가 다 그런 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달리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 질문을 하던 당시에 나는 이미 사제직을 그만둘 결심을 하고 있었다.”¹³⁴⁾

이 신부는 자신의 궁금증에 대하여 같은 동료 사제교수 한 사람의 대표적이며 노골적인 대답을 소개하였다. 이 대답은 빵의 성체로의 변화와 고해에서의 사죄를 통한 구원에 대하여 체념적인 말이며 한편 자신들의 성체성사행위는 불가피한 직업행위임을 강조하고 있다. 천주교의 구원관에 있어서 화체설에 근거한 빵의 성체변화는 생명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고해성사에서 사제가 “나는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라는 사죄의 선언도 과거의 죄에서 구원받는 필수적인 성사(聖事)의

133) 리처드 베넷·마틴 버킹엄, 『교황 대신 예수를 선택한 49인의 신부들』, 이길상 옮김 (서울 : 야가페, 2002), p. 179.

134) 같은 책, p. 181.



하나이다. 그런데 사제인 신학대학 교수의 이러한 부정적인 발언은 수많은 다른 사제들도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겠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이 간단한 대답 안에는 천주교의 두 가지 중요한 구원의 성사가 실제로는 구원할 수 없는 의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2) 수도 생활과 성사들과 선행으로 구원 못 받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 (인위적 성사들과 선행은 구원받는데 무용함)

캐나다의 천주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부가 된 헨리 그레고리 애덤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기는 사제가 되어 다섯 개의 소 교구를 맡아 섬기면서 매일 미사를 드리고 고해를 받고 마리아에게 묵주기도를 드리고 성인들에게 기도하고 성무일과를 하면서 고행에 힘썼다고 했다. 그러나 그런 행위들은 영혼에 만족을 주지 못했고 소년시절보다 더 깊은 좌절로 빠져들고 있었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내가 섬기던 교회의 인위적인 성사들과 나의 선행이 구원을 받는 데는 소용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런 것들이 거짓 위안을 심어 주었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내 스스로 영혼을 구원할 수 없었기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었다. 오직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만 의지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음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그 분을 영접했을 때, 나는 내 죄가 사해졌을 뿐 아니라 잊혀 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알았다.”¹³⁵⁾

135) 같은 책, pp. 19~20.



그는 천주교의 성사들과 선행이 구원에 무용할 뿐 아니고 거짓 위안만 주었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하여 십자가 대속의 그리스도만 믿고 회개하고 영접함으로 사죄와 의롭다 함을 받는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3) 천주교의 성사들이나 의식들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어떠한 행사나 의식이나 성사도 사람을 구원하지 못함)

“한 달 뒤에 나는 멕시코 바야 캘리포니아 주 티유아나 시에 있었다. 주님은 그곳에 선교사를 두고 계셨는데, 성령의 인도로 그 선교사로 하여금 내게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주이심을 깨우쳐 주도록 하셨다. 마침내 나는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나는 그리스도를 신뢰했다 그분을 내 구주와 내 인생의 주(主)로 영접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나는 내가 영생을 얻은 줄을 안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 행위 때문도 아니고 그가 드린 제사 때문도 아니고, 쌓은 덕 때문도 아니다. 그 덕이 아무리 클지라도 그것이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지는 못한다. 성부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무한한 공로를 힘입는 것뿐이다. 어떠한 행사도 어떠한 의식도 어떠한 성사(聖事)도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¹³⁶⁾

시프리아노 발데스 하이메스는 멕시코의 독실한 천주교 가정에서 태어나 신부가 된 사람이다. 그러나 얼마 후 그는 이렇게 자백했다. "

136) 같은 책, p. 101.



나는 소름끼치는 고해소에 들어가 앉아서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기만적이고 거짓된 권한을 부여받았다 나는 그리스도를 내 마음대로 제단에 올려놓고 다시 제사를 드릴 권한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거짓되고 돈벌이가 되는 의식을 통해서 로마가 고안해 낸 장소인 연옥에서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었다."¹³⁷⁾ 이렇게 말한 이 신부는 오랜 갈등과 방황 끝에 위와 같이 고백했다 그는 주님께서 선교사를 예비해 두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어 성령의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내 구주와 내 인생의 주로 영접하였다”고 고백하였다. 그리하여 자신이 영생을 얻은 줄을 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 어떤 행위나 미사제사나 쌓은 덕 때문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무한한 공로를 힘입는 것뿐이며 어떠한 행사도 어떠한 의식도 어떠한 성사도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¹³⁸⁾고 고백했다

이 고백은 그가 천주교 사제 직무를 수행하면서 절실하게 느낀 바와 자신의 복음신앙 체험을 통하여 체득한 확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자신의 몸으로 경험한 천주교의 미사제사와 성체성사와 고해성사 등을 통해서 그런 성사의식들이 영혼을 온전케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없다고 단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교황대신 그리스도를 선택한 49인의 신부들" 전체의 공통된 고백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 안다

2. 완전히 잘못된 구원의 기초(교리)

137) 같은 책, pp. 96-97.

138) 같은 책, p. 101.



요즈음 기독교회 내에 "사회구원"이라는 말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여 그 외에 모든 문제가 자연히 거기에 수반되게 하는 종교이다. 그리고 사회구원이라는 용어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빛과 소금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단어가 세상과 사회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천주교도 역사적인 기독교의 후계자로 자처하며 영혼 구원문제를 비중 있게 취급하고 있다. 그런데 불행스러운 사실은 위의 개종한 신부들의 고백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천하를 주교도 바꿀 수 없는 천주교의 영혼 구원문제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점이다. 먼저 천주교의 구원관이 잘못된 근본 이유로써 그들의 그릇된 구원에 관한 교리를 몇 가지 열거하겠다.

(1) 복음과 교회를 모르는 자들의 구원

정통적으로 개혁교회에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신앙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믿어왔다. 그런데 최근의 자유주의 내지 신정통주의에서 복음전래 이전이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의 구원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교회를 모른다고 해도, 진리를 찾고 자신이 아는 대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1260항)

그런데 천주교의 이러한 주장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전통이나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전혀 신뢰 할 수 없는 인간

적인 억지주장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실, 자기 탓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교회를 모르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찾고 양심의 명령을 통하여 알게 된 하느님의 뜻을 은총의 영향 아래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847항)

이 주장도 위의 것과 유사한 것이지만 대개 로마서 2장 13-15절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나 이 말씀은 원칙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는 것이 신약의 진리이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롬 3:20)

그러므로 복음과 교회를 모르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찾고 양심의 명령을 통하여 알게 된 하느님의 뜻을 은총의 영향 아래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2) 선행으로 구원받음

기독교에서는 천주교의 구원관을 보통 행위(율법 성사(의식), 선행, 사랑, 수련, 극기, 고행 등)를 통한 구원이라고 본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교리적인 근거는 다음에서 찾을 수 있다.

희망과 사랑이 없는 믿음은 신자를 그리스도께 완전하게 결합시켜 주지 못하며, 그리스도의 몸의 살아 있는 지체가 되게 하지 못한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1815항)

이 말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모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면 '희망과 사랑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어떤 것을 바라는 소망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행동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 속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고 오직 순수하게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 2:8)

“믿음에 대한 봉사와 증언은 구원을 위해 필요하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816항)” 여기에서는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믿음에 대한 봉사와 증언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죄인이 구원받는 데에는 오직 믿음만이 조건임을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하실 하나님은 한 분 이시니라.”(롬 3:30) 이 말씀은 간략한 것이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등에서만 해도 구원의 조건으로 그 어떤 봉사나 전도나 선교 등을 요구하지 않고 단순히 믿음만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할 줄 안다.

가톨릭 문답 성경(The Catholic Answer Bible)에 의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선행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구원적 신앙이 아니라고 믿는다. 선행은 구원을 위하여 필요하다.’¹³⁹⁾

여기에서 "선행은 구원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말은 다시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선행(선행의 열매)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경적인 원칙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믿음」 한 가지만을 제시하고 있다. 죄인들이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는 사상은 거의 모든 세상 종교들의 공통주장이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과 복음을 바르게 안다면 선행은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고 단지 구원의 결과(열매)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선행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마땅히 행해야 할 자발적인 행위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아래에 잠깐 생각하여 보도록 하겠다.

믿음과 선행에 대한 올바른 이해

오늘날 기독교 안에 믿음과 선행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같이 보인다. 그리고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이신칭의(以信稱義)(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음) 교리에 대하여서도 바른 이해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혼선을 일으키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이 보인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하여 간략하게나마 명확하게 짚고 나가려고 한다

139) 조영엽 박사, 『가톨릭교회 교리서 비평』, (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2010), p. 137. (재인용)



1)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뿐이다.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만 구원 받는다는 고귀한 진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마치 행위나 선행을 일체부인하고 믿음만을 강조하는 과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잊지 말아야할 진리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것이다.

이 진리는 우선 이하 몇 곳 말씀만으로도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이다 로마서 1장18절~5장21절과 갈라디아서 3장1절~4장31절 에 베소서 2장 1~10절 등만 보아도 구원은 그 어떤 율법의 행위나 선행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

2) 구원은 믿음에다 어떠한 선행도 추가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흔히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믿음에다 선행이나 사랑 등을 더 보태야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천주교도 이 사람들과 똑같이 주장하고 있다. 위에 인용한 가톨릭교회 교리서 1815-1816항과 가톨릭 문답 성경에도 "희망과 사랑이 없는 믿음은 신자를 그리스도께 완전하게 결합시켜 주지 못하며," " 믿음에 대한 봉사와 증언은 구원을 위해 필요하다." "선행은 구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들은 믿음에 희망과 사랑이 있어야 구원 받으며 믿음 외에 믿음에 대한 봉사와 증언이 구원을 위해 추가되어야 하며 구원을 위하여 믿음 외에 선행이 필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다 천주교는 위의 성경말씀들에서 극명하게 밝히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영구불멸의 복음진리를 모두 무시하고 자기들 인간의 뜻대로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거기에다 무슨 선행, 사랑, 봉사 등을 추가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8-9절만 읽어보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성령님께서서는 왜 편협하게 모든 선행과 행위들을 일체 배제하고 믿음 하나만을 그렇게 고집하신단 말인가?

하나님은 아무 인간도 자신의 선한행위로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는 자가 없게 하기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도록 하셨다는 말씀이다. 그런데 천주교는 끈질 지게도 하나님의 극명한 말씀을 무시하고 믿음으로만은 부족하고 거기에는 어떤 종류의 선행을 추가해야만 된다고 외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며 거역인 것이다.

3) 구원 받은 사람의 선행의 필요성

최근 한국 기독교에는 극단적인 사상이 많이 유행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 받은 사람은 율법에서 해방되었으니 그 어떠한 행위(선행)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마치 세칭 구원과와 흡사하게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고 방자(放恣)하게 행해도 된다는 극히 그릇된 풍조가 한국기독교회 안에 암암리(暗暗裡)에 번져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이는 실로 치명적인 사탄의 독소가 한국기독교회에 만연(蔓延)하여가고 있는 듯이 보이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선행이 뒤 따라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이다. 로마서 12:1-15:6, 에베소서 2:10, 4:23-32, 디도서 2:14, 골로새서 1:10-12, 야고보서 1:19-2:26절 등만 보아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선행이 필수적임을 계속 강조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 두 말씀만 읽어 보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엡 2:10)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딤후 2:14)

그러므로 선행을 하나도 행하지 않고도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구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모든 선행과 사랑을 기쁨으로 행해야 할 것이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격식 밖의 은혜를 그저 받았으니 감사와 감격함으로 이웃을 위한 사랑과 봉사로서의 선행을 힘써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선행은 진실로 구원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며 구주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불신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시적 증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증거도 되는 것이다.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말은 요즈음 이방종교들이나 이단자들이나 천주교가 사랑과 선행과 봉사를 힘쓰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록 저들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선행을 하고 있어서 그 행위들이 구원을 받는 데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겠으나, 선행 그 자체는 세상에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니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저들보다 뒤 떨어져서는 안 될 줄 안다. 결코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구실로 선행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성경말씀대로 선행



에도 그들보다 앞 서야 할 줄 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다음 말씀을 깊이 음미하도록 하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것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보다 더 낮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 5:19-20)

우선 '구원의 조건' 으로서의 선행은 절대 비성경적인 것으로 반대하지만 구원의 조건이 아닌 일반적인 선행이나 구원받은 결과로서의 선행의 필요성은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다. 잘못하면 기독교가 선행을 부인한다고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이는 결코 오해이며 다음에도 언급하겠지만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은 사람에게 선행은 구원의 열매로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3) 세례로 구원받음

천주교의 일반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거의 모든 것을 제도적이고 획일적으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교계제도도 그렇지만 영혼의 구원을 다루는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까지도 그렇다는 것이 커다란 과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례성사는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기초이며, 성령 안에 사는 삶으로 들어가는 문이며, 다른 성사들로 가는 길을 여는 문이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며,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교



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그 사명에 참여하게 된다. “세례는 물로써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성사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1213항)

소위 천주교의 이 "세례구원"이라는 교리는 성경적으로 결코 지지 받을 수 없는 억지 교리이다. 그런데 다른 많은 비성경적인 교리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거의 천주교 역사 초기부터 이 교리를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여 오고 있다. 이 교리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으나 성경적으로나 실제로 보면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문제는 서두의 개종 신부들의 생생한 간증들에서도 실증하였고 뒤에도 자세히 다룰 것이니 여기에서는 그냥 지나가겠다.

(4) 천주교에서만 구원받음

천주교의 거의 많은 교리가 그렇지만 구원관에 있어서의 이 독단과 독선은 대단히 미안하지만 모든 이단들의 공통적인 전용(專用)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이 말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이 당신의 몸인 교회를 통해 주어 진다는 의미이다...사람들은 마치 문과 같은 세례를 통하여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톨릭교회를 필요한 것으로 세우신 사실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교회에 들어오기를 싫어하거나 그 안에 머물러 있기를 거부하는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846항)

사실 이들의 이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헛된 것이다. 그런데 이



러한 사실 무근한 헛된 주장을 기고만장(氣高萬丈)하게 앞세워서 천주교만이 유일한 교회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든 이단들의 공통적인 아집(我執)이다. 천주교 밖에는 구원이 없다. 사제가 베푸는 세례를 받고 천주교로 들어와야 구원을 받으며 이를 거부하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든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성인 유아독존(唯我獨尊)적인 행태(行態)에 불과한 것이다.

(5) 이슬람 교인들도 구원받음

여기에 천주교의 또 다른 구원관의 대 착오가 등장하고 있다 천주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대서특필(大書特筆)한 저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슬람 교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망언(?)을 하고 나섰다.

이슬람 교인들과 교회의 관계 “구원의 계획은 창조주를 알아 모시는 사람들을 다 포함하며, 그 가운데에는 특히 이슬람 교인도 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간직하고 있다고 고백하며, 마지막 날에 사람들을 심판하실 자비로우시고 유일하신 하느님을 우리와 함께 흠숭하고 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841항)

오직 세상에 천주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입이 닳게 주장한 저들이다 그런데 갑자기 이러한 엉뚱한 주장을 하는 근거로 "이슬람인들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간직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과 최후의 인류심판 주이신 유일한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숭배하고 있다."는 것으로 들고있다. 그러나 삼척동자도 이슬람의 아브라함 신앙이 기독교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슬람의 아브라함 신앙은 결코 구원 받을 복음신앙이 아니지 않은가? 그리고 이슬람이 숭배한다는 최후의 인류 심판 주이신 유일한 하나님도 성경과 기독교가 믿는 삼위



일체 하나님과 완전히 다르지 않는가?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부인하지 않는가? 그런데 천주교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데도 자기들과 같은 신앙이며 같은 숭배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억지로 주장하고 나선 이유(동기)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6) 다른 종교인들의 구원

천주교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부터 시작하여 다른 종교들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쏟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그들의 숨은 동기가 밝혀지고 있다. 먼저 저들의 주장을 들어보자.

그리스도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과 교회의 관계는 먼저 인류의 공통적 기원과 공통적 목적에 따른 유대이다

하느님께서 모든 인류를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니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민족의 기원은 하나이고, 그 궁극 목적도 단 하나 곧 하느님이시다 좋으신 하느님의 섭리와 구원 계획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고, 마침내 하느님의 영광이 빛나는 거룩한 도성에 뽑힌 이들이 모일 것이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842항)

그들은 아주 그럴듯하게 다른 종교들과 천주교의 공통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다. 먼저 일단 "인류의 공통적 기원이 하나이고 그 공통적 목적도 단 하나 곧 하느님이시니 좋으신 하느님의 섭리와 구원 계획이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고 긍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뒤에 가서는 슬쩍 "마침내 하느님의 영광이 빛나는 거룩한 도성에 뽑힌 이들이 모일 것이다."고 애매모호하게 마무리하고 있다. 그들은 다른 곳에서 불교

나 유대교 등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표현하고 있다. 즉 한편에서는 그들도 같이 구원 받는다는 암시를 주고 뒤에서는 살짝 천주교를 통하여 그 구원이 완성된다고 해서 그들의 기만적인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기독교에 대해서도 그랬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이 처음 말만 믿고 속아서 동조하게 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7) 성사(聖事)들을 통한 구원

서두에서 개종한 신부들이 자백했고 다음에서 자세히 다루겠으나 여기에서는 천주교의 완전히 잘못된 인위적인 성사를 통한 구원에 대하여 간략하게 밝히도록 하겠다.

「구원의 성사」에 대하여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신앙 안에서 정당하게 거행된 성사는 그 성사가 의미 하는 은총을 준다. 성사는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유효하다 세례를 주시는 분도 그리스도이시고 성사가 의미하는 은총을 주시기 위해 성사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그리스도이시다. 성부께서는 각 성사의 성령 청원 기도에서 성령의 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당신 성자의 교회가 바치는 기도를 늘 들어 주신다. 마치 불이 자기에게 닿는 모든 것을 태워 불로 변화시키듯이 성령께서는 당신의 힘을 받아들이는 모든 것을 하느님의 생명으로 변화시키신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127항)

이 교리서의 「구원의 성사」 교리는 천주교의 성사를 통한 구원에 대하여 잘 가르치고 있다 신앙 안에서 정당하게 거행된 성사는 그 성사가 의미하는 구원(은총)을 준다는 말은 성사를 통한 구원에 대한 직설적인 주장이다. 사제가 천주교 법과 절차를 따라서 신앙 안에서



거행하는 성사는 각 성사가 의미하는 구원을 이루어준다는 말이다. 그 근거(이유)로는

- 1) 성사 안에서 그리스도가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며
- 2) 성부께서 각 성사의 성령 청원 기도에서 성령의 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천주교가 바치는 기도를 늘 들어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당신의 힘을 받아들이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시키신다는 것이다

이는 먼저 모든 성사 안에서 그리스도가 일하고 계신다고 전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신앙은 성경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낱 자신들의 일방적인 맹신(盲信)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주님께서서는 성경 어디에서도 세례를 통한 구원이나 견진 성사를 통하여 성령의 특은의 인호(날인)를 준다고 한 적이 없으며 더욱이 소위 성체성사나 고해성사나 병자성사를 명하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부께서 각 성사의 성령청원 기도를 늘 들어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시키신다는 주장도 전혀 성경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성부나 성령님은 결코 비록 베드로나 바울사도 일지라도 그들의 믿음의 기도를 마술처럼 무조건 다 이뤄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께서 사제들에게 마치 도깨비 방망이 같은 신통력(神通力)을 주시는 분은 절대 아니시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사구원론은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거짓된 교리라고 지탄받지 않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다음과 같이 단언한다. 성사들은 ‘사효적으로’ (ex opere operato: ‘성사거행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진다. 곧, 단 한 번에 영원히 성취된 그리스도의 구원 업적으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성사는 그것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의 의로움이 아닌 하느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성

사가 교회의 의향에 따라 거행되면 집전자의 개인적인 성덕과 관계없이 그리스도와 그분 성령의 힘이 성사 안에서 성사를 통하여 작용한다. 그렇지만 성사가 맺는 결실은 그것을 받는 사람의 마음가짐에도 달려 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128항)

1) 이 교리도 성사들이 성사거행 그 자체로 효력이 있으며 곧, 단 한번으로 영원히 성취된 그리스도의 구원업적으로 효력이 있다는 주장으로서 천주교의 완전히 잘못된 교회교리에 따른 황당무계(荒唐無稽)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2) 성사가 그것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의 의로움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주장도 도저히 성경을 떠나서 상식적으로도 불가한 말이 아닐 수 없다.

3) 성사가 교회의 의향에 따라서 거행되면 집전자의 성덕과 관계없이 그리스도와 성령의 힘이 성사 안에서 성사를 통하여 작용한다는 주장도 그리스도와 성령의 거룩한 특성을 도외시한 아주 그릇된 주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4) 마지막으로 "그렇지만"으로 시작된 결론은 지금까지 1), 2), 3)에서 주장한 교리와는 정 반대되는 말이다. "성사가 맺는 결실은 그것을 받는 사람의 마음가짐에도 달려있다."는 첨부어는 일종의 책임회피용으로 부가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중적인 언어 플레이 이다

3. 천주교에서 실제로 구원받는다든 인위적인 6과정의 중대한 과오



천주교는 교리적으로 영혼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총(은혜)과 믿음과 여러 가지 행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구원은 사제들이 행하는 몇 가지 성사들을 통하여 받는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천주교의 구원은 사제주의 구원교리에 따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천주교의 사제주의의 구원은 일생의 과정(노력)으로 획득되며 대개 연옥까지 연장 된다고 한다. 사실 천주교에는 7성사가 있다. 교리서에 의하면 이 7성사는 다음과 같다.

신약 시대의 성사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으며, 그것은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성품성사, 혼인성사의 일곱 가지이다. 이 일곱 성사는 그리스도인 생활의 중요한 모든 단계와 시기에 관계된다. 성사들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탄생시키고 성장시키며, 치유하고 사명을 부여한다. 이 점에서 자연적인 삶의 단계들과 영적인 삶의 단계들은 어느 정도 유사하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210항)

이 교리서는 먼저 천주교의 7성사를 신약시대의 성사들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근거 없는 것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신약시대에 기록된 신약성경에 이러한 성사들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7성사를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다는 주장도 전혀 무근한 것이다. 또한 성사(기독교에서는 성례라고 함)가 7가지나 된다는 것도 신약성경에 근거가 없는 것이다. 신약의 성사(성례)는 오직 두 가지 뿐이니 세례와 성찬이다.

그리고 교리서는 여기에서 성사들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주요한 단계와 시기에 관계되어 신앙생활을 탄생시키며, 성장시키며 치유



하고 사명을 부여하는 점에서 자연적인 삶의 단계들은 영적인 삶의 단계들과 어느 정도 유사하다고 한다. 필자도 이러한 영적인 삶의 단계로 제정한 천주교의 다섯 성사(두 성사는 구원에 직접 무관함)와 거기에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연옥교리를 합하여서 천주교의 실제적인 구원의 여섯 과정에 대하여 기술하려고 한다.

일곱 가지 성사 중에 구원과 직접 관계가 없는 마지막 두 가지는 제외하고 위의 다섯 가지 성사에 대해서만 설명하려고 한다. 다섯 성사 중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찬성사는 입문성사라 하고, 고해성사, 병자성사는 치유성사라고 한다. 거기에 연옥교리를 덧붙이려고 한다.(인용서는 「가톨릭교회 교리서」 이고 그 교리서의 항목번호를 넣었다.)

(1) 세례 성사(聖事)를 통한 구원

천주교의 구원 받는 첫 단계는 세례성사이다. 이 성사는 입문(입교) 성사라고도 하며 말 그대로 이 성사를 거쳐야만 구원과 천주교의 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천주교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천주교회에 들어와서 이 세례성사를 통하여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1) 정의

초대부터 기독교회에서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만을 성례로 행하여 왔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 두 가지에 다섯 가지를 추가하여서 성사(聖事)라고하며 행하여 오고 있다. 그리고 세례성사를 첫째로 취급하고 있다. 이는 천주교 전체생활의 기초요 관문이며 성사들로 들어가



는 문이라고 하며 죄에서의 해방과 중생과 교회에 동참하게 하며, 물과 말씀으로 거듭나는 성사라고 한다.

(교리서 1213항) 세례성사는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기초이며, 성령 안에 사는 삶으로 들어가는 문이며, 다른 성사들로 가는 길을 여는 문이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며,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그 사명에 참여하게 된다. "세례는 물로써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성사다."

2) 세례의 은총

세례를 통하여 얻는 몇 가지 은총에 대하여 교리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① 죄의 용서

사제주의적인 천주교의 교리는 구원의 첫 번째 관문인 죄의 용서가 세례라는 의식(성사)을 통하여 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순히 세례라는 의식을 통하여 원죄와 자범죄와 모든 죄의 벌까지도 다 용서받는다는 것이다. 결과로 아담의 죄와 본죄 등 아무 죄도 남지 않고 하느님과의 단절도 해소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는 아무런 죄도 남지 않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어떻게 이러한 막중한 결과가 단순한 인간의 의식으로만 가능할 수 있겠는가?

(교리서 1263항) 세례를 통하여 모든 죄, 곧 원죄와 본죄 그리고 모든 죄 벌까지도 용서받는다. 세례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을 아무런 죄도 남아 있지 않다. 곧 아담의 죄도, 본죄도 죄의 가장 중대한 결과인 하느님과의 단절도 남아있지 않는 것이다.



② 새사람이 됨(중생)

무엇보다 세례가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는 자녀로 중생하게 하며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며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요 성령을 모신 전이 되게 한다고 한다. 참으로 신기하고 편리하나 무리하고 부당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세례만 받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중생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중심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절대로 인간의 단순한 세례의식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지체요 공동 상속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교리서 1265항)세례는 모든 죄를 정화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신자를 "새 사람"이 되게 하며, "하느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 성령의 성전이 되게 한다.

③ 성화 즉 의화(칭의)하는 은총을 주심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는 마지막으로 성화 즉 의화(칭의)의 은총을 주신다고 한다. 기독교에서는 의화가 먼저이고 성화는 칭의 받은 사람이 일생동안 점진적인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 진다고 한다. 이러한 아주 편리한 세례의화사상은 기독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세례성화와 세례의화는 단순한 의식주의의 인위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교리서 1266항)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께서는 세례 받은 사람에게 성화하는 은총, 곧 의화 하는 은총을 주신다.



(2) 견진성사로 성령세례 받아 구원강화

견진성사는 성경과 기독교에 없는 것으로 천주교에서 구원 받으려면 세례 받은 다음에 반드시 거쳐야하는 단계이며 과정이다.

1) 정의

견진성사는 세례성사와 성찬성사와 함께 천주교의 입문성사인데 쉽게 말하면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의 은사와 충만함을 받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천주교가 점점 세속화 되어가고 인본적이 되어가면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적 유기체가 아니라 하나의 경직된 제도와 조직체가 되면서 성령세례도 의식화되고 말았다. 살아계신 성령의 은사와 충만한 능력을 초대교회같이 순전하게 받을 수 없으니 체계적인 의식으로 해결하려 한 것이다. 사실 천주교의 소위 구원의 성사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이러한 인위적인 방법으로 고안된 의식들이니 생명력이 없는 공허한 것일 뿐임은 부인할 수 없는 최고의 불행이라 하겠다.

(교리서 1285항) 세례성사와 성체성사와 함께 견진성사는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이며, 이 입교 성사들의 단일성은 지켜져야 한다. 그러므로 견진성사가 세례성사의 은총을 완성하기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신자들에게 설명해주어야 한다. "견진성사로 신자들은 더욱 완전히 교회에 결합되며 성령의 특별한 힘을 받아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서 말과 행동으로 신앙을 전파하고 옹호하여야 할 더 무거운 의무를 진다."

2) 견진성사의 핵심예식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은 신자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견진성사

는 집전자가 먼저 그 사람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청원하는 기도를 드린다. 그 다음은 이 성사의 핵심예식인 도유식을 거행한다. 주교가 한 손을 신자의 머리에 얹고 이마에 축성성유를 바르고 '성령 특은의 날인을 받으시오.'라는 말로써 수여한다고 한다. 이렇게 주교이 안수기도와 성유의 도유와 선언으로서 성령세례(충만)의 특은이 수여된다는 것이다. 이렇게해서 성령특은(은사, 세례 충만)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인위적인 인간의 의식만으로 성령의 특은이 내려질리는 만무하다.

(교리서 1320항) 견진성사의 핵심 예식은 집전자의 안수와, 세례성사를 받은 사람의 이마에(동방 교회에서는 다른 감각 기관들에도) 축성 성유를 바르는 것인데, 로마 예법에서는"성령 특은의 날인을 받으시오." 라고하며, 비잔틴 예법에서는 "성령 특은의 인호"라고 말한다.

3) 견진성사의 효과

견진성사의 효과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여 문도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충만이라고 한다 그러나 위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천주교의 모든 견진성사를 통하여 이러한 성령충만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교리서 1302항) 견진성사의 효과는 옛날 오순절에 사도들에게 내리셨던 그 성령의 특별한 부여라는 것이 성사의 거행에서 드러난다.

(교리서 1303항) 따라서 견진성사는 세례성사의 은총을 증가시키고 심화시킨다. 견진성사는,

-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뿌리를 내려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로마 8, 15)라고 부르게 한다



- 우리를 그리스도와 더욱 굳게 결합시킨다
 - 우리 안에 성령의 선물을 증대시킨다.
 - 우리와 교회의 결합을 더욱 완전하게 한다.
 - 성령의 특별한 힘을 받아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서 말과 행동으로 신앙을 전파하고 옹호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용감히 고백하고,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도록 해준다
- 그러므로 그대는 영적인 날인, 곧 지혜와 통찰의 영, 의견과 용기의 영, 지식과 공경의 영, 주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의 영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대가 받은 것을 지키십시오.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대에게 인장을 찍으셨고, 주 그리스도께서는 그대를 인정하셨고, 그대의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¹⁴⁰⁾

대단히 죄송한 말이지만 천주교의 대부분의 정통적인 교리들은 일부성경의 진리를 자신들의 인위적인 교리에 그대로 대입시키고 있다. 실제적으로는 거리가 천지간으로 먼데 견강부회(牽強附會)(억지로 끌어대기)식으로 짜 맞추고 있다. 견진성사의 효과가 실제로 이렇게 일어난다면 오죽이나 좋겠는가? 우리는 진실로 모든 천주교에서와 모든 기독교회에서 이와 같은 진정한 성령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인간의 모든 거짓과 위선과 교만과 사악함과 죄악이 모든 천주교와 기독교회에서 일소되기를 기도한다. 오직 성령과 복음의 능력만으로 모든 교회와 세계가 개혁되고 변화되어 인류를 새롭게 하며 진정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세계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기도드린다

140) 최창무 발행, 『가톨릭교회 교리서』, 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 (서울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4), p. 514.



(3) 성체성사로 생명 얻고 성장

성체성사는 천주교 입문교리의 마지막 성사로서 천주교에서 무엇보다 가장중요시하는 생명과 같은 성사이다. 세례를 받은 후에 견진성사를 받거나 그 전으로부터도 이 성사를 받는데 이 성사도 구원받는 단계(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이다.

1) 정의

성체성사에 대한 정의는 대단하다. 이 성사는 천주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이고 천주교의 모든 직무나 사도직 활동과 같이 다른 여러 성사들도 성찬례와 연결되어 있고 성찬례를 지향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룩한 성체성사 안에 천주교의 모든 영적선이 내포되어 있고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성체 안에 계신다고 (교리서 1324항)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성체성사의 주체가 되는 성체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다음에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이 설명은 거의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의 <4. 천주교 구원관의 치명적 오류들>에서 좀 더 자세히 기술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교리서 1413항) 축성을 통해서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실제변화가 이루어진다. 축성된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는 살아 계시고 영광스럽게 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참으로 실재적으로 그리고 실체적으로 현존하신다 곧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그분의 영혼과 천주성과 함께 현존한다.



2) 효과

성체성사의 효과에 대한 설명은 먼저 구원의 은총을 베푸는 것이라고 한다. 성체성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원한 대속제사에 모든 교도를 참여시키고 구원의 은총을 받게 한다는 말이다. 이 말은 성체(떡)를 받는 의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구원)의 은혜가 재현되고 시여(施與)된다는 말을 내포하고 있다.

(교리서 1407항) 성찬례는 교회 생활의 핵심이며 정점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찬례를 통하여, 십자가 위에서 성부께 단 한번 영원히 봉헌하신 찬미와 감사의 제사에 교회와 교회의 모든 지체를 참여시키시기 때문이다. 이 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인 교회에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

또한 성체성사의 효과는 성체성사 자체와 고해성사와 일상적인 회개와 참회의 원천이 되며 양식이 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신 희생제사가 성체성사 안에 현존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거기에도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체로 양육되어서 성장하게 되고 강건하여지고 날마다 짓는 죄에서 우리를 구해주고 죽을죄에서 보호해 주는 해독제가 되는 효과가 있다(교리서 1436항)고 한다.

(4) 고해성사로 세례 후에 지은 죄들의 처리

고해성사는 천주교에서 구원받는 네 번째 단계로 행하는 성사이다.



1) 정의

고해성사는 천주교인이 지은 모든 대죄나 소죄들을 사제에게 고백하는 것인데 세 가지 행위 즉 통회와 사제에게 하는 죄의 고백과 보속(보상이나 속죄)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리고 이 보속은 그 죄로 인해 생긴 손해를 갚고 신자로서 합당한 생활을 갖추기 위해 '보상이나 속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사제가 천주교에서 위임받은 사죄권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용서할 권한을 행사한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491항, 1494항, 1495항, 1461항)고 한다.

2) 효과

(교리서 1496항) 고해성사의 영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 고백자에게 은총을 회복시켜주는 하느님과 화해
- 교회와 화해
- 죽을죄로 받게 되었던 영벌의 사면
- 죄의 결과인 잠벌의 적어도 부분적인 사면
- 양심의 평화와 안온, 영적 위안
-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을 위한 힘의 증대

여기에서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얻게 되는 효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잘 요약하고 있다

□ 사제에게 고백성사를 통하여 죄를 고백하는 신자는 먼저 회복의 은총을 주시는 하느님과 화해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 그 다음에는 범죄자가 교회와 화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f 또한 죽을죄(대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 때문에 받게 될 영벌(지옥)을 사죄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 세례를 받은 후에 지은 죄는 고해성사로 고백함으로 용서를 받지만 그 잠벌(현세에서나 연옥에서 잠시(?)받게 되는 벌) 은 기도나 희생 등 보속을 함으로 갚아야하는데 그것도 부분적인 잠벌의 사면만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적인 잠벌의 사면’ 다음에 남은 ‘부분적인 잠벌’이라는 말이 특히 연옥을 가게 하는 것과 연옥에서의 구출을 위해서 생존 가족의 눈물겨운 헌금과 기도와 노력을 짜 내게 하는 커다란 함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신부가 사죄를 선언하면 신부의 용서가 죄는 없애 주지만 죄의 결과로 생기는 이웃과 하나님에게 끼친 모든 피해 즉 죄값을 갚기 위해서는 보상이나 속죄(보속)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교리서 1459항). 그런데 이 보속이 완전히 행해질 수 없으니 부분적인 잠벌만 사면을 받게 되고 그 남은 잠벌의 죄값(보속)이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허황된 교리이다 그리고 신부가 지정해 준 보속은 기도, 헌금, 자선행위, 이웃을 위한 봉사, 자발적인 절제, 희생, 십자가를 인내로 받아들이는 일일 수도 있다고 한다(교리서 1460항). 문제는 이렇게 신부가 지정해 준 죄값(보속)을 아무리 다 갚는다고 해도 잠벌이 부분적으로만 사면되고 부분적으로는 남아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보속을 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그 부분적으로 남은 보속 때문에 연옥에 까지 가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기한도 모르는 연옥의 연단하는 불 가운데에서 고통 받는 가족 친지들의 구출을 위해서 대신 보속행위나 대사(감면)를 얻기 위한 한없는 수고를 해야 하는 운명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진실로 이와 같이 허무맹랑(虛無孟浪)한 교리가 성경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이러한 것을 그 누가 혹세무민(惑世誣民)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 고해성사에서 죄를 고백하고 나면 양심의 평화와 안온과 영적위



안도 받는다는 것이다.

양심의 평화와 안온과 영적위안은 성경적으로 보면 말씀 안에서 진정한 회개와 자복을 한 성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천주교교리는 하나님만이 가진 사죄권의 행사와 비성경적이며 인위적인 고백을 통하여서도 그런 효과가 주어진다고 한다. 물론 그들에게도 약간의 이러한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개종한 한 신부의 말과 같이 그들도 “어떤 유형의 위로를 경험할 수는 있겠지만 그 효과는 지속되지 않으며 그냥 일시적인 감정으로 끝나버린다.”¹⁴¹⁾는 말이 옳을 것이다. 이러한 보장들은 일종의 '카타르시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병자성사(노자성사)로 치유와 죄에서의 해방?

천주교의 구원의 실제적인 도구인 성사들 중에 마지막 단계의 성사는 병자성사이다.

1) 정의

옛날부터 전해온 생로병사(生老病死)라는 말과 같이 인간이 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과정은 만민의 공통경험이라고 하겠다. 천주교가 신도들의 질병의 위기와 최후를 신앙적으로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병자성사라는 성사를 제정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를 굳이 성사라고 규정한 점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옛날에는 종부(終傳)성사라고 한 이 성사는 위독한 병자의 이마와 양 손에 기름을 바르며 아래와 같은 기도문을 한번 외우는 것으로 되어있다

141) 리처드 베넷 · 마틴 버킹엄, 『교황대신 예수를 선택한 49인의 신부들』, 이길상 옮김, (서울 : (주)아가페 출판사, 2002), p. 235.



이렇게 하여서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영적)위험에 처한 신자를 돕는 것이다

(교리서 1499항) "병자들의 거룩한 도유와 사제들의 기도로 온 교회는 수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주님께 병자들을 맡겨 드리며, 그들의 병고를 덜어주시고 낮게 하여 주시도록 간청하는 한편 병자들도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에 자유로이 결합시켜 하느님 백성의 선익에 기여하도록 권고한다."

(교리서 1513항)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에 따라, 교황령 "병자의 도유"(Sacram Unctionem Infrimorum, 1972년 11월 30일자)는 로마 예법에서 다음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였다

병자성사는 위독한 병자들에게 베푸는 것인데 정식으로 축성한 올리브기름이나 때에 따라 다른 식물성기름을 병자의 이마와 양손에 바르며, 다음과 같은 기도문을 한 번만 외운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비로우신 사랑과 기름 바르는 이 거룩한 예식으로 성령의 은총을 베푸시어 이 병자를 도와주소서. 또한 이 병자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해 주시며 자비로이 그 병고도 가볍게 해 주소서."

이상으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황령의 '병자의 도유의 규정'을 보면 병자성사의 방법과 단 한번만 외우는 기도문이 있다. 이 기도문은 단순한 것으로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기름 바르는 예식을 통하여 성령의 은총을 베풀어 이 병자를 도와주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자비로 그 병고도 가볍게 해달라고 한번만 외우라고 하였다.

이 병자성사는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예식(도유)과 기도가 비록 성경에 근거하였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계신 성령님을 의지함이 없이 오직 하나의 의식과 형식적인 기도문의

낭독으로 그친다면 유익이 없을 것이다.

2) 병자성사(노자(路資)성사)의 효과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병자성사를 통하여 중병이나 노쇠상태의 신자들에게 미치는 효과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먼저 중병이나 노쇠 상태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에 필요한 위로와 평화와 용기의 은총을 주는 것이다. 다음은 병자들의 육체도 치유한다. 그뿐 아니라 지은 죄가 있으면 그 죄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또한 병자가 그리스도의 수난에 더욱 가까이 결합되는 힘과 은혜를 받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원죄의 결과인 고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사업에 참여하는 자리에까지 나가게 된다고 확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병자성사의 효과를 확대하여서 열거함으로 이 성사의 유효성을 말하고 있으나 천주교의 모든 성사와 같이 단순한 인위적인 의식을 통하여 이러한 모든 효과가 일어난다는 주장은 그 진정성의 문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이 그분의 영광간의 치유와 영원한 구원에 연결된다는 것은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치유와 구원의 역사는 인위적이며 의식적인 방법에 따라서 마술과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오직 성령님의 자유로운 역사에 따른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교리서 1520항) 성령의 특별한 선물, 병자성사의 근본적인 은총은 중병이나 노쇠 상태의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데에 필요한 위로와 평화와 용기의 은총이다. 이 은총은 하느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을 새롭게 하고, 마귀의 유혹 곧 죽음 앞에서 번뇌와 좌절에 빠지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다. 성령의 힘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이러한 도움은 병자들의 영혼



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지만, 하느님께서 원하신다면 육체도 치유한다 그뿐 아니라, "그가 지은 죄가 있으면 그 죄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야고 5,15)

(교리서 1521항) 그리스도의 수난에 결합됨. 이 성사의 은총으로 병자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수난에 더욱 가까이 결합시키는 힘과 은혜를 받는다. 어떤 의미에서 병자는 구세주의 구속하시는 수난을 닮음으로서 열매를 맺도록 축성되는 것이다. 원죄의 결과인 고통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다 곧 고통은 예수님의 구원사업에 참여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6) 연옥에서의 구원

구원관에 있어서 천주교의 교리는 주로 전례의식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위의 다섯 가지 구원성사와는 다르지만 이 구원 성사들을 거쳐서 죽음 뒤의 구원문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성경과 기독교에 없는 연옥이라는 특수한 교리이다. 천주교는 이 연옥을 모든 천주교인들이 거의 구원받기 위하여 거쳐야 할 마지막 구원의 과정(단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 연옥이란 무엇인가?

천주교의 구원과정에 있어서 연옥의 존재는 기독교에서 정경적으로 볼 때에 정직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의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교리서 1030항)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죽었으나 완전히 정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기는 하지만, 하늘의 기쁨으로 들어가기에 필요한 거룩함을 얻으려면 죽은 다음에 정화를 거쳐야 한다



연옥이란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고 그 교회의 법도를 따라 산 신자이나 그 영혼이 죽음의 순간에 가벼운 죄나 일시적인 벌이 남아 있는 (잠벌) 경우에 해당되는 정화의 장소이다. 비록 그들에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지만 그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으려면 죽은 후에 저 세상에서 남아있는 죄들을 깨끗이 씻는 고통스러운 정화의 과정을 거치는 곳이 연옥이라는 것이다.

2) 연옥에는 누가 가는가?

위의 연옥의 정의에서 밝힌 것과 같이 연옥은 선택된 천주교 신자들만이 거치는 정화의 장소이다. 이들이 내세에서 가벼운 잘못을 저지른 죄를 정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교리서 1031항) 교회는 선택된 이들이 거치는 이러한 정화를 연옥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단죄 받은 이들이 받는 벌과는 전혀 다르다.

... 어떤 사람이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마태 12,32)이라고 진리이신 분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가벼운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심판하기 전에 정화하는 불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어떤 죄들은 현세에서 용서받을 수 있지만 다른 어떤 죄들은 내세에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교리서에서는 천주교인이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으나 가벼운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심판하기 전에 정화하는 불(연옥)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가톨릭국가인 아일랜드에서 조상 대대로 천주교 가정에서 엄격한



천주교 교육을 받은 돈독한 천주교 신자였다가 개종한 제임스 G. 맥가티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천주교 신자들 중에 죽을 때에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룹은 둘이 있다고 한다.

① 먼저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았으며 자신이 책임질 나이가 되기 전에 죽은 아이들이다.

② 죽자마자 곧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두 번째 그룹은 천주교가 성인으로 시성(諡聖)한 천주교 신앙을 지킨 영웅들이다.

그러나 보통 천주교 신자들은 곧 바로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한다.¹⁴²⁾ 이 말은 세례 받은 어린 아이나 특별한 성인이 아닌 천주교인은 다 천국에 바로가지 못하고 무서운 정화의 연옥 불에 들어간다는 말이다

그리고 개종한 미국출신 전직 천주교 사제였던 휴 페럴은 "천주교의 재속사제(수도원 신부 외의 일반 신부)가운데 성인이 된 사람은 아르스의 주임신부 장 마리 비안네 한 사람 뿐이라"¹⁴³⁾고 말했다. 이 말도 어떤 면에서는 아주 충격적일 수 있다. 이 말은 그 한 신부를 빼고는 역사상에 헤아릴 수 없는 재속(在俗)신부들이 바로 천국에 가지 못하고 다 연옥 불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3) 연옥에서 구원받는 길

(교리서 1032항) 이러한 가르침은 성서에서 이미 말하고 있는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의 관습에도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유다 마카베오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바친 것은 그 죽은 자들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

142) 제임스 G. 맥가티, 『가톨릭에도 복음이 있는가?』, 조남민 역, (서울 : 한인성경선교회, 2006), p. 143.

143) 리처드 베닛 · 마틴 버킹엄 저, 『교황 대신 예수를 선택한 49인의 신부들』, 이길상 옮김, (서울 : (주)아가페출판사, 2002), p. 49.



려는 것이었다." (2마카 12.45). 교회는 초기부터 죽은 이들을 존중하고 기념하였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특히 미사성제를 드렸다. 그것은 그들이 정화되어 지복직관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교회는 죽은 이들을 위한 자선과 대사(大赦)와 보속도 권한다.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기억합시다. 욥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번제로 정화되었다면, 죽은 이들을 위한 우리의 봉헌 제물이 그들에게 위로를 준다는 것을 왜 의심하겠습니까? 주저하지 말고 세상을 떠난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연옥은 정식 천주교인은 거의 다 거치지 않을 수 없는 곳이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열교인이요 이단인 기독교인은 단 한 사람도 연옥에도 못 들어가고 지옥으로 간다. 그리고 연옥에 들어간 천주교인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므로 언젠가는 다 천국에 간다고 한다. 그러나 연옥에 있는 천주교인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한다. 위의 교리서에서는 몇 가지조건을 들고 있다

① 미사성제, ② 자선, ③ 대사(大赦), ④ 보속 ⑤ 봉헌 제물, ⑥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등으로 연옥에 간 천주교인들을 도와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건들을 보면 그들의 구원의 조건들과 똑같이 연옥을 벗어나는 길도 모두 어떤 인간의 행위임을 알 수 있다.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세례를 받고 성체를 받고 견진례를 받고 고해성사를 받고 병자성사를 받는 등등과 같은 인간의 행위와 의식과 노력으로 가능하다 그런데 연옥에서 벗어나는 것도 미사제사를 드리고 자선을 행하고 대사를 받고 보속을 드리고 봉헌 제물을 드리고 기도하는 등등의 행위로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인간영혼이 영원히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고 연옥고통



을 벗어나서 천국으로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로 값없이 받는 것이 아니고 모두 자신들의 행위, 선행, 의식 등의 노력과 공로로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천주교의 한계가 있고 절대절명(絶對絶命)의 치명적인 과오가 있는 것이다.

4. 천주교의 인위적인 사제주의 구원론

(사제주의의 잘못된 구원관. 벤자민 B. 위필드)

벤자민 B.위필드(1851-1921)는 미국 칼빈주의 신학자로서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의 교수를 역임한 명망 높은 정통신학자이다. 그는 「구원의 계획」이라는 명저에서 천주교의 구원론의 근본적인 오류로서의 사제주의 구원론을 지적하고 그 비성경적이며 비 복음적인 면들을 자세히 밝히고 있다

(1) 천주교의 사제주의적 구원론

초대로부터의 정통적인 기독교 구원론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한 인간의 믿음으로서의 구원이었다. 그런데 천주교에 서서히 교회 절대주의에 의해 인간 사제를 매개로하는 구원론이 자리 잡아 왔다. 이러한 구원론은 주로 천주교와 동방 정교회에서 주장되고 시행되어 오고 있다 이 사제주의 구원론에 대하여 위필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보편적인 모든 기독교회의 일관된 구원론은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곧 오직 하나님 한분만을 통하여 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회의 모든 교파 안에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 구원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인간을 통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은 전체교회에 의해 공적으로 이교적인 잔재로 낙인 찍혔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많은 기독교 내에 이러한 경향이 재현되는 것은 사람들이 순수하게 하나님 한분에게만 구원의 공로를 돌리는 사상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크게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는 증거이다.

그런데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구(교회)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주장은 아직까지도 도처에서 자리 잡고 있다. 이 인간적인 요인(교회)을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혜와 인간 영혼사이에 끼어들어서 참으로 구원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을 삼는 체제를 사제주의적 체제라고 부른다. 이러한 사제주의적 구원체제의 대표가 천주교이다. 그러나 거의 모든 개신교회는 천주교의 이 체제에 반대하여 강력히 항거하였다.

천주교는 주 하나님은 인간을 직접적으로 구원하기를 전혀 바라시지 않으시며 반대로 인간들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모든 사역을 천주교의 중재를 통하도록 위탁하셨다고 한다. 그리고 그 중재의 임무를 수행할 알맞은 능력을 천주교회에 부여하시고 구원의 전 사역을 천주교회에 위임(일임)하였다.¹⁴⁴⁾ 고 한다. 그리하여 천주교의 구원론은 완전히 인간적이며 인위적인 거짓되고 헛된 것이 되고 말았다.

(2) 천주교의 사제주의 구원론의 실제

그는 천주교의 사제주의 구원론의 실제 적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144) 베자민 B. 위필드, 『구원의 계획』, 모수환 옮김, (서울 :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8), pp. 55-57.



기술하고 있다. 천주교의 사제주의에 따르면 천주교회는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사명을 계속하고 완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재성육신하신 것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는 천주교를 통하여 선지자의 직무와 제사장의 직무와 왕의 직무를 계속해서 영구히 수행하신다고 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직무도 천주교가 계승하여서 대신하여 계속 그 사제(제사장)들을 통하여 미사제사로서 영구히 반복하여 수행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천주교의 이러한 사제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오류는 점점 인간적이 되어버린 유형교회(천주교)가 하나님과 구세주의 자리에 무모하게 뛰어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개신교의 개혁은 신앙적인 필연성에 의해서 참으로 정당화 되었는데 이는 구원의 근거를 순수한 하나님의 기초에 두며 그 기원과 개념에 있어서 매우 인간적인 교회기구의 필요성을 없애버린 것이었다.¹⁴⁵⁾고 한다 그러나 천주교의 인위적인 사제주의 체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의 대행기구이며 대행자인 천주교 사제(제사장)들의 성사들을 통하여서 대신 수행한다는 주장을 완강하게 고집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3) 천주교의 구원론의 세 가지 작용양상

위 필드는 천주교의 사제주의 구원론이 실제로 세 가지 모양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1) 구원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수단(성사)을 의

145) 같은 책, pp. 58-60.



지하게 하여 멸망당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

천주교의 사제주의는 영혼과 모든 은혜의 근원 사이에 일단의 기구들을 삽입하여 영혼이 그 기구들을 의지하도록 유혹한다 (기계적인 구원개념에 팔아넘긴다.) 즉 구원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직접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천주교의 은혜의 수단들(성사들)을 의지하게 하여서 생명있는 신앙을 갖지 못하게 작용한다. 은혜의 수단인 천주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서 신자들이 하나님과의 의식있는 직접적인 교제로부터 오는 모든 기쁨을 상실하게 한다. 복음주의적 신앙은 영혼이 직접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을 위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인격적인 구세주이신 성령 하나님과 의식적인 교제를 하는 생명 있는 신앙이다. 쉽게 말하면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속자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하는데 천주교가 그리스도와 교도들 사이에 가로막고 서서 자신들이 베푸는 성사(은혜의 수단인)만을 의지하게 하고 있다는 말이다.¹⁴⁶⁾ 이는 실로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하신 죄인들을 자신들의 교권을 위한 희생제물(양)로 삼고 있다는 말이 된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차단하여서 사람들이 직접 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고 절대로 죄인들을 구원할 수 없는 소위 자신들의 인위적인 구원의 성사(수단)들만 믿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진실로 구원의 하나님께 대한 용서받지 못할 반역행위이며 인류에 대한 영원히 씻지 못할 영혼의 살해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진실로 천주교의 소위 사제주의 구원론은 천인공노(天人共怒)할 엄청난 죄악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146) 같은 책, PP. 71-72.



2) 천주교가 자체교회를 인류 '구원의(성령의) 창고'라고 하여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구원을 배급 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최고의 권위자로 믿게 하는 작용을 한다고 한다.

사제주의는 교회를 '구원의 기구'(institute of salvation)라고 말하며 또는 심지어 '구원의 창고'라고 말하는데 이는 구원이 필요할 때 마다 이용할 수 있는 저장소라고 하는 것이다. 즉 구원하시는 성령을 비인격적인 자연의 세력(힘)으로 삼아서 자기들이 그 세력을 천주교라는 창고 안에 쌓아놓고 사용하고 싶을 때에는 언제든지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는 실로 성령을 사제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힘으로 여기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비인격적인 자연적 세력의 형태로 생각하는 이단만큼 상스러운 이단은 없다. 이 구원론은 천주교의 권위를 극대화시켜서 자기들만이 인류구원의 전권을 부여 받은 유일한 기관이므로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면 자신들에게 복종해야만 한다는 억지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¹⁴⁷⁾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나게 무서운 죄악으로 순진한 교도들과 인류를 기만하여 영원한 멸망으로 오도하고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3) 천주교의 성사가 성령이 사용하는 구원의 도구여야 하는데 반대로 성령을 성사(천주교)의 구원의 도구로 전락시켜서 이용하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천주교의 사제주의는 교회와 성례(성사) 곧 은혜의 수단들은 성령께

147) 같은 책, P. 72.



서 구원을 이루시는 가운데 사용하시는 도구로 생각되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성령이 은혜의 수단인 교회가 구원을 이루는 가운데 사용하는 도구가 되게 하고 있다 주도권은 은혜의 수단인 교회에 있으며 성령은 교회의 처분에 따라야 한다. 또 성령은 교회의 허락을 기다려야 하며 교회의 지시가 없이 단독으로는 한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다. 이런 사제주의 구원론은 성령의 사역의 양태를 모욕하는 교리라는 것이다.¹⁴⁸⁾

성령을 자신들의 구원의 도구로 여기는 저들의 이러한 철면피한 행위는 하나님위에 군림하여 최고의 권위를 행사하는 교황권과 같이 화인맞은 몰염치한 추태(醜態)이다 누가 저 기만자들의 손아귀에서 내 백성들을 건져내랴?

5. 천주교의 근본적인 구원관인 세례구원과 성찬구원관의 치명적인 오류

천주교의 구원관의 근본은 세례구원과 성찬(영성체) 구원이다. 이 두 가지 성사는 영생 얻는데 대한 이중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

(1) 세례구원(세례성사)

세례구원은 가장 먼저 부딪치는 문제이다. 가톨릭 대학 교수 김웅태

148) 같은 책, P. 73.



신부는 가톨릭 교리서 『구원하시는 하느님』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 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 ②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 ③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

이 세 가지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하고 있다. 이중 두 가지는 다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것으로 오도 될 수 있으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라는 두 번째 조건에도 있다. 여기에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로써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다. 예수께서는 바리사이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과의 대화중에 세례성사를 통해 새로 태어나야 하며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요한 3, 15-16)”¹⁴⁹⁾고 주장하고 있다 저자는 두 개의 인용 성구를 통하여 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뒤에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저자가 서두에서 한 말이다. 그것은 “세례성사를 통해 태어나야 하며”라는 구절이다. 이 구절은 천주교가 세례구원을 주장하는 근거인데 이는 대표적인 성경의 왜곡이다. 이 말씀은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요 3, 5)고 하였는데 뒤의 성령은 빼어 놓고 물세례(세례성사)만을 주장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완벽한 주객전도(主客顛倒)로서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물세례를 받는 바른 순서를 뒤 바꿀 뿐만 아니

149) 김용태, 『구원하시는 하느님』, (서울: 가톨릭 출판사, 1999), p. 203.



라 더구나 주(主)인 성령을 배제하는 대 과오를 범하고 있다. 그러므로 천주교의 세례구원 교리는 비 성경적이며 반(反)성경적인 그릇된 교리임이 분명하다.

무엇보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주장의 항에서 “세례성사를 통하여 태어나야한다”는 주장은 믿음과는 관계없는 의식을 통한 중생과 구원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 구절(요3:15~16)을 끼워 넣은 이유는 그들 구원관의 첫째가 되는 세례구원을 믿음 구원으로 위장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세례구원이란 일종의 의식(儀式)구원으로 이도 하나의 행위구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실 이 세 가지 구원의 조건만 보아도 천주교의 구원관은 전적으로 신앙구원이 아닌 행위구원임을 알 수 있다

(2) 성찬구원(성체성사)

위의 주장을 보면 세례구원과 행위구원이 천주교의 구원관인 것 같다. 그런데 천주교에는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구원관이 있다. 그것은 성찬구원이다. 물론 그들은 성찬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성찬구원도 그들의 중요한 구원관임을 알 수 있다.

위에 인용한 김웅태 신부의 교리서의 다음 강좌(18강좌)를 보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는 성체성사>라는 항이 있다. 여기에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있다.

예수께서는 성체 성사를 통해 주어질 영원한 생명을 위한 영적인 자신의 살과 피에 대해 완고한 유대인들에게 소신을 갖고 이렇게 가르치셨다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만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을 간직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며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서 살고 나도 그 안에서 산다.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의 힘으로 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요한 6, 53-59).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살아 있는 하느님 아버지의 힘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에 의해서이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성체 성사를 통해 지속되며 그 가르침이 제도로 결실을 맺는다.¹⁵⁰⁾

여기에서는 천주교의 성체성사 교리를 잘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것이다. 인용한 성구는 그들이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을 상징하는 '먹고 마신다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주장하는 잘못된 해석일 뿐이다.

여기에서 분명히 알 것은 성체성사 구원은 크게 잘못된 비성경적이며 반성경적인 구원관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 이미 영생을 얻었는데 또 성체를 받음으로도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또 성체는 일생동안 무수히 받게 되는데 성체를 받을 때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말도 납득할 수 없는 말이라 하겠다.

또한 여기에서 꼭 짚고 나가야 할 사실은 천주교의 이중성이라 하

150) 같은 책. pp. 211-212.

겠다. 한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해놓고, 다른 편에서는 세례를 받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세례를 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해놓고 다른 편에서는 성체성사를 받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등 이중 삼중 적으로 전혀 차원이 다른 교리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이런 문제도 눈 딱 감고 그저 그대로 믿고 따르라고 하겠지만 영원한 생명을 두고 이렇게 상충(相衡)하는 교리를 무책임하게 가르치는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고 해야 할 줄 안다

이상으로만 보아도 천주교의 구원관이 매우 잘못되었음을 확실히 알 수 있다. 모든 행위구원도 잘못된 것이며 세례구원도 잘못된 것이고 성찬구원은 더욱 더 잘못된 것이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구원은 생명인데 이렇게 잘못된 구원관을 따르는 것은 영원한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줄 안다

6. 개혁신교회의 천주교 구원관 비판

(1) 마틴 루터의 천주교 구원관 비판

1) 미사 희생제사로 현세인과 내세의 연옥인을 구원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마틴 루터의 <슈말칼드 신조> 제2부 조항 2)

마틴 루터는 미사(희생제사)를 가장 최대의 공포스러운 가증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고 했다 그리고 천주교는 이를 교황 우상숭배들 가운데 최고로 가장 귀중하게 여겨왔다고 했다. 그 이유는 미사가(혹 악한



이 드러도) 현세와 내세의 연옥에서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천주교의 미사제사 구원관은 모든 종교 개혁자들이 외친 바와 같이 유일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한 구원을 완전히 말살한 것이다. 그리고 진정 영원한 구원의 지름길을 철저히 차단하는 최악의 행위가 되는 것이다. 거기에는 그 미사제사가 연옥에 간 영혼들까지도 구원하는 괴력을 발휘한다니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존재하지도 않는 연옥에 죄 지은 신자들이 반드시 들어가는데 그 연옥영혼을 위하여 미사를 드려주면 거기에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니 진실로 황당(荒唐)하기 이를 데가 없다. 그러므로 천주교의 이 미사제사를 통한 구원이란 그리스도에 의한 진정한 구원을 위조한 모조구원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교황권에서 행해지는 미사는 가장 최대의 그리고 가장 공포스러운 가증한 것으로 간주되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것들에 우선하여 미사는 교황 우상 숭배들 가운데 최고로, 그리고 가장 귀중하게 여겨져 왔다. 그렇게 된 것은 이 희생 제사 즉 미사의 행위 (그것이 비록 악한에 의하여 드러진다고 할지라도)가 이생에 있어서 그리고 저기 연옥에 있어서 인간들을 그들의 죄들로 부터 해방시켜 준다는 것이 주장되었기 때문이다.¹⁵¹⁾

2) 「교회의 바벨론 포로(교회의 이교적 노예)」에서의 비판

「교회의 바벨론 포로」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교회의 이교적 노예」는 마틴 루터가 위대한 종교개혁의 초기인 1520년에 지은 일련의 중추적 저작들 가운데 하나이다. 이 책은 종교개혁의 불가피성을 제시

151) 지원용 편집, 『루터 선집』, (서울 : 컨콜디아사, 1985), pp. 400-401.



한 신학적 저술의 하나이다. 이 책에서 루터는 "교황권을 바벨론 왕국과 힘센 니므롯의 체제로 이해해야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다."¹⁵²⁾ 고 하였다. 그는 천주교의 교황권이 바벨론 왕국이며 옛날 바벨탑을 쌓은 니므롯의 체제라고 폭로한 것이다. 그런데 진정한 기독교회가 이 바벨론 왕국(천주교 교황권)에게 포로가 되었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먼저 그는 "세 가지 성례"(필자 주: 오늘날은 세례 성찬, 고해성사 여기선 우선 세 가지만 들)는 다 로마 교황청에 의하여 비참하게 포로되어 왔기 때문에 교회는 모든 자유를 박탈 당해왔다.¹⁵³⁾ 즉 진정한 기독교회는 바벨론(금권과 권력주의)제국이 된 천주교의 교황권에 비참하게 포로 잡혀 왔으며 그래서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여서 천주교 교황권을 위하여 노예로 살게 되었다고 했다

여기에서 특히 강조한 것은 천주교가 성례(성사)의 자유를 박탈하여서 천주교의 노예로 삼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성례(성사)들이 천주교 교황권이 원하는 돈벌이와 권력행사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것이다. 거룩한 영혼의 구원과 성장을 위한 성령의 은혜의 방편인 세례와 성찬에 견진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혼인성사, 서품성사 등을 추가 혼합하여서 교황권의 돈 벌이와 권력을 위해서 부역(賦役)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3) 바벨론 교황권(로마의 독재)자들이 성찬을 노예(포로)삼아 족쇄(足鎖)채운 것 세 가지

마틴 루터는 이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는 책에서 천주교가 거룩한 성찬에 세 가지 족쇄(足鎖)를 채웠다고 지적하였다.

152) 존 딜런버거 편집, 『루터 저작선』, 이형기 옮김, (경기도 :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 pp. 314-315.

153) 같은 책, p. 322.



① 천주교가 성찬에 채운 첫 번째 족쇄(足鎖)는 성찬의 실체와 완전성을 로마의 독재자들이 우리에게서 박탈한 것이다.

이는 그들이 성찬의 두 요소(떡과 포도주)를 선택할 자유를 신도들에게서 박탈하고 떡 한 가지를 만들게 하여서 바벨론 교회의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벨론 권력이 된 천주교는 이렇게 참 기독교회와 그 바른 성찬과 그 완전성을 파괴하고 반쪽 성찬을 만들어서¹⁵⁴⁾ 자기들의 권위를 더욱 강화하고 더 많은 금전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② 천주교가 성찬에 채운 두 번째 족쇄는 화체(化體)설이라는 것이다.

이는 떡과 포도주의 봉헌과 더불어 떡과 포도주의 속성은 그대로 있으나 본질 혹은 실체(本體)는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화체(化體)된다¹⁵⁵⁾는 것이다. 이 화체설은 "축성을 통해서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실체변화가 이루어진다. 축성된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는 살아계시고 영광스럽게 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참으로, 실재적으로 그리고 실체적으로 현존하신다. 곧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그분의 영혼과 천주성과 함께 현존한다."(*가톨릭 교회교리서* 1413항)는 것이다

화체설에 대해서는 이상의 교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화체설은 바벨론 교권이 된 천주교가 신도들을 노예(포로)로 삼은 두 번째 족쇄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천주교는 미사제사를 통하여서 이 화체된 성체로 무한한 고소득을 올리게 된 것이다. 이 화체 교리에 의한

154) 같은 책, pp. 330-331.

155) 같은 책, pp. 331-336.



성찬의 성체(그리스도의 실제 살과 피가 되었다는 떡과 포도주)는 천주교의 일곱가지 성사 중에 최고의 소득원으로 족쇄 채워 노역(奴役)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진실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위조(偽造)하여서 못 백성을 기만하여 무한한 고 소득을 올린다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③ 천주교가 성찬에 채운 세 번째 족쇄는 이제까지의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사악한 오용(誤用)이다

이는 미사(성찬)가 선행이고 희생제사라는 신앙을 갖게 한 것이다. 이로서 천주교의 바벨론 교황권은 미사에서의 거룩한(?) 성찬을 완전히 자기들의 고소득 상품의 노예로 묶어버린 것이다. 미사에서의 성찬을 통하여 현세에서와 연옥에서의 구원을 위한 선행(公積)을 쌓는 것과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제사를 재현(再現)해서 속죄를 받아내어서 고소득을 올리는 노예로 삼는다¹⁵⁶⁾는 것이다.

바른 교회와 그 교회의 생명이라는 성례(성사)들이 바벨론 세력화한 천주교 교황권의 노예가 되어서 천주교의 축재와 권력을 위하여 악용(오용)되고 있다는 것은 뼈아픈 사실이다. 이는 요한 계시록 18장에 예언하고 경고하신 말씀대로 큰 성 바벨론의 무섭고 두려운 대 심판을 예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4) 지금도 천주교 교황권은 바벨론 체제로서 교회(성사)를 노예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루터는 이 책에서 계속해서 "세례와 성찬 두 가지 성례는 돈 벌이가 되고 이기주의를 위한 기회를 제공해주는 까닭에 목자들의 탐욕은

156) 같은 책, p. 338.



그리스도의 양떼에 대하여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광란을 부려왔다. ... 세례는 성인(成人)들 중에서 그 지위를 대체로 잃어버리고 그 결과 교황의 탐욕은 면죄의 추가적인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¹⁵⁷⁾고 하였다. 그는 세례와 성찬(교황권 바벨론주의에 포로잡힌 노예로서 그 권능을 박탈당한)이 교황권의 돈벌이가 되고 이기적인 탐욕을 채워주는 도구가 되었다고 개탄(慨歎)하고 있다. 그는 계속해서 고해성사와 견진성사와 병자(종부)성사, 심지어는 혼인성사와 서품성사까지도 바벨론 교황권의 노예로 전락하였다고 고발하고 있다.¹⁵⁸⁾

루터의 이 <교회의 바벨론 포로>는 종교개혁 당시 천주교의 실상을 적나라(赤裸裸)하게 고발한 것으로 천주교 변질과 변종의 핵심을 찌른 글이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점은 천주교가 세속 금전과 권력주의자(교황권=바벨론)가 되어 그 성례(성사)들조차도 그들의 이기적인 탐욕과 권세욕을 위한 노예로서 부역(賦役)시키고 있다는 고발이다. 이는 천주교가 인류구원의 기관이 아니고 탐욕과 권력욕에 가득찬 교권주의자들의 정권집단이 되었다는 말이다.

이러한 천주교에서 어떻게 영혼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루터 당시의 천주교가 이제는 많이 변화되어서 그때와 같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어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성교회가 되었는가? 저들이 비록 그때와 같이 물질과 권력위주의 바벨론의 노예에서는 벗어났는지 몰라도 교권과 이단과 이교적인 교리들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영적으로 노예생활을 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루터 당시의 탈선되고 변질된 교리들과 체제들을 트렌트 공의회(1545-1563)에서 개혁은커녕 완전히 합법화하고 강화하고 말았다. 거기에서 천주교는 천여 년 동안 변질되어온 교리들과 체제를 모두 그대로 수용하고

157) 같은 책, p. 386.

158) 같은 책, pp. 385-432. 참고.



정통 기독교와 완전히 결별하고 진짜 바벨론 종교로 독립을 선언하고 말았다 그 위에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교황수위권 교리와 교황 무류성 교리를 결정하여서 바벨론 교황권을 더욱 확고부동하게 강화하였다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름 그대로 에큐메니칼 공의회였다 과거의 잘못된 교리들과 의식들은 그대로 두고 (의식의 방법만 조금 변화시키고) 갈라져나간 모든 기독교를 다시 끌어들이려 흡수통합 시키려는 위장공의회라고 알려졌다. 그러므로 천주교학자 '게리 월스' 교수가 폭로한 대로 현대의 교황권은 기만구조로서 과거의 모든 죄와 잘못된 교리들은 은폐시키고 교묘하게 기만하는 어느 때보다 더 악한 죄를 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흔히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한다. 이제는 성직자와 마찬가지로 평신도까지도 포함하여 가톨릭인들 모두를 이 기만의 억압에서, 우리 시대에 은밀히 자행되고 있는 교황의 죄에서 해방시켜야 할 때이다 이것은 오르카냐나 단테가 혹독하게 비판한 죄들에 비하면 눈에 잘 띄거나 포착되지 않고 극적이지 못하지만 지성의 배신에서 비롯된 훨씬 은밀한 타락이다.¹⁵⁹⁾

(2) 존 칼빈의 천주교 구원관 비판

존 칼빈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종교개혁의 선봉장인 마틴 루터의 뒤를 이어서 종교개혁을 신학적이며 제도적으로 더욱 완숙하게 발전시킨 탁월한 개혁자라고 할 수 있다. 칼빈은 그의 위대한 조직신학서인 「기독교 강요」 가운데에서 천주교의 구원관과 선행과 의식들

159) 게리 월스, 『교황의 죄』, 박준영 옮김, (서울 ; 도서출판 중심, 2005), p. 21.



에 대해서도 잘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한 비판을 약간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천주교인들은 인간에게서 구원받으려는 처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

칼빈은 천주교인들이 처한 불행한 상태에 대해서 먼저 밝히고 있다. 천주교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주 이야기 하긴 하지만 예수님의 권능과 세상에 오신 이유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복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이 세상의 구주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노력(선행 기타)이나 성직자를 통하여 구원을 받으려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그들의 상태가 "처참한 상태"라고¹⁶⁰⁾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

2) 천주교의 구원받고 섬기는 방법들

칼빈은 천주교의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을 선행과 많은 의식을 행하는 일로 전락시켰다고 한다. 그는 여기에서 천주교인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행하는 일들이 죄 가운데 무분별하게 살면서 이곳 저곳의 우상들에게 가서 절하며 빌고 초에 불을 붙이는 일과 성수를 여러 번 바르는 일과 도처의 십자가 모양 앞에 조아리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금식일을 철저히 지키며 미사나 그 외의 다른 가증스러운 짓을 통해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이러한 부담스러운 짓을 한다¹⁶¹⁾ 고 밝히고 있다.

160) 존 칼빈,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상>』 김동현 옮김, (서울 : 서로 사랑, 2010), p. 160.

161) 존 칼빈,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하>』 김동현 옮김, (서울 : 서로 사랑, 2010), pp. 329-330.



3) 천주교는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구원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칼빈은 천주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를 더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그들은 공로에 기초를 둔 원칙을 지키고 있으며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비판 했다. 그리고 지은 죄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공로가 필요하다는 말을 내 뱉는다고 말했다. 더욱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며 누구든지 노력하면 율법의 요구사항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이런 식으로 자랑하기 쉬운데 이는 이러한 말을 하는 자들 자신이 사악한 간음자와 주정뱅이와 욕쟁이와 온갖 야비하고 악한 행실에 사로잡힌 자들이기 때문이라¹⁶²⁾고 지적하였다.

4) 천주교의 거짓 구원의 길과 복음과 구원의 은혜를 부정하는 의식들

칼빈은 계속해서 천주교인들이 행하고 있는 구원받기위한 행위들은 순진하게 속고 있는 거짓 구원의 길임을 지적하고 있다

로마 카톨릭 교인들은 성수의 뿌리움을 받았고, 그들의 머리 위에서 몇 마디의 말이 지껄여졌다거나 어떤 특정한 성일을 지키고 성지순례를 통해서 고행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촛불을 가지고 가서 괴상한 형상 밑에 놓고 미사를 드리고 로자리오의 기도를 끊이지 않고

162) 같은 책, pp. 177-178.



반복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그들은 순진하게도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¹⁶³⁾

그러나 사실 이러한 사람들은 사탄이 쳐 놓은 파멸의 올무 속으로 거꾸로 떨어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 행하는 구원을 준다는 모든 의식(성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분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획득해주신 사죄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부정한다는 것을 구체화해 보여주는 것이라¹⁶⁴⁾고 폭로하고 있다.

7. 천주교의 구원받는 길의 혼합성

자세히 보면 천주교에는 구원받는 길이 하나 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2)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3)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 (4) 세례성사를 받음 (5)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는 성체성사를 받는 일 (6) 고해성사로 대죄에서 구원받음, (7) 대사(大赦)(보속: 잠벌면제)로 구원받음 (8) 연옥에서의 구원(산자의 기도, 선행, 헌금, 미사제사 교황의 대사 등으로) 등등만 보아도 천주교의 구원받는 길은 여덟 가지나 된다 그럼 도대체 어느 말이 옳단 말인가? 마치 종교 다원주의와 같이 구원받는 길이 여럿이란 말인가?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성경은

163) 같은 책, pp. 114~115.

164) 같은 책, p. 115.



죄인들이 구원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뿐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롬 3:21-28, 갈 3:1-5, 10-14, 26, 엡 2:8-9등 참고) 그러나 천주교는 성경의 순수한 믿음의 길을 저버리고 인위적인 여러 가지 구원의 길을 가르쳐서 가장 단순한 구원의 길을 정말 어렵고 복잡하게 혼합하여 만들어서 바른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게 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라고 한 가지 진리를 말하여 놓고 거기에다 여러 가지 인위적인 방법들을 섞어서 바른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게 하고 있다. 영혼들이 일평생 소경된 인도자들에 매여서 바른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고 속아서 방황하다가 결국은 구원(영생)의 확신 없이(혹 거짓 소망을 가진 이들도 있겠지만) 지옥과 연옥의 두려움까지 품고 불행하게 영원한 세계로 빠져 들어가게 하고 있다 이는 진실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8. 천주교 구원의 신기루성(공중누각)

천주교의 구원을 왜 신기루 구원이라 하는가? 신기루란 사막에서 길을 찾는 여행자들을 속이는 거짓 오아시스이다. 그것을 보고 그들은 살았다고 기뻐 뛰며 달려가 가보지만 실체가 없는 허상(虛像)에 속은 것이다 그래서 이 신기루를 공중누각(空中樓閣)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늘에 천국과 같이 화려하게 보여서 좋아하지만 실체가 없는 헛것인 것이다

그렇다! 천주교의 구원은 이와 같은 신기루 구원이다. 먼저 천주교에서의 구원(천국)은 인간의 의식(성사들)을 통한 거짓구원이니 실체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선물로만(믿음으로 받는) 받는 진정한 구원이 아니고 죄 많은 인간의 선행과 의식과 공로와 노력으



로 얻는다는 영원히 불가능한 구원이니 스스로의 꾀에 속은 허상이요 신기루이며 공중누각에 불과한 것이다. 그들의 교리(성사구원, 공로구원)대로라면 단 한 사람도 구원 받을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실체가 도저히 실재하지 않는 허상인 연옥에서의 구원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우주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연옥에 역사상 모든 천주교인 중에 세례 받은 어린이들과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부터가 아니고 자신들의 표준대로 선정한 소위 성인들을 빼고는 다 들어간다고 한다. 그런데 성인이라는 것도 성경적인 표준에 따르면 미치지 못할 이들이 많을 것이라는 견해를 감안하면 또 얼마나 될까? 무엇보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천주교의 잘못된 사체주의와 성사주의와 선행 공로주의 등의 구원교리에 따르면 진실로 구원 받아 천국에 갈 사람이 그 얼마나 되겠는가?

유명한 천주교의 성녀 데레사의 다음과 같은 말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고 보인다. “이 많은 성인 중에 연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천국에 들어간 영혼은 단지 셋 밖에 보지 못했다.”¹⁶⁵⁾

신령한 은사를 많이 받았다는 이 성녀는 천주교에서 죽은 즉시 천국으로 들어갔다고 가르치는 무수한 모든 성인(聖人)중에 오직 세 사람만이 실제로 천국에 들어간 것을 보았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모든 천주교인 중에 단지 세 성인을 빼고는 모두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고 모두 지옥이나 연옥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으며 그들 중에 정화를 마치고 천국으로 들어간 사람이 몇이나 되는 지는 영원히 알 길이 없다. 그러므로 모든 연옥에 들어간 천주교인은 거기에서 천국으로 들어갔다고 보장 받을 사람이 단 하나도 없으니 진실로 천주교의 구원은 신기루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165) 막심 위상, 『연옥 실화』, 한국 순교 복자 수녀원 옮김, (서울 : 가톨릭 출판사, 2006), p. 62.



9. 개종한 신부들의 진지한 고백(49인 모두 성사 아닌 믿음구원을 고백함)

다음은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전직 신부들의 간증들을 모아서 출판한 「교황대신 예수를 선택한 49인의 신부들」 중에서 몇의 고백 중에 중요한 부분만을 간추린 것이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이들의 구원문제에 대한 부분을 요약해 보았다. (49인 모두 동일한 고백을 하였다)

(1) 천주교가 규정한 수도생활과 성사들은 구원받는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

헨리 그레고리 애담스 신부는 캐나다 출신으로 천주교 가정에서 태어나 엄격한 신앙교육을 받았고 수사와 사제가 되면 죄를 짓지 않고 확실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바실리우스 수도원에 들어가서 어려운 수도생활 훈련과 교육을 받은 후에 사제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특히 아래와 같은 고백을 하였다.

앨버타 주 라몬트 지역의 다섯 개의 소 교구를 맡아 섬기면서 매일 미사를 드리고, 고해소(고해성사를 하는 장소)에 가서 신자들의 고백을 듣고 마리아에게 묵주기도를 드리고 여러 성인들에게 기도하고, 매일 성무 일과를 하면서 수사로서 여느 때보다 고행에 힘썼다. 그러나 이런 행위들은 지친 내 영혼에 만족을 주지 못했다. 나는 소년 시절보다 더 깊은 영혼의 좌절로 빠져들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께서는 신실하게 내 곁



에 계시면서 나를 돌보셨다¹⁶⁶⁾

그는 신부의 직무들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천주교가 부과하는 여러 가지 종교생활을 힘썼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런 행위들은 지친 영혼들에 만족을 주지 못했고 소년시절보다 더 깊은 영혼의 좌절로 빠져들고 있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결국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고 한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규정한 수도 생활과 성사(聖事)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구원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나는 십이 년 반이라는 긴 세월 끝에 수도원을 빠져 나왔다.”¹⁶⁷⁾

(2) 고해성사는 하나님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이다.

요셉 자켈로 신부는 이탈리아 북부의 베네치아에서 태어나서 10세에 신학교에 입학하여서 12년 동안 교육을 받고 22세에 신부서품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시카고와 뉴욕에서 사제직을 수행하면서 오직 교황을 기쁘게 하려는 꿈뿐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고해소에서 친히 겪었던 경험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내게 정말로 큰 고뇌를 안겨 준 의심은 고해소 안에서 생겼다. 사람들은 고해소 안에 앉아 있는 나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 성호를 그으며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는

166) 리처드 베넷·마틴 버킹엄, 『교황 대신 예수를 선택한 49인의 신부들』, 이길상 옮김 (서울 : 야가페, 2002), pp. 18-19.

167) 같은 책, p. 19.



것처럼 행세하고 있었다. 죄인이요 사람에게 불과한 내가 하나님의 지위, 하나님의 권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때 그 두려운 음성이 내 마음을 찔렀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다. 만약 죄인들이 죄를 사함 받고 싶으면 너한테 올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그들이 어긴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자백해야 한다. 오직 하나님께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인간은 그 누구도 죄를 사할 수 없지만, 예수께서는 그럴 능력이 있으셔서 인간의 죄를 사하신다.¹⁶⁸⁾

그는 죄를 고백하는 신자들의 죄를 용서할 사제권을 부여받은 신부였지만 그렇게 고해성사를 거행하면서 한낱 죄인에 불과한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월권행위를 하고 있음을 깨닫고 두려운 음성이 자신의 마음에 가책을 주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는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사실을 자백하고 죄인들은 자기에게 죄를 고백 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해야 죄를 용서받는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두 주인 즉 교황과 그리스도를 같이 섬길 수 없고 서로 모순되는 교리의 원천교리인 전통과 성경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황, 전통과 성경사이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성경을 선택했다고 고백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27세에 사제직과 천주교를 완전히 떠났고 그 후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천주교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 또한 기독교인들에게는 천주교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고 권장하며 살고 있다¹⁶⁹⁾고 고백하고 있다.

168) 같은 책, pp. 224-225.

169) 같은 책, p. 225.



(3) 모든 사제직 행위와 미사제사와 성체가 내게 구원을 주지 못했다.

사이언 코투 신부는 로마에서 사제교육을 받아 신학박사 학위를 받고 캐나다에서 경제학 학위 과정을 밟고 인도 코타얌의 BCM 대학에서 경제학 교수와 성 스테반대학 학장을 9년간 지냈다. 그는 이러한 고위직들로 명예와 물질적 번영을 누렸고 25년간이나 사제생활을 했지만 영적인 기쁨이나 평안을 얻지 못했다고 한다.¹⁷⁰⁾

나는 수많은 아기들의 이마에 물을 뿌림으로써 세례를 주었다. 죽은 ‘성인들’을 높이고 숭배하는 대중 행렬을 이끌기도 했다. 하나님께서 둘째 계명으로, 새긴 상조차 만들지 말라고 엄히 금하셨는데도 그때 우리는 성인들의 목상(木像)들을 들고서 행렬을 벌였다. 매일 미사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드리신 제사가 반복된다고 잘못 믿고, 빵과 포도주가 문자 그대로 예수의 살과 피가 된다고 믿었다¹⁷¹⁾

먼저 그는 자신이 천주교 신부로서 행한 임무수행들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다. 유아세례, 죽은 성인들 숭배와 그 성인 우상행렬을 행한 일, 매일미사의 반복되는 희생제사 행위를 하며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된다는 화체설을 믿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이는 자신이 사제로서 행한 모든 일들이 아주 잘못된 믿음으로 수행되었음을 고백한 것이다.

나중에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한 뒤에 비로소 내 눈

170) 같은 책, p. 145.

171) 같은 책, p. 143-144.



이 열렸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제사가 반복되는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친히 성찬을 제정하실 때 빵과 포도주를 문자 그대로 자신의 살과 피로 변화시키지도 않으셨다고 내게 가르쳐 주셨다.”¹⁷²⁾

그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한 뒤에야 눈이 열려서 완성된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제사가 계속 반복하여 미사제사로 행해지는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주님께서 처음 만찬석상에서 빵과 포도주가 진짜로 내 살과 내 피가 된다고 가르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그는 그동안 자신이 행한 사제직의 행위가 모두 거짓된 것이며 헛되고 무익한 것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이 신부는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거듭난 사람들을 보내셔서 성경을 바르게 공부하게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신뢰하여 거듭나게 하여주신 주님께 찬송을 드렸다. "주님은 나를 하늘의 평안과 마음의 기쁨과 새로운 삶의 의미로 채워 주셨다. 그토록 오랫동안 나를 괴롭게 한 공허감이 사라졌고, 옛 것은 지나가고 이제 모든 게 새것이 되었다.”¹⁷³⁾고 고백하고 있다.

(4) 구원에 장애물이 되는 교리들의 추가는 불공정하다

마누엘 가리도 알다마 신부는 스페인 북부의 전형적인 스페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어머니의 강권으로 11세에 예비신학교에 들어감으로 사제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는 한 때 신학교에서 강의를 듣다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한다.

172) 같은 책, p. 144.

173) 같은 책, p. 146.



“수업 시간에 교황의 ‘무류(無謬)성’ 교리를 다루게 되면서, 나는 교수에게 질문을 하기로 결심했다. 무엇을 부정할 의도는 아니었고 다만 과거 어느 시점에 교회에 선포된 이 교리와 하나님의 공의 개념이 잘 연결되지 않아서 교수의 설명을 듣고 싶었을 뿐이었다. 내 논지는 세월이 흐를수록 인간이 구원을 받기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다지 정당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1870년 이전에는 교황 무류성 교리를 믿지 않아도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었는데 왜 그 연대 이후에 사는 우리는 이 교리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인가? 하나님께서 일정한 세월을 두고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에 자꾸 장애물을 추가하시는 것이 부당하지 않은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조상들보다 더 큰 교리적 난관들을 극복해야만 한다면 하나님은 정당하지 않으신 셈이다

교수는 나의 이런 질문들이 탐탁지 않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다음 시간에도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서 다른 질문을 던졌더니, 교수는 버럭 화를 내면서 ‘그런 위험한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으면 자네는 언젠가 이단이 되고 말 거야’라고 대답했다.”¹⁷⁴⁾

그의 질문은 교황의 무류성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그것은 "교황의 무류성"교리가 제정된 다음의 천주교 신자들은 그 이전의 신자들 보다 구원 얻기가 더욱 힘들어 졌다는 것이다 즉 1870년(교황무류교리가 제정된 해)이전에는 이 교리를 믿지 않아도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었는데 왜 그 후에 태어난 우리는 이 교리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 후로도 계속 다른 교리들이 제정될수록 구원받는데 장애물들이 추가될 것인데 그러면 그전 사람들보다 천국가기 위해서 더 많은 의심스러운 교리들을 삼켜야하는 난관을 극복해야 할 터이니 하나님은 정당(공정)하지

174) 같은 책. pp. 178-179.



않다는 것이었다.

그의 이 질문은 실로 핵심을 찌르는 것이었다. 이는 천주교가 교리를 새로 제정할 때 마다 "믿을 교리"로서 그 교리를 믿지 않는 자는 정죄(파문)을 받는다고 선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월이 가고 교리들이 추가될수록 아무리 부당한 교리 일지라도 그것들을 더 믿고 복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니 이런 주장(질문)은 매우 타당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거짓 교리들의 무거운 짐들을 신자들에게 계속 추가하여 지우는 천주교가 불공정하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참고> 천주교의 현 교회법에서는 위법하고 항명하는 신자들을 죄사함을 받고 순명할 때까지 영적 물적인 유익에서 제외시키도록 하고 있다.(천주교 용어사전 459) 파문은 저주라는 말과 동의어이다. 저주라는 말은 멸망(멸절)당하는 것이다. 옛날에는 파문당하면 직업이나 재산까지 몰수당하고 사형(화형)을 당하기도 했다 윤리적인 범죄는 회개하면 해벌될 수 있으나 잘못된 교리를 부인하거나 거부하는 자들은 거의 양심적인 신앙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돌이키기 어렵고 그 처벌도 종신형 같이 되는 것이다. 아니 천주교의 말대로라면 파문당한 사람은 사형당하지 않는다면 현세에서 모든 권한을 박탈당하여 거지신세가 되고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간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천주교의 트렌트 공의회(1545-1563)의 <의화에 관한 법규>에서는 주로 종교개혁에 따르는 자들에 해당되는 "파문(저주)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33가지나 된다.)¹⁷⁵⁾

(5) 화체설과 고해성사에 대한 경험

175) 주세페 알베리고 외, 『보편공의회 문헌집 제3권』, 김영국의 옮김, (서울: 가톨릭출판사, 2006, 초판 1쇄), pp. 679-681.



위의 고백자 마누엘 가리도 알다마 신부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나는 화체설 교리에 따라 매일 내 손에 하나님을 들었고, 고해를 하러 내게 오는 남녀의 무리들을 만나 주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에게서 멀리멀리 떠나가게 되었다. 겉으로는 딱딱나무처럼 강인해 보이는 사람들이 고해소에 와서 내 앞에 무릎을 꿇고는 마치 생쥐처럼 두려움에 떨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기가 어색하고 싫어, 어떻게 할 줄을 몰랐지만, 1년에 적어도 한번 고해소에 오지 않을 경우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된다는 경고가 무서워서 찾아올 뿐이었다. 노동자들은 어떻게 고해를 시작할지 몰라서 ‘신부님 몇 가지 질문을 해주셔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곤 했고 나는 그 계층의 사람들이 범할 수 있겠다 싶은 죄들을 열거해 주었다. 나는 인간에게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고는 믿지 않았지만, 신앙을 가지고 내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사면의 문구를 낭독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¹⁷⁶⁾

이 고백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 자신은 화체설 교리에 따라서 매일 자기 손에 그리스도를 들어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로 다시 드렸고 신도들에게 먹여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손에 매일 미사시간마다 하나님(그리스도)을 들었다는 표현 속에는 그 빵이 그리스도의 살이 아니라는 강한 부정이 숨어 있다.

2) 자신은 고해를 하러오는 남녀 무리들을 만나주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에게서 더욱 멀어져 갔다는 것이다. 거짓성체의 제

176) 리처드 베넷·마틴 버킹엄, 『교황 대신 예수를 선택한 49인의 신부들』, 이길상 옮김 (서울 : 아가페, 2002), p. 180.

사와 분배 때문에, 또 거짓용서의 선언들을 하므로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여 더욱 멀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3) 그리고 겉으로는 아주 강인해 보이는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지옥 형벌을 모면키 위하여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생쥐처럼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는 것이다. 천주교인들이 강제에 의하여 부득이 고해소에 나왔으나 죄의식과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서 본능적으로 무서워 떨었다는 말은 인간의 약점을 이용한 고해성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4) 노동자들의 죄의식 없이 강요당한 억지 고해의 장면은 인위적인 고해성사의 무리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자신들이 죄의식 때문에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통회하며 죄를 자백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식은 없는데 마지못해 나와서 신부에게 죄를 지적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웃지 못 할 난센스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5) 자신이 고해자들의 죄를 용서 할 권세가 있다고 믿지 않지만 의무적으로 사죄 문구를 낭독했다는 것이다.

천주교에서는 사제가 고해를 듣고 "나는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또는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하고 사죄선언을 하면 일단 고해한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사죄선언을 하는 당사자는 그 사죄를 믿지 않지만 직책상의 의무로 그저 기계적으로 사죄를 선언한다는 솔직한 고백이다 인간의 죄를 용서할 권세는 오직 하나님 한분에게만 있지 않은가?

(6) 반성경적인 천주교는 참 교회가 아니고 그 구원교리도 진리가 아니다.



루이스 파드로사는 스페인 출신의 예수회 신부로서 바르셀로나와 타라사의 로올라 대학들에서 강사와 이사로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는 천주교와 다르게 독자적으로 성경을 연구하여 깨달은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성경을 펼쳐서 연구를 시작했는데 도대체 교황이 무오류하다는 내용을 성경 어디에서 가르치던가? 나는 아무데서도 그것을 발견할 수 없었다 성경에 영성체를 받기 전의 금식과 미사가 어디 있단 말인가? 도대체 그런 교훈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었다. 공부하면 할수록 기독교는 하나이며, 로마 가톨릭 체제는 기독교와 전혀 별개의 종교 체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성경을 연구할수록 이러한 확신이 더욱 굳어졌다. 로마 가톨릭 체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화석과 시체와 십자가에 못 박힌 인간으로 묘사하되, 더 이상 살아 있는 인간이 아닌 죽은 인간으로 묘사한다. 따라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로마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며, 만약 그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미사들과 성의들과 성패들과 9일 기도들과 성상들 속에서 지낼지라도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 진실한 사랑과 신앙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으며,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며 그분의 제사가 완료되었다는 확신이 없다면 그러한 사랑이 있을 수가 없다. 로마 가톨릭 체제에서는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 자신에게, 즉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기도를 드리는가, 얼마나 많은 성의(聖衣)를 사용하는가, 성모에게 얼마나 많이 기도를 드리는가, 영성체를 얼마나 많이 받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다. 이런 점과 그 밖의 많은 점들을 토대로 나는 로마 가톨릭 교리가 진리일 수 없다고 깨닫게 되었다.¹⁷⁷⁾

1) 먼저 그는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로마 가톨릭체제는 기독교와 전혀 별개의 종교체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177) 같은 책, p. 216.



그는 43년간 신실한 천주교 신자로 산 뒤에 15년간 집중적인 성직자 훈련을 받고 10년을 사제와 강사로 명성을 얻고 모두 23년간 예수회에 몸담고 13년간 변증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였다고 한다. 그렇게 한 뒤의 결론은 로마 가톨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교회가 아니라는 흔들릴 수 없는 확신에 도달했다고 하고 있다.¹⁷⁸⁾

2) 또한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이러한 확신이 더욱 굳어졌다고 한다.

천주교 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인간이 아닌 죽은 인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가 예수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 사랑이 없는 모든 의식이나 행위나 기도나 숭배로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의 이같은 확고한 태도는 성경을 통하여 갖게 된 것이므로 영원한 진리로서 존중되어야 될 줄 안다고 하였다.

3) 그리고 천주교에서 제시하는 모든 구원의 조건들을 토대로 하여서 자신은 천주교 교리가 진리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천주교가 제시하는 구원의 조건들은 성경의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는 주장은 타당할 것이다. 천주교에서 거의 한 평생을 보내고 가톨릭대학들의 교수이며 철저한 골수 천주교 수도회인 예수회 소속인 이 신부의 고백은 매우 설득력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본서에서 제시하는 천주교의 구원관에 대한 부정적인 비판은 이러한 전직 신부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더욱 확인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78) 같은 책, p. 216.



(7) 무의미하고 확신 없는 사제직을 떠나 복음신앙으로 구원받음

스페인 출신인 마르크 페냐 신부는 자신의 신부생활 중에 겪었던 격렬한 영적 투쟁과 그 결과에 대하여 자세하게 고백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은 날이 갈수록 여러 죄들이 무겁게 짓눌렸으며, 고해성사와 그 밖의 로마 가톨릭 의식들로써는 사죄의 확신이 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러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겼다. 미사가 무의미해졌다. 과거에 로마 가톨릭 사제였다가 종교개혁자가 된 존 낙스(John Knox)처럼 ‘미사는 신성모독이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¹⁷⁹⁾

먼저 그는 성령의 역사로 죄의식에 무겁게 짓눌리는 고통을 겪었으나 천주교의 의식들로써는 해결되지 않았으며 미사도 무의미했고 그것은 오히려 신성모독이라는 강한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그는 진실한 복음적인 목사의 조언을 받다가 사제직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비밀히 스페인을 탈출하여 개신교도들과 개종한 전직 신부 헤거 박사를 만나 지도를 받았다. 그는 어느 날 홀란드로 가는 기차 속에서 그동안 읽고 배운 성경구절들이 생각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 유일 충분하신 구주이시요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영원히 반복되지 않는 제사를 드리셨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내가 전심으로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내 모든 죄를 사해주신다는 구

179) 같은 책, p. 211.



절들 이었다 그 구절들이 한 순간에 떠올라서 “나는 내 생명과 영혼을 주님께 드렸고, 그분을 영원한 내 주와 구주로 신뢰하면서 그분을 영접했다.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삶에서 성취되었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행 10:43) 내 죄가 사해졌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천국이 내 집이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 되었고, 나는 영원히 그분의 것이 되었다.”¹⁸⁰⁾고 고백하였다.

(8) 구원에 효과 없는 천주교의 행위와 제사, 구원의 확신을 주는 성경

조셉 트랑블레 신부는 캐나다 출신으로 천주교 가정에서 태어나 사제가 된 후에 남미에가서 13년간 선교사역을 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평소에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에 몰두하였고 사제직을 수행하면서도 성경을 본격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리하여 칠레의 예수회 대학교의 성경강의 요청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그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내가 배운 로마 교회의 신학은 구원이 행위와 제사로 이루어진다고 가르쳤다. 그런데 나는 성경에서 값없이 임하는 구원을 발견했다. 내 신학은 구원의 확신을 조금도 주지 못했다 그런데 성경은 내게 확신을 제시했다.¹⁸¹⁾

이 신부의 이 짧은 고백은 비록 내용은 짧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제시하고 있다. 오늘날 모든 천주교 신도들과 신부들과

180) 같은 책, pp. 211-213.

181) 같은 책, p. 26.



주교들과 추기경들과 교황까지도 이런 단순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9) 미사는 구원에 무의미한 것이고 사제직도 무의미하다.

알렉산더 카슨은 미국 출신으로 천주교에서 유아세례를 받고 신부가 되어서 성경을 읽다가 아래와 같은 진리를 발견했다 그는 신약성경 히브리서를 읽기 시작했다. 그중의 일부를 보면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러 이루셨음이니라."(히 7: 27)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나는 깜짝 놀랐고, 매우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수의 제사가 갈보리에서 단번에 드러졌고 나를 비롯하여 믿고 회개하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해주는 제사임을 깨달았다. 그때 나는 나를 비롯하여 무수히 많은 로마가톨릭 사제들이 매일 세계 도처에서 드리는 미사가 잘못된 것이며 완전히 무의미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만약 내가 사제의 자격으로 매일 드리는 제사가 무의미하다면, 그 제사를 드릴 목적으로 존재하는 내 '사제직'도 무의미 했다.¹⁸²⁾

이 말씀을 읽고 그는 그동안 전혀 몰랐던 두 가지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먼저, 예수께서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단 1회로 드러진 유일한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 제사였음을 깨달았다.

182) 같은 책, p. 71.

다음으로, 그러므로 자신을 비롯하여 무수한 천주교 신부들이 매일 전 세계 도처에서 드리는 미사희생제사가 잘못된 것이고 완전히 무의미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따라서 자신이 제사장(사제)의 자격으로 매일 드리는 미사제사가 무의미 하다면, 그 제사를 위하여 존재하는 내 '사제직도 무의미한 것이라는 극히 평범한 진리를 깨달았다고 고백하였다.

이 신부가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은 것은 너무나 평범하고 지극히 단순한 십자가 대속의 진리이다. 그런데 이 복음을 오늘 날 12억이라고 하는 천주교 교황과 그 밑의 모든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이 도저히 깨닫지 못하고 인위적인 지극히 잘못된 위조속죄 제사(미사)에 목숨 걸고 매달려 있는 모습은 진실로 통분(痛忿)스럽기 짝이 없다.

(10) 참 복음을 믿고 천주교의 다른 복음을 떠남

후안 산스 신부는 스페인 마드리드의 천주교 가정에 태어났고 8년간 신학공부를 하고 신부가 되었다.(1945년-) 그런데 그 신학교는 신학생들에게 8년간 성경을 소지하거나 읽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스물한 살 생일날에 대모가 될 여성에게 성경을 선물로 받았는데 정식으로 신학을 다 마칠 때에 성경을 주겠다고 도로 가져갔다. 그 후 그가 성경에 대한 관심을 품게 된 동기는 필요보다는 호기심이었다고 한다.

어느 날 주님은 내게 요한복음 3장을 읽고 깨닫게 하셔서 그동안 내가 안고 살아온 모든 질문들을 단번에 대답해 주셨다.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들이, 내게 유일한 준칙과 능력과 권위와 거울이 되었다. 성경은 과거에도 내게 그러한 책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향에서 그러했



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이셨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유일하고 완전한 구주이셨다. 이것은 내게 전혀 새로운 깨달음이었다 내 마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¹⁸³⁾

그러나 결국 이 신부는 어느 날 성경을 읽는 중에(요한복음 3장) 주님의 깨닫게 해 주심을 통해서 모든 의문의 해답을 찾았다. 성경의 발견은 이 신부에게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약속들을 알게 했고 유일한 권위와 기준과 능력과 거울이 되었다. 이러한 성경의 깨달음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을 진실하고 진지하게 연구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심(조명)으로만 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이 신부와 같이 성경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중생하게 되고 영생 얻은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천주교의 사제주의가 주지 못하는 생명으로서 오직 성령께서 성경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다.

1964년 여름에 나는 주님께 무릎을 꿇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다 더이상 로마 가톨릭 교회에 남아 있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의 교직제도가 ‘다른 복음’을 전하도록 강요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과 다른 것이었다.¹⁸⁴⁾

그는 이제 참 복음을 발견(경험)했고 천주교가 강요하는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없었고 그 교회에 더 이상 남아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하

183) 같은 책, p. 170.

184) 같은 책, pp. 170-171.



나님께 무릎을 꿇고 자신의 바른 결정과 진로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천주교를 떠날 결정을 하게 하셨다 마드리드의 신학교 교장이었던 한 사제가 도주하여 다른 나라에 가서 개신교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의 도청과 체포의 위협을 극복하고 탈출에 성공하였다. 가족의 생계문제와 여러 가지 심리적인 갈등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탈주에 성공하여 이 참 복음을 전하고 있다.

(11) 성사들과 면죄와 자신의 선행을 의지함과 그리스도만 의지함의 차이

셀소 뮤니스 신부는 스페인 출신으로 12년 과정의 신학교를 마치고 훗날 스페인 오비에도의 수도대주교구 신학교에서 학장 겸 '금욕 및 신비신학교수가 되어서 금욕주의를 가르쳤다 하지만 그는 결국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고 고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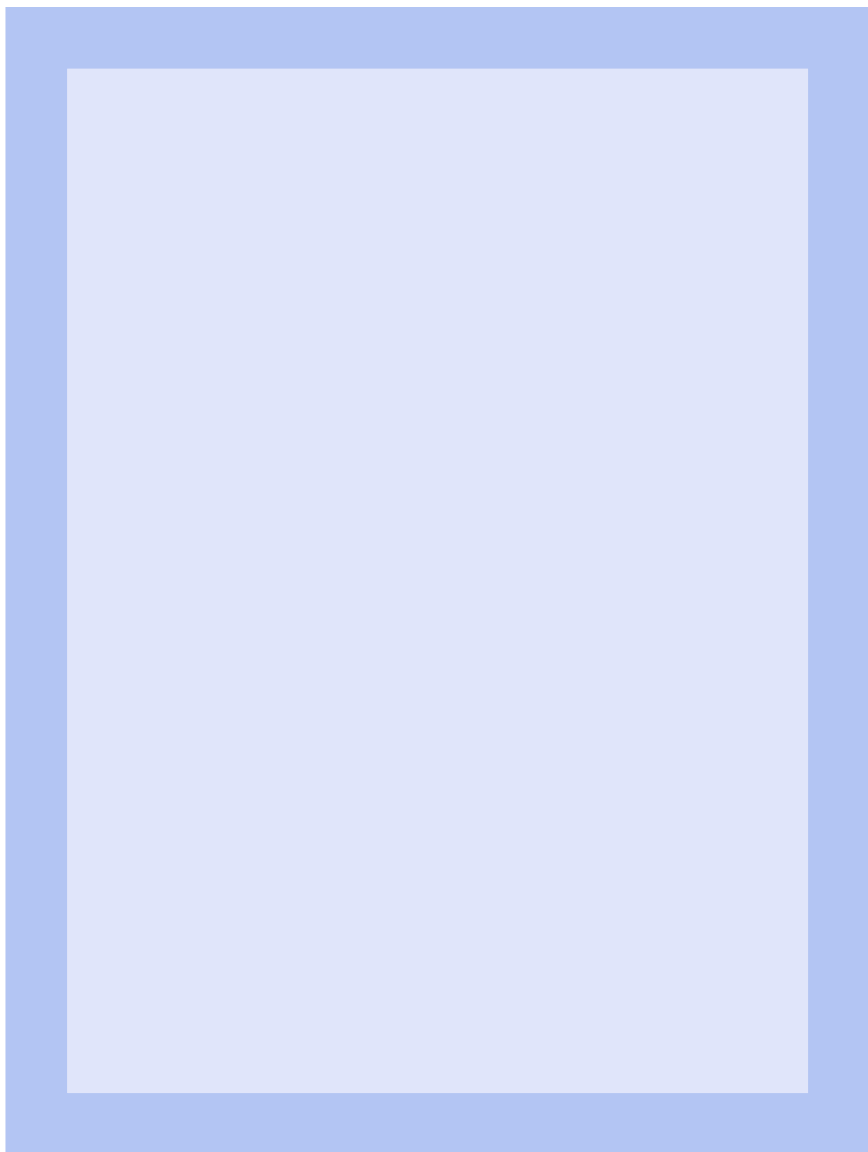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잘못된 교훈과 고도로 복잡한 조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내면 밖으로 밀어냈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무척 고통스러운 일이었다...그 순간 나는 결정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로마 가톨릭 교회 사이에 서서, 이제는 어떤 결과를 당하게 되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그리스도가 죄의 형벌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루신 일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여전히 성사들과 면죄와 자신의 선행의 가능성을 의지한다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진정한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찾아온다.¹⁸⁵⁾

185) 같은 책, pp. 174-176.



그는 먼저 시간이 갈수록 천주교가 잘못된 교리와 인위적인 복잡한 조직체를 가지고 구주 그리스도를 영혼 밖으로 밀어냈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그 순간 결단을 내렸다. 예수 그리스도와 천주교 사이에서 그 어떤 어려움이 따라올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기로 결정했다. 덧붙여서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 서 완성하신 대속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여전히 성사들과 면죄와 자신의 선행을 통한 구원을 의지한다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단언하였다. 이러한 천주교적인 신앙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찾아오는 진정한 구원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와 같이 절대로 다르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으로 천주교의 구원관에 대하여 단지 전시적인 교리들을 제쳐 놓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교리들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그런데 필자가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사실은 그들의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바탕이 전혀 없는 신기루와 같은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천주교는 연옥교리나 우상 교리들만이 그들의 영원한 불행을 정착시키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생명이 되는 영원한 구원까지도 실체가 없는 신기루요 공중누각이 되고 말았으니 영원한 불행의 결과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부록

최근에 마리아가 전한
충격적인 메시지들



최근에 마리아가 전한 충격적인 메시지들(종말 사(私) 계시:) (마리아와 프리메이슨의 결전 예언)

원래 성경 이외의 예언이나 사계시들은 조심스러운 것이다. 이러한 예언들은 대부분이 어긋난 것을 볼 수 있다. 부분적으로 맞기도 하지만 틀린 것도 많아서 혼선을 빚기 쉬운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여기에서 소개하는 마리아의 예언은 교황을 비롯하여 천주교 교도권이 다 인정하고 수용하여서 <마리아 사제단> 운동을 허가하고 있으며 거기에 따른 평신도 다락방운동도 전반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므로 소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예언들은 틀린 것도 많지만 천주교의 급박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들이 제법 있으며 그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이기에 그들이 여기에 매달리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여기에 참고로 중요한 부분만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최근(1973년-1997년)에 포르투갈의 파티마를 중심으로 스테파노 곱비 신부에게 마리아가 찾아와서 전하여준 6백 4개의 메시지들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 일부분만을 소개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 메시지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과 비판은 일단 보류하고 주로 중요한 내용을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간략한 해설과 의견을 제시하여 이해를 돕고 참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메시지 내용들의 더욱 구체적이며 정확한 판단은 독자들의 성경적이며 영적인 이해력에 맡기고자 한다.



1. 마리아의 사제운동이란?

(1) 정의

마리아 사제운동은 이탈리아 출신이며 밀라노의 성 바오로 수도공동체 소속 사제이며 교황청 직속대학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은 스테파노 곱비 신부를 통하여 시작되었다. 이 신부가 1972년 5월 3일 파티마의 성모발현 소성당에서 기도 중에 '마리아 사제운동을 시작하라는 성모의 부름을 받아서 1972년 10월 13일에 영적 지도자의 동의를 얻어 두 사제와 함께 이 운동을 시작하였다. 마리아 사제운동의 모토는 "(영적 아기가 되어) 어머니이신 티 없으신 성모성심께 너희 모든 것을 봉헌하여라."는 것이다.

이 운동은 곱비 신부에게 마리아가 들려주는 메시지들(이 메시지들은 성모님이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곱비 신부로 하여금 받아쓰게 하신 말씀이라고)을 기록하여서 출판한 책들을 통하여 확산되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시작한 '마리아 사제운동은 전 세계로 퍼져 1990년대 초에 이미 400 여명의 추기경과 주교들, 10만 여명의 사제가 가입했고 수많은 수도자들과 평신도들도 수천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운동에서 평신도를 포함하는 모임이 <성모님과 함께하는 다락방 기도모임>이라¹⁸⁶⁾고 한다. 또 이 운동에 공감하는 사제들의 거대한 무리가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¹⁸⁷⁾고 하며, 교황 및 그와 결합된 교회와 일치를 이루는 것이 이 다락방운동 기도모임의 필수적인 특징이라¹⁸⁸⁾고 한다

186) 스테파노 곱비, 『성모님께서 지금껏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박요한 실비아 옮김, (서울 : 가톨릭 출판사, 2012), (1)p, 부록 1의 2p.

187) 같은 책, 머리말 (15).

188) 같은 책, 부록 1의 5 p.



(2) 교황들의 격려와 축복을 받은 운동

마리아 사제운동 사제들은 교황 바오로 6세의 심심한 격려와 축복 서신과¹⁸⁹⁾ 요한 바오로 2세의 "나는 곱비 신부와 마리아 사제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교황 강복을 줍니다."¹⁹⁰⁾는 축복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 운동은 천주교에서 인정받고 크게 장려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 스테파노 곱비 신부가 받은 마리아의 사적계시들의 일부분(일반 사 계시와 예언들)

사제들로 구성된 마리아 사제운동의 수장인 스테파노 곱비 신부는 약 25년(1973~1997) 동안 종종 하늘의 여왕 마리아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무려 604회(日)에 걸쳐서 수백 가지의 사(私) 계시들을 기록하였다. 이 내용에 대하여 <내적 담화>니 <하늘에서 전해주는 메시지>니 <개인적인 계시>¹⁹¹⁾등등으로 부르는데 필자는 <사적(私的)계시 즉 사 계시>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 계시의 내용은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라는 책에 기록되어있다. 지면관계상 "이러한 사실(정보)도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정도로 몇 가지의 개략만 열거하고 각 항의 해설과 비판을 요약하여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그

189) 루카, 『성모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당신 사제들에게』, 오기선 역, (서울 : 우신사, 1977년), pp. 6-7.

190) 스테파노 곱비,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박요한 실비아 옮김, (서울 : 가톨릭 출판사, 2012), p. (2).

191) 루카, 『성모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당신 사제들에게』, 오기선 역, (서울 : 우신사, 1977년), pp. 603, 612, 621.



내용들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지만 그것들 중에 특히 눈에 띄는 일부 분만을 소개하여 참고로 제공하기로 한다

(1) 이 사 계시와 예언의 해석에 대한 주의사항에 대하여

마리아의 사 계시와 예언의 일부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이 책의 머리말에 나오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참고로 기록하기로 한다.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의 머리말에는 이 사 계시와 예언의 해석에 대하여 몇 가지 주의를 주고 있다. 참고로 인용하여서 천주교의 성경해석과 같이 아전인수 격의 독점해석의도에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하려고 한다. 중요한 것만 간략하게 인용하겠다.¹⁹²⁾

1) 마리아 중심(주도)의 내용에 대한 해석(천주교 교리에 비추어 해석 할 것)¹⁹³⁾

본 사 계시는 마리아가 계시자이자 모든 것을 주도하는 중심인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계시를 기록한 책 머리말에서 이 계시해석의 안전장치를 제시하고 있다. 그 첫째는 천주교의 무류의 교도권의 교리에 비추어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천주교의 교리는 무어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간략하게 말하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고 그의 모든 구속 사업에 동참하였고 그와 동존(현존)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끄는 구속의 신비에 동역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마리아와 그리스도는 불가분의 일치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마리아 주도의 모든 사

192) 스테파노 곱비,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박요한 실비아 옮김, (서울 : 가톨릭 출판사, 2012), pp. 55-61.

193) 같은 책, pp. 55-56.



역들은 그리스도 주도와 같은 것이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본 사 계시의 모든 마리아 중심과 주도의 계시들을 합리화 시키고 있다.

그러나 본 사 계시를 엄밀하게 검토해 보면 그렇게 단순하게 취급할 수만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의 마리아 교리들이 비 성경적이며 잘못된 것이므로 그러한 거짓교리들에 근거한 마리아의 사 계시도 그릇된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들어보면 마리아가 하늘의 여왕이 되어 천사들의 총지휘자가 되고 사탄과 사탄의 사주를 받는 붉은 용과 검은 짐승을 물리쳐 승리하고 그리스도 재림의 책임까지도 맡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리아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거의 동일시되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동일시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왕권과 재림권 까지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신성모독적인 주장들은 단순히 위와 같은 마리아 교리로서 합리화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무쌍(無雙)의 권위를 침해하는 무서운 월권 행위인 것이다. 도저히 무슨 이유로든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2) 변경과 연기가 가능한 경고성 예언이라는 것¹⁹⁴⁾

이 책의 머리말에서 또 제시하는 두 번째 안전장치는 성서적 관점에 입각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언에 있어서 성서에 의하면 주님의 무수하고 다양하고 위협적인 예고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려는 뜻에서 행한 것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니느웨 멸망의 예언은 회개하라는 경고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무서운 심판의 예언도 회개하면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예언은

194) 같은 책, pp. 57-59.



경고성 예언이며 따라서 변경 가능하고 연기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서의 이러한 예언은 소수에 불과하고 이것도 철저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하며, 대부분의 예언은 변경과 연기가 불가능한 확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성서의 중요한 예언들을 모두 경고성이나 변경 가능한 것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중대한 성경말씀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런데 마리아의 이 예언들에는 변경이나 연기가 가능한 경고성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그러므로 만일 중요한 불변의 성격을 지닌 예언들을 경고성이라고 하여서 그것이 어긋난 것을 합리화 시키려는 의도는 잘못이라고 해야 할 줄 안다. 이 사계시의 모든 예언을 경고성이라고 하면 편리할 것이나 책임회피적인 핑계가 되고 말 것이다.

3) 공식적 교리와 동일시 말 것¹⁹⁵⁾

세 번째 안전장치는 장차 공식 교리화 되기 전에는 천주교의 공식적인 교리와 동일시하지 말고 어린이 같이 신앙 양식으로 삼아 순종할 것을 권한 것이다. 공식적인 교리는 아니지만 어린이처럼 이를 신앙양식으로 삼아 순종하라는 것은 결국 교리와 동일하게 대하라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교리도 아닌데 신앙양식으로 삼아 순종하라는 말이 타당하다는 말인가?(이 사계시의 일부는 장차 천주교의 무류의 교리로 제정될 가능성이 크게 보인다.)

4) 겸손하고 단순하게 이 사 계시들을 읽고 차분하게 애정을 기울여 묵상할 것 (마치 제3성서와 같이?)¹⁹⁶⁾

195) 같은 책, pp. 60-61.

196) 같은 책, p. 61.



마지막 안전장치는 성모님의 이 사 계시들을 읽고 차분하게 애정을 기울여 묵상하는 가운데 요청과 약속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면서 실천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마리아 사제운동에 동참한 사제들 가운데는 이 책을 실제로 성서와 같이 귀하게 여기며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위로와 힘과 변화를 얻는다는 고백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한다. 무수한 사제들과 평신도들이 이 사제시책을 마치 성경처럼 소중히 여기고 애독하며 묵상하며 기도한다면 교도권이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종의 마리아 종교처럼 나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책이 마치 제3의 성경처럼 사랑을 받고 천주교 주교들과 사제들과 평신도들을 움직일 수도 있을 줄 안다. 그러므로 경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마지막 때의 투쟁에 대비한 마리아의 군대조직

마리아가 곱비 신부에게 찾아와서 전한 메시지들 가운데에는 먼저 마리아 사제운동(군대조직)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있다.

1) 마지막 때의 투쟁에 대비하여 내가 직접 승리의 군대를 조직하였다.¹⁹⁷⁾

나의 승리는 내게 각별히 소중한 아들들인 사제들로부터 시작될 것이다.¹⁹⁸⁾

내가 오래 전부터 교회를 구원하려고 구상해온 계획의 전략거점은 내 아들

197) 김 테트로우 외 2인 공저, 『모든것의 여왕, 마리아』, 윤지영 역, (서울 : 말씀보존학회, 2007년), p.35-36 재인용.

198) 스테파노 곱비,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박요한 실비아 옮김, (서울 : 가톨릭 출판사, 2012), p. 56.



사제들이니 너희를 통해서만 이 계획이 실현될 수 있다¹⁹⁹⁾

나는 완전히 자신을 내게 맡긴 너희를 통해 활동하고 사랑하고 구원하며 만민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어 내 티 없는 성심의 승리를 완성하고자 한다.²⁰⁰⁾

나는 너희를 통해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²⁰¹⁾

본 사계시서에서 마리아는 마지막 때의 사탄의 세력인 붉은 용(마르크스의 무신론주의라고 하는)과 검은 짐승(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과의 전투에 대하여 무수히 예고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에서만 보아도 마리아 사제운동은 이 전투에 대비해서 마리아의 군대를 조직하는 것이며 이 전쟁에 사제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마리아는 이 사제들을 통하여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마리아는 이 전투의 승리가 사제들로부터 시작되고 사제들을 통하여 거두게 될 것이라 하여서 사제들의 중요성을 먼저 강조하고 있다.

2)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²⁰²⁾

그리스도를 찾고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마리아 자신을 찾는 자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은 진실로 두려운 말이다. 성경의 마리아는 감히 상상도 못할 말이다. 이 말은 망언(妄言)중의 망언이다. 마리아가 구주가 된다는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망령된 말이다.

3) 예수께서는 내 손에 지옥의 문을 여닫을 수 있는 이 열

199) 같은 책, p. 211.

200) 같은 책, p. 777.

201) 같은 책, p. 30.

202) 루카, 『성모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당신 사제들에게』, 오기선 역, (서울 : 우신사, 1977년), p. 72



쇠를 맡기신다.²⁰³⁾

예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고(계 3:7)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하셨으며(마 16:19)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고(계 20:1)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 지옥열쇠를 맡기신다는 말씀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4) 태양을 입은 여인(마리아)과 붉은 용(마르크스주의 무신론 : 무신론적 공산주의)과 검은 짐승(프리메이슨 조합)의 전쟁에 대한 계시

이 책은 천상의 어머니요 자기 군대를 거느린 태양을 입은 여인(마리아)이 붉은 용과 검은 짐승을 쳐부수고자 너희를 소집하였으니 머지않아 어디에서든 승리가 올 것이라²⁰⁴⁾고 하였다. 그러나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해를 입은 여자는 마리아가 아니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유대교 공동체라고 한다.(툼슨II. 주석성경 신약 411p.) 그리고 현대 주석가의 다수는 여자가 난 아이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인(교회)이라고 본다.(이상근 박사. 신약주해 요한 계시록. 161p.) 그러므로 마리아가 해를 입은 여자라는 말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붉은 용이 "마르크스주의 무신론"이라는 해석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요한 계시록 12장을 보면 붉은 용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다. 특히 7-9절만 보아도 붉은 용은 사탄인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검은 짐승은 계 17장3절에 보면 붉은 짐승이라고도 하며 특정 집단

203) 스테파노 곱비,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박요한 실비아 옮김, (서울 : 가톨릭 출판사, 2012), p. 1013.

204) 루카, 『성모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당신 사제들에게』, 오기선 역, (서울 : 우신사, 1977년), pp. 476-7.



보다는 어느 세계 제국적인 정치집단의 대표나 총통 등 단수로 되어 있고 그 모든 성격으로 보아서 정치적인 세계 지배자로 적그리스도라고 거의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본서에서는 이 메시지로 적그리스도 집단으로 그냥 기록하기로 하겠다. 그리고 마리아가 사제들을 소집하여서 머지않아 어디에서나 이 두 세력에 대하여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은 실로 중대한 것이니 큰 관심을 가지고 주시해 보아야 되리라고 생각한다.

(2) 검은 짐승(프리메이슨)에 대한 계시들(계 13:1-18, 17:3 참고)

여기에서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째(검은)짐승과 둘째 짐승에 대한 마리아의 메시지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요즈음 세간에는 프리메이슨에 대한 책들과 정보들이 상당히 많이 유포되고 있는 것이 보인다 그리고 프리메이슨에 대한 상당수의 정보들을 일부에서는 음모론이라고 부인하고 있기도 한다 이 프리메이슨 문제만 다루려 해도 몇 권의 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사계시 메시지에 프리메이슨에 대한 내용이 제법 나오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프리메이슨이니 큰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아쉽지만 지면상 메시지 내용의 간략한 해설정도로 그칠 수밖에 없다.

1) 프리메이슨(反천주교 비밀결사)이 비밀리에 짜고 있는 교활하고 악마적인 계략이 있다.205)

205) 스테파노 곱비,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박요한 실비아 옮김, (서울 : 가톨릭 출판사, 2012), p. 783.



프리메이슨은 바다에서 나오는 검은 짐승인데 (계13:) 반천주교 비밀결사로써 그들이 극비리에 교활하고 악마적인 계락을 짜고 있다고 한다. 이 계락은 천주교의 최고권위자인 교황의 인격과 사업을 장난감 노리개처럼 만들고 교황의 무류의 교도권을 쓸모없고 헛된 것으로 추락시키려 드는 것이라고 한다 이는 실로 천주교의 근본을 뿌리 뽑고 천주교를 완전히 말살시키려는 최대의 도전이라는 것이다. 정말 그렇다면 프리메이슨의 출현은 천주교 역사상 최대의 위기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2) 프리메이슨의 7머리 10뿔에 대하여²⁰⁶⁾

7개의 머리는 프리메이슨의 다양한 롯지(프리메이슨의 지부 집회소 및 그 구성원)를 가리키며 10개의 뿔(나팔소리: 강력한 의사전달수단)로 프리메이슨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린다고 한다. 그러나 짐승의 일곱 머리는 주로 일곱 나라를 말하며 열 뿔은 열 왕을 가리키는 것이 본문의 의미이다. 그런데 일곱 머리가 프리메이슨의 롯지 이며 열 뿔은 열 나팔소리(강력한 의사전달 수단))라고 하는 메시지는 좀 무리한 해석인 것 같이 보인다.

3) 프리메이슨의 목표는 하느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독하는 것(검은 미사와 악마숭배 등으로)이다.(묵시 13, 1참조)²⁰⁷⁾

이 메시지는 계시록13장 1절에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 하는 이름들이 있더라."와 5절에"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206) 같은 책, p. 832.

207) 같은 책, p. 833.



받고"라고 했고 6절에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 것 같다. 그리고 그래서 가장 큰 모독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예배를 피조물이나 사탄에게 바치는 것인데 그 괴악한 행위 배후에서 검은 미사와 악마송배가 도처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계시록 13장에 의하면 이 짐승은 사탄(용)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진정한 기독교도)과 싸워 이기게 되고 전 세계 민족과 나라들을 다스린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 통치의 기간은 42개월이라 하고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계 13:8)는 내용도 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계시에는 이와 같이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경말씀을 부분적이며 편향적으로 일부분만을 부각(浮刻)시켜서 전체의 중요한 의미를 감추는 것이 되며 이는 성경을 크게 곡해하는 것으로 매우 위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비록 이 계시의 내용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전체적인 면에서 크게 어긋난 면은 신중하게 경계해야 되리라고 생각한다

4) 프리메이슨은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영혼 구원을 가로막으려 들며 그리스도의 구원역사를 무효화하려고 기를 쓴다²⁰⁸⁾

이 메시지는 더욱이 충격을 주는 것이다. 비록 천주교적인 구원을 가로막는 것이며 (기독교의 복음적인 구원과는 질적으로 다르지만) 무

208) 같은 책, p. 833.



엇보다 그리스도의 구원역사를 무산시키려고 악을 쓴다는 말은 공분(公憤)을 느끼게 한다. 사실 성경본문에 따르면 이 짐승(프리메이슨)은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계 13:7)고 하였는데 이는 천주교가 아니라 모든 진정한 기독교 특히 복음적인 기독교까지 모두 외부적으로 통제한다는 말로 해석이 된다.

5) 어린양처럼 두 개의 뿔이 달린 짐승은 교회 내부에 침투한 프리메이슨, 즉 교회 프리메이슨이다.²⁰⁹⁾

여기에서 마리아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계 13:11) 천주교 내부에 침투한 천주교프리메이슨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그렇게 보이는 면도 없지 않으나 이 둘째짐승은 좀 더 강력한 짐승의 앞잡이로 볼 수 있다. 계 13장 11-18절을 보면 앞에 나오는 짐승의 모든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 앞에서 행하고 인류가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하고 짐승에게 받은 이적을 행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짐승의 우상을 만든다고 했다. 그리고 그 짐승의 우상이 말을 하게하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한다고 했다. 심지어 사람들의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했다. 그러면 마리아의 메시지대로 이 천주교프리메이슨이 이와 같은 일을 다 하는지 주시해 보아야 하겠다. 무엇보다 이 둘째짐승도 단체가 아니고 단수이며 계 19장 20절에서 분명히 "짐승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선지자"라고 하였으며 첫 짐승과 함께 산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고 했으니 천주교프리메이슨은 아닌 듯하다. 그리고 사실 프리메이슨이라면 일반 프리메이슨이나 천주교 프리메이슨의 구분이 필요 없을 것이다.

209) 같은 책, p. 838.



6) 천주교회 프리메이슨은 성경을 자연주의, 합리주의로 해석한다.²¹⁰⁾

일단 이 메시지대로 따라가 보자. 필자의 생각에는 천주교프리메이슨이란 천주교에 침투하여 위장하고 활동하는 프리메이슨이라고 생각이 된다. 결국은 같으니까. 그리고 그들의 성경해석도 프리메이슨의 성경해석과 동일하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프리메이슨이 천주교 내에 들어와서 천주교인 행세를 하면서 행하는 일들은 프리메이슨이 하는 일이지 천주교 프리메이슨의 행위라고 별명을 붙일 필요가 없을 것이다. 프리메이슨과 천주교 프리메이슨을 구별한 이유는 무엇일까?

7) 천주교회 프리메이슨의 목표는 죄를 정당화하는 것, 죄를 더 이상 악으로서가 아니라 선하고 가치 있는 무엇으로 제시하는 것이다.²¹¹⁾

이도 천주교 내부에 위장 침투한 프리메이슨의 목표라고 보아야 할 줄 안다. 성경과 기독교 교리와 정 반대로 프리메이슨이 하나님의 십계명과 뜻을 정면으로 대항하여 죄를 정당화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를 악으로서가 아니고 선하고 가치있는 무엇으로 제시하는 간악한 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프리메이슨은 지선(至善)하신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8) 천주교회 프리메이슨은 그릇된 교회일치운동(교회혼합)을 통하여 천주교회를 파괴하려고 한다.²¹²⁾

210) 같은 책, p. 839

211) 같은 책, p. 840



지금 천주교는 기독교연합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천주교 프리메이슨 즉 프리메이슨의 일치운동은 교회혼합을 통하여 천주교를 파괴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지금 천주교의 일치운동은 모든 기독교를 천주교 안으로 흡수통합 하여서 천주교의 세력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천주교 프리메이슨의 교회일치운동은 기독교들을 혼합하여서 천주교의 특성을 깨트려서 와해시키려고 한다니 현재 천주교의 일치목표와 반대가 되는 것이 아닌가? 결국 천주교 안에서 각각 다른 목표를 가진 두 가지의 교회일치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말이 아닌가? 아니면 이 둘은 앞으로 어느 한 쪽으로 통합되지 않을까?

9) 프리메이슨의 지부 집회소들이 하는 일은 십계명을 공공연하게 반대하면서 하느님께만 합당한 예배를 거짓 우상(이성 욕체, 돈, 불목, 지배욕 폭력 쾌락)에게 바치게 하는 것이다.²¹³⁾

여기에서는 프리메이슨의 롯지(지부 집회소)들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공공연히 반대하여 그 계명들과 정 반대되는 법들을 두루 퍼트리고 있으며 하나님께만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거짓우상들에게 바치게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런데 그 거짓우상들이라는 것들은 이성(理性), 욕체, 돈, 불목, 지배욕, 폭력, 쾌락이라고 한다. 위의 제 2장에서 밝힌 대로 마리아는 거짓우상들을 실제적인 보이는 우상이나 성화상들이 아닌 상징적인 죄악들로 뒤 바꿔놓고 있다.

10) 천주교회 프리메이슨은 갖가지 교활한 방식으로 '성체

212) 같은 책, p. 841

213) 같은 책, p. 836.



성사에 대한 교회의 신심을 공격하려든다.²¹⁴⁾

이는 천주교프리메이슨이 그들은 전통적인 천주교의 생명과 같은 성체성사, 희생제사(미사), 성체조배 등의 신앙을 무너뜨리려하여 점차로 폐지되게 하고 있다는 말로서 한 편으로 기독교로선 환영할 일과 같이 보이기도 한다.

11) 천주교 내의 엄청난 배교(남은 소수만이 천주교에 충실한다.)

여기에서 마리아는 말하고 있다. 엄청난 배교의 때가 왔다 이 엄청난 배교의 물결은 천주교 내부에서 점점 널리 퍼져가고 오류들이 가르쳐지고 교도권의 신앙의 근본진리는 예사로 부정되고 있다. 교황의 발언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비판하거나 조롱까지 한다 이는 교황의 인격과 사업을 놀림감으로 만들고 그의 교도권을 공허한 것으로 격하시키려 드는 프리메이슨의 교활하고 악마적인 계략 때문이다. 수많은 주교, 사제, 수도사, 신자들이 이 엄청난 배교의 희생자이며, 이 시대의 천주교에 남아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와 복음과 복음의 모든 진리에 충실하리라²¹⁵⁾고 말하고 있다

12) 프리메이슨에 의해 꾸며지는 음흉한 음모가 천주교회의 고위층에 자리 잡은 많은 그들의 추종자들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교회의 활동들을 마비시키고 사도적 열정의 불길을 꺾다.²¹⁶⁾

214) 같은 책, p. 841.

215) 같은 책, pp. 782-783.

216) 같은 책, p. 787.



이러한 마리아의 고발은 현재 천주교의 고위층에는 많은 프리메이슨 추종자(회원)들이 있으며 프리메이슨은 그들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천주교의 활동들을 마비시키고 사도(주교)적 열정의 불길을 꺾었다고 개탄(慨歎)하고 있다. 이 말은 1988년 8월 15일에 한 것이니 그로부터 25년이 경과한 지금쯤은 천주교 고위층 인물들이 얼마나 더 많이 프리메이슨이 되었을지 아니면 얼마나 더 많은 사제들에게까지 확산되었을지 모르겠다 또 현재 교황도 프리메이슨이 아닐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13) 프리메이슨은 그 자체의 악마적 세력으로 간교하게 교회에 숨어 들어와서 그들 세력의 본거지를 바로 교회의 심장부, 곧 내 아들 예수님의 '대리자가 살고 있는 곳에 세우고, 여기에서 세계도처로 그 악한 영향을 퍼뜨리고 있다.²¹⁷⁾

프리메이슨이 간악하게 천주교에 숨어 들어와서 천주교의 심장부인 교황청에 그들의 본거지를 세우고 여기에서 전 세계에 그 악한 영향력을 퍼뜨리고 있다고 한다. 이 말은 교황청이 거의 장악된 듯이 보이게 한다. 그리고 이 말은 1993년 5월13일, 12월 31일, 1995년 8월 5일의 메시지들에서 반복되고 있다.

임종태의 「악마들의 거처 바티칸」(2009. 5. 25)에 의하면 이미 교황청에 1978년(교황 요한 바오로 1세 당시)에 바티칸 국무원장 장 비요 추기경을 비롯해 일루미나티(프리메이슨)에 가입한 100여명에 달하는 바티칸 관료들이 있었다²¹⁸⁾고 한다 그러면 마리아가 이 메시지를 전하기 15년 전에 이렇게 많았으니 1993년과 1995년쯤에는 그 숫자가

217) 같은 책, pp. 1060, 1093, 1186-1187.

218) 임종태, 「악마들의 거처 바티칸」, (서울 : 다른우리, 2009), p. 165.



얼마나 더 많이 증가했을지 예측하고도 남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이제는 아주 교황청이 거의 프리메이슨의 본부(중심부, 근거지)가 되었다고 추측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마리아의 이 메시지가 사실이라면 그로부터 또 20년이 경과한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 만일 마리아의 이상의 메시지들이 사실이라면 교황청의 주인공들은 벌써 대부분이 프리메이슨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과연 현재 천주교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일까? 현재의 교황은 과연 누구일까? 궁금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다

14) 붉은 용(마르크스 무신론 공산주의)은 프리메이슨의 원조를 받는다.²¹⁹⁾

붉은 용이나 큰 용은 계시록 12장7-9절에 보면 마르크스 무신론주의가 아니고 분명히 사탄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 사탄(붉은 용)이 짐승(프리메이슨)에게 자신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었다고 했다(계 13:1-2). 그런데 사탄(용)이 자기 부하인 짐승의 원조를 받는다는 말은 주객전도가 아닐까? 이는 사탄인 붉은 용을 마르크스 무신론주의로 잘못 주장했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인 것이다.

15) 내 티 없는 성심이 고난과 분열을 겪고 있는 이 나의 교회에서 승리하리라.(천주교가 프리메이슨의 소유가 되고 있다)

교회가 악한 영들에 의해 갈기갈기 찢어진 채, 날로 강력해지는 프리메이슨의 어두운 세력의 차지가 되고 있다. ... 내 티 없는 성심이 고난과 분열을

²¹⁹⁾ 스테판노 콰비,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박요한 실비아 역, (서울: 가톨릭 출판사, 2012), p. 1186.



겪고 있는 나의 '교회에서 승리하리라...너희(사제들)를 통해 내 티 없는 성심이 승리할 것이다.²²⁰⁾

마리아는 천주교가 악한 영들에 의해 날로 강력해지는 프리메이슨의 소유가 되고 있다고 개탄하고 있다. 그러나 마리아는 승리를 약속하고 있다 '그것은 자신의 티 없는 성심이 나의 '교회에서 승리할 것이고 사제들을 통하여 내 티 없는 성심이 승리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어쨌든 바티칸이 프리메이슨의 본거지가 되고 고위층들이 거의 프리메이슨의 회원이되고 천주교가 프리메이슨의 소유가 되고 있는 절망적인 형편을 폭로하면서도 마리아 자신의 티 없는 성심이 또 사제들을 통하여 승리하리라고 강조하고 있으니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 마리아의 약속이 그대로 잘 지켜질 수 있을지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16) 프리메이슨은 1998년 시기에 교회 프리메이슨의 협력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대신하는 우상, 즉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교회를 세우고 그 우상을 모든 사람이 경배하게 한다.

마리아는 또한 정화와 대 환난과 배교의 극점에 그리스도의 적의 낙인(666표)을 받게 하고 바로 적그리스도의 화신인 인간이 나타날 것이다²²¹⁾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 예언은 빗나간 것이 아닌가? 1998년 시기 이후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교회라는 우상은 아직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적그리스도의 화신(멸망의 사람)도 그 어디에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일어나리라고 한 거짓

220) 같은 책, p. 1126.

221) 같은 책, pp. 847-848.



그리스도와 거짓교회라는 우상은 아무데에도 세워지지 않고 있으니 이 예언은 빗나간 것이 아닐까?

17) 지금은(1989. 9. 8)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프리메이슨)의 추종자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낙인을 받는 시대이다.²²²⁾

기독교 성경적으로 보면 지금이 적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짐승의 표를 이마와 손에 받게 하는 시대라는 말이다.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853~855p에는 이마와 손에 낙인이 찍힌다는 구체적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이마는 지성 즉 이성의 자리이며 손은 인간의 의지활동을 가리킨다고 한다 그러나 계시록 13:16-18절에 의하면 둘째짐승이 모든 사람의 이마나 오른 손에 받게 하는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666)'라고 했다. 그러니 이 표는 마리아의 말과 같이 프리메이슨의 사상이나 행동이라는 말은 본문의 왜곡이며 근본 뜻을 말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따라서 이 표를 받는 시기가 1989년이라는 말도 본문의 바른 뜻대로라면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본문의 뜻대로라면 이성과 의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사람의 이마와 오른 손에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의미하는 어떤 표 같은 것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18) 내 작은 아들들아, 나와 함께 용과 프리메이슨과 교회 프리메이슨과 싸우자 꾸나.²²³⁾

222) 같은 책, pp. 853-855.

223) 같은 책, p. 844.



마리아가 사제들을 다정하게 '내 작은 아들들아라고 부르면서 나와 함께 용(마르쿠스 무신론: 공산주의)과 첫 짐승(프리메이슨)과 둘째 짐승(천주교 프리메이슨)과 싸우자고 격려하고 있다.

19) 나는 내게 자신을 봉헌한 사제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프리메이슨에 승리케 할 것이다. (프리메이슨과의 결전에 승리 장담)

나는 내게 자신을 봉헌한 내 작은 아들들인 너희를 (도구로)써서 '검은 짐승'(프리메이슨)이 너희(앞길)에 파두는 간교한 함정을 폭로하고, 결국에 가서는 그 짐승이 오늘날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거슬러 개시한 대 공격을 헛된 것으로 만들 작정이다. 특히'프리메이슨이 더 없이 크게 참패했을 때 마침내 승리를 거둔 내 '티 없는 성심은 온통 찬란한 광채에 싸여 세상에 나타날 것이다.224)

마리아는 여기에서 자신에게 헌신한 마리아 사제단의 사제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프리메이슨의 간교한 함정을 폭로한다고 한다. 그리고 최후에 가서는 프리메이슨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천주교회를 대항하여 개시한 대 공격을 수포로 돌아가게 할 작정이다. 프리메이슨의 그리스도와 천주교를 대항하여 벌린 대 공격을 마리아가 사제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물리칠 것이라는 말이다.

특히, 프리메이슨이 완전히 참패하게 되었을 때에 최후의 승리를 거둔 마리아의 티 없는 성심이 세상에 온통 찬란한 광채에 쌓여 나타날 것이라고 한다. 이로 보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마리아만이 개선장군과 같이 온 세계의 갈채와 영광을 받는다는 말이다. 과연 마리아는

224) 같은 책, pp. 836-837.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자신과 그의 사제들의 힘만 빌려서 이 막강한 프리메이슨 짐승의 공격을 격퇴하여 승리하고 공로를 독차지하는 하늘 여왕이 될 수 있을까?

(3) '천상의 지휘관인 나 역시 '십자가 표로 너희의 이마와 손에 내 인장을 찍어준다.225)

이 마리아의 사계시에 따르면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 즉 천주교 프리메이슨이 사람들에게 프리메이슨의 표(이성과 의지)를 받게 하는데 하늘의 대장인 마리아도 십자가 표로 사제들의 이마와 손에 자신의 인장을 찍어준다고 한다. 이걸 또 무슨 썩 소라는 말인가? 계시록 7장 1~8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이스라엘 열두 지파중 14만4천인의 이마에 인을 쳤다고 기록되었다.

그런데 마리아가 십자가표로 자신의 인장을 찍어준다는 말은 성경 아무 데도 없다. 짐승의 표는 이성과 의지 즉 상징인데 마리아의 표는 십자가 표의 마리아 자신의 도장(문자대로)이라니 앞뒤의 해석이 맞지 않지 않는가? 그러므로 짐승의 표가 짐승의 사상과 의지를 심어주는 것이라는 해석은 무리한 아전인수 격의 잘못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사탄(프리메이슨과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승리하는 길

1) 마리아가 직접 승리함

225) 같은 책, p. 855.



티 없는 내 성심의 승리를 통해서만 내가 나의 '사제운동에 맡긴 사명도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226)

성모성심은 마리아의 거룩한 마음을 말하며 하나님과 인간을 향한 성모님의 사랑을 상징한다고 한다. 이 마리아의 거룩한 마음의 승리를 통해서만 자신이 사제운동에 맡긴 사탄세력에 대한 전쟁사명도 완성된다는 말이다. 그럼 사제들은 구경만하면 되는 것 아닐까?

나는 승리의 '여인이다. 결국 사탄의 세력을 꺾고 내가 몸소 내 사슬로 그를 묶어 죽음과 영원한 고통의 그의 나라에 가두어 버릴 것이다.227)

마리아가 승리의 여인이라는 말은 어디에 근거하는가? 그러므로 이 말은 성경 어디에도 근거가 전혀 없는 거짓말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마리아가 최종에는 사탄의 세력을 꺾고 자신의 사슬로 그를 묶어 영원한 지옥에 가두어 버릴 것이라고 한다. 계시록 20장1~3 절에는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지고 용(사탄)을 잡아 결박하여 천년동안 가둔다고 했지만 마리아가 그렇게 한다는 기록은 그 어디에도 없다. 그러므로 이는 잘못된 말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예수께서는 '다윗의 열쇠를 내 손에 맡기신다 내게 사탄과 그의 악한 군대를 쳐부술 임무를 맡겨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 열쇠로 지옥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228)

마침내 너희의 '원죄 없는 엄마 가 승리를 거둘 터이니, 내 동정의 순결한 발로 뱀의 머리를 짓밟고(창세 3, 15) 이 손으로 그 커다란 용(묵시 12, 9)을

226) 같은 책, pp. 488-489.

227) 같은 책, p. 962.

228) 같은 책, p. 1013.



뭉을 것이다. 그러면 그는 무력해져서 다시는 세상에 해를 끼칠 수 없어지리라.²²⁹⁾

나의 임무는 너희에게 다가올 새 시대의 문을 여는 일이다. 너희를 새 하늘과 새 땅(묵시 21, 1)으로 인도하는 일이다. 특히 사탄과 모든 악의 세력을 쳐부숨으로써 하느님께서 당신의 가장 위대한 승리를 세상에서 거두시게 하는 것이야 말로 '(의) '하느님의 어머니에게 맡겨진 임무이다²³⁰⁾

이 세 곳의 메시지도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발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이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께서는 마리아에게 이러한 막강한 권력을 주셔서 다윗의 열쇠를 맡기고 사탄과 그 군대를 쳐부수고, 뱀의 머리를 짓밟고, 용을 묶게 하시겠는가? 또 "새 시대의 문을 여는 일"과 천주교도들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는 일"을 맡기신단 말인가? 무엇보다 하느님께서 무엇 때문에 마리아에게 "당신의 가장 위대한 승리를 세상에서 거두게 하시는 임무"를 맡기셨다는 말인가? 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천사군단들이 있는데 일개 여인에게 이 모든 권한을 위임하여서 대행하게 하신다는 말인가? 혹시 마리아가 섭정대비 행세를 하려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오직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안방에 모셔 놓고, 마리아가 그 모든 권한들을 독점하여 휘두름으로 마리아가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보다 더 큰 실세(實勢)임을 과시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천주교가 실질적으로 마리아교이며 마리아가 가장 숭배를 받게 하려는 사탄적인 술책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229) 같은 책, p. 1089.

230) 같은 책, p. 1097.



2) 목주 기도를 통한 승리

붉은 용은 무거운 쇠사슬이 아니라 목주라는 기도의 끈으로 묶을 때 굴복하고 패배할 것이다.²³¹⁾

거룩한 목주의 사슬은 또한 사탄을 가두는 효과, 곧, 그의 활동을 무력하게 하여 그 악마적 권세의 힘을 갈수록 감소·약화시키는 효과를 낸다.²³²⁾

거룩한 목주의 사슬은 마침내 사탄을 완전히 무력하게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의 큰 권세가 꺾이는 것이다. 모든 악령들은 불과 유황 구덩이로 던져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권능의 열쇠로 그 문을 잠글 것이다'²³³⁾

강력한 무기인 거룩한 '목주기도'로 말미암아 너희도 오늘날 교회사와 인류사를 통틀어 나의 가장 위대한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²³⁴⁾

여기에서 마리아는 또한 목주기도를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목주라는 기도의 사슬로 붉은 용과 검은 짐승의 배후인 사탄의 큰 세력을 패배시키고 사탄의 악령들을 꺾고 불과 유황 구덩이 안으로 던져 넣고 그 문을 잠가 버린다는 것이다. 목주기도를 통하여서 교회역사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자신의 가장 위대한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그럼 목주기도란 무엇인가? 위에서 이미 자세히 밝혔지만 천주교의 목주기도란 이교의 만트라식으로 주문을 외우듯이 60개의 목주 알을 한 알씩 한 바퀴씩 굴리면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기타 몇 가지 신비의 기도와 다른 기도, 그리고 송가와 성모송을 외우는 것이다. 그런데 이

231) 루카, 『성모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당신 사제들에게』, 오기전 역, (서울 : 우신사, 1977년), p. 491.

232) 스테파노 곱비,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박요한 실비아 옮김, (서울 : 가톨릭 출판사, 2012), p. 1013.

233) 같은 책, p. 1014.

234) 같은 책, p. 909.



60개 목주알을 돌리면서 외우는 주문 중에는 성모송(마리아를 찬양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하는)이 53개나 된다(6개에서는 각각 4가지기도와 송가가 추가되지만). 이 목주기도는 이방인들이 주문을 외우는 것과 같고 불교의 염불을 외우는 것과 비슷한 비 성경적인 전혀 잘못된 기도이다. 같은 말을 수백 수천 번 외워서 최면상태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목주기도가 붉은 용과 사탄의 막대한 세력을 묶고 꺾어서 지옥 불에 던져 넣고 그것을 잠그는 등 교회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를 얻게 한다니 어이가 없을 뿐이다. 소위 이 목주기도는 성경적으로나 정통 기독교적으로 보면 하나의 이교적인 중언부언(마 6:7)일 뿐이며 진정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3) 천사들이 사제들을 이끌어 승리

그들(주의 천사들)은 나의 명령에 따라 사탄과 사악한 영들과 투쟁하고 있다.²³⁵⁾

천사란 특별한 임무를 띠고 하느님께로 부터 파견되는 '형이다. (그런데) 나는 '천사들의 모후(필자주: 대비나 여왕)'이다. 사탄 정복이라는 가장 중대한 사명완수를 위해 주님의 파견을 받는 것이야말로, 바로 나에 대한 (주님의) 계획안에 들어 있는 사명이기 때문이다²³⁶⁾

지금은 '능력의 천사들의 때'이다. 능력의 천사들이 이 마지막 전투에서 내 모든 자녀(사제)들을 이끌어 사탄을 결정적으로 패배시키고 내 티 없는 성심의 승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왕국이 도래하도록 할 것이니 말이다.²³⁷⁾

235) 루카, 『성모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당신 사제들에게』, 오기선 역, (서울 : 우신사, 1977년), p. 488.

236) 스테파노 곱비,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박요한 실비아 옮김, (서울 : 가톨릭 출판사, 2012), p. 1012.

237) 같은 책, p. 907.



사탄의 세력에 승리하는 세 번째 길은 천사들을 통하여 성취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마리아는 천사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① 천사들은 마리아의 명령에 따라서 사탄과 사악한 영들과 투쟁하고 있다고 한다.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일하는 군대이지 그 어떤 인간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사병이 아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만의 고유한 권한을 자기가 행사한다고 하고 있다.

② 마리아는 자신이 천사들의 모후라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자신이 사탄정복의 중대 사명 수행을 위하여 하나님의 파견을 받은 천사들의 통솔권을 받은 것이 주님의 계획이라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③ 능력의 천사들이 이 마지막 전투에서 마리아의 모든 사제들을 이끌어 사탄을 패배시키고 마리아의 성심이 승리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왕국이 도래하도록 할 것이라고 한다. 이도 마리아가 주도한 천사들이 사제들을 통하여 마리아가 승리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하게 한다는 것으로 어디까지나 마리아가 주인공이 되고 있다. 그리스도는 그냥 마리아의 뒤만 따라다니고 있는 꼴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는 인류 최후전투의 총사령관은 백마를 타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이시고 하늘에 있는 그의 군대들(천사들과 천국의 성도들)도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른다고 하였다(계시록 19장 11-16). 그리고 최후에는 짐승(마리아가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백마를 탄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을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키다가 완전히 참패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전쟁에서 패배한 짐승은 생포당하고 그의 앞잡이 노릇하던 둘째짐승(천



주교 프리메이슨이 아니고 거짓선지자)도 생포되어 둘이 같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지옥)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 짐승의 군대들은 백마 탄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은 다 죽는다고 기록되어 있다(계시록 19:19-21). 이와 같이 성경의 진리는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우리들은 각성하여서 더욱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여 흑세무민(惑世誣民)하는 거짓교회와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지 않도록 하여야 할 줄 안다.

4) 성체를 통한 승리

예수의 영광에 가득 찬 나라는 성체 안에 계시는 그분의 승리에 따라 빛나게 될 것이다.²³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왕국은 예수 성체왕국의 개선과 때를 같이하여 (도래할) 것이다. '사랑으로 정화되고 거룩해지고 완전히 새로워진 세상에서, 예수님은 특히 당신의 성체적 현존의 신비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이다.'²³⁹⁾

이번엔 또 성체(憵)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왕국이 도래하고 이 왕국을 예수 성체왕국이라고 하며 이는 또 사랑으로 정화되고 거룩해지고 완전히 새로워진 세상이라고 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새 세상(왕국)에서 특히 당신의 성체적 현존의 신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다고 하고 있다. 이는 진실로 황당한 스토리가 아닌가? 천주교 일각에서는 그리스도가 성체로 재림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실제 그리스도가 아니고 성체라는 밀

238) 루카, 『성모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당신 사제들에게』, 오기선 역, (서울 : 우신사, 1977년), p. 315.

239) 스테파노 곱비,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박요한 실비아 옮김, (서울 : 가톨릭 출판사, 2012), p. 1084.



뺨을 통하여 다스리게 된다는 그야말로 황당무계(荒唐無稽)하기 그지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물리치려면 성경말씀을 아는 것이 제일 첩경일 것이다. 위의 계시록 19장과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계시록 20장 1~6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온다.

① 먼저 그리스도의 영광에 가득 찬 나라는 계시록 19장 11-2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백마를 타시고 천군천사들을 거느리고 재림 하셔서 짐승과 그를 추종하는 세계의 모든 세력들을 물리치고 나서 이뤄진다고 하였다

② 그리고 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 용(사탄)을 사로잡아 결박하여서 천년동안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인봉하여 천년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였다(1-3).

③ 그리고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고 기록되어 있다.(4-6)

이상과 같은 계시록 19장 11~21절과 20장 1~6절의 말씀에 따르면 "성체(뺨)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짐승과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왕국이 도래하고 다스릴 것이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 되는 것이다. 이성(理性)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의 분별력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5) 승리한 결과



1) 마리아의 승리로 모든 기독교가 천주교 안에 통합 된다

지금까지의 메시지(예언)들은 결국 마리아가 사탄과 그의 앞잡이인 프리메이슨 세력과 천주교 프리메이슨 세력에 대하여 천사들과 사제들을 앞세워서 완전히 승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승리의 결과로 성취될 세 가지 사실들을 추가하여 말하고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톨릭교회 안에서 재일치하는 것은, 티 없는 내 성심이 세상에 개선하게 될 때와 맞아 떨어질 것이다.²⁴⁰⁾

첫째로 마리아는 여기에서 자신이 모든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때에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가 천주교 안에서 다시 일치하게 된다고 예고하고 있다. 과연 마리아가 종말의 모든 악한세력과 사탄의 세력들을 꺾어서 대 승리를 거두고 모든 기독교를 중세와 같이 천주교 안으로 다시 통합시킬 수 있을까? 그러나 마리아의 승리가 전혀 실현 불가능한 망상(妄想)이라면 이러한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2) 마리아의 승리로 전 인류가 하느님께로 돌아온다.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의 승리로 그리스도교인은 모두 가톨릭교회 안에 통합되고, 모든 이가 하느님께 돌아올 것이다.²⁴¹⁾

둘째로, 마리아의 최후 승리로 먼저 기독교의 중세적인 재통합이 실

240) 같은 책, p. 384.

241) 같은 책, p. 부록 56.



현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도대체 성경 어디에 그러한 말씀이 있다는 말인가? 이와 같은 마리아의 승리로 전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도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3) 마리아가 승리한 후에는 유일하며 오직 참된 교회인 천주교만 남게 될 것이다

내 티없는 성심이 승리한 후 너희 나라들에는 오로지 하나이며 홀로 참된 교회인 이 가톨릭교회만 남게 될 것이다. 242)

셋째로, 여기에서 마리아가 최종적으로 모든 악한세력에 승리하게 되면 세상에는 다른 기독교나 다른 종교는 하나도 남지 않고 오직 유일하고 참된 천주교 하나만 남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과연 그런 마리아의 최종 승리가 정말 올 것이며 그리하여 마리아가 최고의 권좌에 앉는 천주교 천하의 세상이 정말 실현될 가능성이 단 1%라도 있을까? 그리하여 천주교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거룩하고 유일하고 보편되며 사도를 계승한 천주교가 천하를 다스리는 천주교 독재 천하가 실현가능 할까? 아니면 그 모든 기대는 산산이 부서지고 오랜 천주교의 이러한 기대는 일장춘몽(一場春夢)이 되고 도리어 종말을 맞게 된다면 그 실망이 얼마나 크겠는가?

(6) 마리아와 그리스도의 재림

242) 같은 책, p. 965.



1) 그리스도 재림의 준비를 내게 맡기셨다²⁴³⁾

나는 이 너희 시대에 (그리스도) 재림의 어머니가 될 소명을 받았다. 예수께서 나를 통해 인성의 나약함과 비천함을 취하시고 너희에게 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나를 통해 (이번에는) 당신 영광의 광채에 쌓여 오시어 세상에 당신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²⁴⁴⁾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라. 너희의 해방이 다가온 까닭이다. 빛과 성덕의 새 시대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오리라. 사탄과 그의 강력한 악의 군대의 패배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오리라.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 당신 영광의 광채에 싸여 신적 권능의 흰 말을 타고 너희에게 오시리라.²⁴⁵⁾

그리스도의 재림의 준비를 마리아에게 맡기셨다는 말은 그리스도 재림의 전반적인 과정을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일임했다는 말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마리아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당신 영광의 광채에 쌓여 오신다는 말과 그리스도께서 당신 영광의 광채에 쌓여 신적 권능의 흰 말을 타고 너희에게 오시리라는 말은 어느 쪽이 맞는가? 전반부의 말은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품에 안긴 채 영광의 광채에 쌓여 오신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고 후반부는 성경말씀(계 19: 11~14)대로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것인데 이는 성경말씀을 의식해서 일종의 선전효과를 위한 깜짝 삽입이 아닐까 생각된다. 왜냐하면 재림의 준비를 다 마리아에게

243) 루카, 『성모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당신 사제들에게』, 오기선 역, (서울 : 우신사, 1977년), p. 597.

244) 스테파노 곱비,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박요한 실비아 옮김, (서울 : 가톨릭 출판사, 2012), pp. 969-970.

245) 같은 책, p. 1016.



말졌으며 마리아는 재림의 어머니이며 재림해서 새 시대를 여는 문인 마리아는 예수성체 왕국의 가장 위대한 승리와 때를 같이하여 새 시대의문을 열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가시적 재림은 없고 마리아를 통한 성체적 재림만이 이 마리아가 예언한 그리스도의 재림의 형식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2) 마리아가 자신을 "그리스도의 재림의 어머니"임을 강조한 이유(진리와 비 진리의 혼합 : 성경말씀과 마리아의 말들을 계속 혼합하고 있다.)

“(그리스도) 재림의 어머니”인 나는 새 시대를 여는 문이다. 이 새 시대는 “예수 성체 왕국”의 가장 위대한 승리와 때를 같이하여 열릴 것이다.²⁴⁶⁾

자신을 그리스도 재림의 어머니라고 주장한 마리아는 자신이 그리스도 재림의 새 시대를 여는 문으로서 '예수성체왕국'의 가장 위대한 승리와 동시에 그리스도 재림의 새 시대를 열 것이라고 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 재림왕국을 '예수성체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진짜 그리스도의 가시적 재림은 없고 그리스도는 마리아와 함께하는 성체 안에만 재림(현존)하여서 천주교와 마리아를 통하여 세계를 다스린다는 말이 되는 것 같다

마리아는 "그리스도 재림의 어머니"임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마리아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왕국도 드문드문 언급하고 있

246) 같은 책, p. 931.



다. 그런데 "예수성체왕국"의 가장 위대한 승리의 때가 재림한 그리스도가 다스릴 새 시대라는 말을 덧붙여 주장하곤 한다. 여러 곳에서 거의 성경대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통치에 대하여서도 제법 언급하는 대목들이 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마리아 주도의 모든 진행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진리와 비 진리를 뒤섞어서 신도들을 기만하며 미혹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마리아를 통한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체그리스도의 왕국을 실제 그리스도의 재림과 혼합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마리아의 승리와 그리스도의 승리를 혼합 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이는 분명히 비 진리와 진리를 혼합한 사탄적인 기만으로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3) 마리아가 섭정여왕이란 말인가?

이제껏 보아온 대로 마리아 사제 운동의 마리아의 계시들에 따르면 마리아가 섭정모후요 예수는 그저 뒤에서 간섭하지 않고 구경만 하고 따르고 있는 철부지 어린 왕과 같다 그래서 주인공은 마리아이고 마리아가 주도해서 모든 일을 (사탄과의 전쟁 등)을 처리하고 재림도 주도하고 예수님은 맨 나중에 이름만 내는 형태이다. (하나님은 늙은 대왕으로 무시하고 그 아들은 무능하여 이름뿐이고 그래서 대비가 섭정왕 노릇을 하고 아들은 왕명만 내거는 형태로 보인다.)

이는 실로 중차대한 반역행위이다. 왜 이렇게 마리아는 자신을 그리스도 위에 높여서 모든 일을 자신 주도로 행하며 예수는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이름만 내세우는(과는) 것일까? 분명히 여기에는 마리아라고 자신을 밝힌 출연(발현)한 마리아의 영의 다른 목적이 있으리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 이는 보수적으로 마리아 중심의 천주



교왕국을 건설한다든지, 아니면 바티칸을 장악한 프리메이슨의 인본주의(뉴에이지)적인 우주의 여신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새 포도주와 바벨론 포도나무」 385-395p. 참고)

(7) 성모에 대한 신성모독적인 주장들

1) 마리아는 성령의 배필(配匹)이다

영원으로부터 성령께서는 당신의 풍성한 신적 '사랑에 의해 내 동정 모태가 기적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써 아무런 인간적 개입 없이 '어머니가 되는 나를 생각하셨다' 그리하여 성령께서 나의 신적 '배필이 되신 것이다.²⁴⁷⁾

이는 이방 신화와 같은 말이다. '성령께서 나의 신적배필이 되신 것이라든지, '성령님,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정배(배필) 마리아라고 하여서 즉 신과 인간이 결합(성교)하여 아이(신)를 낳았다는 식의 불경하게 지어낸 신화를 동정녀 마리아의 그리스도 잉태에 덮어씌우는 것은 실로 사탄적인 발상(發想)과 같이 보인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경한 말이다 감히 이러한 불경한 신화와 같이 마리아의 그리스도 잉태를 설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고대 신화화하여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인류대속의 성업(聖業)을 격하시켜 말살하려는 사탄적인 기만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 봄이 교회의 '두 번째 성령 강림이 되리라. 그런즉, 내가 (앞서) 가르쳐 준 이 기도를 다락방 모임에서 자주 반복하기 바란다 : "오소서, 성령님,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정배(正配), 마리아의 티없으신 성심의 힘 있는 전구를

247) 같은 책, p. 1096.



들으시어 오소서." 248)

이는 마치 이방 무당이 귀신을 초치(招致)하는 기도와 같이 보인다. 소위 '제2의 성령강림을 위하여 마리아 사제운동의 핵심인 다락방 모임에서 자주 반복하여 드리라는 기도'에 "오소서, 성령님, 지극히 사랑하는 당신의 정배(배필), 마리아의 힘 있는 친구(대신기도)를 들으시어 오소서." 성령강림을 기도하면서 이러한 이방(異邦)식의 반복기도에 당신의 배필인 마리아의 기도를 들어서 강림해 달라고 하라는 것이다. 이 또한 마리아를 성령의 배필이라는 불경한 말을 사용하여 이교적인 반복기도로 제2의 성령강림을 빌라는 마리아의 당부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2) 마리아의 목적은 자신이 삼위일체로 최대의 영광을 얻으려는 것이다

내게는 죄가 도무지 없기에, 성부께서는 극진한 사랑의 길로 나를 굽어보시고, '말씀께서는 나를 당신 '어머니로 간택 하셨고, 성령께서는 부부애의 유대로 당신 자신을 나와 결합시키셨다. 그리하여 나는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하느님의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249)

여기는 이방 신화가 노골적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마리아가 삼위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와 있다는 신성모독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말은 바로 마리아와 삼위일체 하나님은 중심에서 하나라는 모독적인 말이 되는 것이다.

248) 같은 책, p. 1330.

249) 같은 책, p. 1024.



성모님의 목적은 주 예수를 알고 그를 따르려고 애쓰는 사제들 가운데서 삼위일체로 최대의 영광을 얻으려는 데에 있다.²⁵⁰⁾

여기에서 완전히 마리아의 숨은 정체가 탄로 나고 있다. 마리아의 목적이 예수를 따르는 사제들 가운데서 자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최대의 영광을 얻으려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위의 마리아가 자신이 '거룩하신 삼위 하느님의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라는 주장과 일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는 천주교의 마리아, 거기에 발현하는 마리아는 진짜 마리아가 아니고 그 영은 진짜 마리아의 영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의 자리를 찬탈(篡奪)하려는 그 어떤 다른 영이 틀림없다고 확언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을 줄 안다

성부의 어머니도 되고 성자의 어머니도 되고 성령의 배필이 되는 마리아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와 동일하게 되어 최대의 영광을 얻는 것이 그녀의 목적이라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마리아 신격화 작업이 완벽하게 성취되지 않았는가?

(8) 성모의 특별예언

이 사 계시서 가운데에는 수많은 예언적 성격의 내용이 있다 그러나 직접 예언으로 말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있다. 여기에서는 그중에 특이한 것 네 가지만 기재 하겠다.

250) 루카, 『성모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당신 사제들에게』, 오기선 역, (서울 : 우신사, 1977년), p. 623



1) 바로 지금이 나의 때이기 때문에 나의 기적들을 보게 될 것이다

너는 내 안에만 머물러 있어라 모든 순간에 있어서 항상 기도하고 있거라. 아들이, 매사를 내 자신이 하게 하여 다오. 그 이유는 바로 지금이 나의 때이기 때문이다. 내가 진심으로 청하는 것은 네가 나만을 믿고 기도하고 고통을 당하며, 내가 손으로 인도하는 대로 버려두면 너는 나의 기적들을 보게 될 것이다²⁵¹⁾

마리아는 자신에 대하여 놀라운 신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그는 사제들에게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리고 있다. ① 사제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② 모든 순간에 항상 기도하고 있거라. ③ 매사를 내가 스스로 하게하여 달라.(지금이 바로 나의 때이기 때문이다) ④ 내가 진심으로 청하는 것은 사제가 나만을 믿고 기도하고 고통을 당하며 내가 인도하는 대로 버려두라(따르라). 그러면 너는 나의 기적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마리아의 명령은 사제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보다 자신을 더 믿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따르게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반역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 교황과 일치 결합한 사람들은 결코 악마에게 빠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교황성화와 일치 결합하지 않는 자들은 이미 진리 안에 머물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항상 교황성화와 일치 결합한 사람들은 결코 악마에

251) 같은 책 p. 84.



게 빠지지 않을 것이다.²⁵²⁾

마리아의 이런 주장은 교황이 절대 진리 안에 있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본서에서 제시하는 내용들만 보아도 교황은 비 성경적이며 비정통적인 교리들로 진리 밖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교황과 일치 결합하지 않는 자들은 진리에 머무를 수 없다는 주장은 이루어질 수 없는 말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항상 교황과 일치 결합한 사람들은 악마의 사상이나 악마의 악행에 결코 빠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도 교황이 절대로 진리 안에 있고 절대선하여서 결코 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보아도 이러한 전제는 결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교황이 악과 악마와 결탁하거나 협력한 역사는 이러한 마리아의 주장이 성립될 수 없는 그릇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다.

3) 성취되지 아니한 시한부(時限附) 예언들

① 1998년에 프리메이슨의 우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에게 숭배와 낙인(표666)을 받게 할 것이다.

666은 그 세 배의 수로 서기 1998년을 가리킨다 역사상 이 시기에 프리메이슨은 교회 프리메이슨의 협력으로 그 자체의 큰 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터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대신 하는 우상, 즉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교화를 세운다는 계획이다. 그리하여, '첫째 짐승을 위해 세워진 그 우상을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경배하게 할 것이고 (물건을)

252) 같은 책, p. 195.



사거나 팔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낙인을 받게 할 것이니(묵시13, 17 참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적의 낙인이다. 그러기에 너희는 정화와 대 환난과 배교의 극점에 이른 것이다. 배교가 일반화될 터인즉, 거의 모든 사람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교회를 따라갈 것이기 때문이다.(묵시 13,8 참조) 그러면 문이 열리고, 바로 그리스도의 적의 화신인 인간이 나타날 것이다!253)

마리아는 여기에서 1998년 시기에 프리메이슨(짐승)이 교회 프리메이슨의 협력을 받아서 첫째짐승(프리메이슨)을 위해서 우상(거짓 그리스도와 거짓교회)을 세워서 모든 사람이 숭배하게 할 것이라 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물건을 매매할 때 사용할 적그리스도의 낙인(표)을 받게 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때에 정화와 대 환난과 배교가 극에 달해서 거의 모든 사람이 거짓그리스도와 거짓교회를 따라 갈 것이다 그 때에 적그리스도의 화신인 인간이 나타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마리아의 이 예언은 빗나가고 말았다. 이 예언은 1987년 6월 17일에 기록하게 한 것인데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1998년 시기에 일어나리라고 한 사건들은 아직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아니 2014년 현재까지도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교회나 그에 대한 숭배운동은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게 하거나 대 환난과 배교가 극에 달하거나 거의 모든 사람이 거짓그리스도와 거짓교회를 따라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적그리스도의 화신인 인간(멸망의 아들: 살후 2:3)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은 틀린 것이 아닌가? 이 예언도 천주교나 인류가 다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변경하거나 연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천만(千萬)의 말씀이다!

253) 스테파노 곱비,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박요한 실비아 옮김, (서울: 가톨릭 출판사, 2012), pp. 847-848.



② 1990년에서부터 10년(2000년)안에 내가 예고한 사건들이 다 일어날 것이다 2천년에 내 성심이 승리하고, 예수께서 재림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리라

나는 '엄마로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세기 마지막)십년을 너희의 손을 잡고 함께 시작하고자 한다. 매우 중요한 십년이고 너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의 현존이 특히 강력히 드러나게 될 시기이다. 내가 너희에게 예고한 사건들이 다 이십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일어날 것이니 너희는 모두 나의 모성적 활동을 통해 양육될 필요가 있다²⁵⁴⁾

이 세기의 마지막 십년으로 접어드는 이제, 내 '티없는 성심의 승리로 너희를 이끌어 갈 결정적인 사건들이 그(기간)동안 다 일어날 터인즉,²⁵⁵⁾

네게 확인하거니와. (서기)이천년 대 회년을 통하여 내가 파티마에서 예언한대로 티 없는 내 성심이 승리할 것이고, 그 승리는 예수께서 세상에 당신 왕국을 세우시고자 영광에 싸여 다시 오심과 더불어 실현될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마침내 너희 눈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리라(2베드 3.13참고)²⁵⁶⁾

마리아는 오늘부터(1990. 1. 1.) 시작되는 이 세기 마지막 10년이 매우 중요한 10년이고 사제들 가운데 계시는 주님의 현존이 특히 강력하게 드러나게 될 시기라고 한다. 여기에서 '주님의 현존은 성찬 빵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가리키는데 '특히 강력하게 드러나게 될 시기'라는 말은 아마 성찬 빵을 통한 기적들이 특히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시기가 될 것이란 말인 것 같다.

그리고 그동안 마리아가 사제들에게 예고한 사건들이 이십년 동안

254) 같은 책, p. 872.

255) 같은 책, p. 878.

256) 같은 책, p. 1147.



에 다 일어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그 십년 (1990-2000)이 훌쩍 넘어서 13년이나 더 지나갔는데도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사실은 그 책에 기록된 수백의 사계시들의 신빙성을 의심나게 하는 것이 된다. 지면상 일일이 지적하지는 않지만 맞게 보이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있지만 맞지 않게 보이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자신이 파티마에서 예언한 대로 서기 2000년대 회년을 통하여 이 사계시에 기록된 대로 자기의 티 없는 성심이 승리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승리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실현되고 너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부분의 예언도 맞지 않고 있다. 2000년에 일어나게 될 마리아의 승리라든가 그와 더불어 실현된다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새 하늘과 땅의 출현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처에서 이 마지막 때의 승리가 마리아를 통하여 온다는 말은 계속 귀를 거스르게 한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마리아의 승리를 뒤따라서 그리스도가 재림하며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공식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말이 아닐 수 없다.

어쨌든 마리아의 이 예언들은 완전히 틀리고 말았다. 그렇다면 이 책에 예언한 다른 예언들도 다 맞으리라고 기대 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이 예언들의 몇 퍼센트는 맞고 몇 퍼센트는 틀리는 것으로 맞는 예언과 틀리는 예언들을 혼합하여서 천주교도들이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아니겠는가? 마땅히 깊이 심사숙고할 문제가 아닐까 생각된다.

3. 마리아 사제운동의 목적



이제 필자가 본 마리아 사제운동의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여 보도록 하겠다

(1) 내부 결속(단합)

필자가 보기에 이 운동의 목적은 천주교 내부의 극심한 분열 상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내부의 단합을 첫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1) 마리아 중심으로 단합하는 것(마리아 신심강화와 마리아숭배 강화)

먼저 천주교 내부의 분열을 막기 위하여 마리아를 중심하여서 단합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줄 안다, 마리아신심 강화라는 마리아 신앙과 숭배를 강화해서 천주교가 하나로 뭉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천주교를 완전히 마리아교로 정착시키려는 의도로 보일 수도 있을 줄 안다. 이 책의 머리말에서는 사제들이 이 책의 내용을 묵상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그들을 북돋아 주고, 무슨 일이나 마리아와 함께(With Mary), 마리아를 통해서(through Mary), 마리아 안에서(in Mary) 하도록 서서히 이끌어 간다."²⁵⁷)고 하고 있다. 이는 실제로 이 마리아의 사제시가 천주교를 마리아교화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줄 안다

2) 교황중심으로 단합하게 하는 것(교황과 일치, 천주교권 강

257) 같은 책, p. 머리말 (43).



화)

다음으로는 교황의 수위권을 중시하여서 사제들과 평신도들이 하나로 연합하여 천주교가 하나로 뭉치게 하려는 것이다. 베드로의 후계자이며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하는 교황에 대한 존대와 충성심을 유발하여서 불만불평을 잠재우고 단합하게 하고 있는 것 같다 사실 오늘날 천주교의 교황권은 과거 어느 때 보다는 더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이 사실은 천주교 내부의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며 실제로는 천주교가 보수와 진보로 양분되어서 혈전을 벌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현대 가톨릭의 위기 진단」 랄프 맥키너니 지음, 이재룡 옮김. 참고)

이러한 내분은 자세히 바라보면 천주교의 사활이 걸린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내분 가운데에서도 마리아는 보수적인 교황을 중심한 천주교의 일치와 단합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마리아가 자신 아래에서 교황을 중심으로 굳게 단합한 사제단을 통하여서 (진보측인) 교회 프리메이슨과 세계 프리메이슨 세력을 꺾고 승리를 거두게 되리라고 거듭 거듭 장담하고 있다.

(2) 천주교 내외의 모든 반대세력에 대하여 승리하는 것

마리아 사제운동의 두 번째 목적은 굳게 단결하여서 천주교 안팎의 적대세력을 물리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1) 내부의 반대세력에 대한 승리



천주교 보수 측에서 보면 진보세력이 위험한 세력이고 진보 측에서 보면 보수세력이 발전을 가로막는 방해세력 일 것이다. 진보세력에 대해서는 마리아의 사계시에서 교회프리메이슨으로 지목하고 경계하며 타도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쯤 교황청이 교회프리메이슨의 본거지가 되고 있으며 교황청 고위층들의 다수가 교회프리메이슨이며, 무엇보다 천주교가 교회프리메이슨의 차지(소유)가 되고 있다²⁵⁸⁾고 한말은 천주교가 사활이 걸린 최대의 위기상황에 처해있다는 말인 것이다. 지금 천주교는 적군과 아군을 구별할 수 없는 무서운 혼돈상태에 빠져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저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말인가? 마리아와 천사들과 마리아 사제단의 사제들과 묵주기도와 다락방기도로 물리칠 수 있을까? 그 결과가 매우 궁금하고 위험하게 보인다.

2) 외부의 반대세력에 대한 승리

이 마리아의 사 계시에 의하면 천주교 외부의 적대세력은 사탄적인 붉은 용(무신론 공산주의)과 검은 짐승(반천주교 비밀결사인 프리메이슨)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천주교는 아마 공산주의의 붕괴를 마리아와 천사들과 교황과 사제들과 묵주기도 등의 힘으로 성취된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고도의 정치적인 결탁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고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프리메이슨에 대한 승리이다. 천사들의 총사령관 마리아와 천사군단과 지상의 마리아 사제단과 모든 평신도까지 포함된 다락방 기도모임 등의 총력을 경주하여서 천주교 역사상 최대의 대적인 프리메이슨을 물리칠 수 있을까? 이것은 아마 천주교 역사상

258) 같은 책, pp. 787, 1060, 1093, 1186-1187, 1126.



최대의 위기이고 천주교의 사활이 걸린 지상최대의 결전이 될 것이다. 과연 가시적인 치열한 전투로 난타전이 전개될 것인지(?) 아니면 어이 없는 일방적인 굴복으로 막을 내릴 것인지 이도 매우 궁금하고 흥미진진한 게임이 될 것으로 예측 된다.

3) 숨겨진 목적(의도)에 대한 의혹

그런데 이 마리아 사제운동의 목적은 내외적으로 큰 대적을 맞아 침몰의 위기에 처한 천주교를 구하기 위한 최후의 시도라 할까? 그러나 이미 전 세계를 거의 장악하고 천주교의 중심지인 교황청과 기독교를 거의 장악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프리메이슨 세력에 대한 이러한 항거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프리메이슨 세력에 편승하여 이용당하면서도 역습을 기도하고 있는 교황청의 일부 세력이 더욱 막다른 골목(궁지)에 몰리게 하여 파멸되도록 유도하는 거짓 영의 숨은 역사는 아닐까?(계 17:1-7, 16-17 참고) 마치 아합왕 때의 참 선지자 미가야 한 사람에게 대항한 시드기야와 400여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경우와 같이, "거짓말하는 영"이 위장하고 들어가서 꾀는 것은 아닐까?(왕상 40:1-40 참고)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의 예레미야 한 사람을 제외한 많은 거짓선지자들이 거짓예언을 하여 유다가 처참하게 멸망당하게 한 것과 같은 경우가 되지는 않을까? (렘 23: 10-12, 16-17, 30-31, 27:8-10, 28:15-17, 29:21-22 등 참고)

만약의 하나 마리아 사제운동의 배후 영에게 이와 같은 숨은 목적이 있다면 실로 천주교에게는 치명타가 아닐 수 없다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위의 <성취되지 아니한 시한부 예언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운동의 배후영이 천주교도들을 혼란에 빠트릴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필자의 생각은 공연한 기우



(杞憂)가 되었으면 좋겠다.

모름지기 모든 천주교인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또 믿어서도 안 되는 잡다한 천주교의 전통들과 사 계시들을 경계하고 오직 유일한 참 계시인 신구약 성경(기독교의 66권으로 된 것)만을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기를 권면하고 싶다. 그 중에 특히 요한 계시록만 잘 연구하여 보아도 이러한 거짓영의 역사를 파악하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을 줄 안다. 무조건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진정한 진리를 아는 것만이 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될 것이다.

4. 마리아의 사 계시들의 결론

그동안 살펴본 마리아 사제단에 대한 마리아의 사계시들의 적은 일 부분에 대하여 요약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이 생각 할 수 있을 줄 안다.

첫째는 이 계시들의 일부분은 맞거나 비슷하게 맞는 것들도 있다 (참과 거짓이 혼합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는 그러나 많은 부분이 틀렸고 그 성취시기가 어긋난 것들도 있다.

셋째는 그 실현의 주체가 뒤 바뀐 것이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가 마지막 재림과 인류의 심판과 구원의 주인공이어야 하는데 엉뚱한 마리아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간혹 성경대로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기록한 곳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자기가 진리를 전한다고 기만하여서 따르게 함인 것 같이 보인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 승리의 주인공인 마



리아의 들러리나 장식품 정도로 등장 시키고 있다. 마리아는 마치 섭정대비와 같이 보이고 있다. 아무리 아니라고 교묘한 말로 변명할 지라도 이 사실은 결코 부인할 수 없을 줄 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예언들의 배후 영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냉정한 판단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지상에 와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거나 말하지 않는다는 성경의 원칙에 따라서 심사숙고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정말 마리아의 영의 사계시인가 아니면 마리아의 영으로 위장한 어떤 다른 영의 사계시는 아닐까? 모름지기 이와 같은 중대한 문제에 실수하지 않도록 심심한 고려를 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영의 말들을 사계시니 예언이니 하면서 옹호하고 있는 미혹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크게 경계하기를 부단히 힘써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천주교는 늦어지기 전에 일장춘몽 같은 긴 잠에서 깨어 나와 현실을 직시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과 주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만이 살 길임을 명심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마리아의 사 계시에 대한 마지막 경계와 유의사항

유대인들은 예언이 100퍼센트 맞는 자만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의 글을 영감된 성경으로 선정했다고 한다. 오늘날도 예언이 100퍼센트 맞지 않으면 큰 문제가 파생될 수 있을 것이다. 50퍼센트나 99퍼센트도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50퍼센트 정도가 틀린다고 해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심지어 99퍼센트가 적중한다고 해도 결정적인 1퍼센트만 틀려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예언은 그 예언이 성취되어야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말씀과 현실사회나 교회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고, 성경말씀과 사회현실이나 교회 상황과 일치하는 내용들은 관심을 가지고 유의하여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점을 유의하여서 이 마리아의 사계시도 조심하여 참고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볼 때에 이 마리아의 예언들 중에 일부는 맞을 것같이도 보이며 일부는 틀릴 것 같이 보인다. 맞는 말과 틀리는 말이 뒤 섞여서 천주교 신도들이 혼란에 빠져서 길을 잘 찾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술수가 아닐까 염려된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8:44)로서 사람들을 속이는 데에 능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시는 참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무엇보다 성경을 바르게 믿고 전하는 기독교회의 도움을 받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존 밀턴의 애도 시

오! 주여, 주님의 죽음 당한 성도들의 원한을 보수하소서.
그들의 뼈가 차가운 알프스산맥 위에 흩어졌나이다.
우리의 모든 조상들이 막대기와 돌을 섬길 때, 그들은 주님의
진리를 그토록 순결하게 변함없이 지켰나이다.
주님의 책에 그들의 신음을 꼭 기록해 주소서.
저들은 주님의 양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양떼들입니다.
주님의 양떼들이 피에 주린 피이드먼트(주: 서북부 이탈리아
지방)사람들에 의하여 피 흘리며 죽어가나이다.
아이를 가진 어머니도 돌에 맞아 쓰러지나이다.
그들의 울음소리가 골짜기와 하늘까지 울려 퍼집니다.
그 순교자들의 피와 재는 지금도 폭군들이 난무하는 온 이탈리아
땅에 씨가 되어 수백 배의 결실로 자랄 것입니다.
그 폭군들은 주님의 방침을 깨달은 후에 바벨론에 임할 재난과
함께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12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발더파 운동은 순수한 성경적이며 복음적인 신앙과 전도운동이었다. 그들의 신앙과 주장은 초대교회와 같았으며, 종교개혁자들과 거의 같았다. 천주교 당국은 처음에는 이들에게 관대하였다. 그러나 이운동이 자신들에게 점차 위협이 된다고 느낀 후



로는 법으로 금지하였다. ... 결국 종교재판이 시작되면서 수년 동안 피의 살육이 감행되었다. 수천 명이 잔인하게 고문을 당하고 죽었으며 그들의 고향은 황폐한 사막이 되었다. 그 뒤로도 무려 7세기 동안이나 무자비한 박해와 살육이 계속되어서 헤아릴 수 없이 무수한 성도들이 희생당하였다. 이들은 박해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운명을 지닌 선민 곧 알프스의 이스라엘로 간주하였다 그 박해는 마침내 크롬웰의 줄기찬 항의와 해 군력과 군사 행동을 통한 위협으로 종식되었다.(저자 주: 일시적으로)

당시의 박해는 올리버 크롬웰의 서기였던 존 밀턴의 14행시에 나타나 있다. 밀턴은 계시록 16장19절과 17장5절을 배경으로 이 시를 썼다.[259)

259) 서요한, 『중세교회사』, (서울 : 그리심, 2003), pp. 751-752.